

2016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고등교육·취업통계편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머리말

시시각각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생활하는 현대인에게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최근 데이터 및 증거 기반 정책의 수립, 집행 및 평가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정보 파악에서 나아가 정보들 간의 관계와 의미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일은 교육적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통계정보의 풍부한 수집과 다양한 분석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과 미래 사회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정책 입안자들과 연구자들에게 정확한 통계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는 교육통계 조사결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유·초·중등통계편’, ‘고등교육·취업통계편’, ‘평생교육통계편’으로 나누어 발간하여 각각의 교육단계 또는 기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자 하였다.

교육통계 분석자료집(고등교육·취업통계편)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을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으로 나누어 각 장을 구성하였고, 각 장은 학교, 학생, 교원, 학습 환경 및 여건 등에 대한 고등교육 현황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단순한 통계자료 제시 차원을 넘어,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각 통계 자료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기술하여 우리나라의 교육현황 및 여건에 대해 조망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 자료집이 우리나라 교육 현황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넓히고, 과학적 교육정책의 기획 및 수립에 이바지하며, 학술연구 활동 등 교육발전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집을 발간하는 과정에서 적극 지원해 주신 교육부 관계관 여러분과 본원 교육통계연구센터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6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김재환**

일러두기

I 분석자료집 개요

- 교육통계 분석자료집(고등교육·취업통계편)은 고등교육기관을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으로 나누어 각 장을 구성하였고, 각 장은 학교, 학생, 교원, 학습 환경 및 여건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함. 각 장은 여러 개의 지표로 구성되며, 자료에 근거한 현황 기술 및 분석, 그래프, 통계표의 순으로 제시하여 해당 주제에 대한 현황 파악과 이해가 용이하도록 구성함.

I 일러두기

- I 장의 전문대학은 전문대학과정에서 전문대학만을 대상으로 하며, 그 외 전문대학과정에 있는 학교의 정보는 개황에서 제시함.
- II 장의 대학은 대학과정에서 4년제 일반대학만을 대상으로 하며, 그 외 대학과정에 있는 학교의 정보는 개황에서 제시함.
- 시계열 자료는 1980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일부 확보가 어려운 자료의 경우에는 제시가 가능한 연도부터 수록함.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 및 교육통계연보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그 외 데이터를 활용한 경우 장표 하단에 출처를 표기함.
- 휴학, 중도탈락, 편입 등 학생 변동 상황과 관련된 자료들의 기준일은 조사년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3월 1일부터 차년도(조사년도) 2월 28일임.
- 고등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별 구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제시함.
- 학생수나 전임교원수와 같은 기본현황은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등의 7대 계열 구분을 따르나, 법률로 정한 교원법정정원을 통해 산출되는 전임교원확보율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한 5대 계열 구분(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을 따름.
-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각각 ‘사내대학’과 ‘원격대학’으로 축약하여 표기함.

목차

개 황		1
대한민국 학제		2
2016년도 학교급별 규모		3
2016년도 시도별 개황		4
학교수		4
학생수		5
교원수		6
직원수		7
연도별 개황		8
학교수		8
학생수		9
교원수		10
I. 전문대학		11
1. 학교		12
2. 학생		14
3. 교원		30
4. 학습 환경 및 여건		37
II. 대학		45
1. 학교		46
2. 학생		48
3. 교원		68
4. 학습 환경 및 여건		75
III. 대학원		83
1. 학교		84
2. 학생		86
3. 교원		108
관련조사 및 자료/참고문헌		115
관련조사 및 자료		116
참고문헌		118

표목차

013	표 I-1-1	연도별 설립별 학교수(1980~2016)
013	표 I-1-2	지역별 규모별 설립별 학교수(2016)
015	표 I-2-1	연도별 설립별 성별 학생수(1980~2016)
015	표 I-2-2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학생수(2016)
017	표 I-2-3	연도별 연령별 입학생수(2006~2016)
017	표 I-2-4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입학생수(2016)
017	표 I-2-5	학생유형별 설립별 성별 입학생수(2016)
019	표 I-2-6	연도별 설립별 성별 휴학생수 및 휴학률(1980~2015, 학년도 기준)
019	표 I-2-7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휴학생수 및 휴학률(2015, 학년도 기준)
021	표 I-2-8	연도별 설립별 성별 중도탈락자수 및 중도탈락률(1980~2015, 학년도 기준)
021	표 I-2-9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중도탈락자수 및 중도탈락률(2015, 학년도 기준)
023	표 I-2-10	연도별 설립별 성별 편입생수 및 편입률(1980~2015, 학년도 기준)
023	표 I-2-11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편입생수 및 편입률(2015, 학년도 기준)
025	표 I-2-12	연도별 설립별 성별 졸업자수(1985~2016)
025	표 I-2-13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졸업자수(2016)
027	표 I-2-14	연도별 설립별 성별 진학률(2011~2015)
027	표 I-2-15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진학률(2015)
029	표 I-2-16	연도별 설립별 성별 취업률(2011~2015)
029	표 I-2-17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취업률(2015)
033	표 I-3-1	연도별 설립별 성별 교원수(1990~2016)
034	표 I-3-2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전임교원수(2016)
034	표 I-3-3	연도별 설립별 외국인 교원수(2005~2016)
036	표 I-3-4	연도별 전임교원 학위 소지 현황(1980~2016)
036	표 I-3-5	지역별 계열별 전임교원 학위 소지 현황(2016)
038	표 I-4-1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확보율(2008~2016)
038	표 I-4-2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전임교원 확보율(2016)
040	표 I-4-3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2000~2016)
040	표 I-4-4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2016)
042	표 I-4-5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2000~2016)
042	표 I-4-6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2016)

044	표 I-4-7	연도별 설립별 학생 1인당 교지면적 및 교사면적(2000~2016)
044	표 I-4-8	지역별 설립별 학생 1인당 도서관 현황(2016)
047	표 II-1-1	연도별 설립별 학교수(1980~2016)
047	표 II-1-2	지역별 규모별 설립별 학교수(2016)
050	표 II-2-1	연도별 설립별 성별 학생수(1980~2016)
050	표 II-2-2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학생수(2016)
052	표 II-2-3	연도별 연령별 입학생수(2006~2016)
052	표 II-2-4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입학생수(2016)
052	표 II-2-5	학생유형별 설립별 성별 입학생수(2016)
054	표 II-2-6	연도별 설립별 성별 휴학생수 및 휴학률(1980~2015, 학년도 기준)
054	표 II-2-7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휴학생수 및 휴학률(2015, 학년도 기준)
056	표 II-2-8	연도별 설립별 성별 중도탈락자수 및 중도탈락률(1980~2015, 학년도 기준)
056	표 II-2-9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중도탈락자수 및 중도탈락률(2015, 학년도 기준)
058	표 II-2-10	연도별 설립별 성별 편입생수 및 편입률(1980~2015, 학년도 기준)
058	표 II-2-11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편입생수 및 편입률(2015, 학년도 기준)
060	표 II-2-12	연도별 설립별 성별 졸업자수(1980~2016)
060	표 II-2-13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졸업자수(2016)
062	표 II-2-14	연도별 설립별 성별 진학률(2011~2015)
062	표 II-2-15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진학률(2015)
064	표 II-2-16	연도별 설립별 성별 취업률(2011~2015)
064	표 II-2-17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취업률(2015)
066	표 II-2-18	연도별 설립별 성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2005~2016)
066	표 II-2-19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2016)
066	표 II-2-20	지역별 출신국가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2016)
067	표 II-2-21	연도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현황(2007~2016)
067	표 II-2-22	연도별 성별 국내 외국인 연수생수(2005~2016)
067	표 II-2-23	연도별 출신국가별 국내 외국인 연수생수(2005~2016)
071	표 II-3-1	연도별 설립별 성별 교원수(1990~2016)
072	표 II-3-2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전임교원수(2016)
072	표 II-3-3	연도별 설립별 외국인 교원수(2005~2016)

표목차

074	표 II-3-4	연도별 전임교원 학위 소지 현황(1980~2016)
074	표 II-3-5	지역별 계열별 전임교원 학위 소지 현황(2016)
076	표 II-4-1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확보율(2008~2016)
076	표 II-4-2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전임교원 확보율(2016)
078	표 II-4-3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2006~2016)
078	표 II-4-4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2016)
080	표 II-4-5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2000~2016)
080	표 II-4-6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2016)
082	표 II-4-7	연도별 설립별 학생 1인당 교지면적 및 교사면적(2000~2016)
082	표 II-4-8	지역별 설립별 학생 1인당 도서관 현황(2016)
085	표 III-1-1	연도별 설립별 유형별 대학원수(1980~2016)
085	표 III-1-2	연도별 유형별 대학원수(2000~2016)
088	표 III-2-1	연도별 과정별 성별 학생수(1980~2016)
088	표 III-2-2	지역별 계열별 과정별 성별 학생수(2016)
089	표 III-2-3	유형별 과정별 성별 학생수(2016)
091	표 III-2-4	지역별 계열별 과정별 성별 입학생수(2016)
091	표 III-2-5	유형별 과정별 성별 입학생수(2016)
092	표 III-2-6	연도별 과정별 연령별 입학생수(2006~2016)
092	표 III-2-7	계열별 과정별 연령별 입학생수(2016)
094	표 III-2-8	연도별 과정별 성별 휴학생수(2006~2015, 학년도 기준)
094	표 III-2-9	지역별 계열별 과정별 성별 휴학생수(2015, 학년도 기준)
095	표 III-2-10	지역별 계열별 과정별 성별 휴학률(2015, 학년도 기준)
097	표 III-2-11	연도별 과정별 성별 중도탈락자수(1980~2015, 학년도 기준)
097	표 III-2-12	지역별 계열별 과정별 성별 중도탈락자수(2015, 학년도 기준)
098	표 III-2-13	지역별 계열별 과정별 성별 중도탈락률(2015, 학년도 기준)
100	표 III-2-14	연도별 과정별 성별 학위취득자수(1980~2016)
100	표 III-2-15	지역별 계열별 과정별 성별 학위취득자수(2016)
103	표 III-2-16	연도별 과정별 성별 취업률(일반대학원, 2011~2015)
103	표 III-2-17	지역별 계열별 과정별 성별 취업률(일반대학원, 2015)
106	표 III-2-18	연도별 과정별 성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2005~2016)

TABLE CONTENTS

106	표 III-2-19	지역별 계열별 과정별 성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2016)
106	표 III-2-20	출신국가별 과정별 성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2016)
107	표 III-2-21	연도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현황(2007~2016)
107	표 III-2-22	연도별 성별 국내 외국인 연수생수(2012~2016)
107	표 III-2-23	연도별 출신국가별 국내 외국인 연수생수(2012~2016)
110	표 III-3-1	연도별 설립별 성별 교원수(2000~2016)
110	표 III-3-2	연도별 설립별 외국인 교원수(2005~2016)
111	표 III-3-3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교원수(2016)
113	표 III-3-4	연도별 전임교원 학위 소지 현황(2000~2016)
113	표 III-3-5	지역별 계열별 전임교원 학위 소지 현황(2016)
114	표 III-3-6	연도별 성별 신규임용 전임교원 박사학위 소지 현황(2006~2016)
114	표 III-3-7	지역별 계열별 성별 신규임용 전임교원 박사학위 소지 현황(2016)

그림목차

- 012 그림 I-1-1 연도별 설립별 학교수(1980~2016)
- 012 그림 I-1-2 지역별 학교 비율(2016)
- 014 그림 I-2-1 연도별 성별 학생수(1980~2016)
- 014 그림 I-2-2 계열별 성별 학생 비율(2016)
- 016 그림 I-2-3 연도별 연령별 입학생 비율(2006~2016)
- 016 그림 I-2-4 지역별 계열별 입학생수(2016)
- 018 그림 I-2-5 연도별 성별 휴학률(1980~2015, 학년도 기준)
- 018 그림 I-2-6 지역별 계열별 휴학률(2015, 학년도 기준)
- 020 그림 I-2-7 연도별 성별 중도탈락률(1980~2015, 학년도 기준)
- 020 그림 I-2-8 지역별 계열별 중도탈락률(2015, 학년도 기준)
- 022 그림 I-2-9 연도별 성별 편입률(1980~2015, 학년도 기준)
- 022 그림 I-2-10 지역별 계열별 편입률(2015, 학년도 기준)
- 024 그림 I-2-11 연도별 성별 졸업자수(1985~2016)
- 024 그림 I-2-12 지역별 계열별 졸업자수(2016)
- 026 그림 I-2-13 연도별 성별 진학률(2011~2015)
- 026 그림 I-2-14 지역별 계열별 진학률(2015)
- 028 그림 I-2-15 연도별 성별 취업률(2011~2015)
- 028 그림 I-2-16 지역별 계열별 취업률(2015)
- 030 그림 I-3-1 연도별 전임 및 비전임 교원수(1990~2016)
- 030 그림 I-3-2 연도별 외국인 교원수(2005~2016)
- 031 그림 I-3-3 연도별 성별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1990~2016)
- 031 그림 I-3-4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1990~2016)
- 032 그림 I-3-5 연도별 전임 및 비전임 여교원 비율(1990~2016)
- 032 그림 I-3-6 연도별 설립별 여교원 비율(1990~2016)
- 035 그림 I-3-7 연도별 전임교원 학위소지 현황(1980~2016)
- 035 그림 I-3-8 계열별 전임교원 학위소지 현황(2016)
- 037 그림 I-4-1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확보율(2008~2016)
- 037 그림 I-4-2 지역별 계열별 전임교원 확보율(2016)
- 039 그림 I-4-3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2000~2016)
- 039 그림 I-4-4 지역별 계열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2016)

FIGURE CONTENTS

041	그림 I-4-5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2000~2016)
041	그림 I-4-6	지역별 계열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2016)
043	그림 I-4-7	연도별 설립별 학생 1인당 교지면적(2000~2016)
043	그림 I-4-8	연도별 설립별 학생 1인당 교사면적(2000~2016)
046	그림 II-1-1	연도별 설립별 학교수(1980~2016)
046	그림 II-1-2	규모별 학교 비율(2016)
048	그림 II-2-1	연도별 설립별 학생수(1980~2016)
048	그림 II-2-2	연도별 성별 학생수(1980~2016)
049	그림 II-2-3	연도별 설립별 여학생 비율(1985~2016)
049	그림 II-2-4	계열별 성별 학생 비율(2016)
051	그림 II-2-5	연도별 연령별 입학생 비율(2006~2016)
051	그림 II-2-6	지역별 계열별 입학생수(2016)
053	그림 II-2-7	연도별 성별 휴학률(1980~2015, 학년도 기준)
053	그림 II-2-8	지역별 계열별 휴학률(2015, 학년도 기준)
055	그림 II-2-9	연도별 성별 중도탈락률(1980~2015, 학년도 기준)
055	그림 II-2-10	지역별 계열별 중도탈락률(2015, 학년도 기준)
057	그림 II-2-11	연도별 성별 편입률(1980~2015, 학년도 기준)
057	그림 II-2-12	지역별 계열별 편입률(2015, 학년도 기준)
059	그림 II-2-13	연도별 성별 졸업자수(1980~2016)
059	그림 II-2-14	지역별 계열별 졸업자수(2016)
061	그림 II-2-15	연도별 성별 진학률(2011~2015)
061	그림 II-2-16	지역별 계열별 진학률(2015)
063	그림 II-2-17	연도별 성별 취업률(2011~2015)
063	그림 II-2-18	지역별 계열별 취업률(2015)
065	그림 II-2-19	연도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수(2005~2016)
065	그림 II-2-20	출신국가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비율(2016)
068	그림 II-3-1	연도별 전임 및 비전임 교원수(1990~2016)
068	그림 II-3-2	연도별 외국인 교원수(2005~2016)
069	그림 II-3-3	연도별 성별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1990~2016)
069	그림 II-3-4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1990~2016)

그림목차

- 070 그림 II-3-5 연도별 전임 및 비전임 비율(1990~2016)
- 070 그림 II-3-6 연도별 설립별 여교원 비율(1990~2016)
- 073 그림 II-3-7 연도별 전임교원 학위소지 현황(1980~2016)
- 073 그림 II-3-8 계열별 전임교원 학위소지 현황(2016)
- 075 그림 II-4-1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확보율(2008~2016)
- 075 그림 II-4-2 지역별 계열별 전임교원 확보율(2016)
- 077 그림 II-4-3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2006~2016)
- 077 그림 II-4-4 지역별 계열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2016)
- 079 그림 II-4-5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2000~2016)
- 079 그림 II-4-6 지역별 계열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2016)
- 081 그림 II-4-7 연도별 설립별 학생 1인당 교지면적(2000~2016)
- 081 그림 II-4-8 연도별 설립별 학생 1인당 교사면적(2000~2016)
- 084 그림 III-1-1 연도별 설립별 대학원수(1980~2016)
- 084 그림 III-1-2 연도별 유형별 대학원수(2000~2016)
- 086 그림 III-2-1 연도별 과정별 학생수(1980~2016)
- 086 그림 III-2-2 연도별 과정별 여학생 비율(1980~2016)
- 087 그림 III-2-3 계열별 성별 학생비율(석사과정, 2016)
- 087 그림 III-2-4 계열별 성별 학생비율(박사과정, 2016)
- 090 그림 III-2-5 계열별 성별 입학생 비율(석사과정, 2016)
- 090 그림 III-2-6 계열별 성별 입학생 비율(박사과정, 2016)
- 093 그림 III-2-7 과정별 성별 휴학률(2015, 학년도 기준)
- 093 그림 III-2-8 계열별 과정별 휴학률(2015, 학년도 기준)
- 096 그림 III-2-9 연도별 과정별 중도탈락률(1980~2015, 학년도 기준)
- 096 그림 III-2-10 계열별 과정별 중도탈락률(2015, 학년도 기준)
- 099 그림 III-2-11 연도별 성별 석사학위 취득자수(2000~2016)
- 099 그림 III-2-12 연도별 성별 박사학위 취득자수(2000~2016)
- 101 그림 III-2-13 연도별 성별 석사 취업률(2012~2015)
- 101 그림 III-2-14 연도별 성별 박사 취업률(2012~2015)
- 102 그림 III-2-15 지역별 계열별 석사 취업률(2015)
- 102 그림 III-2-16 지역별 계열별 박사 취업률(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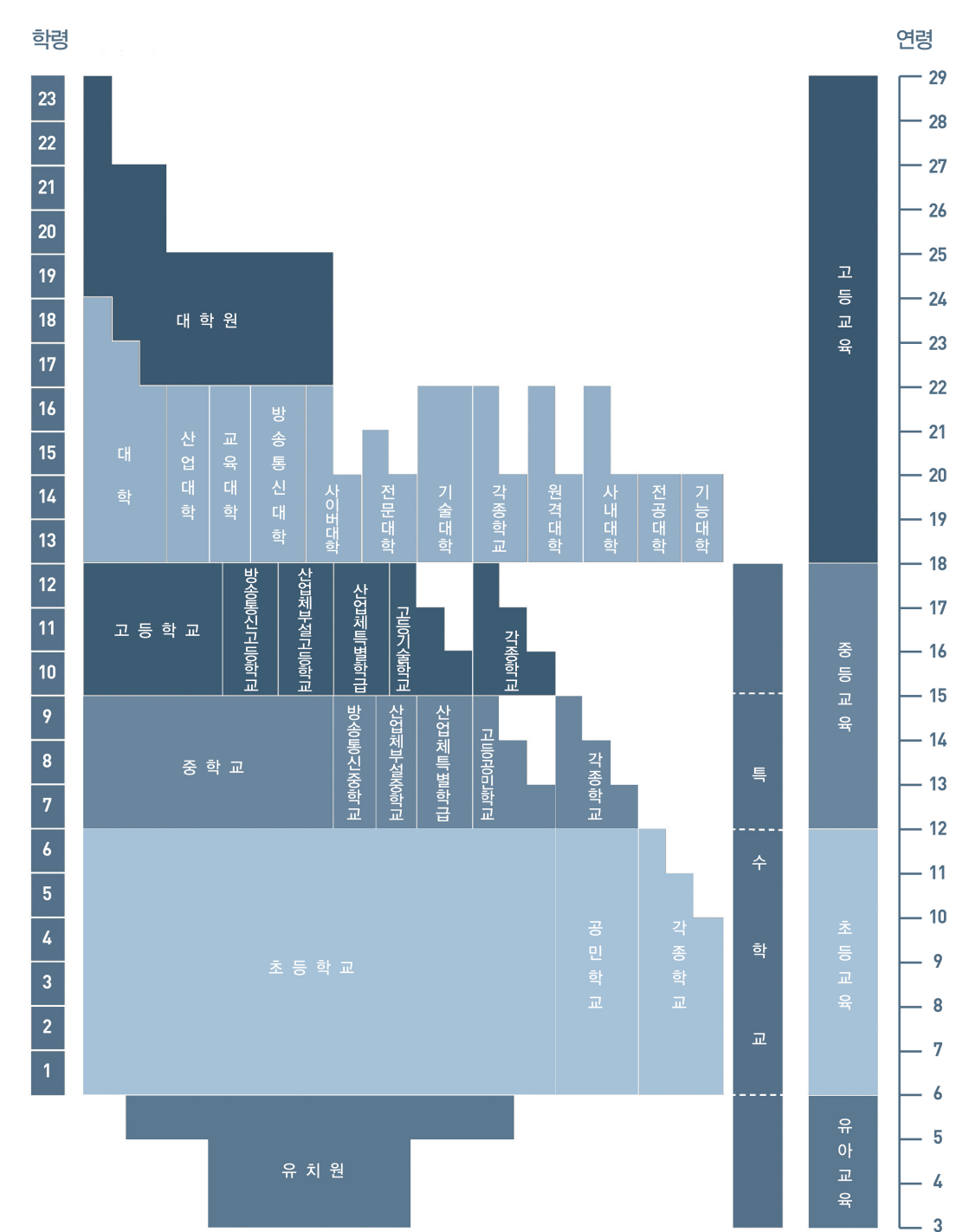
FIGURE CONTENTS

- 104 그림 III-2-17 연도별 성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수(석사과정, 2005~2016)
- 104 그림 III-2-18 연도별 성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수(박사과정, 2005~2016)
- 105 그림 III-2-19 지역별 계열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수(석사과정, 2016)
- 105 그림 III-2-20 지역별 계열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수(박사과정, 2016)
- 105 그림 III-2-21 출신국가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연수생 현황(2016)
- 108 그림 III-3-1 연도별 전임 및 비전임 교원수(2000~2016)
- 108 그림 III-3-2 연도별 전임 및 비전임 여교원 비율(2000~2016)
- 109 그림 III-3-3 연도별 성별 전임교원대비 비전임교원(2000~2016)
- 109 그림 III-3-4 연도별 전임 및 비전임 외국인 교원수(2000~2016)
- 112 그림 III-3-5 연도별 전임교원 학위소지 현황(2000~2016)
- 112 그림 III-3-6 계열별 전임교원 학위소지 현황(2016)

개황

대한민국 학제
2016년도 학교급별 규모
2016년도 시도별 개황
연도별 개황

대한민국 학제



▶ 2016년도 학교급별 규모

(단위: 개, 명)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전체	국립	공립	사립	전체	국립	공립	사립	전체	국립	공립	사립	
전체		432	50	8	374	3,516,607	791,044	27,640	2,697,923	90,371	19,576	648	70,147	
전문 대학 과정	소계	160	2	7	151	746,269	2,167	11,711	732,391	14,019	90	229	13,700	
	전문대학	138	2	7	129	697,214	2,167	11,711	683,336	12,854	90	229	12,535	
	기술대학	—	—	—	—	1	—	—	1	—	—	—	—	
	각종학교	—	—	—	—	—	—	—	—	—	—	—	—	
	원격대학	1	—	—	1	2,153	—	—	2,153	15	—	—	15	
	사이버대학	2	—	—	2	5,561	—	—	5,561	38	—	—	38	
	사내대학	5	—	—	5	445	—	—	445	3	—	—	3	
	기능대학	11	—	—	11	28,956	—	—	28,956	863	—	—	863	
	전공대학	3	—	—	3	11,939	—	—	11,939	246	—	—	246	
대학 과정	소계	226	46	1	179	2,437,570	680,553	12,974	1,744,043	67,388	16,397	370	50,621	
	일반대학	189	34	1	154	2,084,807	467,761	12,974	1,604,072	65,300	15,268	370	49,662	
	교육대학	10	10	—	—	15,903	15,903	—	—	844	844	—	—	
	산업대학	2	—	—	2	33,245	9,625	—	23,620	371	—	—	371	
	기술대학	1	—	—	1	97	—	—	97	—	—	—	—	
	방송통신대학	1	1	—	—	184,074	184,074	—	—	153	153	—	—	
	각종학교	2	1	—	1	3,544	3,190	—	354	148	132	—	16	
	원격대학	1	—	—	1	1,071	—	—	1,071	10	—	—	10	
	사이버대학	17	—	—	17	114,496	—	—	114,496	561	—	—	561	
	사내대학	3	—	—	3	333	—	—	333	1	—	—	1	
대학원 과정	소계	46	2	—	44	332,768	108,324	2,955	221,489	8,964	3,089	49	5,826	
	대학원 대학	소계	46	2	—	44	9,777	355	—	9,422	1,448	72	—	1,376
		일반대학원	1	1	—	—	284	284	—	—	52	52	—	—
		전문대학원	38	—	—	38	8,568	—	—	8,568	1,297	—	—	1,297
		특수대학원	7	1	—	6	925	71	—	854	99	20	—	79
	대학 부설 대학원	소계	[1,149]	[233]	[9]	[907]	322,991	107,969	2,955	212,067	7,516	3,017	49	4,450
		일반대학원	[183]	[35]	[1]	[147]	154,598	58,849	1,151	94,598	1,700	675	—	1,025
		전문대학원	[168]	[58]	[3]	[107]	37,465	15,889	344	21,232	4,904	2,309	40	2,555
		특수대학원	[798]	[140]	[5]	[653]	130,928	33,231	1,460	96,237	912	33	9	870

주: 1) 분교수는 학교수에서 제외됨.

2) 대학부설 대학원은 학교수에서 제외됨.

3) 기술대학은 한 개의 대학에서 전문대학과정과 대학과정을 함께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수는 대학과정에 포함됨.

4) 교원수에는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포함됨.

5) 기술대학에는 전임교원이 없음.

▶ 2016년도 시도별 개황

학교수

(단위: 개)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전문 대학 과정	전체	432	89	24	14	10	18	20	6	3
	소계	160	14	9	10	4	7	5	3	1
	전문대학	138	9	9	7	3	6	4	2	1
	기술대학	-	-	-	-	-	-	-	-	-
	각종학교	-	-	-	-	-	-	-	-	-
	원격대학	1	-	-	-	-	-	-	-	-
	사이버대학	2	-	-	1	-	-	-	-	-
	사내대학	5	1	-	-	-	-	-	1	-
	기능대학	11	1	-	2	1	1	1	-	-
대학 과정	전공대학	3	3	-	-	-	-	-	-	-
	소계	226	53	15	4	4	11	13	2	1
	일반대학	189	38	12	3	3	10	11	2	1
	교육대학	10	1	1	1	1	1	-	-	-
	산업대학	2	-	-	-	-	-	-	-	-
	기술대학	1	1	-	-	-	-	-	-	-
	방송통신대학	1	1	-	-	-	-	-	-	-
	각종학교	2	1	-	-	-	-	-	-	-
	원격대학	1	-	-	-	-	-	-	-	-
대학원 과정	사이버대학	17	10	2	-	-	-	1	-	-
	사내대학	3	1	-	-	-	-	1	-	-
	소계	46	22	-	-	2	-	2	1	1
	대학원	소계	46	22	-	-	2	2	1	1
	대학원	일반대학원	1	-	-	-	-	-	-	-
	대학원	전문대학원	38	17	-	-	2	-	1	1
	대학원	특수대학원	7	5	-	-	-	-	-	-
	대학	소계	[1,149]	[379]	[76]	[33]	[23]	[44]	[64]	[10]
	대학	일반대학원	[183]	[41]	[13]	[3]	[4]	[9]	[12]	[2]
대학원 과정	대학	전문대학원	[168]	[86]	[7]	[3]	[6]	[7]	[7]	[2]
	대학원	특수대학원	[798]	[252]	[56]	[27]	[13]	[28]	[45]	[6]
	대학원	특수대학원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문 대학 과정	전체	78	19	17	25	22	19	39	25	4
	소계	33	10	5	7	9	9	18	14	2
	전문대학	31	9	5	6	9	9	16	10	2
	기술대학	-	-	-	-	-	-	-	-	-
	각종학교	-	-	-	-	-	-	-	-	-
	원격대학	1	-	-	-	-	-	-	-	-
	사이버대학	-	-	-	-	-	-	1	-	-
	사내대학	-	-	-	-	-	-	1	2	-
	기능대학	1	1	-	1	-	-	-	2	-
대학 과정	전공대학	-	-	-	-	-	-	-	-	-
	소계	31	9	12	16	12	10	20	11	2
	일반대학	29	8	10	13	9	10	18	10	2
	교육대학	-	1	1	1	1	-	-	1	-
	산업대학	-	-	-	1	1	-	-	-	-
	기술대학	-	-	-	-	-	-	-	-	-
	방송통신대학	-	-	-	-	-	-	-	-	-
	각종학교	-	-	1	-	-	-	-	-	-
	원격대학	-	-	-	-	-	-	1	-	-
대학원 과정	사이버대학	1	-	-	1	1	-	1	-	-
	사내대학	1	-	-	-	-	-	-	-	-
	소계	14	-	-	2	1	-	1	-	-
	대학원	소계	14	-	-	2	1	-	-	-
	대학원	일반대학원	1	-	-	-	-	-	-	-
	대학원	전문대학원	11	-	-	2	1	-	1	-
	대학원	특수대학원	2	-	-	-	-	-	-	-
	대학	소계	[160]	[42]	[41]	[56]	[53]	[25]	[78]	[43]
	대학	일반대학원	[26]	[7]	[8]	[13]	[8]	[8]	[16]	[8]
대학원 과정	대학	전문대학원	[15]	[5]	[4]	[6]	[6]	[0]	[7]	[4]
	대학원	특수대학원	[119]	[30]	[29]	[37]	[39]	[17]	[55]	[31]
	대학원	특수대학원								

주: 3쪽 하단 주 1)~3) 참조.

학생수

(단위: 명)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전체		3,516,607	1,003,227	285,218	142,427	81,587	129,239	174,091	39,824	26,162
전문 대학 과정	소계	746,269	73,648	55,250	62,024	27,136	27,282	31,389	12,900	4,998
	전문대학	697,214	58,389	53,553	56,006	23,408	25,912	29,615	11,346	4,998
	기술대학	1	1	-	-	-	-	-	-	-
	각종학교	-	-	-	-	-	-	-	-	-
	원격대학	2,153	-	-	-	-	-	-	-	-
	사이버대학	5,561	-	-	3,767	-	-	-	-	-
	사내대학	445	50	-	-	-	-	-	117	-
	기능대학	28,956	3,269	1,697	2,251	3,728	1,370	1,774	1,437	-
대학 과정	전공대학	11,939	11,939	-	-	-	-	-	-	-
	소계	2,437,570	783,119	209,254	67,530	46,615	87,712	121,102	23,194	19,249
	일반대학	2,084,807	498,944	203,419	65,812	45,283	86,280	114,956	23,194	19,249
	교육대학	15,903	1,605	1,607	1,718	1,332	1,432	-	-	-
	산업대학	33,245	3,752	-	-	-	-	3,224	-	-
	기술대학	97	97	-	-	-	-	-	-	-
	방송통신대학	184,074	184,074	-	-	-	-	-	-	-
	각종학교	3,544	3,190	-	-	-	-	-	-	-
대학원 과정	원격대학	1,071	-	-	-	-	-	-	-	-
	사이버대학	114,496	91,333	4,228	-	-	-	2,801	-	-
	사내대학	333	124	-	-	-	-	121	-	-
	소계	332,768	146,460	20,714	12,873	7,836	14,245	21,600	3,730	1,915
	대학원 대학	소계	9,777	4,271	-	330	-	1,443	105	778
		일반대학원	284	-	-	-	-	-	-	-
		전문대학원	8,568	3,464	-	330	-	1,443	105	778
		특수대학원	925	807	-	-	-	-	-	-
	대학 부설 대학원	소계	322,991	142,189	20,714	12,873	7,506	14,245	3,625	1,137
		일반대학원	154,598	66,904	11,099	5,875	2,765	7,402	13,581	2,516
		전문대학원	37,465	21,583	1,154	1,193	2,798	2,092	1,190	60
		특수대학원	130,928	53,702	8,461	5,805	1,943	4,751	5,386	384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501,784	140,789	142,052	220,022	143,743	83,048	233,801	136,111	33,482
전문 대학 과정	소계	219,354	25,153	24,426	27,853	26,671	29,185	48,782	37,757	12,461
	전문대학	214,163	24,409	23,084	25,806	25,639	28,598	45,844	34,000	12,444
	기술대학	-	-	-	-	-	-	-	-	-
	각종학교	-	-	-	-	-	-	-	-	-
	원격대학	2,153	-	-	-	-	-	-	-	-
	사이버대학	-	-	-	-	-	-	1,794	-	-
	사내대학	-	-	-	-	-	39	46	193	-
	기능대학	3,038	744	1,342	2,047	1,032	548	1,098	3,564	17
대학 과정	전공대학	-	-	-	-	-	-	-	-	-
	소계	250,355	108,199	106,408	179,444	106,742	50,569	171,652	88,471	17,955
	일반대학	241,723	106,774	104,706	162,965	92,180	50,112	164,760	86,495	17,955
	교육대학	1,360	1,425	1,267	1,555	1,221	-	-	1,381	-
	산업대학	4,009	-	81	12,395	7,792	457	940	595	-
	기술대학	-	-	-	-	-	-	-	-	-
	방송통신대학	-	-	-	-	-	-	-	-	-
	각종학교	-	-	354	-	-	-	-	-	-
대학원 과정	원격대학	-	-	-	-	-	-	1,071	-	-
	사이버대학	3,175	-	-	2,529	5,549	-	4,881	-	-
	사내대학	88	-	-	-	-	-	-	-	-
	소계	32,075	7,437	11,218	12,725	10,330	3,294	13,367	9,883	3,066
	대학원 대학	소계	2,402	-	286	80	-	82	-	-
		일반대학원	284	-	-	-	-	-	-	-
		전문대학원	2,000	-	286	80	-	82	-	-
		특수대학원	118	-	-	-	-	-	-	-
	대학 부설 대학원	소계	29,673	7,437	11,218	12,439	10,250	13,285	9,883	3,066
		일반대학원	10,855	3,741	4,950	4,870	5,025	7,225	4,012	1,195
		전문대학원	1,740	444	745	464	1,142	-	807	1,614
		특수대학원	17,078	3,252	5,523	7,105	4,083	1,464	4,257	1,432

개황

I. 전문대학

II. 대학

III. 대학원

관련조사 및 자료/참고문헌

교원수

(단위: 명)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전체		90,371	23,692	7,226	3,414	2,231	3,700	5,535	1,637	647	
전문 대학 과정	소계	14,019	1,443	912	1,087	497	521	575	249	103	
	전문대학	12,854	1,100	873	978	396	487	521	212	103	
	기술대학	—	—	—	—	—	—	—	—	—	
	각종학교	—	—	—	—	—	—	—	—	—	
	원격대학	15	—	—	—	—	—	—	—	—	
	사이버대학	38	—	—	27	—	—	—	—	—	
	사내대학	3	—	—	—	—	—	—	—	—	
	기능대학	863	97	39	82	101	34	54	37	—	
전공대학	246	246	—	—	—	—	—	—	—		
대학 과정	소계	67,388	18,833	6,064	1,896	1,256	2,897	3,706	1,340	463	
	일반대학	65,300	18,022	5,950	1,804	1,123	2,817	3,690	1,340	463	
	교육대학	844	97	82	92	133	80	—	—	—	
	산업대학	371	—	—	—	—	—	—	—	—	
	기술대학	—	—	—	—	—	—	—	—	—	
	방송통신대학	153	153	—	—	—	—	—	—	—	
	각종학교	148	132	—	—	—	—	—	—	—	
	원격대학	10	—	—	—	—	—	—	—	—	
대학원 과정	사이버대학	561	429	32	—	—	—	15	—	—	
	사내대학	1	—	—	—	—	—	1	—	—	
	소계	8,964	3,416	250	431	478	282	1,254	48	81	
	대학원 대학	소계	1,448	280	—	—	25	—	844	15	35
		일반대학원	52	—	—	—	—	—	—	—	—
		전문대학원	1,297	212	—	—	25	—	844	15	35
		특수대학원	99	68	—	—	—	—	—	—	—
	대학 부설 대학원	소계	7,516	3,136	250	431	453	282	410	33	46
일반대학원		1,700	962	75	85	12	163	146	—	41	
전문대학원		4,904	1,777	122	334	436	109	242	16	—	
특수대학원		912	397	53	12	5	10	22	17	5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문 대학 과정	전체	11,430	4,228	3,755	6,014	3,857	2,217	6,053	3,779	956	
	소계	3,887	462	487	541	584	650	1,083	708	230	
	전문대학	3,781	424	453	470	545	629	1,030	623	229	
	기술대학	—	—	—	—	—	—	—	—	—	
	각종학교	—	—	—	—	—	—	—	—	—	
	원격대학	15	—	—	—	—	—	—	—	—	
	사이버대학	—	—	—	—	—	—	11	—	—	
	사내대학	—	—	—	—	—	—	1	2	—	
대학 과정	기능대학	91	38	34	71	39	21	41	83	1	
	전공대학	—	—	—	—	—	—	—	—	—	
	소계	6,566	3,596	3,098	5,305	2,932	1,560	4,829	2,503	544	
	일반대학	6,549	3,522	3,012	5,020	2,660	1,560	4,792	2,432	544	
	교육대학	—	74	70	87	58	—	—	71	—	
	산업대학	—	—	—	183	188	—	—	—	—	
	기술대학	—	—	—	—	—	—	—	—	—	
	방송통신대학	—	—	—	—	—	—	—	—	—	
대학원 과정	각종학교	—	—	16	—	—	—	—	—	—	
	원격대학	—	—	—	—	—	—	10	—	—	
	사이버대학	17	—	—	15	26	—	27	—	—	
	사내대학	—	—	—	—	—	—	—	—	—	
	소계	977	170	170	168	341	7	141	568	182	
	대학원 대학	소계	214	—	—	17	10	—	8	—	—
		일반대학원	52	—	—	—	—	—	—	—	—
		전문대학원	131	—	—	17	10	—	8	—	—
특수대학원		31	—	—	—	—	—	—	—	—	
대학 부설 대학원	소계	763	170	170	151	331	7	133	568	182	
	일반대학원	98	—	1	44	20	5	38	8	2	
	전문대학원	412	167	159	50	293	—	67	547	173	
	특수대학원	253	3	10	57	18	2	28	13	7	

주: 1) 교원수에는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포함됨.

2) 기술대학에는 전임교원이 없음.

직원수

(단위: 명)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전체		35,450	9,570	2,722	1,274	865	1,450	1,809	461	242	
전문 대학 과정	소계	5,716	517	344	394	180	203	200	100	44	
	전문대학	5,287	402	335	360	165	186	186	91	44	
	기술대학	-	-	-	-	-	-	-	-	-	
	각종학교	-	-	-	-	-	-	-	-	-	
	원격대학	22	-	-	-	-	-	-	-	-	
	사이버대학	34	-	-	13	-	-	-	-	-	
	사내대학	3	3	-	-	-	-	-	-	-	
	기능대학	285	27	9	21	15	17	14	9	-	
전공대학	85	85	-	-	-	-	-	-	-		
대학 과정	소계	28,778	8,715	2,344	880	642	1,220	1,577	332	134	
	일반대학	26,784	7,551	2,254	816	545	1,161	1,563	332	134	
	교육대학	675	123	59	64	97	59	-	-	-	
	산업대학	130	-	-	-	-	-	-	-	-	
	기술대학	-	-	-	-	-	-	-	-	-	
	방송통신대학	510	510	-	-	-	-	-	-	-	
	각종학교	132	127	-	-	-	-	-	-	-	
	원격대학	2	-	-	-	-	-	-	-	-	
대학원 과정	사이버대학	542	404	31	-	-	-	11	-	-	
	사내대학	3	-	-	-	-	-	3	-	-	
	소계	956	338	34	-	43	27	32	29	64	
	대학원 대학	소계	407	184	-	-	14	-	5	29	64
		일반대학원	8	-	-	-	-	-	-	-	-
		전문대학원	360	155	-	-	14	-	5	29	64
		특수대학원	39	29	-	-	-	-	-	-	-
	대학 부설 대학원	소계	549	154	34	-	29	27	27	-	-
일반대학원		117	34	15	-	5	7	23	-	-	
전문대학원		301	82	7	-	22	15	-	-	-	
특수대학원		131	38	12	-	2	5	4	-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4,381	1,515	1,566	2,289	1,535	1,118	2,648	1,555	450	
전문 대학 과정	소계	1,511	264	226	285	276	260	540	297	75	
	전문대학	1,455	236	216	261	260	251	503	269	67	
	기술대학	-	-	-	-	-	-	-	-	-	
	각종학교	-	-	-	-	-	-	-	-	-	
	원격대학	22	-	-	-	-	-	-	-	-	
	사이버대학	-	-	-	-	-	-	21	-	-	
	사내대학	-	-	-	-	-	-	-	-	-	
	기능대학	34	28	10	24	16	9	16	28	8	
전공대학	-	-	-	-	-	-	-	-	-		
대학 과정	소계	2,724	1,249	1,332	1,800	1,251	857	2,096	1,250	375	
	일반대학	2,714	1,190	1,277	1,630	1,124	857	2,068	1,193	375	
	교육대학	-	59	50	59	48	-	-	57	-	
	산업대학	-	-	-	74	56	-	-	-	-	
	기술대학	-	-	-	-	-	-	-	-	-	
	방송통신대학	-	-	-	-	-	-	-	-	-	
	각종학교	-	-	5	-	-	-	-	-	-	
	원격대학	-	-	-	-	-	-	2	-	-	
사이버대학	10	-	-	37	23	-	26	-	-		
사내대학	-	-	-	-	-	-	-	-	-		
대학원 과정	소계	146	2	8	204	8	1	12	8	-	
	대학원 대학	소계	91	-	-	17	1	-	2	-	-
		일반대학원	8	-	-	-	-	-	-	-	-
		전문대학원	73	-	-	17	1	-	2	-	-
		특수대학원	10	-	-	-	-	-	-	-	-
	대학 부설 대학원	소계	55	2	8	187	7	1	10	8	-
		일반대학원	14	-	3	7	1	1	3	4	-
		전문대학원	11	2	-	159	-	-	3	-	-
특수대학원		30	-	5	21	6	-	4	4	-	

주: 기술대학에는 전담 직원이 없음.

개황

I. 전문대학

II. 대학

III. 대학원

관련조사 및 자료/참고문헌

▶ 연도별 개황

학교수

(단위: 개)

		1980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전체		237	265	327	372	419	412	408	405
전문 대학 과정	소계	128	117	149	159	161	155	152	151
	전문대학	128	117	145	158	158	152	148	147
	기술대학	-	-	-	-	-	-	-	-
	각종학교	-	-	4	1	1	1	1	1
	원격대학	-	-	-	-	2	2	2	2
	사이버대학	-	-	-	-	-	-	-	-
	사내대학	-	-	-	-	-	-	1	1
	기능대학	-	-	-	-	-	-	-	-
	전공대학	-	-	-	-	-	-	-	-
대학 과정	소계	109	148	178	196	224	221	220	217
	일반대학	85	107	131	161	173	175	175	174
	교육대학	11	11	11	11	11	11	11	10
	산업대학	-	6	17	19	18	14	14	13
	기술대학	-	-	-	1	1	1	1	1
	방송통신대학	1	1	1	1	1	1	1	1
	각종학교	12	23	18	3	4	3	2	2
	원격대학	-	-	-	-	15	15	15	15
	사이버대학	-	-	-	-	-	-	-	-
	사내대학	-	-	-	-	1	1	1	1
대학원 과정	소계	-	-	-	17	34	36	36	37
	대학원 대학	소계	-	-	17	34	36	36	37
		일반대학원	-	-	-	-	-	-	1
		전문대학원	-	-	10	32	32	31	31
		특수대학원	-	-	7	2	4	5	5
	대학 부설 대학원	소계	[121]	[298]	[421]	[1,017]	[1,015]	[1,006]	[1,018]
		일반대학원	[58]	[97]	[106]	[145]	[149]	[154]	[157]
		전문대학원	[-]	[201]	[315]	[44]	[98]	[106]	[117]
		특수대학원	[63]	[-]	[-]	[639]	[774]	[760]	[735]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407	411	434	432	433	433	433	432
대학 과정	소계	150	149	167	163	163	163	160	160
	전문대학	146	145	147	142	140	139	138	138
	기술대학	-	-	-	-	-	-	-	-
	각종학교	1	1	1	1	1	1	-	-
	원격대학	2	1	1	1	1	1	1	1
	사이버대학	-	1	2	2	2	2	2	2
	사내대학	1	1	1	2	4	5	5	5
	기능대학	-	-	12	12	12	12	11	11
대학 과정	전공대학	-	-	3	3	3	3	3	3
	소계	219	222	226	226	227	226	226	226
	일반대학	177	179	183	189	188	189	189	189
	교육대학	10	10	10	10	10	10	10	10
	산업대학	12	11	9	2	2	2	2	2
	기술대학	1	1	1	1	1	1	1	1
	방송통신대학	1	1	1	1	1	1	1	1
	각종학교	1	2	4	4	4	2	2	2
	원격대학	4	2	1	1	1	1	1	1
	사이버대학	12	15	16	17	17	17	17	17
대학원 과정	사내대학	1	1	1	1	3	3	3	3
	소계	38	40	41	43	43	44	47	46
	대학원 대학	소계	38	40	41	43	44	47	46
		일반대학원	1	1	1	1	1	1	1
		전문대학원	32	34	35	37	37	38	38
		특수대학원	5	5	5	5	6	8	7
	대학 부설 대학원	소계	[1,077]	[1,098]	[1,126]	[1,134]	[1,157]	[1,165]	[1,150]
		일반대학원	[162]	[166]	[177]	[181]	[183]	[181]	[182]
		전문대학원	[161]	[165]	[171]	[173]	[177]	[178]	[163]
		특수대학원	[754]	[767]	[778]	[780]	[797]	[806]	[805]

주: 1) 3쪽 하단 주 1)~3) 참조.

2) 개방대학이 산업대학으로 전환됨에 따라, 1990년, 1995년 산업대학에 개방대학 학교수를 계수함.

3) 전체 합계를 산정할 때, 대학원 과정은 대학원 대학 소계만을 포함함.

학생수

(단위: 명)

		1980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전문 대학 과정	전체	647,505	1,691,429	2,342,786	3,363,549	3,548,728	3,545,774	3,558,711	3,562,844
	소계	165,051	323,825	574,239	914,347	856,564	821,698	800,423	776,782
	전문대학	165,051	323,825	569,820	913,273	853,089	817,994	795,519	771,854
	기술대학	-	-	-	-	87	65	43	39
	각종학교	-	-	4,419	1,074	54	39	53	65
	원격대학	-	-	-	-	3,304	3,600	4,769	4,755
	사이버대학	-	-	-	-	-	-	-	-
	사내대학	-	-	-	-	30	-	39	69
	기능대학	-	-	-	-	-	-	-	-
대학 과정	전체	448,515	1,280,693	1,655,819	2,219,765	2,409,939	2,434,047	2,461,712	2,484,650
	소계	448,515	1,280,693	1,655,819	2,219,765	2,409,939	2,434,047	2,461,712	2,484,650
	일반대학	402,979	1,040,166	1,187,735	1,665,398	1,859,639	1,888,436	1,919,504	1,943,437
	교육대학	9,425	15,960	19,650	20,907	25,141	25,881	25,834	24,116
	산업대학	-	51,970	120,670	170,622	188,753	180,435	169,862	161,876
	기술대학	-	-	-	100	102	130	139	132
	방송통신대학	32,053	148,650	314,977	360,051	282,023	273,417	272,763	272,550
	각종학교	4,058	23,947	12,787	2,687	1,094	1,027	1,061	1,214
	원격대학	-	-	-	-	53,156	64,658	72,454	81,229
대학원 과정	전체	33,939	86,911	112,728	229,437	282,225	290,029	296,576	301,412
	소계	33,939	86,911	112,728	229,437	282,225	290,029	296,576	301,412
	대학원	-	-	-	2,164	3,601	4,832	5,361	6,009
	대학	-	-	-	-	-	-	-	-
	대학원	-	-	-	1,305	3,467	4,501	4,844	5,226
	대학원	-	-	-	859	134	331	517	578
	대학	-	-	-	-	-	-	-	-
	대학원	-	-	-	-	-	-	-	-
	대학원	-	-	-	-	-	-	-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문 대학 과정	전체	3,591,088	3,644,158	3,735,706	3,728,802	3,709,734	3,668,747	3,608,071	3,516,607
	소계	766,033	772,509	818,661	814,644	805,011	789,045	769,403	746,269
	전문대학	760,929	767,087	776,738	769,888	757,721	740,801	720,466	697,214
	기술대학	38	34	41	44	42	41	19	1
	각종학교	65	55	44	34	36	25	9	-
	원격대학	4,931	2,855	2,671	2,515	2,262	2,064	2,195	2,153
	사이버대학	-	2,399	3,577	4,784	5,250	5,602	5,604	5,561
	사내대학	70	79	83	129	251	400	474	445
	기능대학	-	-	25,817	26,505	27,868	28,528	28,873	28,956
대학 과정	전체	2,518,584	2,555,016	2,587,112	2,584,614	2,574,901	2,548,830	2,505,190	2,437,570
	소계	2,518,584	2,555,016	2,587,112	2,584,614	2,574,901	2,548,830	2,505,190	2,437,570
	일반대학	1,984,043	2,028,841	2,065,451	2,103,958	2,120,296	2,130,046	2,113,293	2,084,807
	교육대학	22,879	21,618	20,241	18,789	17,500	16,566	15,967	15,903
	산업대학	143,368	133,736	122,916	95,533	76,377	60,082	44,679	33,245
	기술대학	130	121	135	143	128	121	103	97
	방송통신대학	277,372	272,452	268,561	254,652	245,257	227,618	214,347	184,074
	각종학교	1,127	1,213	4,829	4,333	4,448	3,539	3,489	3,544
	원격대학	19,826	3,646	969	1,032	1,011	1,099	1,080	1,071
대학원 과정	전체	69,743	93,297	103,917	106,080	109,673	109,466	111,924	114,496
	소계	69,743	93,297	103,917	106,080	109,673	109,466	111,924	114,496
	사이버대학	96	92	93	94	211	293	308	333
	대학원	-	-	-	-	-	-	-	-
	대학원	-	-	-	-	-	-	-	-
	대학원	-	-	-	-	-	-	-	-
	대학원	-	-	-	-	-	-	-	-
	대학원	-	-	-	-	-	-	-	-
	대학원	-	-	-	-	-	-	-	-

주: 1) 전문대학의 1980년 학생수에는 초급대학 및 전문학교 값이 포함되어 있음.

2) 개방대학이 산업대학으로 전환됨에 따라, 1990년, 1995년 산업대학에 개방대학 학생수를 계수함.

3) 1995년 전체 학생수는 개방대학 과정(1,108명)을 제외하고 합산함.

교원수

(단위: 명)

		1980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전체		20,900	42,911	58,977	57,632	66,862	69,201	70,957	73,072
전문 대학 과정	소계	5,488	7,382	10,502	11,713	12,053	11,879	11,713	12,134
	전문대학	5,488	7,382	10,384	11,707	12,027	11,857	11,685	12,100
	기술대학	-	-	-	-	-	-	-	-
	각종학교	-	-	118	6	5	4	4	4
	원격대학	-	-	-	-	21	18	21	23
	사이버대학	-	-	-	-	-	-	-	-
	사내대학	-	-	-	-	-	-	3	7
	기능대학	-	-	-	-	-	-	-	-
대학 과정	소계	15,174	35,529	48,475	45,190	53,136	55,332	56,349	57,841
	일반대학	14,458	33,340	45,087	41,943	49,200	51,859	52,763	54,331
	교육대학	564	694	766	698	798	857	855	812
	산업대학	-	855	2,106	2,390	2,658	2,117	2,190	2,137
	기술대학	-	-	-	-	-	-	-	-
	방송통신대학	-	136	166	113	131	134	136	137
	각종학교	152	504	350	46	28	18	18	19
	원격대학	-	-	-	-	321	347	386	404
대학원 과정	소계	238	-	-	729	1,673	1,990	2,895	3,097
	대학원 대학	소계	-	-	194	379	403	479	561
		일반대학원	-	-	-	-	-	-	54
		전문대학원	-	-	123	365	376	438	455
	대학 부설 대학원	특수대학원	-	-	71	14	27	41	52
		소계	-	-	535	1,294	1,587	2,416	2,536
		일반대학원	-	-	-	-	92	271	265
		전문대학원	-	-	319	998	1,170	1,787	1,877
		특수대학원	-	-	216	296	325	358	394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75,469	77,697	82,190	84,900	86,656	88,163	90,215	90,371
전문 대학 과정	소계	12,487	12,573	14,028	14,215	14,143	14,090	14,165	14,019
	전문대학	12,451	12,530	12,891	13,078	13,015	12,920	12,991	12,854
	기술대학	-	-	-	-	-	-	-	-
	각종학교	3	7	7	7	7	11	-	-
	원격대학	25	12	15	16	16	15	17	15
	사이버대학	-	16	30	32	37	38	38	38
	사내대학	8	8	1	2	3	4	4	3
	기능대학	-	-	894	881	852	876	876	863
대학 과정	소계	57,977	59,381	61,646	63,996	65,077	66,396	67,499	67,388
	일반대학	54,518	55,972	58,104	61,993	63,042	64,378	65,423	65,300
	교육대학	805	813	820	842	835	834	849	844
	산업대학	2,073	1,942	1,869	286	316	335	357	371
	기술대학	-	-	-	-	-	-	-	-
	방송통신대학	140	139	148	149	145	150	154	153
	각종학교	7	23	180	184	171	141	145	148
	원격대학	104	30	9	8	10	10	10	10
대학원 과정	소계	5,005	5,743	6,516	6,689	7,436	7,677	8,551	8,964
	대학원 대학	소계	604	619	636	640	665	645	1,322
		일반대학원	52	57	56	57	60	57	55
		전문대학원	502	498	516	518	539	512	1,152
	대학 부설 대학원	특수대학원	50	64	64	65	66	76	115
		소계	4,401	5,124	5,880	6,049	6,771	7,032	7,229
		일반대학원	314	560	819	826	1,002	1,414	1,474
		전문대학원	3,649	4,009	4,222	4,394	5,006	4,878	4,884
		특수대학원	438	555	839	829	763	740	871

주: 1) 교원수에는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가 포함되었으며, 2013년부터 전임강사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후 전임강사를 제외하고 계수함.

2) 1980년 대학원 과정은 대학원 대학, 대학부설 대학원으로 구분되지 않고 전체 값만을 계수함.

3) 개방대학이 산업대학으로 전환됨에 따라, 1990년, 1995년 산업대학에 개방대학 교원수를 계수함.

4) 기술대학에는 전임교원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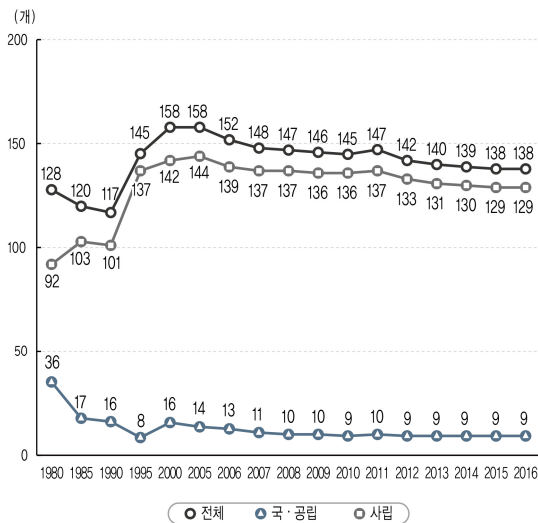
I. 전문대학

1. 학교
2. 학생
3. 교원
4. 학습 환경 및 여건

01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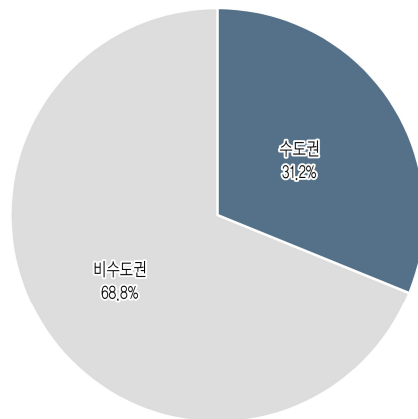
1980년 이후의 전문대학수 변동을 [그림 I-1-1]에서 살펴보면, 1980년 당시 128개교였던 전문대학은 1990년 117개교까지 감소했다가 이후 2000년 중반 158개교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1995년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으로 대학 설립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정부의 까다로운 심사와 평가를 통과해야 했지만,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본격 시행된 이후부터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자유롭게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면서 전문대학을 포함한 전체 대학수가 양적으로 크게 팽창되었다. 그러나 2004년 노무현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및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경영부실대학퇴출, 박근혜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으로 이어지는 대학 체질 개선의 영향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전문대학의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6년 전문대학수는 138개교로 1980년과 비교해 10개교 증가하였지만 전문대학수가 양적으로 가장 많았던 2005년 158개교에 비해서는 20개교 감소한 수준이다. 설립별로는 국공립의 경우 1980년 36개교(28.1%)가 운영되었지만, 2016년 현재는 9개교(6.5%)로 줄어든 반면, 사립의 경우 1980년 92개교(71.9%)에서 2016년 129개교(93.5%)로 증가했다.

[그림 I-1-2]에서 2016년 지역별 전문대학 비중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31.2%(43개교), 비수도권은 68.8%(95개교)로 나타났다. 설립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는 5,000명 미만의 전문대학이 27.9%(12개교), 5,000명 이상은 72.1%(31개교)로 5,000명 이상 규모의 전문대학 비중이 높았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5,000명 미만은 65.3%(62개교), 5,000명 이상은 34.7%(33개교)로 5,0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비중이 높았다.



■ 그림 I-1-1 ■ 연도별 설립별 학교수(1980~2016)

주: <표 I-1-1> 참조.



■ 그림 I-1-2 ■ 지역별 학교 비율(2016)

주: <표 I-1-2> 참조.

표 I-1-1 연도별 설립별 학교수(1980~2016)

(단위: 개)

	전체	국·공립	사립
1980	128	36	92
1985	120	17	103
1990	117	16	101
1995	145	8	137
2000	158	16	142
2005	158	14	144
2006	152	13	139
2007	148	11	137
2008	147	10	137
2009	146	10	136
2010	145	9	136
2011	147	10	137
2012	142	9	133
2013	140	9	131
2014	139	9	130
2015	138	9	129
2016	138	9	129

표 I-1-2 지역별 규모별 설립별 학교수(2016)

(단위: 개)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138	9	129
수도권	소계	43	1	42
	5,000명 미만	12	1	11
	5,000명 이상	31	-	31
비수도권	소계	95	8	87
	5,000명 미만	62	8	54
	5,000명 이상	33	-	33

주: 학생수 5,000명을 기준으로 학교규모를 구분함.

02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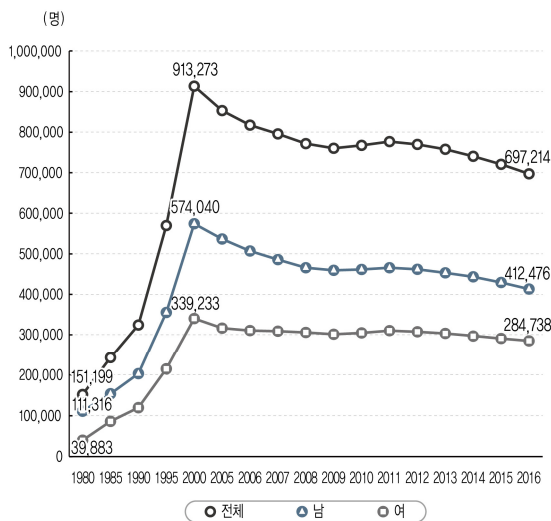
1) 학생수

[그림 I-2-1]에서 연도별 학생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문대 학생수는 학교수 변화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80년 151,199명에서 2000년 913,273명으로 6배 이상 급격히 증가한 전문대 학생수는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2016년 현재 697,214명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에 나타난 전문대 학생의 감소 현상은 학령인구 감소 인한 학생수 감소 뿐 아니라, 대학설립준칙주의와 정원 자율화로 인한 4년제 대학의 양적 팽창 및 이들 4년제 대학의 직업교육기능의 잠식 등 교육환경 변화 때문으로 보인다(한강희 외, 2010).

2016년 계열별 학생수를 <표 I-2-2>에서 살펴보면, 공학계열이 212,615명(30.5%)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계열(157,512명, 22.6%), 의약계열(122,290명, 17.5%), 예·체능계열(103,631명, 14.9%), 자연계열(50,732명, 7.3%), 교육계열(31,793명, 4.6%) 순이었으며, 인문계열이 18,641명(2.7%)으로 가장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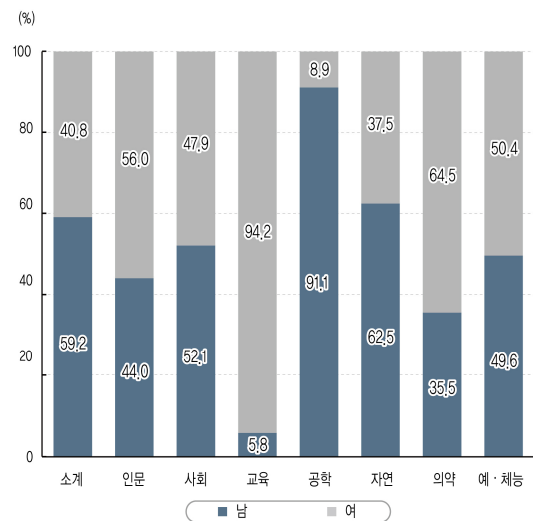
<표 I-2-1>을 통해 성별 학생수 변화를 살펴보면, 1980년 당시 26.4%에 불과했던 여학생 비율은 1985년 36.0%로 30%대를 넘어섰고, 2013년부터는 40%대의 여성 비율을 보였다. 2016년 현재 여학생 비율은 40.8%로 전체 전문대 학생 10명 중 4명 이상이 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계열별 여학생의 비율을 [그림 I-2-2]를 통해 살펴보면, 교육계열이 9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의약계열(64.5%), 인문계열(56.0%), 예·체능계열(50.4%), 사회계열(47.9%), 자연계열(37.5%)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학계열은 8.9%로 다른 계열에 비해 여학생의 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42.5%)의 전문대 여학생 비율이 비수도권(39.6%)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2-2> 참조).



■ 그림 I-2-1 연도별 성별 학생수(1980~2016)

주: <표 I-2-1> 참조.



■ 그림 I-2-2 계열별 성별 학생 비율(2016)

주: <표 I-2-2> 참조.

표 I-2-1 연도별 설립별 성별 학생수(1980~2016)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1980	151,199	111,316	39,883	22,422	17,857	4,565	128,777	93,459	35,318
1985	242,114	154,991	87,123	22,956	19,588	3,368	219,158	135,403	83,755
1990	323,825	204,480	119,345	26,959	22,113	4,846	296,866	182,367	114,499
1995	569,820	355,510	214,310	21,473	15,414	6,059	548,347	340,096	208,251
2000	913,273	574,040	339,233	37,331	24,822	12,509	875,942	549,218	326,724
2005	853,089	536,763	316,326	36,153	26,042	10,111	816,936	510,721	306,215
2006	817,994	507,280	310,714	33,553	24,261	9,292	784,441	483,019	301,422
2007	795,519	487,066	308,453	30,372	22,204	8,168	765,147	464,862	300,285
2008	771,854	466,153	305,701	26,702	19,531	7,171	745,152	446,622	298,530
2009	760,929	459,534	301,395	25,248	18,514	6,734	735,681	441,020	294,661
2010	767,087	462,241	304,846	21,473	15,801	5,672	745,614	446,440	299,174
2011	776,738	466,491	310,247	18,790	14,313	4,477	757,948	452,178	305,770
2012	769,888	462,538	307,350	16,792	12,782	4,010	753,096	449,756	303,340
2013	757,721	454,552	303,169	16,019	12,146	3,873	741,702	442,406	299,296
2014	740,801	443,849	296,952	15,341	11,655	3,686	725,460	432,194	293,266
2015	720,466	429,525	290,941	14,328	10,779	3,549	706,138	418,746	287,392
2016	697,214	412,476	284,738	13,878	10,335	3,543	683,336	402,141	281,195

표 I-2-2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학생수(2016)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697,214	412,476	284,738	13,878	10,335	3,543	683,336	402,141	281,195
수도권	소계	295,960	170,264	125,696	811	500	311	295,149	169,764	125,385
	인문	12,267	4,622	7,645	56	19	37	12,211	4,603	7,608
	사회	73,010	35,292	37,718	188	108	80	72,822	35,184	37,638
	교육	13,280	673	12,607	55	8	47	13,225	665	12,560
	공학	98,265	86,869	11,396	144	126	18	98,121	86,743	11,378
	자연	20,541	10,976	9,565	-	-	-	20,541	10,976	9,565
	의약	22,280	6,969	15,311	108	87	21	22,172	6,882	15,290
	예·체능	56,317	24,863	31,454	260	152	108	56,057	24,711	31,346
비수도권	소계	401,254	242,212	159,042	13,067	9,835	3,232	388,187	232,377	155,810
	인문	6,374	3,585	2,789	69	41	28	6,305	3,544	2,761
	사회	84,502	46,790	37,712	2,285	1,412	873	82,217	45,378	36,839
	교육	18,513	1,182	17,331	541	65	476	17,972	1,117	16,855
	공학	114,350	106,862	7,488	5,485	5,135	350	108,865	101,727	7,138
	자연	30,191	20,716	9,475	2,761	2,118	643	27,430	18,598	8,832
	의약	100,010	36,492	63,518	935	573	362	99,075	35,919	63,156
	예·체능	47,314	26,585	20,729	991	491	500	46,323	26,094	20,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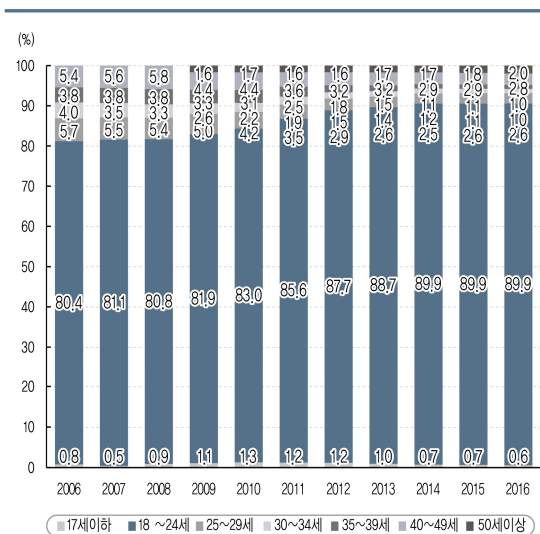
2) 입학

2006년 이후 연도별 입학생수 변동을 살펴보면 <표 I-2-3>과 같다. 2006년 254,433명이었던 전문대 입학생수는 2016년 현재 전년 대비 약 2.6%(5,658명) 줄어든 208,808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남학생은 98,260명, 여학생 110,548명으로 전체 입학생 중 52.9%가 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별로는 사립 입학생수가 204,397명으로 전체 입학생수의 전체 입학생수의 97.9%를 차지하였다(<표 I-2-4> 참조).

[그림 I-2-3]에서 연령별 입학생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6년부터 꾸준히 18~24세 입학생의 비중이 80% 이상으로 가장 많았는데, 2006년 80.4%(204,542명)에서 2016년 89.9%(187,794명)으로 증가해 18~24세의 입학생이 90%에 육박했다. 한편, 다른 연령의 입학생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25~29세 비중이 2006년 5.7%에서 2016년 2.6%로 가장 많이(약 3.1%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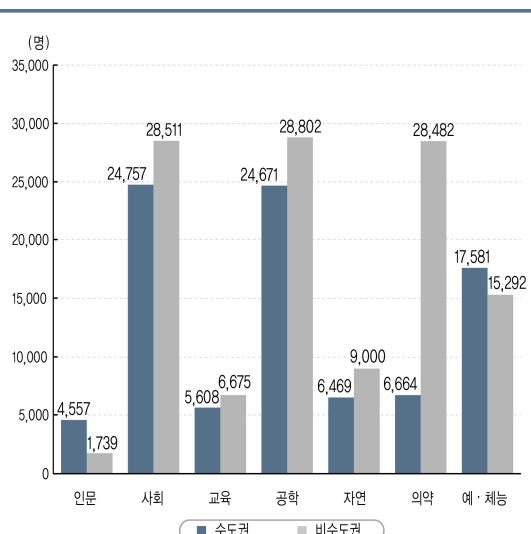
[그림 I-2-4], <표 I-2-4>를 통해 2016년 지역별 입학생수를 살펴보면, 수도권은 사회계열(27.4%), 공학계열(27.3%)이 20% 이상이었고, 예·체능계열(19.5%)이 그 다음을 이었다. 한편 의약계열(7.4%), 자연계열(7.2%), 교육계열(6.2%), 인문계열(5.0%)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은 공학계열(24.3%), 사회계열(24.1%) 뿐 아니라 의약계열(24.0%) 역시 2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예·체능계열(12.9%), 자연계열(7.6%), 교육계열(5.6%), 인문계열(1.5%)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유형별로 2016년 입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당해년도 고교졸업자가 70.1%로 가장 많았다. 대학입시를 2번 이상 치룬 재수자 비중 역시 23.1%로 전체 입학생 10명 중 평균 2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입학생 특성은 설립별이나 성별과 무관하게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표 I-2-5> 참조).



■ 그림 I-2-3 ■ 연도별 연령별 입학생 비율(2006~2016)

주: <표 I-2-3> 참조.



■ 그림 I-2-4 ■ 지역별 계열별 입학생수(2016)

주: <표 I-2-4> 참조.

표 I-2-3 연도별 연령별 입학생수(2006~2016)

(단위: 명)

	전체	17세 이하	18 ~ 24세	25 ~ 29세	30 ~ 34세	35 ~ 39세	40 ~ 49세	50세 이상
2006	254,433	2,037	204,542	14,421	10,155	9,557	13,721	-
2007	255,395	1,166	207,211	14,158	9,056	9,628	14,176	-
2008	249,291	2,346	201,317	13,414	8,105	9,559	14,550	-
2009	242,525	2,653	198,549	12,223	6,321	8,118	10,675	3,986
2010	249,144	3,268	206,832	10,390	5,598	7,841	10,947	4,268
2011	249,693	3,110	213,654	8,832	4,824	6,131	9,032	4,110
2012	238,952	2,846	209,538	6,985	3,678	4,213	7,754	3,938
2013	227,707	2,209	202,029	5,875	3,081	3,374	7,267	3,872
2014	221,750	1,649	199,260	5,501	2,644	2,454	6,484	3,758
2015	214,466	1,455	192,830	5,508	2,329	2,263	6,197	3,884
2016	208,808	1,228	187,794	5,516	2,136	2,120	5,929	4,085

주: 2006~2008년의 40~49세 범주에는 '40세 이상'의 값을 제시함. 당시에는 50세 이상의 범주를 별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지 않고, 해당 대상을 40세 이상에 포함시켜 함께 집계함.

표 I-2-4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입학생수(2016)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208,808	98,260	110,548	4,411	2,831	1,580	204,397	95,429	108,968
수도권	소계	90,307	39,827	50,480	262	136	126	90,045	39,691	50,354
	인문	4,557	1,204	3,353	20	6	14	4,537	1,198	3,339
	사회	24,757	8,659	16,098	61	33	28	24,696	8,626	16,070
	교육	5,608	234	5,374	22	5	17	5,586	229	5,357
	공학	24,671	20,002	4,669	38	30	8	24,633	19,972	4,661
	자연	6,469	2,706	3,763	-	-	-	6,469	2,706	3,763
	의약	6,664	1,631	5,033	30	24	6	6,634	1,607	5,027
	예·체능	17,581	5,391	12,190	91	38	53	17,490	5,353	12,137
비수도권	소계	118,501	58,433	60,068	4,149	2,695	1,454	114,352	55,738	58,614
	인문	1,739	705	1,034	30	14	16	1,709	691	1,018
	사회	28,511	11,979	16,532	818	411	407	27,693	11,568	16,125
	교육	6,675	427	6,248	204	24	180	6,471	403	6,068
	공학	28,802	25,620	3,182	1,494	1,318	176	27,308	24,302	3,006
	자연	9,000	5,010	3,990	901	611	290	8,099	4,399	3,700
	의약	28,482	8,128	20,354	315	168	147	28,167	7,960	20,207
	예·체능	15,292	6,564	8,728	387	149	238	14,905	6,415	8,490

표 I-2-5 학생유형별 설립별 성별 입학생수(2016)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208,808	98,260	110,548	4,411	2,831	1,580	204,397	95,429	108,968
당해년도 고교졸업자		146,398	70,079	76,319	3,108	1,996	1,112	143,290	68,083	75,207
재수자		48,287	22,622	25,665	1,084	690	394	47,203	21,932	25,271
검정고시합격		5,470	2,533	2,937	99	58	41	5,371	2,475	2,896
기타		8,653	3,026	5,627	120	87	33	8,533	2,939	5,5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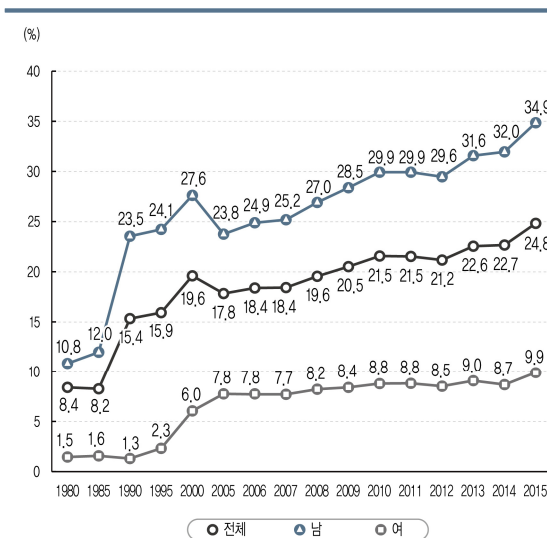
주: 재수자는 대학입시를 2번 이상 치른 학생을 일컫는 말로 3번이나 4번 그 이상의 대학입시를 치른 학생도 포함함.

3) 학생 변동 상황¹⁾

(1) 휴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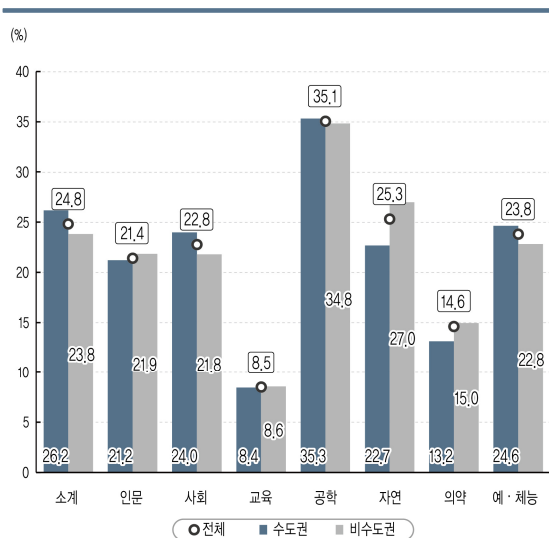
1980학년도 이후의 휴학을 살펴보면 [그림 1-2-5]와 같다. 1980학년도에 8.4%였던 전체 휴학률은 2009학년도에 20%대를 넘어섰으며, 2015학년도 현재 휴학률은 24.8%로 전년 대비 약 2.1%p 증가했다. 성별로 휴학률 변화 추이를 보면, 1980학년도 이후로 남학생의 휴학률이 여학생 휴학률보다 꾸준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군복무로 인한 휴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학생 휴학률은 1980학년도에 10.8%에서 2015학년도에는 34.9%로 약 24.1%p 증가하였고, 여학생 휴학률은 1980학년도에 1.5%에서 2015학년도에는 9.9%로 약 8.4%p 증가해 남녀간 휴학률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별 휴학률 변동을 <표 1-2-6>에서 살펴보면 1980학년도에 국·공립은 9.0% 사립은 8.3%이었다. 그러나 2015학년도에는 국·공립 26.9% 사립 24.8%로 1980학년도에 비해 모두 16%p 이상 증가하였다.

[그림 1-2-6]을 통해 지역별로 휴학률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26.2%, 비수도권은 23.8%로 약 2.4%p 차이가 났다. 계열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수도권은 공학계열이 35.3%로 가장 높았고, 예·체능계열(24.6%), 사회계열(24.0%), 자연계열(22.7%), 인문계열(21.2%)은 20%대였으며, 의약계열(13.2%), 교육계열(8.4%) 순이었다. 비수도권 역시 수도권과 비슷한 계열별 휴학률을 보였는데 공학계열이 34.8%로 가장 높았고, 자연계열(27.0%), 예·체능계열(22.8%), 인문계열(21.9%), 사회계열(21.8%)은 20%대였으며, 의약계열(15.0%), 교육계열(8.6%)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에서 비수도권의 휴학률이 수도권보다 더 높았으며, 지역별 차이는 자연계열이 약 4.3%p로 가장 컸고, 교육계열은 약 0.2%p로 가장 작았다.



■ 그림 1-2-5 ■ 연도별 성별 휴학률(1980~2015, 학년도 기준)

주: <표 1-2-6> 참조



■ 그림 1-2-6 ■ 지역별 계열별 휴학률(2015, 학년도 기준)

주: <표 1-2-7> 참조

1) 전문대학의 학생 변동 상황(휴학, 중도탈락, 편입)과 관련된 자료들의 기준일은 조사년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3월 1일부터 차년도(조사년도) 2월 28일임

표 I-2-6 연도별 설립별 성별 휴학생수 및 휴학률(1980~2015, 학년도 기준)

(단위: 명, %)

	전체						국·공립						사립					
	휴학생수			휴학률			휴학생수			휴학률			휴학생수			휴학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1980	12,656	12,074	582	8.4	10.8	1.5	2,011	1,954	57	9.0	10.9	1.2	10,645	10,120	525	8.3	10.8	1.5
1985	19,972	18,593	1,379	8.2	12.0	1.6	2,844	2,780	64	12.4	14.2	1.9	17,128	15,813	1,315	7.8	11.7	1.6
1990	49,709	48,116	1,593	15.4	23.5	1.3	4,473	4,381	92	16.6	19.8	1.9	45,236	43,735	1,501	15.2	24.0	1.3
1995	90,711	85,762	4,949	15.9	24.1	2.3	3,845	3,685	160	17.9	23.9	2.6	86,866	82,077	4,789	15.8	24.1	2.3
2000	179,016	158,535	20,481	19.6	27.6	6.0	7,051	6,482	569	18.9	26.1	4.5	171,965	152,053	19,912	19.6	27.7	6.1
2005	152,207	127,622	24,585	17.8	23.8	7.8	5,266	4,658	608	14.6	17.9	6.0	146,941	122,964	23,977	18.0	24.1	7.8
2006	150,433	126,268	24,165	18.4	24.9	7.8	7,785	6,986	799	23.2	28.8	8.6	142,648	119,282	23,366	18.2	24.7	7.8
2007	146,546	122,763	23,783	18.4	25.2	7.7	6,726	5,985	741	22.1	27.0	9.1	139,820	116,778	23,042	18.3	25.1	7.7
2008	150,912	125,824	25,088	19.6	27.0	8.2	6,451	5,825	626	24.2	29.8	8.7	144,461	119,999	24,462	19.4	26.9	8.2
2009	156,212	130,852	25,360	20.5	28.5	8.4	7,097	5,812	1,285	28.1	31.4	19.1	149,115	125,040	24,075	20.3	28.4	8.2
2010	165,175	138,373	26,802	21.5	29.9	8.8	5,547	4,677	870	25.8	29.6	15.3	159,628	133,696	25,932	21.4	29.9	8.7
2011	166,987	139,668	27,319	21.5	29.9	8.8	4,008	3,646	362	21.3	25.5	8.1	162,979	136,022	26,957	21.5	30.1	8.8
2012	163,084	136,900	26,184	21.2	29.6	8.5	3,821	3,457	364	22.8	27.0	9.1	159,263	133,443	25,820	21.1	29.7	8.5
2013	171,028	143,610	27,418	22.6	31.6	9.0	3,601	3,308	293	22.5	27.2	7.6	167,427	140,302	27,125	22.6	31.7	9.1
2014	167,876	142,038	25,838	22.7	32.0	8.7	3,692	3,358	334	24.1	28.8	9.1	164,184	138,680	25,504	22.6	32.1	8.7
2015	178,817	150,092	28,725	24.8	34.9	9.9	3,851	3,484	367	26.9	32.3	10.3	174,966	146,608	28,358	24.8	35.0	9.9

주: 1) 휴학률=(휴학생수/재적 학생수) × 100(이하 동일)

2) 휴학생수는 전년도 3월 1일부터 차년도(조사년도) 2월 28일까지의 기간 자료임(이하 동일).

표 I-2-7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휴학생수 및 휴학률(2015, 학년도 기준)

(단위: 명, %)

		전체						국·공립						사립					
		휴학생수			휴학률			휴학생수			휴학률			휴학생수			휴학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178,817	150,092	28,725	24.8	34.9	9.9	3,851	3,484	367	26.9	32.3	10.3	174,966	146,608	28,358	24.8	35.0	9.9
수도권	소계	79,660	64,599	15,061	26.2	36.7	11.8	172	149	23	18.8	23.5	8.2	79,488	64,450	15,038	26.2	36.7	11.8
	인문	2,782	1,666	1,116	21.2	34.2	13.5	8	5	3	13.6	25.0	7.7	2,774	1,661	1,113	21.2	34.3	13.6
	사회	18,042	13,393	4,649	24.0	36.3	12.1	38	31	7	20.9	27.0	10.4	18,004	13,362	4,642	24.0	36.4	12.1
	교육	1,093	194	899	8.4	31.9	7.3	4	—	4	7.5	—	8.2	1,089	194	895	8.4	32.1	7.3
	공학	35,308	33,808	1,500	35.3	38.0	13.7	46	46	—	15.9	16.7	—	35,262	33,762	1,500	35.4	38.0	13.7
	자연	4,635	3,717	918	22.7	34.5	9.5	—	—	—	—	—	—	4,635	3,717	918	22.7	34.5	9.5
	의약	2,894	2,030	864	13.2	29.1	5.7	29	26	3	28.2	32.1	13.6	2,865	2,004	861	13.1	29.1	5.7
	예·체능	14,906	9,791	5,115	24.6	36.2	15.3	47	41	6	20.6	29.3	6.8	14,859	9,750	5,109	24.6	36.2	15.3
비수도권	소계	99,157	85,493	13,664	23.8	33.7	8.4	3,679	3,335	344	27.4	32.9	10.5	95,478	82,158	13,320	23.7	33.8	8.3
	인문	1,414	989	425	21.9	27.8	14.6	10	9	1	13.0	17.3	4.0	1,404	980	424	22.0	28.0	14.7
	사회	19,873	16,105	3,768	21.8	31.8	9.3	556	462	94	23.3	30.3	10.9	19,317	15,643	3,674	21.8	31.9	9.3
	교육	1,593	250	1,343	8.6	22.6	7.7	72	13	59	13.5	24.1	12.3	1,521	237	1,284	8.4	22.5	7.5
	공학	41,283	40,429	854	34.8	36.4	11.5	2,024	1,989	35	35.8	37.5	10.3	39,259	38,440	819	34.8	36.3	11.5
	자연	8,677	7,577	1,100	27.0	34.4	10.8	590	517	73	21.0	24.2	10.9	8,087	7,060	1,027	27.6	35.5	10.8
	의약	14,785	11,379	3,406	15.0	31.3	5.4	221	193	28	26.1	37.0	8.6	14,564	11,186	3,378	14.9	31.2	5.4
	예·체능	11,532	8,764	2,768	22.8	30.5	12.7	206	152	54	18.5	27.8	9.5	11,326	8,612	2,714	22.9	30.6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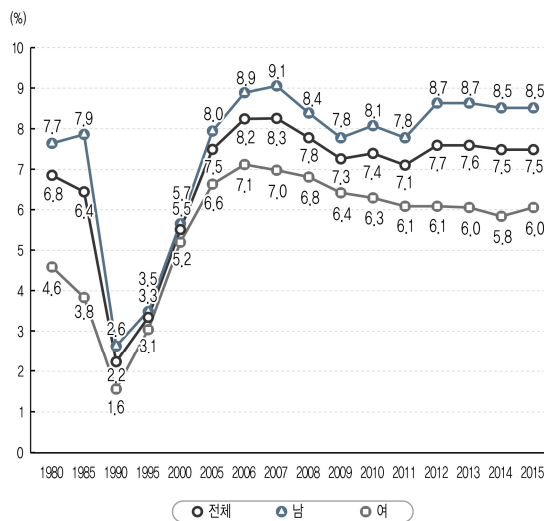
(2) 중도탈락

1980학년도 이후의 중도탈락률 변동을 살펴보면 [그림 1-2-7]과 같다. 1980학년도의 중도탈락률은 6.8%였으나, 1990학년도에 2.2%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07학년도에 8.3%로 정점을 찍었으며, 그 이후에는 매년 7%대의 중도탈락률을 보였다. 2015학년도 중도탈락률은 7.5%였으며, 성별로는 남학생 8.5%, 여학생 6.0%로 남학생의 중도탈락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8]을 통해 설립별로 중도탈락률 변동을 살펴보면, 국공립은 1980학년도에 4.9%에서 증감을 반복하다 2015학년도 현재 중도탈락률은 8.9%로 나타났다. 한편 사립은 1980학년도에 7.2%로 국공립보다 중도탈락률이 높았지만,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8학년도 이후 7%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5학년도 현재 7.5%의 중도탈락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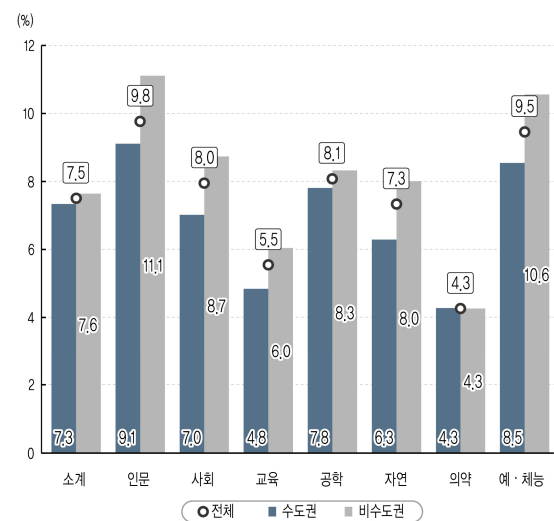
[그림 1-2-8]에서 2015학년도 계열별 중도탈락률을 보면, 인문계열(9.8%), 예·체능계열(9.5%)은 중도탈락률이 9%대로 다른 계열에 비해 중도탈락률이 높았고, 공학계열(8.1%), 사회계열(8.0%), 자연계열(7.3%), 교육계열(5.5%), 의약계열(4.3%) 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중도탈락률(7.6%)이 수도권 전문대학(7.3%)보다 약 0.3%p 높았다. 의약계열에서는 지역별 중도탈락률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나머지 계열에서는 비수도권의 중도탈락률이 수도권에 비해 높았다. 특히,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은 비수도권과 수도권 전문대학간 중도탈락률의 차이가 약 2%p로 크게 나타났다.

2015학년도 성별 중도탈락률을 계열별로 비교해 보면, 남학생의 경우 교육계열(10.9%), 인문계열(10.8%), 예체능계열(10.3%)의 중도탈락률이 10%를 넘었고, 사회계열(9.2%), 공학 및 자연계열(8.1%)였으며, 의약계열(6.2%)이 가장 중도탈락률이 낮았다. 여학생의 경우 인문계열이 9.0%로 가장 중도탈락률이 높았고, 예·체능계열(8.6%), 공학계열(7.7%), 사회계열(6.6%), 자연계열(6.1%), 교육계열(5.2%), 의약계열(3.2%)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9> 참조).



■ 그림 1-2-7 연도별 성별 중도탈락률(1980~2015, 학년도 기준)

주: <표 1-2-8> 참조.



■ 그림 1-2-8 지역별 계열별 중도탈락률(2015, 학년도 기준)

주: <표 1-2-9> 참조.

표 I-2-8 연도별 설립별 성별 중도탈락자수 및 중도탈락률(1980~2015, 학년도 기준)

(단위: 명, %)

	전체						국·공립						사립					
	중도탈락자수			중도탈락률			중도탈락자수			중도탈락률			중도탈락자수			중도탈락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1980	10,346	8,516	1,830	6.8	7.7	4.6	1,097	995	102	4.9	5.6	2.2	9,249	7,521	1,728	7.2	8.0	4.9
1985	15,598	12,258	3,340	6.4	7.9	3.8	1,328	1,265	63	5.8	6.5	1.9	14,270	10,993	3,277	6.5	8.1	3.9
1990	7,224	5,361	1,863	2.2	2.6	1.6	837	774	63	3.1	3.5	1.3	6,387	4,587	1,800	2.2	2.5	1.6
1995	19,066	12,511	6,555	3.3	3.5	3.1	1,544	1,352	192	7.2	8.8	3.2	17,522	11,159	6,363	3.2	3.3	3.1
2000	50,496	32,905	17,591	5.5	5.7	5.2	1,725	1,247	478	4.6	5.0	3.8	48,771	31,658	17,113	5.6	5.8	5.2
2005	63,853	42,898	20,955	7.5	8.0	6.6	2,902	2,236	666	8.0	8.6	6.6	60,951	40,662	20,289	7.5	8.0	6.6
2006	67,323	45,196	22,127	8.2	8.9	7.1	3,462	2,694	768	10.3	11.1	8.3	63,861	42,502	21,359	8.1	8.8	7.1
2007	65,697	44,227	21,470	8.3	9.1	7.0	2,339	1,761	578	7.7	7.9	7.1	63,358	42,466	20,892	8.3	9.1	7.0
2008	59,958	39,166	20,792	7.8	8.4	6.8	2,276	1,707	569	8.5	8.7	7.9	57,682	37,459	20,223	7.7	8.4	6.8
2009	55,237	35,948	19,289	7.3	7.8	6.4	1,947	1,468	479	7.7	7.9	7.1	53,290	34,480	18,810	7.2	7.8	6.4
2010	56,658	37,463	19,195	7.4	8.1	6.3	1,316	998	318	6.1	6.3	5.6	55,342	36,465	18,877	7.4	8.2	6.3
2011	55,163	36,335	18,828	7.1	7.8	6.1	1,122	869	253	6.0	6.1	5.7	54,041	35,466	18,575	7.1	7.8	6.1
2012	58,923	40,148	18,775	7.7	8.7	6.1	2,533	2,110	423	15.1	16.5	10.5	56,390	38,038	18,352	7.5	8.5	6.0
2013	57,651	39,325	18,326	7.6	8.7	6.0	1,576	1,275	301	9.8	10.5	7.8	56,075	38,050	18,025	7.6	8.6	6.0
2014	55,239	37,894	17,345	7.5	8.5	5.8	1,124	887	237	7.3	7.6	6.4	54,115	37,007	17,108	7.5	8.6	5.8
2015	54,093	36,516	17,577	7.5	8.5	6.0	1,277	970	307	8.9	9.0	8.7	52,816	35,546	17,270	7.5	8.5	6.0

주: 1) 중도탈락률=(중도탈락자수/재적 학생수) × 100(이하 동일)

2) 중도탈락자수는 전년도 3월 1일부터 차년도(조사년도) 2월 28일까지의 기간 자료임(이하 동일).

표 I-2-9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중도탈락자수 및 중도탈락률(2015, 학년도 기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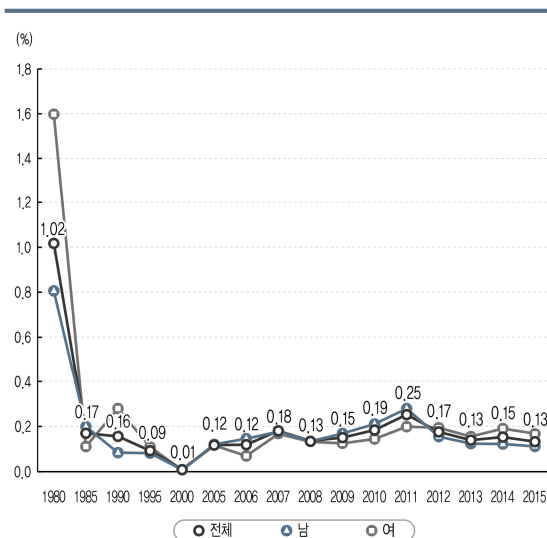
		전체						국·공립						사립					
		중도탈락자수			중도탈락률			중도탈락자수			중도탈락률			중도탈락자수			중도탈락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54,093	36,516	17,577	7.5	8.5	6.0	1,277	970	307	8.9	9.0	8.7	52,816	35,546	17,270	7.5	8.5	6.0
수도권	소계	22,310	14,248	8,062	7.3	8.1	6.3	56	38	18	6.1	6.0	6.4	22,254	14,210	8,044	7.3	8.1	6.3
	인문	1,195	480	715	9.1	9.9	8.7	3	—	3	5.1	—	7.7	1,192	480	712	9.1	9.9	8.7
	사회	5,280	2,963	2,317	7.0	8.0	6.0	9	5	4	4.9	4.3	6.0	5,271	2,958	2,313	7.0	8.1	6.0
	교육	627	66	561	4.8	10.8	4.5	4	—	4	7.5	—	8.2	623	66	557	4.8	10.9	4.5
	공학	7,810	7,019	791	7.8	7.9	7.2	17	16	1	5.9	5.8	6.7	7,793	7,003	790	7.8	7.9	7.2
	자연	1,285	742	543	6.3	6.9	5.6	—	—	—	—	—	—	1,285	742	543	6.3	6.9	5.6
	의약	941	470	471	4.3	6.7	3.1	9	9	—	8.7	11.1	—	932	461	471	4.3	6.7	3.1
	예·체능	5,172	2,508	2,664	8.5	9.3	8.0	14	8	6	6.1	5.7	6.8	5,158	2,500	2,658	8.6	9.3	8.0
비수도권	소계	31,783	22,268	9,515	7.6	8.8	5.8	1,221	932	289	9.1	9.2	8.8	30,562	21,336	9,226	7.6	8.8	5.8
	인문	719	431	288	11.1	12.1	9.9	2	1	1	2.6	1.9	4.0	717	430	287	11.2	12.3	9.9
	사회	7,958	5,091	2,867	8.7	10.1	7.1	240	173	67	10.0	11.3	7.8	7,718	4,918	2,800	8.7	10.0	7.1
	교육	1,124	121	1,003	6.0	10.9	5.7	63	8	55	11.8	14.8	11.5	1,061	113	948	5.9	10.7	5.6
	공학	9,865	9,240	625	8.3	8.3	8.4	555	527	28	9.8	9.9	8.2	9,310	8,713	597	8.3	8.2	8.4
	자연	2,573	1,913	660	8.0	8.7	6.5	142	106	36	5.1	5.0	5.4	2,431	1,807	624	8.3	9.1	6.6
	의약	4,208	2,223	1,985	4.3	6.1	3.2	85	56	29	10.0	10.7	8.9	4,123	2,167	1,956	4.2	6.1	3.1
	예·체능	5,336	3,249	2,087	10.6	11.3	9.6	134	61	73	12.0	11.2	12.9	5,202	3,188	2,014	10.5	11.3	9.5

(3) 편입

전문대학의 편입생수는 1980학년도 1,538명에서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며 2000학년도에 130명으로 나타났다으나, 이후 2005학년도부터 1,000명 내외로 지속되고 있다. 2015학년도에는 전년 대비 148명 감소한 966명으로 나타났다(〈표 I-2-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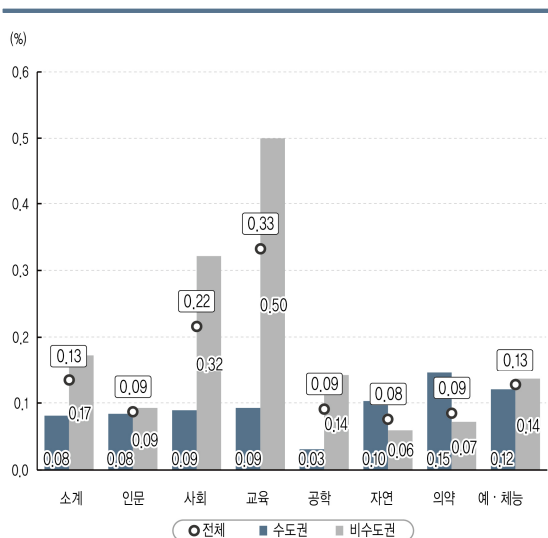
[그림 I-2-9]을 통해 편입률 변화를 살펴보면, 1980학년도에 1.02%이었으나 그 이후에는 0.3% 이내로 매우 낮게 지속되고 있다. 이는 1980학년도 이후 1~2%대의 편입률을 보이고 있는 대학교는 다소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표 II-2-10〉 참조). 성별로 살펴보면 1980학년도와 1990학년도를 제외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약 0.1%p 이내로 차이가 낮으며, 최근 들어서는 여학생의 편입률이 남학생보다 약 0.1%p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설립별로는 국·공립은 전체 규모가 작기 때문에 편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 사립에서 편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표 I-2-10〉 참조).

[그림 I-2-10]은 2015학년도의 지역별 계열별 편입률을 나타내고 있다. 2015학년도의 전문대학 전체 편입률은 0.13%이며, 계열별로는 교육계열이 0.33%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사회계열(0.22%), 예·체능계열(0.13%), 공학계열·인문계열·의약계열(0.09%), 자연계열(0.08%)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0.08%)에 비해 비수도권(0.17%)의 편입률이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은 의약계열의 편입률이 0.15%로 가장 높았고, 예·체능계열(0.12%)과 자연계열(0.10%)이 0.1%대였으며, 사회 및 교육계열(0.09%), 인문계열(0.08%), 공학계열(0.03%)은 0.1%미만의 편입률을 보였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교육계열의 편입률이 0.50%로 전체 계열 중 가장 높았고, 사회계열(0.32%), 공학 및 예·체능계열(0.14%), 인문계열(0.09%), 의약계열(0.07%), 자연계열(0.06%) 순으로 나타났다.



■ 그림 I-2-9 ■ 연도별 성별 편입률(1980~2015, 학년도 기준)

주: 〈표 I-2-10〉 참조.



■ 그림 I-2-10 ■ 지역별 계열별 편입률(2015, 학년도 기준)

주: 〈표 I-2-11〉 참조.

표 I-2-10 연도별 설립별 성별 편입생수 및 편입률(1980~2015, 학년도 기준)

(단위: 명, %)

	전체						국·공립						사립					
	편입생수			편입률			편입생수			편입률			편입생수			편입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1980	1,538	901	637	1.02	0.81	1.60	12	4	8	0.05	0.02	0.18	1,526	897	629	1.18	0.96	1.78
1985	410	313	97	0.17	0.20	0.11	18	18	-	0.08	0.09	-	392	295	97	0.18	0.22	0.12
1990	507	173	334	0.16	0.08	0.28	4	4	-	0.01	0.02	-	503	169	334	0.17	0.09	0.29
1995	525	291	234	0.09	0.08	0.11	-	-	-	-	-	-	525	291	234	0.10	0.09	0.11
2000	130	103	27	0.01	0.02	0.01	1	1	-	0.00	0.00	-	129	102	27	0.01	0.02	0.01
2005	1,034	663	371	0.12	0.12	0.12	22	11	11	0.06	0.04	0.11	1,012	652	360	0.12	0.13	0.12
2006	968	753	215	0.12	0.15	0.07	14	12	2	0.04	0.05	0.02	954	741	213	0.12	0.15	0.07
2007	1,425	894	531	0.18	0.18	0.17	104	76	28	0.34	0.34	0.34	1,321	818	503	0.17	0.18	0.17
2008	1,041	633	408	0.13	0.14	0.13	4	1	3	0.01	0.01	0.04	1,037	632	405	0.14	0.14	0.14
2009	1,145	773	372	0.15	0.17	0.12	4	3	1	0.02	0.02	0.01	1,141	770	371	0.16	0.17	0.13
2010	1,428	985	443	0.19	0.21	0.15	-	-	-	-	-	-	1,428	985	443	0.19	0.22	0.15
2011	1,953	1,338	615	0.25	0.29	0.20	3	2	1	0.02	0.01	0.02	1,950	1,336	614	0.26	0.30	0.20
2012	1,322	726	596	0.17	0.16	0.19	2	-	2	0.01	-	0.05	1,320	726	594	0.18	0.16	0.20
2013	1,020	560	460	0.13	0.12	0.15	1	1	-	0.01	0.01	-	1,019	559	460	0.14	0.13	0.15
2014	1,114	549	565	0.15	0.12	0.19	5	2	3	0.03	0.02	0.08	1,109	547	562	0.15	0.13	0.19
2015	966	481	485	0.13	0.11	0.17	15	7	8	0.10	0.06	0.23	951	474	477	0.13	0.11	0.17

주: 1) 편입률=(편입생수/재적 학생수) × 100(이하 동일)

2) 편입생수는 전년도 3월 1일부터 차년도(조사년도) 2월 28일까지의 기간 자료임(이하 동일).

표 I-2-11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편입생수 및 편입률(2015, 학년도 기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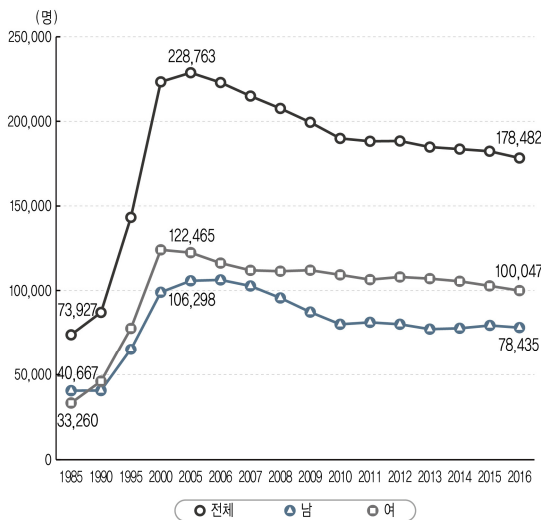
		전체						국·공립						사립					
		편입생수			편입률			편입생수			편입률			편입생수			편입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966	481	485	0.13	0.11	0.17	15	7	8	0.10	0.06	0.23	951	474	477	0.13	0.11	0.17
수도권	소계	247	131	116	0.08	0.07	0.09	10	6	4	1.09	0.94	1.43	237	125	112	0.08	0.07	0.09
	인문	11	5	6	0.08	0.10	0.07	-	-	-	-	-	-	11	5	6	0.08	0.10	0.07
	사회	67	36	31	0.09	0.10	0.08	2	1	1	1.10	0.87	1.49	65	35	30	0.09	0.10	0.08
	교육	12	1	11	0.09	0.16	0.09	1	-	1	1.89	-	2.04	11	1	10	0.09	0.17	0.08
	공학	31	28	3	0.03	0.03	0.03	1	1	-	0.34	0.36	-	30	27	3	0.03	0.03	0.03
	자연	21	14	7	0.10	0.13	0.07	-	-	-	-	-	-	21	14	7	0.10	0.13	0.07
	의약	32	11	21	0.15	0.16	0.14	5	4	1	4.85	4.94	4.55	27	7	20	0.12	0.10	0.13
	예·체능	73	36	37	0.12	0.13	0.11	1	-	1	0.44	-	1.14	72	36	36	0.12	0.13	0.11
비수도권	소계	719	350	369	0.17	0.14	0.23	5	1	4	0.04	0.01	0.12	714	349	365	0.18	0.14	0.23
	인문	6	2	4	0.09	0.06	0.14	1	-	1	1.30	-	4.00	5	2	3	0.08	0.06	0.10
	사회	293	123	170	0.32	0.24	0.42	-	-	-	-	-	-	293	123	170	0.33	0.25	0.43
	교육	93	14	79	0.50	1.26	0.45	2	-	2	0.38	-	0.42	91	14	77	0.50	1.33	0.45
	공학	168	137	31	0.14	0.12	0.42	-	-	-	-	-	-	168	137	31	0.15	0.13	0.44
	자연	19	8	11	0.06	0.04	0.11	-	-	-	-	-	-	19	8	11	0.06	0.04	0.12
	의약	71	35	36	0.07	0.10	0.06	1	1	-	0.12	0.19	-	70	34	36	0.07	0.09	0.06
	예·체능	69	31	38	0.14	0.11	0.17	1	-	1	0.09	-	0.18	68	31	37	0.14	0.11	0.17

4) 졸업²⁾

1985년 이후의 연도별 졸업자수 변동을 살펴보면 [그림 I-2-11]과 같다. 1985년 73,927명이었던 전체 졸업자수는 전문대학의 양적 팽창과 함께 큰 폭으로 증가해 2005년 228,763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조금씩 감소하여 2016년에는 전년대비 2.2% 감소한 178,482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 졸업자의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1985년 졸업자의 45.0%에 불과했던 여성 비율은 1990년 52.8%로 50%를 넘어섰고, 이후로도 50%대를 유지하며 2016년 56.1%로 전체 학생 10명 중 5명 이상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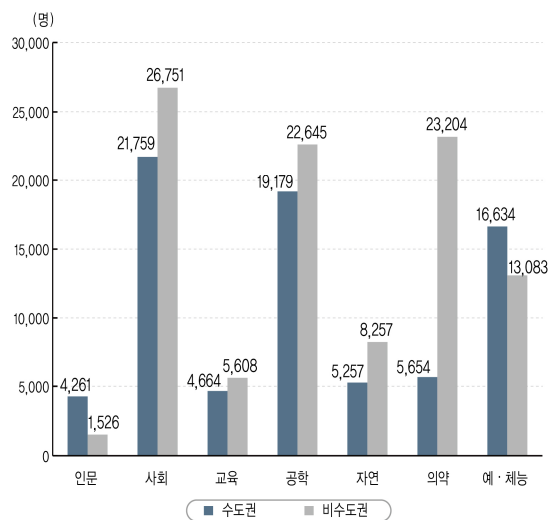
[그림 I-2-12]에서 지역별로 졸업자수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사회계열 21,759명(28.1%), 공학계열 19,179명(24.8%), 예·체능계열 16,634명(21.5%), 의약계열 5,654명(7.3%), 자연계열 5,257명(6.8%), 교육계열 4,664명(6.0%), 인문계열 4,261명(5.5%) 순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은 사회계열 26,751명(26.5%), 의약계열 23,204명(23.0%), 공학계열 22,645명(22.4%), 예·체능계열 13,083명(12.9%), 자연계열 8,257명(8.2%), 교육계열 5,608명(5.5%), 인문계열 1,526명(1.5%)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계열별 학생수에 비해 공학계열 졸업자수가 적은 반면, 교육계열과 인문계열, 사회계열은 계열별 학생수에 비해 졸업자수가 많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13〉를 통해 지역별로 여학생 졸업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58.5%가 비수도권은 54.2%가 여학생 졸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별로는 국공립이 35.0%, 사립이 56.5%로 사립의 여학생 졸업자 비율이 약 21.5p 높았다.



■ 그림 I-2-11 연도별 성별 졸업자수(1985~2016)

주: 〈표 I-2-12〉 참조.



■ 그림 I-2-12 지역별 계열별 졸업자수(2016)

주: 〈표 I-2-13〉 참조.

2) 전문대학의 졸업 관련 내용은 교육기본통계조사에 근거하되, 취업 관련 내용(진학률, 취업률)은 취업통계조사에 근거함.

표 I-2-12 연도별 설립별 성별 졸업자수(1985~2016)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1985	73,927	40,667	33,260	7,540	6,052	1,488	66,387	34,615	31,772
1990	87,131	41,109	46,022	6,132	4,534	1,598	80,999	36,575	44,424
1995	143,075	65,435	77,640	5,692	3,263	2,429	137,383	62,172	75,211
2000	223,489	99,452	124,037	8,543	3,903	4,640	214,946	95,549	119,397
2005	228,763	106,298	122,465	9,800	5,385	4,415	218,963	100,913	118,050
2006	222,973	106,913	116,060	9,377	5,357	4,020	213,596	101,556	112,040
2007	215,040	103,047	111,993	8,676	5,009	3,667	206,364	98,038	108,326
2008	207,741	96,278	111,463	7,883	4,504	3,379	199,858	91,774	108,084
2009	199,421	87,321	112,100	6,879	3,967	2,912	192,542	83,354	109,188
2010	190,033	80,719	109,314	5,897	3,486	2,411	184,136	77,233	106,903
2011	188,216	81,709	106,507	5,097	3,081	2,016	183,119	78,628	104,491
2012	188,468	80,546	107,922	3,845	2,226	1,619	184,623	78,320	106,303
2013	184,817	77,793	107,024	3,638	2,143	1,495	181,179	75,650	105,529
2014	183,557	78,092	105,465	3,705	2,252	1,453	179,852	75,840	104,012
2015	182,424	79,664	102,760	3,858	2,441	1,417	178,566	77,223	101,343
2016	178,482	78,435	100,047	3,672	2,387	1,285	174,810	76,048	98,762

주: 1) 2005년의 경우, 강원관광대학이 학내소요로 인해 취업통계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통계조사의 졸업자 수 총계(228,336명)와 다름.
 2) 2012년의 경우, 성화대학이 폐교조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통계조사에는 응하였기 때문에 취업통계조사의 졸업자 수 총계(189,733명)와 다름.
 3) 2014년의 경우, 벽성대학교가 취업통계조사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취업통계조사의 졸업자 수 총계(183,388명)와 다름.
 4) 졸업자는 해당년도 2월 졸업자 및 전년도 8월 졸업자를 포함함(이하 동일).

표 I-2-13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졸업자수(2016)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178,482	78,435	100,047	3,672	2,387	1,285	174,810	76,048	98,762
수도권	소계	77,408	32,108	45,300	300	220	80	77,108	31,888	45,220
	인문	4,261	982	3,279	20	7	13	4,241	975	3,266
	사회	21,759	7,129	14,630	45	32	13	21,714	7,097	14,617
	교육	4,664	105	4,559	17	1	16	4,647	104	4,543
	공학	19,179	15,690	3,489	154	150	4	19,025	15,540	3,485
	자연	5,257	1,876	3,381	-	-	-	5,257	1,876	3,381
	의약	5,654	1,307	4,347	22	14	8	5,632	1,293	4,339
	예·체능	16,634	5,019	11,615	42	16	26	16,592	5,003	11,589
비수도권	소계	101,074	46,327	54,747	3,372	2,167	1,205	97,702	44,160	53,542
	인문	1,526	548	978	3	3	-	1,523	545	978
	사회	26,751	10,199	16,552	646	310	336	26,105	9,889	16,216
	교육	5,608	195	5,413	133	5	128	5,475	190	5,285
	공학	22,645	20,114	2,531	1,234	1,089	145	21,411	19,025	2,386
	자연	8,257	4,188	4,069	798	525	273	7,459	3,663	3,796
	의약	23,204	5,862	17,342	179	93	86	23,025	5,769	17,256
	예·체능	13,083	5,221	7,862	379	142	237	12,704	5,079	7,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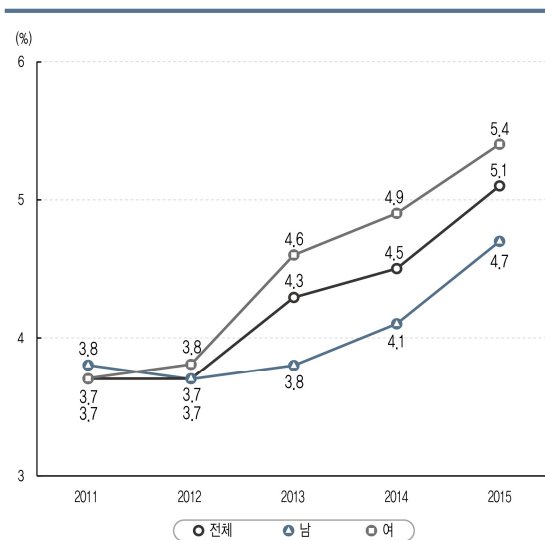
5) 진학률 · 취업률

(1) 진학률

전문대학의 진학률 및 취업률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및 국세 DB와 연계해 조사된 취업통계 DB에서 산정되며, 4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되는 교육기본통계와는 달리 전년도 12월 31일을 조사 기준으로 한다. 이때 조사 대상이 되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는 전년도 2월 및 전전년도 8월 졸업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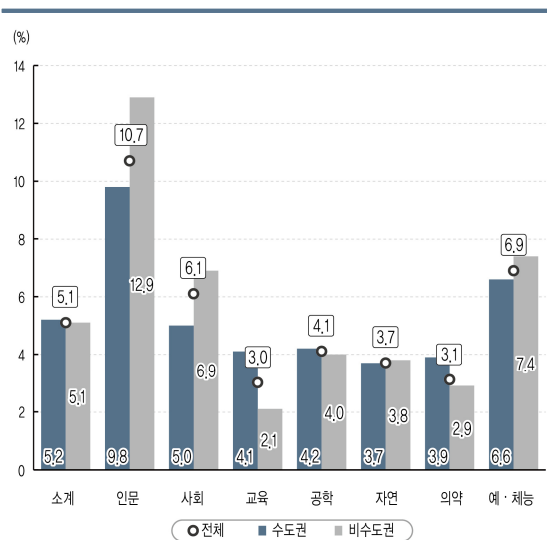
[그림 1-2-13]에 따르면, 전문대학 졸업자의 진학률은 2011년 3.7%에서 2015년에는 5.1%로 증가했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남성 졸업자의 진학률은 2011년 3.8%에서 2015년 4.7%로 약 0.9%p 증가한 반면, 여성 졸업자의 진학률은 2011년 3.7%에서 2015년 5.4%로 약 1.7%p 증가해 여성 졸업자의 진학률이 남성 졸업자의 진학률보다 약 0.7%p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립별로 살펴보면, 사립(5.1%)보다 국·공립(5.3%)의 진학률이 약 0.2%p 더 높았다(〈표 1-2-14〉 참조).

계열별로 2015년 전문대학 졸업자의 진학률을 살펴보면 [그림 1-2-14]와 같다. 전체 계열 중 인문계열 졸업자의 진학률이 10.7%로 가장 높았고, 예·체능 계열 졸업자의 진학률(6.9%)이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사회계열 졸업자(6.1%)의 진학률도 6%를 넘었다. 그 외 계열의 진학률은 공학계열 4.1%, 자연계열 3.7%, 의약계열 3.1%, 교육계열 3.0%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문대학 모두 인문계열 졸업자의 진학률이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의 경우 자연계열(3.7%), 비수도권은 교육계열(2.1%)의 진학률이 가장 낮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전문대학의 진학률 순위는 인문계열(9.8%), 예·체능계열(6.6%), 사회계열(5.0%), 공학계열(4.2%), 교육계열(4.1%), 의약계열(3.9%), 자연계열(3.7%) 순이었으며, 비수도권은 인문계열(12.9%), 예·체능계열(7.4%), 사회계열(6.1%), 공학계열(4.0%), 자연계열(3.8%), 의약계열(2.9%), 교육계열(2.1%) 순이었다.



■ 그림 1-2-13 ■ 연도별 성별 진학률(2011~2015)

주: 〈표 1-2-14〉 참조.



■ 그림 1-2-14 ■ 지역별 계열별 진학률(2015)

주: 〈표 1-2-15〉 참조.

표 I-2-14 연도별 설립별 성별 진학률(2011~2015)

(단위: %)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11	3.7	3.8	3.7	3.4	3.2	3.6	3.7	3.8	3.7
2012	3.7	3.7	3.8	3.8	3.8	3.7	3.7	3.7	3.8
2013	4.3	3.8	4.6	4.2	3.6	4.9	4.3	3.8	4.6
2014	4.5	4.1	4.9	4.0	3.4	5.0	4.6	4.1	4.9
2015	5.1	4.7	5.4	5.3	4.7	6.3	5.1	4.7	5.4

주: 1) 진학률=(진학자수/졸업자수) × 100

2) 해당년도 진학률은 2월 졸업자 및 전년도 8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다음해에 공표함(예: 2015년 진학률은 2015년 2월(전기) 졸업자 및 2014년 8월(후기) 졸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2016년에 공표함)

3) 조사기준일: 해당년도 12월 31일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DB.

표 I-2-15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진학률(2015)

(단위: %)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전체	5.1	4.7	5.4	5.3	4.7	6.3	5.1	4.7	5.4
	인문	10.7	11.4	10.4	13.6	14.3	13.3	10.7	11.4	10.4
	사회	6.1	5.9	6.1	6.4	7.0	5.9	6.0	5.9	6.2
	교육	3.0	3.3	3.0	7.2	0.0	8.0	2.9	3.6	2.9
	공학	4.1	3.7	6.5	6.0	5.6	9.6	4.0	3.6	6.5
	자연	3.7	2.4	5.0	1.9	1.1	3.5	3.9	2.5	5.0
	의약	3.1	3.8	2.8	1.7	1.6	1.7	3.1	3.8	2.8
	예·체능	6.9	7.4	6.7	8.0	7.3	8.5	6.9	7.4	6.7
수도권	소계	5.2	4.3	5.8	8.5	5.0	18.8	5.2	4.3	5.8
	인문	9.8	8.2	10.2	13.6	14.3	13.3	9.7	8.1	10.2
	사회	5.0	4.3	5.3	10.0	5.9	33.3	5.0	4.3	5.3
	교육	4.1	4.2	4.1	25.0	0.0	27.3	4.0	4.3	4.0
	공학	4.2	3.6	7.0	2.3	2.4	0.0	4.2	3.6	7.0
	자연	3.7	2.2	4.6	-	-	-	3.7	2.2	4.6
	의약	3.9	3.9	3.9	10.7	8.3	12.5	3.8	3.8	3.8
	예·체능	6.6	6.9	6.4	15.6	12.0	20.0	6.5	6.9	6.4
비수도권	소계	5.1	5.0	5.1	5.0	4.7	5.5	5.1	5.0	5.1
	인문	12.9	16.8	10.8	-	-	-	12.9	16.8	10.8
	사회	6.9	6.9	6.9	6.0	7.3	5.1	6.9	6.9	6.9
	교육	2.1	2.8	2.1	6.1	0.0	6.8	1.9	3.2	1.9
	공학	4.0	3.7	5.9	6.4	6.0	10.0	3.8	3.6	5.7
	자연	3.8	2.4	5.3	1.9	1.1	3.5	4.0	2.6	5.4
	의약	2.9	3.8	2.5	0.5	0.9	0.0	2.9	3.8	2.6
	예·체능	7.4	7.9	7.1	7.1	6.4	7.5	7.5	8.0	7.1

주: 1) 진학률=(진학자수/졸업자수) × 100

2) 2015년 진학률은 2015년 2월(전기) 졸업자 및 2014년 8월(후기) 졸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2016년에 공표한 자료임

3) 조사기준일: 해당년도 12월 31일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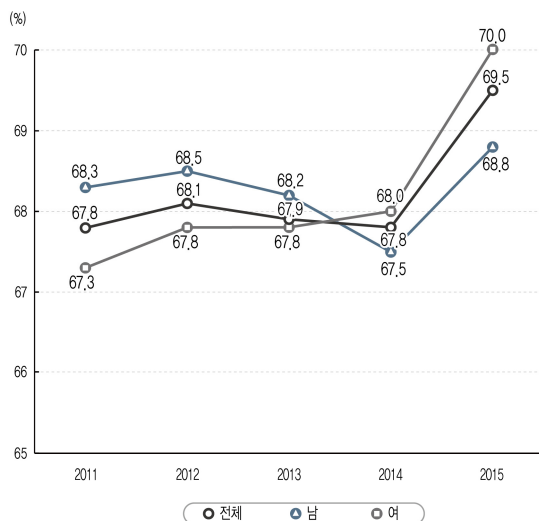
(2) 취업률

전문대학 졸업자의 연도별 취업률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I-2-15]와 같다. 2011년 67.8%에서 2014년까지 68.0% 내외의 수치를 보였으나, 2015년 69.5%로 전년 대비 약 1.7%p 증가했다. 한편, 전문대학 졸업자의 남녀 취업률 추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2011년 68.3%에서 2015년 68.8%로 약 0.5%p 증가하고, 여성은 2011년 67.3%에서 2015년 70.0%로 약 2.7%p 증가하였다. 2011년 이래로 1%p 이내의 차이로 남성의 취업률이 더 높았으나, 2014년에는 여성의 취업률이 남성보다 약 0.5%p 높았고, 2015년에는 그 차이가 1.2%p로 조금 더 벌어졌다.

[그림 I-2-16]에서 2015년 전문대학 취업률을 계열별로 살펴보면, 교육계열이 85.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의약계열(80.2%), 공학계열(70.9%), 사회계열(66.3%), 자연계열(63.6%), 예·체능계열(62.3%), 인문계열(56.8%)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졸업자와 여성 졸업자 모두 교육계열이 각각 80.0%, 86.0%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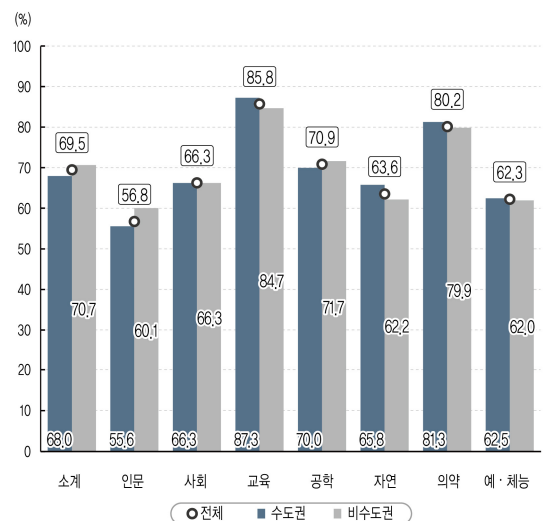
[표 I-2-16]에서 설립별로 보면, 2011년 이후 매년 국·공립보다 사립의 전문대학 취업률이 더 높았는데 국·공립의 경우 2011년 67.5%에서 2015년 66.5%로 약 1.0%p 하락하였다. 반면 사립은 2011년 67.8%에서 2015년 69.6%로 약 1.8%p 하락하였다. 2011년 약 0.3%p였던 이들의 격차는 점차 벌어지는 추세를 보이며, 2015년 국·공립과 사립의 취업률 차이는 약 3.1%p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별 전문대학 취업률을 설립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사립이 국·공립보다 9.4%p 높은 68.1%의 취업률을 보였다.

[표 I-2-17]에서 지역별로 취업률을 보면, 수도권에 위치한 전문대학이 68.0%, 비수도권 전문대학이 70.7%로 비수도권의 취업률이 수도권보다 약 2.7%p 더 높았다. 또한, 지역별로 계열별 및 성별 취업률 차이를 보면, 수도권의 경우 공학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에서 남성 졸업자의 취업률이 여성보다 높았으나, 비수도권에서는 사회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에서 남성 졸업자의 취업률이 더 높았다.



■ 그림 I-2-15 ■ 연도별 성별 취업률(2011~2015)

주: <표 I-2-16> 참조.



■ 그림 I-2-16 ■ 지역별 계열별 취업률(2015)

주: <표 I-2-17> 참조.

표 I-2-16 연도별 설립별 성별 취업률(2011~2015)

(단위: %)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11	67.8	68.3	67.3	67.5	69.4	64.9	67.8	68.3	67.4
2012	68.1	68.5	67.8	67.0	69.1	64.4	68.1	68.4	67.9
2013	67.9	68.2	67.8	66.2	67.2	64.8	68.0	68.2	67.8
2014	67.8	67.5	68.0	63.1	65.1	60.5	67.9	67.5	68.1
2015	69.5	68.8	70.0	66.5	66.1	67.1	69.6	68.8	70.1

- 주: 1) 취업자 정의: 조사기준일 당시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업활동종사자, 1인 창(사)업자 및 프리랜서
 - 교내취업자(2015년 기준): 조사 기준일 당시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학교법인 및 관련 기관(산학협력단, 학교기업 등)에 1년 이상 계약한 자로서, 최저임금(2015년: 1,166,220원, 2016년: 1,260,270원) 이상의 월 급여를 받는 자.
 - 해외취업자: 조사 기준일 당시에 해외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며, 91일 이상 고용 계약한 자.
 - 농림어업종사자: 조사 기준일 당시에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
 - 개인창업활동종사자: 조사 기준일 당시에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개인작품 창작활동을 하는 자.
 - 1인 창(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2015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합계가 605만원 이상인 자.
 - 프리랜서: 2015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액이 3,498,660원 이상인 자.
- 2) 취업률을 구하는 방식은 연도에 따라 조금씩 변하여 왔음.

연도	취업률	취업자	취업대상자
2011~2013	취업률 ×100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영농업종사자, 개인창업활동종사자, 1인 창(사)업자 및 프리랜서
2014~2015		취업대상자	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제외인정자+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업활동종사자, 1인 창(사)업자 및 프리랜서

- 취업불가능자: 수형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를 포함함.
 - 제외인정자: 의료급여수급자,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학과 졸업자, 여자군인 중 임관 전 훈련생,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을 포함함.
 - 외국인유학생: 외국 국적을 가진 유학생(외국국적 재외동포 포함) 및 순수외국인을 포함함.
- 3) 조사기준일: 해당년도 12월 31일.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DB(이하 동일).

표 I-2-17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취업률(2015)

(단위: %)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전체	69.5	68.8	70.0	66.5	66.1	67.1	69.6	68.8	70.1
	인문	56.8	54.1	57.7	73.7	66.7	76.9	56.7	54.0	57.6
	사회	66.3	66.1	66.3	62.9	61.4	64.2	66.3	66.2	66.4
	교육	85.8	80.0	86.0	77.5	62.5	78.9	86.0	81.4	86.1
	공학	70.9	71.4	68.1	68.1	68.2	66.9	71.0	71.5	68.1
	자연	63.6	66.1	61.7	64.9	64.6	65.3	63.6	66.2	61.5
	의약	80.2	74.2	82.0	66.1	60.9	71.2	80.3	74.5	82.1
수도권	예·체능	62.3	63.2	61.9	65.3	70.1	62.8	62.3	63.1	61.9
	소계	68.0	67.9	68.1	58.7	56.2	67.2	68.1	68.0	68.1
	인문	55.6	51.3	56.8	73.7	66.7	76.9	55.5	51.2	56.7
	사회	66.3	64.9	66.9	38.0	36.5	50.0	66.4	65.2	66.9
	교육	87.3	83.1	87.4	100.0	100.0	100.0	87.3	82.9	87.4
	공학	70.0	70.8	66.7	61.6	61.3	66.7	70.1	70.9	66.7
	자연	65.8	68.3	64.3	-	-	-	65.8	68.3	64.3
비수도권	의약	81.3	77.5	82.3	60.9	60.0	61.5	81.4	77.7	82.3
	예·체능	62.5	63.4	62.2	69.4	80.0	56.3	62.5	63.4	62.2
	소계	70.7	69.4	71.6	67.2	67.3	67.1	70.8	69.5	71.7
	인문	60.1	59.5	60.4	-	-	-	60.1	59.5	60.4
	사회	66.3	67.0	65.8	65.7	67.3	64.5	66.3	67.0	65.9
	교육	84.7	78.3	84.9	76.4	60.0	77.9	85.0	80.5	85.1
	공학	71.7	71.9	69.9	68.9	69.1	67.0	71.9	72.1	70.1
	자연	62.2	65.0	59.4	64.9	64.6	65.3	62.0	65.0	59.0
	의약	79.9	73.6	82.0	66.7	61.0	72.4	80.0	73.8	82.0
	예·체능	62.0	63.0	61.5	64.9	68.2	63.3	61.9	62.8	61.5

주: <표 I-2-16>의 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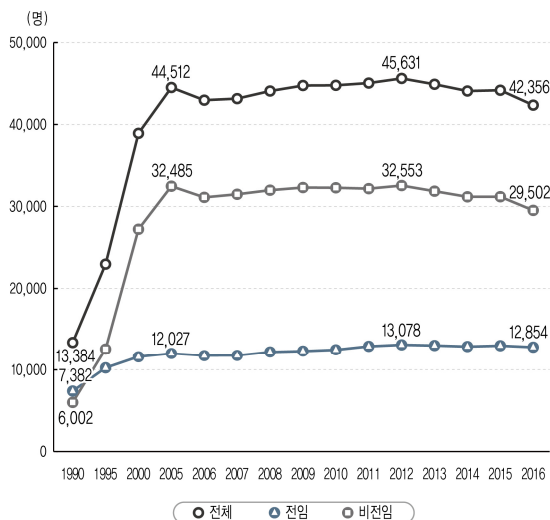
03 교원

1) 교원의 구성

전문대학의 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전임교원은 2012년 이전에는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가 포함되었으나, 2013년부터 '전임강사제'가 폐지되면서 전임강사를 제외한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포함된다. 한편 비전임교원에는 겸임교수, 초빙교수, 시간강사, 명예교수, 객원교수, 대우교수, 기타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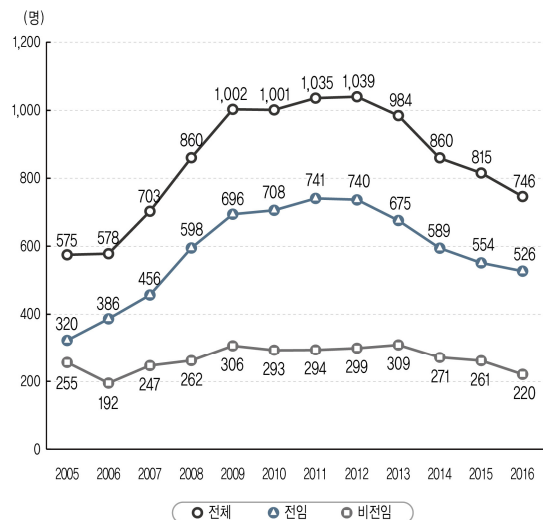
[그림 I-3-1]에서 교원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 13,384명에서 2005년 44,512명으로 약 3.3배 증가했던 전체 교원수는 이후 2012년 45,63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기 시작해 2016년 현재 42,356명으로 전년 대비 약 4.1% 감소했다. 전임 및 비전임교원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전임교원의 경우 1990년 7,382명에서 1995년 10,384명으로 1만명을 넘어섰으며, 이후 큰 변동 없이 1만 1천~1만 3천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다 2016년 현재 12,854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전임교원은 1990년 6,002명에서 2005년 32,485명으로 15년 동안 약 5.4배 증가했으며 이후 큰 변동 없이 3만 1천~3만 2천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다 2016년 현재 29,502명으로 전년 대비 약 5.4% 감소했다.

이러한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과의 관계를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 비율을 나타낸 [그림 I-3-3]을 통해 더 명확하게 살펴보면, 1990년대에는 비전임교원이 전임교원의 약 0.8배로 전임교원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5년 이후부터 비전임교원이 전임교원을 앞지르기 시작했으며, 2005년에는 비전임교원이 전임교원의 약 2.7배에 이르는 규모로 확대되었다. 이후로도 비전임교원과 전임교원과의 규모 차이는 2배 이상을 유



■ 그림 I-3-1 ■ 연도별 전임 및 비전임 교원수(1990~2016)

주: <표 I-3-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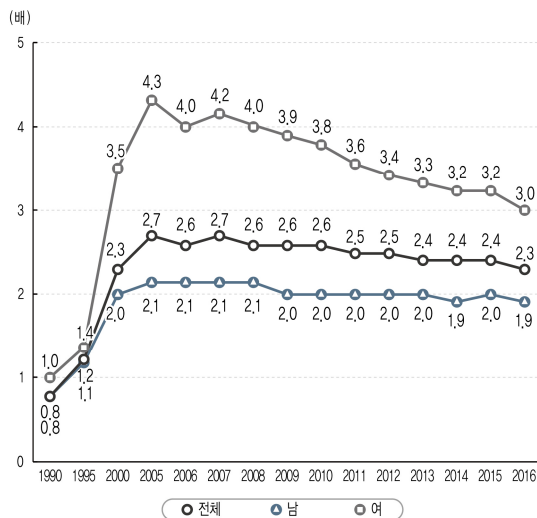
■ 그림 I-3-2 ■ 연도별 외국인 교원수(2005~2016)

주: <표 I-3-3> 참조.

지하며 2016년 현재 약 2.3배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추세를 통해 전문대학의 교원수 증가가 주로 비전임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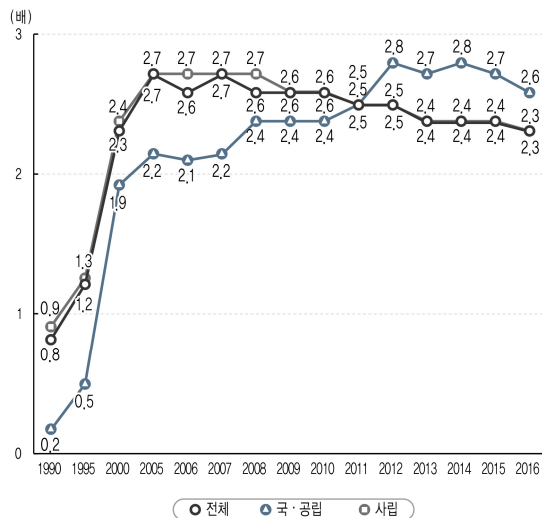
좀 더 구체적으로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 추세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교원보다 여성교원의 비전임교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까지는 여성교원의 전임교원수와 비전임교원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았지만, 2000년대 이후 비전임 여교원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05년에는 전임 여교원의 약 4.3배 큰 규모를 가졌으며,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6년에는 비전임 여교원이 전임 여교원보다 약 3.0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교원의 경우 1990년에는 비전임교원이 전임교원의 0.8배로 전임교원의 비중이 더 높았으나, 이후 비전임 남교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해 2000년부터 비전임교원이 전임교원의 약 2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3-3 참조).

[그림 I-3-4]를 통해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을 설립별로 살펴보면, 2010년까지는 사립 전문대학의 비전임교원 비율이 높았으나, 이후 국·공립 전문대학의 비전임교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연도별로 살펴보면, 국·공립 전문대학은 1990년 비전임교원이 전임교원의 약 0.2배로 전임교원의 비중이 높았으나, 이후 비전임교원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2000년 이후부터 2016년까지 약 1.9~2.8배 정도 비전임교원이 전임교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립 전문대학은 2010년까지 국·공립보다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 비중이 더 높았다. 1990년에는 비전임교원이 전임교원의 약 0.9배 규모였으나,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에는 약 2.7배 규모에 이르렀다. 이후 비전임교원 비중이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1년에는 국·공립 전문대학과 같아졌으며, 2016년 현재 사립 전문대학에서는 비전임교원이 전임교원보다 약 2.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I-3-3 ■ 연도별 성별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1990~2016)

주: <표 I-3-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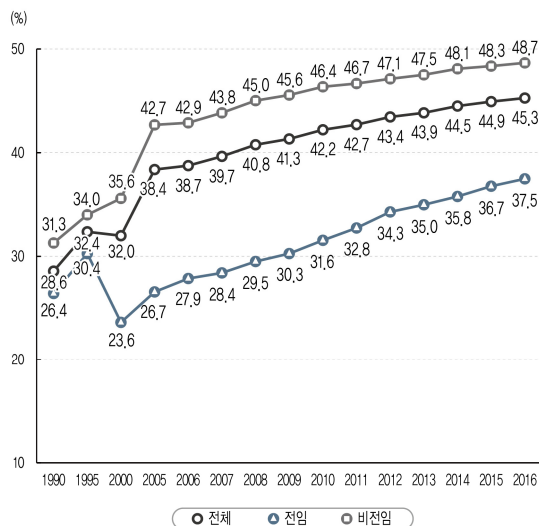
■ 그림 I-3-4 ■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1990~2016)

주: <표 I-3-1> 참조.

[그림 1-3-2]을 통해 연도별로 외국인 교원수를 살펴보면, 2005년 575명이었던 외국인 교원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2012년에는 1,0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조금씩 감소하며 2016년에는 2005년 대비 1.3배 증가한 746명으로 나타났다. 국내 교원과는 다르게 외국인 교원은 전임교원이 비전임교원 보다 많았다. 전임교원은 2005년 320명에서 2011년 741명으로 약 2.3배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여 2016년에는 526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전임교원은 큰 변동 없이 2007년부터는 약 250~300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 현재 전체 외국인 교원 중 비전임교원 비중은 약 29.5%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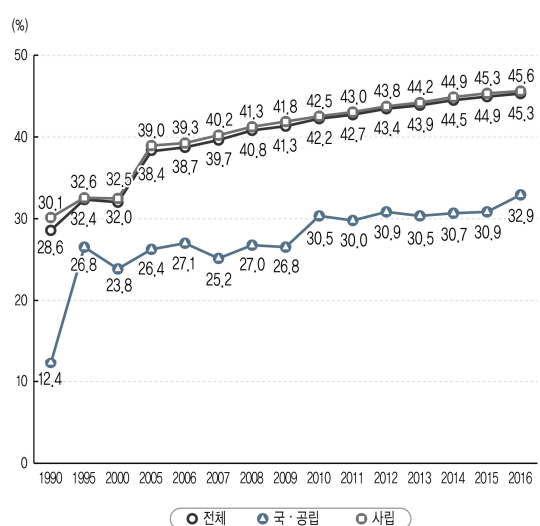
연도별 여교원의 비율은 [그림 1-3-6]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사립 전문대학의 여교원의 비율이 국·공립 전문대학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전문대학의 여교원 비율은 1990년 30.1%에서 2007년 이후 40%대로 진입하였고 이후로도 점차 증가하여 2016년 현재 45.6%로 나타났다. 한편 국·공립 전문대학 여교원의 비율은 1990년 12.4%에서 1995년 26.8%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2016년 현재는 1990년 대비 약 20.5%p 증가한 32.9%로 나타났다.

[표 1-3-2]에서 전임교원의 수를 계열별로 살펴보면, 공학계열이 3,139명(24.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계열 2,794명(21.7%), 의약계열 2,746명(21.4%), 예·체능계열 1,996명(15.5%), 자연계열 858명(6.7%), 교육계열 780명(6.1%) 순이었고, 인문계열의 전임교원수가 413명(3.2%)으로 가장 적었다. 한편 계열별로 전임교원 중 여교원의 비율을 살펴보면, 교육계열이 76.3%(595명)으로 전임교원 중 여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그 다음으로 의약계열 63.7%(1,748명), 인문계열 45.8%(189명), 예·체능계열 43.2%(862명), 자연계열 36.7%(315명)에서 전임교원 중 여교원의 비율이 30%를 넘었다. 한편 그 다음으로 사회계열 28.6%(800명)은 전임교원 중 여교원이 30% 이하를 차지하였으며, 공학계열 9.3%(291명)의 전임교원 중 여교원 비율이 전체 계열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1-3-5 ■ 연도별 전임 및 비전임 여교원 비율(1990~2016)

주: <표 1-3-1> 참조.



■ 그림 1-3-6 ■ 연도별 설립별 여교원 비율(1990~2016)

주: <표 1-3-1> 참조.

표 I-3-1 연도별 설립별 성별 교원수(1990~2016)

(단위: 명)

	전임교원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1990	7,382	5,432	1,950	958	863	95	6,424	4,569	1,855
1995	10,384	7,232	3,152	602	459	143	9,782	6,773	3,009
2000	11,707	8,943	2,764	740	601	139	10,967	8,342	2,625
2005	12,027	8,813	3,214	651	513	138	11,376	8,300	3,076
2006	11,857	8,543	3,314	598	487	111	11,259	8,056	3,203
2007	11,685	8,366	3,319	515	438	77	11,170	7,928	3,242
2008	12,100	8,531	3,569	457	377	80	11,643	8,154	3,489
2009	12,451	8,675	3,776	458	379	79	11,993	8,296	3,697
2010	12,530	8,575	3,955	305	251	54	12,225	8,324	3,901
2011	12,891	8,667	4,224	333	279	54	12,558	8,388	4,170
2012	13,078	8,595	4,483	308	258	50	12,770	8,337	4,433
2013	13,015	8,465	4,550	316	265	51	12,699	8,200	4,499
2014	12,920	8,299	4,621	315	264	51	12,605	8,035	4,570
2015	12,991	8,217	4,774	322	268	54	12,669	7,949	4,720
2016	12,854	8,033	4,821	319	266	53	12,535	7,767	4,768
	비전임교원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1990	6,002	4,125	1,877	171	126	45	5,831	3,999	1,832
1995	12,574	8,298	4,276	298	200	98	12,276	8,098	4,178
2000	27,235	17,541	9,694	1,432	1,054	378	25,803	16,487	9,316
2005	32,485	18,617	13,868	1,401	998	403	31,084	17,619	13,465
2006	31,097	17,770	13,327	1,259	866	393	29,838	16,904	12,934
2007	31,472	17,678	13,794	1,151	809	342	30,321	16,869	13,452
2008	31,990	17,586	14,404	1,094	755	339	30,896	16,831	14,065
2009	32,304	17,588	14,716	1,097	760	337	31,207	16,828	14,379
2010	32,297	17,325	14,972	732	470	262	31,565	16,855	14,710
2011	32,182	17,158	15,024	832	537	295	31,350	16,621	14,729
2012	32,553	17,212	15,341	869	555	314	31,684	16,657	15,027
2013	31,879	16,730	15,149	857	550	307	31,022	16,180	14,842
2014	31,163	16,173	14,990	882	566	316	30,281	15,607	14,674
2015	31,194	16,112	15,082	881	563	318	30,313	15,549	14,764
2016	29,502	15,149	14,353	844	514	330	28,658	14,635	14,023

주: 1) 2012년까지는 전임교원에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가 포함됨.

2) 2013년부터는 전임강사 폐지에 따라 전임교원에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포함됨.

3) 비전임교원에는 겸임교수, 초빙교수, 시간강사, 명예교수, 객원교수, 대우교수, 기타 등이 포함됨.

표 I-3-2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전임교원수(2016)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12,854	8,033	4,821	319	266	53	12,535	7,767	4,768
수도권	소계	5,277	3,303	1,974	56	37	19	5,221	3,266	1,955
	인문	269	133	136	4	2	2	265	131	134
	사회	1,268	851	417	15	9	6	1,253	842	411
	교육	303	53	250	3	1	2	300	52	248
	공학	1,455	1,294	161	8	6	2	1,447	1,288	159
	자연	365	200	165	-	-	-	365	200	165
	의약	494	149	345	7	6	1	487	143	344
	예·체능	1,086	593	493	18	12	6	1,068	581	487
비수도권	소속학과없음	37	30	7	1	1	-	36	29	7
	소계	7,577	4,730	2,847	263	229	34	7,314	4,501	2,813
	인문	144	91	53	8	7	1	136	84	52
	사회	1,526	1,143	383	48	44	4	1,478	1,099	379
	교육	477	132	345	11	8	3	466	124	342
	공학	1,684	1,554	130	88	85	3	1,596	1,469	127
	자연	493	343	150	51	48	3	442	295	147
	의약	2,252	849	1,403	25	14	11	2,227	835	1,392
	예·체능	910	541	369	24	15	9	886	526	360
	소속학과없음	91	77	14	8	8	-	83	69	14

주: 전임교원에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포함됨.

표 I-3-3 연도별 설립별 외국인 교원수(2005~2016)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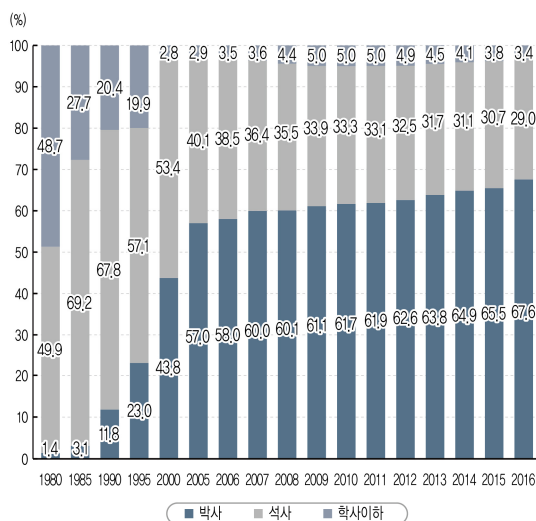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전임	비전임	소계	전임	비전임	소계	전임	비전임
2005	575	320	255	6	-	6	569	320	249
2006	578	386	192	17	1	16	561	385	176
2007	703	456	247	15	-	15	688	456	232
2008	860	598	262	20	-	20	840	598	242
2009	1,002	696	306	28	-	28	974	696	278
2010	1,001	708	293	7	-	7	994	708	286
2011	1,035	741	294	7	-	7	1,028	741	287
2012	1,039	740	299	5	-	5	1,034	740	294
2013	984	675	309	7	-	7	977	675	302
2014	860	589	271	8	-	8	852	589	263
2015	815	554	261	8	-	8	807	554	253
2016	746	526	220	8	-	8	738	526	212

2) 교원의 학위 소지 현황

전임교원의 학위 소지 현황은 박사학위, 석사학위, 학사학위 이하로 구분된다. 학사학위 이하에는 학사학위를 포함하여 국제전문학교 졸업 및 기타의 사유로 정식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교원, 곧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가 없는 교원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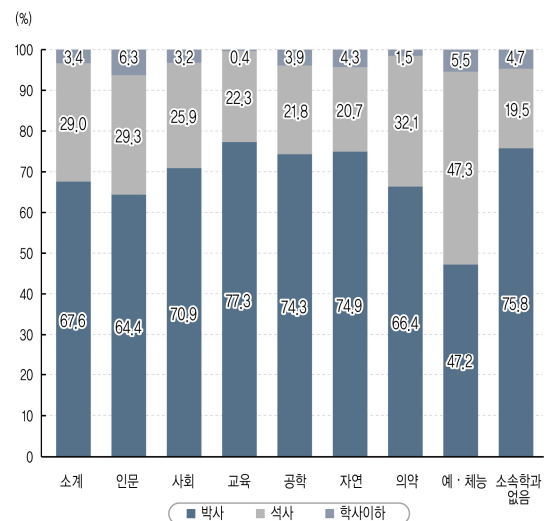
연도별로 전임교원의 학위 소지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I-3-7]과 같다. 먼저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교원 비율을 살펴보면, 1980년 1.4%에 불과했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교원 비율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2005년 57.0%로 50%대를 넘어섰고, 2007년부터는 60%대를 넘어서 2016년 현재 전문대학 전체 전임교원의 67.6%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석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교원은 1980년 49.9%로 전체 전임교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000년까지 50% 이상을 차지하였던 석사학위 소지 전임교원은 2005년부터 40%대로 떨어졌으며, 이후 매년 감소해 2016년 현재 29.0%의 전임교원이 석사학위 소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사학위 및 기타학위 소지자는 1980년 48.7%로 석사학위 소지자 다음으로 높았으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의 증가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해 2000년부터는 5% 이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는 달리 학사 이하나 석사학위 소지자의 수가 2000년대 후반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대학에서는 산업체 현장 경력을 중시해 현장 경력이 많은 전임교원을 채용하는 경향 때문으로 볼 수 있다(한강희 외, 2010).

2016년 계열별 전임교원의 학위소지 현황은 [그림 I-3-8]과 같다. 석사학위 소지 교원의 비중이 가장 많은 계열은 예·체능계열로 47.3%가 석사학위 소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의약계열(32.1%)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자연계열(20.7%)이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학사학위 이하 소지 교원의 비중은 인문계열이 6.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예·체능계열(5.5%)이었으며, 가장 낮은 계열은 교육계열(0.4%)이었다.



■ 그림 I-3-7 ■ 연도별 전임교원 학위소지 현황(1980~2016)

주: <표 I-3-4> 참조.



■ 그림 I-3-8 ■ 계열별 전임교원 학위소지 현황(2016)

주: <표 I-3-5> 참조.

■ 표 I-3-4 ■ 연도별 전임교원 학위 소지 현황(1980~2016)

(단위: 명)

	전체	박사			석사	학사	기타
		전체	국내	국외			
1980	5,488	77	55	22	2,738	1,998	675
1985	6,406	201	161	40	4,430	802	973
1990	7,382	872	780	92	5,003	572	935
1995	10,384	2,388	2,188	200	5,925	374	1,697
2000	11,707	5,124	4,767	357	6,257	307	19
2005	12,027	6,858	6,402	456	4,824	311	34
2006	11,857	6,882	6,430	452	4,564	369	42
2007	11,685	7,008	6,534	474	4,251	381	45
2008	12,100	7,271	6,797	474	4,293	487	49
2009	12,451	7,610	7,098	512	4,224	562	55
2010	12,530	7,728	7,223	505	4,174	570	58
2011	12,891	7,978	7,461	517	4,272	591	50
2012	13,078	8,187	7,661	526	4,252	588	51
2013	13,015	8,307	7,802	505	4,123	547	38
2014	12,920	8,382	7,863	519	4,013	479	46
2015	12,991	8,509	7,971	538	3,991	451	40
2016	12,854	8,688	8,160	528	3,730	401	35

주: '기타'에는 국제전문학교 졸업 및 기타의 사유로 정식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한 교원(즉,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가 없는 교원)이 포함됨.

■ 표 I-3-5 ■ 지역별 계열별 전임교원 학위 소지 현황(2016)

(단위: 명)

		전체	박사			석사	학사	기타
			전체	국내	국외			
전체		12,854	8,688	8,160	528	3,730	401	35
수도권	소개	5,277	3,587	3,287	300	1,487	198	5
	인문	269	178	128	50	74	17	-
	사회	1,268	893	849	44	318	57	-
	교육	303	254	225	29	49	-	-
	공학	1,455	1,124	1,040	84	289	42	-
	자연	365	265	245	20	82	16	2
	의약	494	359	346	13	121	14	-
	예·체능	1,086	483	430	53	548	52	3
	소속학과없음	37	31	24	7	6	-	-
비수도권	소개	7,577	5,101	4,873	228	2,243	203	30
	인문	144	88	69	19	47	8	1
	사회	1,526	1,088	1,043	45	405	33	-
	교육	477	349	335	14	125	3	-
	공학	1,684	1,208	1,150	58	395	77	4
	자연	493	378	353	25	96	12	7
	의약	2,252	1,464	1,431	33	760	24	4
	예·체능	910	460	443	17	396	43	11
	소속학과없음	91	66	49	17	19	3	3

주: '기타'에는 국제전문학교 졸업 및 기타의 사유로 정식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한 교원(즉,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가 없는 교원)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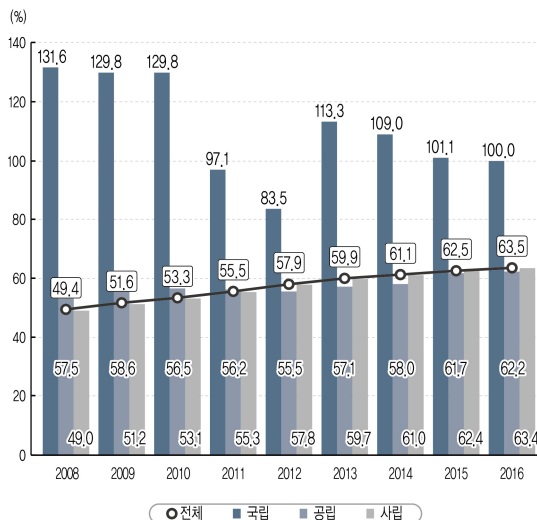
04 학습 환경 및 여건

1) 전임교원 현황

(1) 전임교원 확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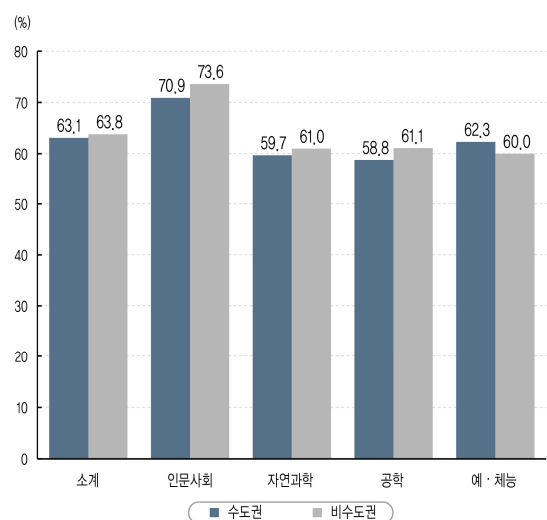
전임교원 확보율은 대학의 재정 지원 사업의 선정지표 가운데 하나로 활용되는 등 대학의 여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이런 이유로 전문대학들은 전임교원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를 수치로 살펴보면 [그림 I-4-1]과 같다. 2008년 49.4%였던 전임교원 확보율은 2016년 63.5%로 높아져서 2008년 대비 약 14.1%p 증가했다. 2008년 이후의 설립별 전임교원 확보율을 살펴보면, 국립 전문대학은 2008년 전임교원 확보율이 131.6%로 가장 높았으나 등락을 반복하다 2016년 100.0%로 2008년 대비 약 31.6%p 감소했다. 공립 전문대학은 2008년 57.5%에서 2016년 62.2%로 약 4.7%p 증가했다. 2008년 전임교원 확보율이 49.0%로 가장 낮았던 사립 전문대학은 2016년 63.4%로 약 14.4%p 증가해 공립 전문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4-2]를 통해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63.8%로 수도권 전문대학 63.1%보다 약 0.7%p 높았다. 계열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열이 수도권 70.9%, 비수도권이 73.6%로 모든 계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예·체능계열 62.3%, 자연과학계열 59.7%, 공학계열 58.8% 순으로 전임교원 확보율이 높았고, 비수도권에서는 공학계열 61.1%, 자연과학계열 61.0%, 예·체능계열 60.0% 순으로 전임교원 확보율이 높았으며, 예·체능계열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계열에서 비수도권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수도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I-4-1 ■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확보율(2008~2016)

주: <표 I-4-1> 참조.



■ 그림 I-4-2 ■ 지역별 계열별 전임교원 확보율(2016)

주: 1. <표 I-4-2> 참조.

2. 전임교원 확보율은 5대 계열로 구분하며, 전문대학에는 의학계열이 없음

■ 표 I-4-1 ■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확보율(2008~2016)

(단위: %)

	전체	국립	공립	사립
2008	49.4	131.6	57.5	49.0
2009	51.6	129.8	58.6	51.2
2010	53.3	129.8	56.5	53.1
2011	55.5	97.1	56.2	55.3
2012	57.9	83.5	55.5	57.8
2013	59.9	113.3	57.1	59.7
2014	61.1	109.0	58.0	61.0
2015	62.5	101.1	61.7	62.4
2016	63.5	100.0	62.2	63.4

주: 1) 2012년까지는 전임교원에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가 포함되며, 2013년부터는 전임강사 폐지에 따라 전임교원에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포함됨. 단, 소속학과가 없는 전임교원의 수는 제외됨.

2) 전임교원 확보율(편제정원 기준)=[전임교원수/교원법정정원(편제정원 기준)]×100

3) 교원법정정원: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1항의 별표5와 제2항에 근거하여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누어 산출(편제정원별)되며,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산출함.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1항의 별표5

대계열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교원 1인당 학생수	25	20	20	20	8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계열별 학생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생수를 말한다. 1) 대학원이 없는 대학: 대학의 학생 정원, 2) 대학원이 있는 대학: 학사과정의 학생정원에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전문대학원의 경우는 학생정원의 2배)를 합한 학생수, 3) 대학원 대학: 대학원 학생정원의 2배의 학생수

■ 표 I-4-2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전임교원 확보율(2016)

(단위: %)

	전체	국립	공립	사립
전체	63.5	100.0	62.2	63.4
수도권	소계	63.1	189.7	62.7
	인문사회	70.9	220.0	70.3
	자연과학	59.7	175.0	59.3
	공학	58.8	160.0	58.6
	예·체능	62.3	180.0	61.5
비수도권	소계	63.8	55.9	62.2
	인문사회	73.6	—	65.8
	자연과학	61.0	55.9	64.2
	공학	61.1	—	59.6
	예·체능	60.0	—	63.6

주: 1) <표 I-4-1>의 주 1)~4) 참조

2) 전임교원 확보율의 경우,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등의 5대 계열 구분('대학설립·운영규정'의 <별표1>에 의함)을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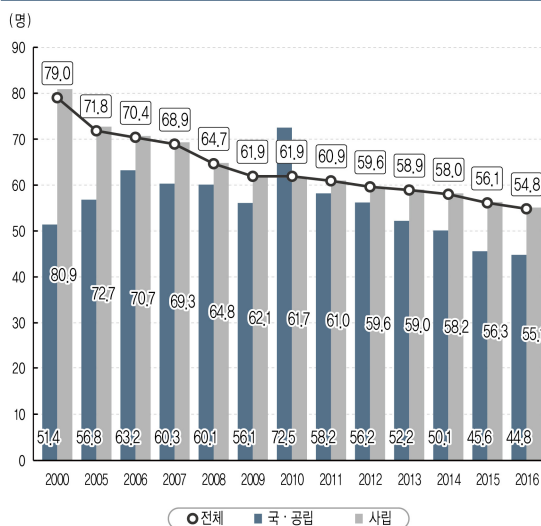
- 인문사회계열: 어학, 문학, 사회 및 신학 등
- 자연과학계열: 이학, 해양, 농학, 수산, 간호, 보건, 약학 및 한약학 등(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 수의예과 등은 자연과학계열에 포함됨)
- 공학계열: 공학 등
- 예·체능계열: 음악, 미술, 체육 및 무용 등
- 의학계열: 의학, 치의학, 한의학 및 수의학 등

3) 단, 전문대학에는 의학계열 없음.

(2)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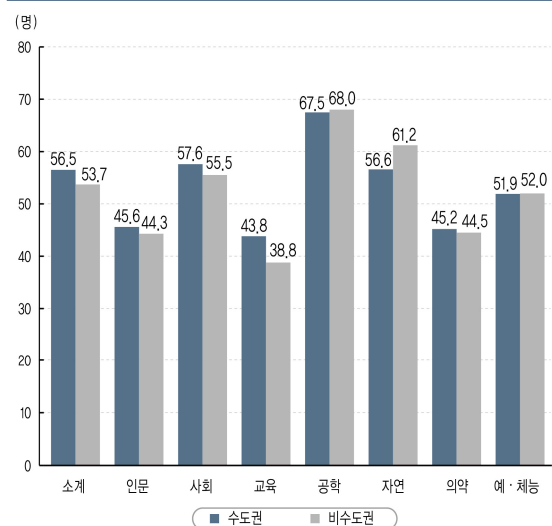
[그림 I-4-3]을 보면 연도별로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2000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79.0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현재 54.8명으로 약 24.2명이 줄어들었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를 설립별로 보면, 국·공립 전문대학은 2000년 51.4명으로 사립 전문대학 80.9명보다 약 29.5명 적었지만, 등락을 반복하다 2010년에 72.5명에 이르렀고 이는 사립 전문대학 61.7명보다 약 10.8명 많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국·공립 전문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는 점점 감소하여 2016년에는 44.8명으로 사립 전문대학 55.1명보다 약 10.3명 적게 나타났다. 2010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국·공립 전문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사립 전문대학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이 지표에서는 국·공립 전문대학의 교육여건이 좀 더 나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별로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를 [그림 I-4-4]를 통해 살펴보면, 수도권 전문대학은 56.5명, 비수도권 전문대학은 53.7명으로 수도권 전문대학이 비수도권 전문대학보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약 2.8명 많았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공학계열은 지역과 무관하게 전임교원 1인당 평균 60명 이상의 학생을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계열에 비해 가르쳐야 할 학생이 평균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계열은 수도권 43.8명, 비수도권 38.8명으로 모든 계열에서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 자세히 나누어 살펴보면, 수도권 전문대학은 교육계열 다음으로 의약계열(45.2명), 인문계열(45.6명), 예·체능계열(51.9명), 자연계열(56.6명), 사회계열(57.6명), 공학계열(67.5명) 순으로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많았다. 비수도권 전문대학은 인문계열(44.3명), 의약계열(44.5명), 예·체능계열(52.0명), 사회계열(55.5명), 자연계열(61.2명), 공학계열(68.0명) 순으로 많았으며, 공학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에서 비수도권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수도권 전문대학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I-4-3 ■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2000~2016)

주: <표 I-4-3> 참조.



■ 그림 I-4-4 ■ 지역별 계열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2016)

주: <표 I-4-4> 참조.

■ 표 I-4-3 ■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2000~2016)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2000	79.0	51.4	80.9
2005	71.8	56.8	72.7
2006	70.4	63.2	70.7
2007	68.9	60.3	69.3
2008	64.7	60.1	64.8
2009	61.9	56.1	62.1
2010	61.9	72.5	61.7
2011	60.9	58.2	61.0
2012	59.6	56.2	59.6
2013	58.9	52.2	59.0
2014	58.0	50.1	58.2
2015	56.1	45.6	56.3
2016	54.8	44.8	55.1

주: 1) 총장 및 소속학과가 없는 전임교원수는 제외됨.
 2)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재적 학생수/전임교원수

■ 표 I-4-4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2016)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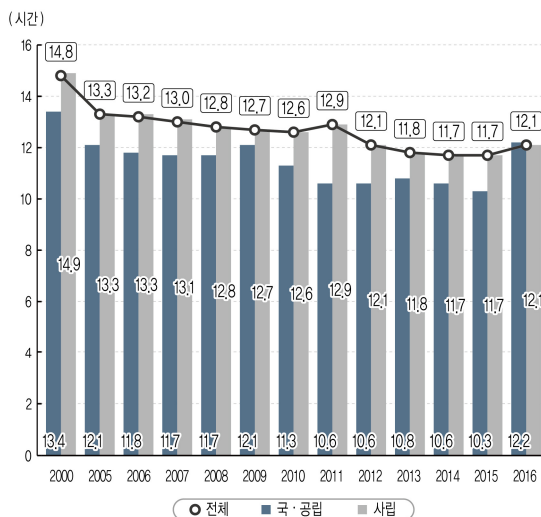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54.8	44.8	55.1
수도권	소계	56.5	57.0
	인문	45.6	46.1
	사회	57.6	58.2
	교육	43.8	44.1
	공학	67.5	67.8
	자연	56.6	56.6
	의약	45.2	45.6
	예·체능	51.9	52.5
비수도권	소계	53.7	53.8
	인문	44.3	46.4
	사회	55.5	55.7
	교육	38.8	38.6
	공학	68.0	68.3
	자연	61.2	62.1
	의약	44.5	44.6
	예·체능	52.0	52.3

주: 1) 총장 및 소속학과가 없는 전임교원수는 제외됨.
 2)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재적 학생수/전임교원수

(3) 전임교원의 강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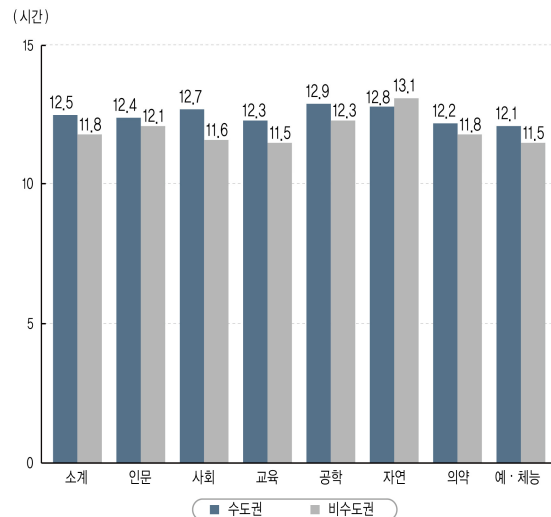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은 전체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의 합을 전임교원수로 나누어 산출한 값으로 교원의 근무여건을 파악하는 주요지표 중 하나이다. [그림 1-4-5]를 통해 전임교원 1인당 주당 수업시간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임교원 1인당 주당 수업시간은 2000년 14.8시간에서 2011년을 제외하고 대체로 감소하였으나, 2016년에는 전년 대비 0.4시간 증가하여 주당 평균 12.1시간 강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별로 살펴보면, 2000년 이후로 국·공립 전문대학보다 사립 전문대학의 1인당 주당 수업시간이 많았으나, 2016년에는 국·공립 전문대학이 12.2시간으로 사립 전문대학보다 약 0.1시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전문대학은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주당 평균 11~13시간 강의를 하다가 2011년 이후 평균 10시간대로 줄어들었으나 2016년 다시 주당 평균 12시간 이상 강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과 사립간의 격차는 2000년 1.5시간에서 2009년 0.6시간까지 감소하였고, 2011년에는 그 격차가 다시 2.3시간으로 증가하였으나 2016년에는 그 격차가 다시 0.1시간으로 줄어들었다.

[그림 1-4-6]을 통해 지역별로 전임교원 1인당 주당 수업시간을 살펴보면, 수도권 전문대학은 평균 12.5시간, 비수도권 전문대학은 평균 11.8시간 강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전문대학이 비수도권 전문대학보다 주당 평균 수업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전문대학은 예·체능계열이 12.1시간으로 가장 적었고, 의학계열(12.2시간), 교육계열(12.3시간), 인문계열(12.4시간), 사회계열(12.7시간), 자연계열(12.8시간), 공학계열(12.9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 전문대학에서는 교육계열, 예·체능계열이 11.5시간으로 가장 낮았으며, 사회계열(11.6시간), 의학계열(11.8시간), 인문계열(12.1시간), 공학계열(12.3시간), 자연계열(13.1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자연계열을 제외한 모든 계열에서 수도권 전문대학의 주당 수업시간이 비수도권 전문대학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1-4-5 ■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2000~2016)

주: <표 1-4-5> 참조.



■ 그림 1-4-6 ■ 지역별 계열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2016)

주: <표 1-4-6> 참조.

■ 표 I-4-5 ■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2000~2016)

(단위: 시간)

	전체	국·공립	사립
2000	14.8	13.4	14.9
2005	13.3	12.1	13.3
2006	13.2	11.8	13.3
2007	13.0	11.7	13.1
2008	12.8	11.7	12.8
2009	12.7	12.1	12.7
2010	12.6	11.3	12.6
2011	12.9	10.6	12.9
2012	12.1	10.6	12.1
2013	11.8	10.8	11.8
2014	11.7	10.6	11.7
2015	11.7	10.3	11.7
2016	12.1	12.2	12.1

주: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전체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의 합/전체 전임교원수

■ 표 I-4-6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2016)

(단위: 시간)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12.1	12.2	12.1
수도권	소계	12.5	11.6	12.5
	인문	12.4	9.0	12.5
	사회	12.7	11.7	12.8
	교육	12.3	11.0	12.4
	공학	12.9	13.3	12.9
	자연	12.8	-	12.8
	의약	12.2	11.6	12.2
	예·체능	12.1	12.1	12.1
	소속학과없음	-	-	-
비수도권	소계	11.8	12.3	11.7
	인문	12.1	14.0	12.0
	사회	11.6	10.7	11.6
	교육	11.5	12.2	11.5
	공학	12.3	11.1	12.4
	자연	13.1	19.0	12.4
	의약	11.8	11.1	11.8
	예·체능	11.5	10.8	11.5
	소속학과없음	0.4	0.0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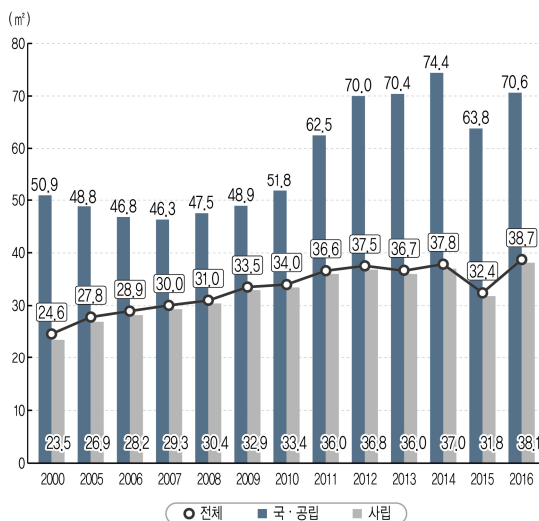
주: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전체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의 합/전체 전임교원수

2) 시설 현황

전문대학의 시설여건을 알아보기 위해 교지면적 및 교사면적과 도서관 현황을 살펴보았다. 교지면적은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값으로 이를 재적 학생수로 나누면 학생 1인당 교지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먼저 학생 1인당 교지면적의 변화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0년 24.6㎡에서 2014년 37.8㎡로 약 1.5배 증가 후 2015년 32.4㎡로 감소했으나, 2016년에는 전년 대비 약 6.3%p 증가한 38.7㎡로 나타났다. 설립별로 보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국·공립의 교지면적이 사립보다 약 1.5~2.2배 정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I-4-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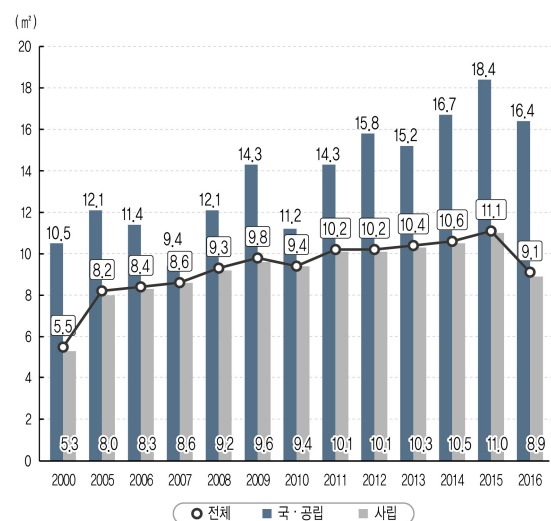
교사면적은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특수시설, 기숙시설, 계열별 부속시설, 기타시설 등을 합한 면적으로 이를 재적 학생수로 나누어 학생 1인당 교사면적을 산출하였다. 설립별 학생 1인당 교사면적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 I-4-8]에 따르면, 전문대학의 학생 1인당 교사면적은 2000년 5.5㎡에서 2015년 11.1㎡로 약 2.0배 증가하였으나 2016년에는 전년 대비 약 2.0㎡ 감소한 9.1㎡로 나타났다. 설립별로 보면, 국·공립이 사립보다 넓었으며, 2016년에는 약 7.5㎡ 차이가 났다.

도서관 현황은 학생 1인당 도서관 예산, 좌석당 학생수, 학생 1인당 장서수를 통하여 볼 수 있다. 2016년 전체 전문대학의 학생 1인당 도서관 예산은 20,432.9원이며, 국·공립(32,018.4원)이 사립(20,197.6원)보다, 수도권(22,554.0원)이 비수도권(18,868.4원)보다 학생 1인당 도서관 예산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좌석당 학생수는 2016년 평균 10.3명으로 국·공립(6.9명)이 사립(10.4명)보다, 비수도권(9.4명)이 수도권(11.8명)보다 평균적으로 더 여유 있게 도서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 1인당 장서수는 20.6권으로 국·공립(35.3권)이 사립(20.3권)보다, 비수도권(22.3권)이 수도권(18.2권)보다 학생 1인당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는 장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4-8〉 참조).



■ 그림 I-4-7 ■ 연도별 설립별 학생 1인당 교지면적(2000~2016)

주: 〈표 I-4-7〉 참조.



■ 그림 I-4-8 ■ 연도별 설립별 학생 1인당 교사면적(2000~2016)

주: 〈표 I-4-7〉 참조.

표 I-4-7 연도별 설립별 학생 1인당 교지면적 및 교사면적(2000~2016)

(단위: m²)

	학생 1인당 교지면적			학생 1인당 교사면적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2000	24.6	50.9	23.5	5.5	10.5	5.3
2005	27.8	48.8	26.9	8.2	12.1	8.0
2006	28.9	46.8	28.2	8.4	11.4	8.3
2007	30.0	46.3	29.3	8.6	9.4	8.6
2008	31.0	47.5	30.4	9.3	12.1	9.2
2009	33.5	48.9	32.9	9.8	14.3	9.6
2010	34.0	51.8	33.4	9.4	11.2	9.4
2011	36.6	62.5	36.0	10.2	14.3	10.1
2012	37.5	70.0	36.8	10.2	15.8	10.1
2013	36.7	70.4	36.0	10.4	15.2	10.3
2014	37.8	74.4	37.0	10.6	16.7	10.5
2015	32.4	63.8	31.8	11.1	18.4	11.0
2016	38.7	70.6	38.1	9.1	16.4	8.9

- 주: 1) 교지면적: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값으로, 차용면적은 제외하고 학교소유면적만을 나타냄.
 2) 교사면적: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특수시설, 기숙시설, 계열별 부속시설, 기타시설 등을 합한 수치임.
 3) 학생 1인당 교지면적=전체 교지면적/재적 학생수
 4) 학생 1인당 교사면적=전체 교사면적/재적 학생수

출처: 한국사학진흥재단

표 I-4-8 지역별 설립별 학생 1인당 도서관 현황(2016)

(단위: 원, 명, 권)

	학생 1인당 도서관 예산			도서관 좌석당 학생수			학생 1인당 도서관 장서수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20,432.9	32,018.4	20,197.6	10.3	6.9	10.4	20.6	35.3	20.3
수도권	22,554.0	66,032.1	22,434.6	11.8	4.5	11.8	18.2	50.0	18.2
비수도권	18,868.4	29,907.4	18,496.8	9.4	7.1	9.6	22.3	34.4	21.9

- 주: 1) 학생 1인당 도서관 예산=전체 도서관 예산/재적 학생수
 2) 도서관 좌석당 학생수=재적 학생수/좌석수
 3) 학생 1인당 도서관 장서수=장서수/재적 학생수
 4) 폐교의 재적 학생수는 제외함.

출처: 한국사학진흥재단

Ⅱ.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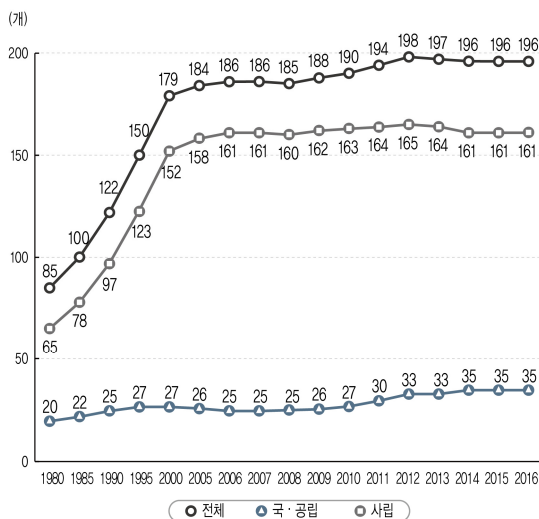
1. 학교
2. 학생
3. 교원
4. 학습 환경 및 여건

01 학교

1980년 이후의 대학수 변동을 [그림 II-1-1]에서 살펴보면, 1980년 85개교에 불과하던 대학은 2000년 179개교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1995년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대학설립준칙주의에 따라 대학 설립 규제가 완화되면서 대학이 양적으로 크게 팽창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후 2004년 노무현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및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경영부실대학퇴출,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으로 대학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2014년 이후부터는 분교 7개교를 포함하여 총 196개의 대학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국공립대학은 35개교, 사립은 분교를 포함하여 총 161개교로 사립대학이 전체 대학의 82.1%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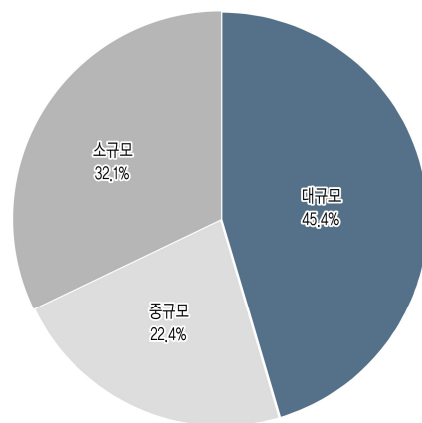
[표 II-1-2]에서 지역별로 설립별 대학수를 비교해 보면, 2016년 현재 수도권 소재 대학은 총 71개교로 전체 대학의 36.2%에 달하며, 비수도권은 125개교로 63.8%를 차지하고 있다. 국공립대학 35개교 중 6개교(17.1%)가 수도권에 29개교(82.9%)가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립대학 161개교 중 65개교(40.4%)가 수도권에 96개교(59.6%)가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그림 II-1-2]에서 2016년 대학의 학교규모를 살펴보면, 학생수 1만명 이상의 대규모 학교는 총 89개교로 전체 학교의 45.4%를 차지하고 있으며, 5천명 이상 ~ 1만명 미만의 중규모 학교는 44개교로 22.4%, 5천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는 63개교로 32.1%를 차지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대규모 학교가 45.1%, 중규모 학교는 23.9%, 소규모 학교는 31.0%로 나타나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학교규모(대규모 학교 45.6%, 중규모 학교 21.6%, 소규모 학교 32.8%)보다 소규모 학교 비중이 약 1.8%p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II-1-1 ■ 연도별 설립별 학교수(1980~2016)

주: <표 II-1-1> 참조.



■ 그림 II-1-2 ■ 규모별 학교 비율(2016)

주: <표 II-1-2> 참조.

표 II-1-1 연도별 설립별 학교수(1980~2016)

(단위: 개)

	전체	국·공립	사립
1980	85	20	65
1985	100	22	78
1990	107(15)	24(1)	83(14)
1995	131(19)	26(1)	105(18)
2000	161(18)	26(1)	135(17)
2005	173(11)	26	147(11)
2006	175(11)	25	150(11)
2007	175(11)	25	150(11)
2008	174(11)	25	149(11)
2009	177(11)	26	151(11)
2010	179(11)	27	152(11)
2011	183(11)	30	153(11)
2012	189(9)	33	156(9)
2013	188(9)	33	155(9)
2014	189(7)	35	154(7)
2015	189(7)	35	154(7)
2016	189(7)	35	154(7)

주: ()는 분교수이며, 전체 학교수에는 분교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표 II-1-2 지역별 규모별 설립별 학교수(2016)

(단위: 개)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196	35	161
수도권	소계	71	65
	대규모	32	28
	중규모	17	16
	소규모	22	21
비수도권	소계	125	96
	대규모	57	40
	중규모	27	22
	소규모	41	34

주: 1) 학교규모는 ① 대규모: 10,000명 이상, ② 중규모: 5,000명 이상~10,000명 미만, ③ 소규모: 5,000명 미만의 기준에 의하여 구분함.

2) 캠퍼스는 본교로 포함하였으며, 분교 7개를 별도로 보아 총 196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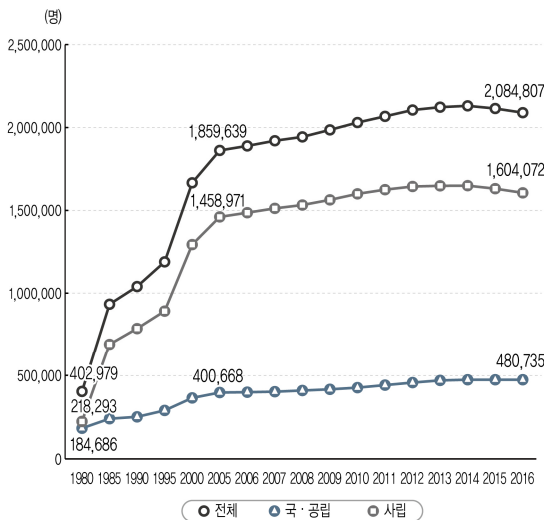
3) 지역은 본교 기준임.

02 학생

1) 학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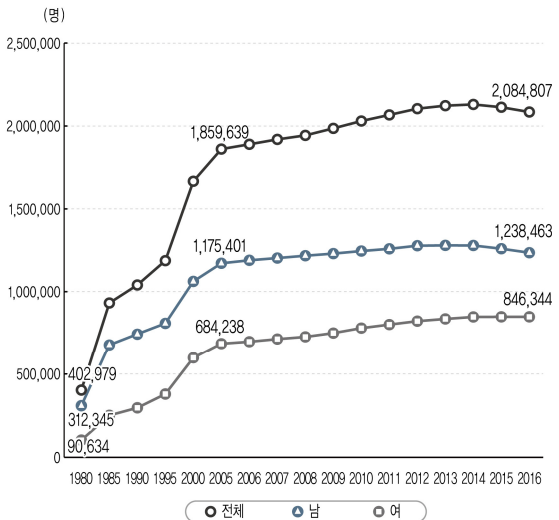
1980년 이후의 학생수 변동을 [그림 II-2-1]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0년에 402,979명에 불과했던 학생수는 1990년 1백만명을 넘어섰고, 20년 후인 2010년에는 2백만명을 돌파했다. 2016년 현재 학생수는 2,084,807명으로 1980년 대비 약 5배 이상의 규모로 급성장하였다. 특히 1980년에서 2005년까지 학생수가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이는 대학설립준칙주의와 대학정원 자율화로 학생수가 양적으로 크게 팽창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부의 대학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학령인구의 감소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설립별로 학생수 변화를 살펴보면,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다소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1980년 184,686명에서 2016년 480,735명으로 약 2.6배 정도 학생수가 증가했으나, 사립대학은 218,293명에서 2016년 1,604,072명으로 약 7.3배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국공립대학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한 사립대학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설립별 구성비 변화로 이러한 현상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1980년 전체 학생의 45.8%에 달했던 국공립대학 학생수는 1985년 26.1%로 약 19.7%p 감소하였으며, 이후 전체 학생의 약 20~30% 수준을 유지해 왔다. 반면 1980년 54.2%로 국공립대학 학생수와 큰 차이가 없던 사립대학 학생수는 1985년 73.9%로 약 19.7%p 증가하였으며, 이후 70% 이상의 비율을 유지해 왔다.



■ 그림 II-2-1 ■ 연도별 설립별 학생수(1980~2016)

주: <표 II-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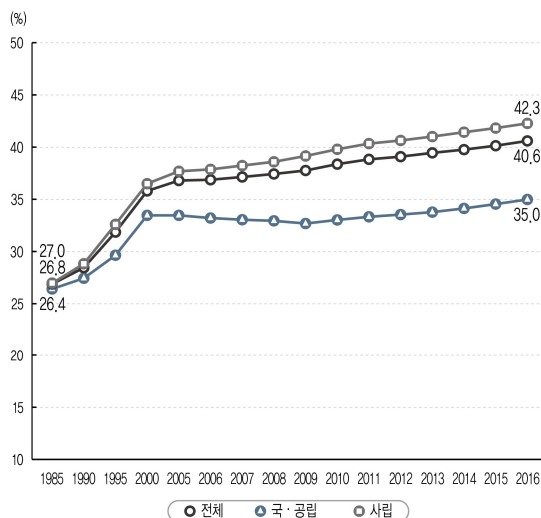
■ 그림 II-2-2 ■ 연도별 성별 학생수(1980~2016)

주: <표 II-2-1> 참조.

한편 성별 학생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II-2-2]와 같다. 남학생은 1980년 312,345명에서 2016년 1,238,463명으로 약 4배 증가한 반면, 여학생은 1980년 90,634명에서 2016년 846,344명으로 약 9.3배 증가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급속한 증가 추세는 [그림 II-2-3]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1985년 전체 여학생 비율은 26.8%였으나 이후 급속히 증가해 2000년부터 35%를 넘어서기 시작했으며, 2015년에는 40%를 돌파해 2016년 현재 전체 학생 중 여학생 비율이 40.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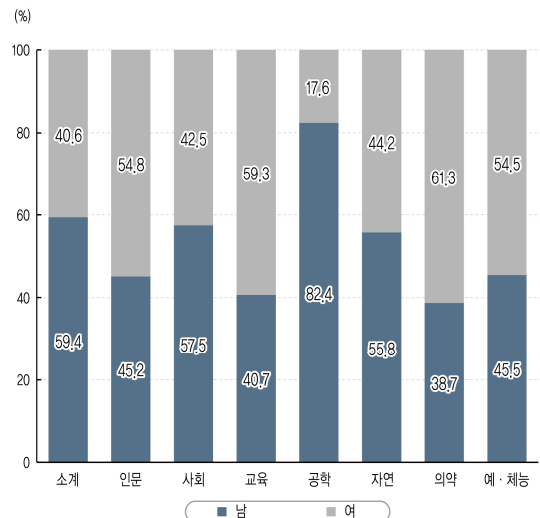
2016년 계열별 학생수를 <표 II-2-2>에서 살펴보면, 사회계열 학생이 588,758명(28.2%)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학계열이 560,826명(26.9%)로 그 뒤를 이었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은 각각 256,453명(12.3%)과 249,704명(12.0%)으로 전체 학생의 12% 정도를 차지하였다. 예·체능계열은 221,011명으로 전체 학생의 약 10.6%를 차지하였고, 의약계열 122,285명(5.9%), 교육계열 85,770명(4.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785,950명, 비수도권은 1,298,857명으로 전체 학생의 약 62.3%가 비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에서는 사회계열(29.4%), 공학계열(26.5%), 인문계열(14.9%), 예·체능계열(11.6%), 자연계열(11.1%), 교육계열(3.3%), 의약계열(3.2%) 순이었고,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사회계열(27.5%), 공학계열(27.2%), 자연계열(12.5%), 인문계열(10.7%), 예·체능계열(10.0%), 의약계열(7.5%), 교육계열(4.6%) 순으로 나타났다.

계열별 여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그림 II-2-4]와 같다. 여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계열은 의약계열로 전체 학생 중 61.3%에 달하는 학생이 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열(59.3%)과 인문계열(54.8%), 예·체능계열(54.5%) 역시 여학생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였고, 자연계열(44.2%)과 사회계열(42.5%)은 40% 정도가 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학계열은 여학생 비율이 17.6%로 다른 계열에 비해 여학생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II-2-3 ■ 연도별 설립별 여학생 비율(1985~2016)

주: <표 II-2-1> 참조.



■ 그림 II-2-4 ■ 계열별 성별 학생 비율(2016)

주: <표 II-2-2> 참조.

표 II-2-1 연도별 설립별 성별 학생수(1980~2016)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1980	402,979	312,345	90,634	184,686	165,098	19,588	218,293	147,247	71,046
1985	931,884	681,796	250,088	243,378	179,092	64,286	688,506	502,704	185,802
1990	1,040,166	744,037	296,129	254,748	184,846	69,902	785,418	559,191	226,227
1995	1,187,735	809,317	378,418	295,941	208,089	87,852	891,794	601,228	290,566
2000	1,665,398	1,069,009	596,389	372,078	247,470	124,608	1,293,320	821,539	471,781
2005	1,859,639	1,175,401	684,238	400,668	266,317	134,351	1,458,971	909,084	549,887
2006	1,888,436	1,192,002	696,434	405,256	270,623	134,633	1,483,180	921,379	561,801
2007	1,919,504	1,206,769	712,735	408,461	273,341	135,120	1,511,043	933,428	577,615
2008	1,943,437	1,216,259	727,178	411,675	275,934	135,741	1,531,762	940,325	591,437
2009	1,984,043	1,234,714	749,329	420,944	283,360	137,584	1,563,099	951,354	611,745
2010	2,028,841	1,250,655	778,186	428,173	286,426	141,747	1,600,668	964,229	636,439
2011	2,065,451	1,263,376	802,075	441,946	294,645	147,301	1,623,505	968,731	654,774
2012	2,103,958	1,282,083	821,875	459,171	305,455	153,716	1,644,787	976,628	668,159
2013	2,120,296	1,284,593	835,703	471,368	311,867	159,501	1,648,928	972,726	676,202
2014	2,130,046	1,283,204	846,842	480,870	316,659	164,211	1,649,176	966,545	682,631
2015	2,113,293	1,264,870	848,423	484,796	317,362	167,434	1,628,497	947,508	680,989
2016	2,084,807	1,238,463	846,344	480,735	312,642	168,093	1,604,072	925,821	678,251

표 II-2-2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학생수(2016)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2,084,807	1,238,463	846,344	480,735	312,642	168,093	1,604,072	925,821	678,251
수도권	소계	785,950	434,008	351,942	73,350	47,935	25,415	712,600	386,073	326,527
	인문	117,323	47,885	69,438	6,741	3,277	3,464	110,582	44,608	65,974
	사회	231,047	123,195	107,852	16,068	10,006	6,062	214,979	113,189	101,790
	교육	25,590	9,896	15,694	2,800	1,569	1,231	22,790	8,327	14,463
	공학	207,991	163,886	44,105	26,899	21,491	5,408	181,092	142,395	38,697
	자연	87,335	44,907	42,428	11,081	6,626	4,455	76,254	38,281	37,973
	의약	25,246	9,168	16,078	1,280	635	645	23,966	8,533	15,433
	예·체능	91,418	35,071	56,347	8,481	4,331	4,150	82,937	30,740	52,197
비수도권	소계	1,298,857	804,455	494,402	407,385	264,707	142,678	891,472	539,748	351,724
	인문	139,130	67,975	71,155	39,376	18,306	21,070	99,754	49,669	50,085
	사회	357,711	215,300	142,411	77,245	45,527	31,718	280,466	169,773	110,693
	교육	60,180	25,027	35,153	22,306	10,659	11,647	37,874	14,368	23,506
	공학	352,835	298,192	54,643	154,763	128,162	26,601	198,072	170,030	28,042
	자연	162,369	94,384	67,985	82,564	49,383	33,181	79,805	45,001	34,804
	의약	97,039	38,189	58,850	12,128	4,686	7,442	84,911	33,503	51,408
	예·체능	129,593	65,388	64,205	19,003	7,984	11,019	110,590	57,404	53,186

2) 입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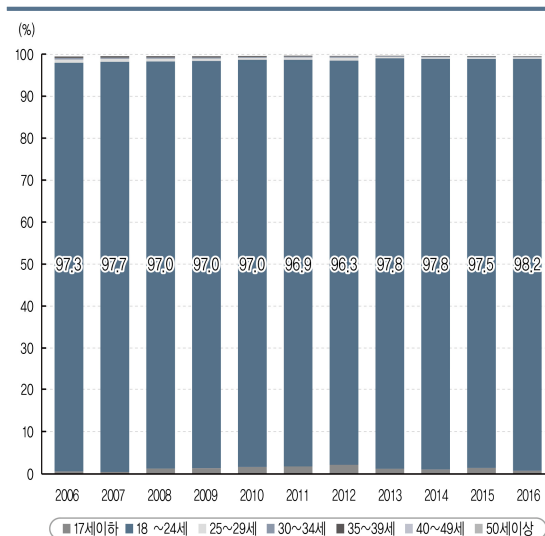
2006년 이후 연도별 입학생수 변동을 살펴보면 <표 II-2-3>과 같다. 2006년 335,581명이었던 대학 입학생수는 2012년 372,94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기 시작해 2016년 348,393명으로 2012년 대비 약 6.6% 감소하였다. 이 중 남학생은 175,904명, 여학생은 172,489명으로 약 49.5%가 여학생 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별로는 국공립이 사립에 비해 남학생 입학생(56.6%)이 더 많았고, 사립은 상대적으로 여학생 입학생(51.2%)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5]에서 연도별로 연령별 입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2006년 이래로 18~24세의 학생들이 전체 입학생의 96% 이상을 차지하였다. 2016년의 경우 해당 연령대의 학생들이 입학생 중 차지하는 비율은 98.2%로 전년 대비 약 0.7%p 증가하였다.

[그림 II-2-6], <표 II-2-4>에서 지역별 입학생수를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의 경우 사회계열(27.5%), 공학계열(25.7%), 인문계열(15.6%), 예·체능계열(12.6%), 자연계열(11.6%), 교육계열(3.7%), 의약계열(3.3%) 순으로 많았고,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공학계열(25.7%), 사회계열(25.5%), 자연계열(12.6%), 인문계열(10.8%), 예·체능계열(10.7%), 의약계열(9.2%), 교육계열(5.5%) 순으로 입학생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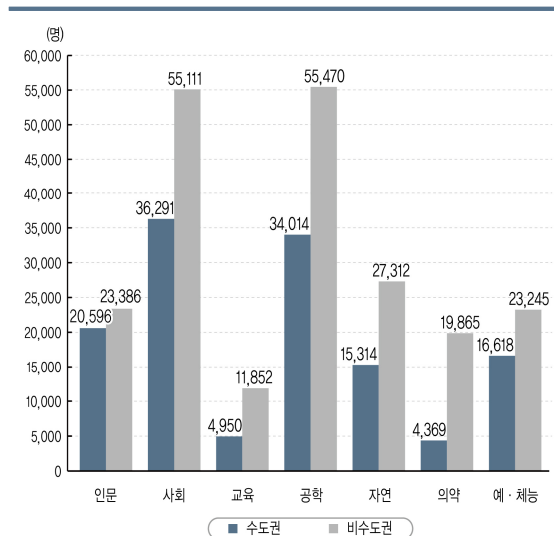
계열별 여자 입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의약계열(68.5%), 교육계열(67.9%), 인문계열(62.6%), 예·체능계열(62.0%)은 여자 입학생 비율이 60%를 넘었고, 사회계열(52.6%)과 자연계열(52.3%)은 50%를 넘었으나 공학계열은 24.4%로 여자 입학생 비율이 다른 계열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2-4> 참조).

학생유형별로 2016년 입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당해년도 고교 졸업자가 75.1%로 가장 많았다. 대학입시를 2번 이상 치른 재수자 비중 역시 23.5%로 전체 입학생 10명 중 평균 2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입학생 특성은 설립별이나 성별과 무관하게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표 II-2-5> 참조).



■ 그림 II-2-5 ■ 연도별 연령별 입학생 비율(2006~2016)

주: <표 II-2-3> 참조.



■ 그림 II-2-6 ■ 지역별 계열별 입학생수(2016)

주: <표 II-2-4> 참조.

표 II-2-3 연도별 연령별 입학생수(2006~2016)

(단위: 명)

	전체	17세 이하	18~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9세	50세 이상
2006	335,581	1,986	326,686	2,631	1,282	1,128	1,868	-
2007	342,250	1,648	334,423	2,469	995	1,027	1,688	-
2008	342,916	4,298	332,684	2,329	962	969	1,674	-
2009	347,750	4,719	337,439	1,970	887	957	1,279	499
2010	358,511	5,879	347,838	1,685	755	756	1,065	533
2011	361,686	6,483	350,435	2,026	833	566	859	484
2012	372,941	8,097	359,096	2,641	1,023	551	987	546
2013	365,515	4,556	357,438	1,227	521	384	879	510
2014	363,655	3,913	355,796	1,254	522	421	1,096	653
2015	355,772	5,013	346,805	1,302	517	424	1,083	628
2016	348,393	2,543	342,048	1,178	476	407	1,085	656

주: 2006~2008년의 40~49세 범주에는 '40세 이상'의 값을 제시함. 당시에는 50세 이상의 범주를 별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지 않고, 해당 대상을 40세 이상에 포함시켜 함께 집계함.

표 II-2-4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입학생수(2016)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348,393	175,904	172,489	76,645	43,416	33,229	271,748	132,488	139,260
수도권	소계	132,152	61,728	70,424	12,156	7,278	4,878	119,996	54,450	65,546
	인문	20,596	6,900	13,696	1,101	437	664	19,495	6,463	13,032
	사회	36,291	15,466	20,825	2,343	1,287	1,056	33,948	14,179	19,769
	교육	4,950	1,480	3,470	490	227	263	4,460	1,253	3,207
	공학	34,014	24,499	9,515	4,494	3,403	1,091	29,520	21,096	8,424
	자연	15,314	6,723	8,591	2,009	1,133	876	13,305	5,590	7,715
	의약	4,369	1,360	3,009	168	86	82	4,201	1,274	2,927
비수도권	예·체능	16,618	5,300	11,318	1,551	705	846	15,067	4,595	10,472
	소계	216,241	114,176	102,065	64,489	36,138	28,351	151,752	78,038	73,714
	인문	23,386	9,561	13,825	6,714	2,623	4,091	16,672	6,938	9,734
	사회	55,111	27,829	27,282	10,916	5,335	5,581	44,195	22,494	21,701
	교육	11,852	3,917	7,935	4,308	1,641	2,667	7,544	2,276	5,268
	공학	55,470	43,141	12,329	23,364	17,733	5,631	32,106	25,408	6,698
	자연	27,312	13,595	13,717	13,447	6,895	6,552	13,865	6,700	7,165
	의약	19,865	6,272	13,593	2,420	780	1,640	17,445	5,492	11,953
	예·체능	23,245	9,861	13,384	3,320	1,131	2,189	19,925	8,730	11,195

표 II-2-5 학생유형별 설립별 성별 입학생수(2016)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348,393	175,904	172,489	76,645	43,416	33,229	271,748	132,488	139,260
당해년도 고교졸업자		261,613	129,117	132,496	56,227	30,794	25,433	205,386	98,323	107,063
재수자		81,955	44,365	37,590	19,578	12,140	7,438	62,377	32,225	30,152
검정고시합격		4,825	2,422	2,403	840	482	358	3,985	1,940	2,045

주: 재수자는 대학입시를 2번 이상 치른 학생을 일컫는 말로 3번이나 4번 이상의 대학입시를 치른 학생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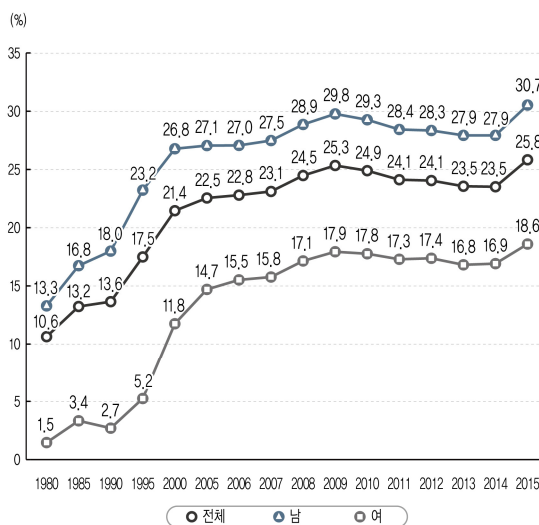
3) 학생 변동 상황³⁾

(1) 휴학

1980학년도 이후의 휴학을 살펴보면 [그림 II-2-7]과 같다. 1980학년도에 10.6%였던 대학생 휴학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IMF 외환위기 이후인 2000학년도에는 20%를 넘어섰으며, 2015학년도에는 25.8%로 전년 대비 약 2.3%p 증가하였다. 성별로 휴학을 추이를 살펴보면, 남학생 휴학률은 1980학년도에 13.3%에서 2015학년도에는 30.7%로 약 17.4%p 증가하였고, 여학생 휴학률은 1980학년도에 1.5%에서 2015학년도에는 18.6%로 약 17.1%p 증가해 증가폭 자체는 성별에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약 10%p 이상 휴학생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남학생의 군복무로 인한 휴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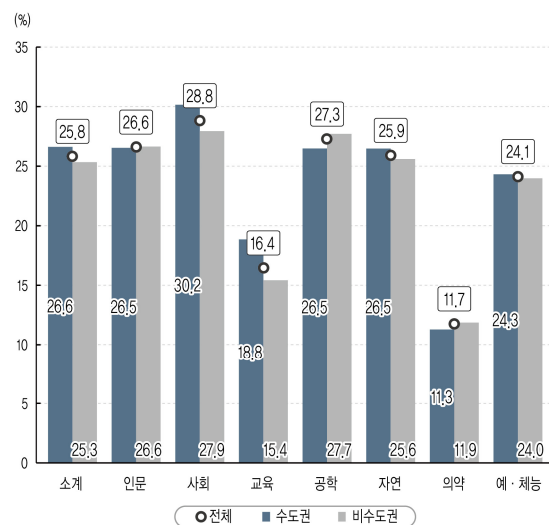
〈표 II-2-6〉에서 설립별로 휴학을 살펴보면, 1980학년도에 국공립대학은 7.1%, 사립대학은 13.6%로 사립대학의 휴학률이 국공립대학보다 약 6.5%p 더 높았으나, 국공립대학의 휴학률이 큰 폭으로 증가해 2015학년도에는 국공립대학의 휴학률은 26.2%로 사립대학보다 약 0.5%p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8]을 통해 지역별로 휴학을 살펴보면, 2015학년도에 수도권 대학은 26.6%, 비수도권 대학은 25.3%로 지역 간 큰 차이는 없었다. 계열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은 사회계열(30.2%), 인문 및 공학, 자연계열(26.5%), 예·체능계열(24.3%), 교육계열(15.4%), 의약계열(11.9%) 순이었고, 비수도권 대학은 사회계열(27.9%), 인문계열(26.6%), 자연계열(25.6%), 예·체능계열(24.0%), 교육계열(16.4%), 의약계열(11.7%) 순으로 나타났다. 인문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을 제외한 다른 계열에서는 수도권 대학의 휴학률이 비수도권 대학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계열별로 지역 간 휴학을 차이는 크지 않았다.



■ 그림 II-2-7 연도별 성별 휴학률(1980~2015, 학년도 기준)

주: 〈표 II-2-6〉 참조.



■ 그림 II-2-8 지역별 계열별 휴학률(2015, 학년도 기준)

주: 〈표 II-2-7〉 참조.

3) 대학의 학생 변동 상황(휴학, 중도탈락, 편입)과 관련된 자료들의 기준일은 조사년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3월 1일부터 차년도(조사년도) 2월 28일임.

■ 표 II-2-6 ■ 연도별 설립별 성별 휴학생수 및 휴학률(1980~2015, 학년도 기준)

(단위: 명, %)

	전체						국·공립						사립					
	휴학생수			휴학률			휴학생수			휴학률			휴학생수			휴학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1980	42,804	41,480	1,324	10.6	13.3	1.5	13,055	12,869	186	7.1	7.8	0.9	29,749	28,611	1,138	13.6	19.4	1.6
1985	123,162	114,783	8,379	13.2	16.8	3.4	33,390	31,527	1,863	13.7	17.6	2.9	89,772	83,256	6,516	13.0	16.6	3.5
1990	141,626	133,725	7,901	13.6	18.0	2.7	39,203	37,450	1,753	15.4	20.3	2.5	102,423	96,275	6,148	13.0	17.2	2.7
1995	207,842	188,054	19,788	17.5	23.2	5.2	48,170	44,270	3,900	16.3	21.3	4.4	159,672	143,784	15,888	17.9	23.9	5.5
2000	357,128	287,011	70,117	21.4	26.8	11.8	77,952	63,241	14,711	21.0	25.6	11.8	279,176	223,770	55,406	21.6	27.2	11.7
2005	418,952	318,376	100,576	22.5	27.1	14.7	96,629	76,472	20,157	24.1	28.7	15.0	322,323	241,904	80,419	22.1	26.6	14.6
2006	430,540	322,409	108,131	22.8	27.0	15.5	95,335	74,570	20,765	23.5	27.6	15.4	335,205	247,839	87,366	22.6	26.9	15.6
2007	443,694	331,371	112,323	23.1	27.5	15.8	96,280	74,928	21,352	23.6	27.4	15.8	347,414	256,443	90,971	23.0	27.5	15.7
2008	475,568	350,961	124,607	24.5	28.9	17.1	101,324	77,829	23,495	24.6	28.2	17.3	374,244	273,132	101,112	24.4	29.0	17.1
2009	502,607	368,121	134,486	25.3	29.8	17.9	108,428	84,128	24,300	25.8	29.7	17.7	394,179	283,993	110,186	25.2	29.9	18.0
2010	504,599	366,250	138,349	24.9	29.3	17.8	114,402	88,069	26,333	26.7	30.7	18.6	390,197	278,181	112,016	24.4	28.9	17.6
2011	497,725	359,071	138,654	24.1	28.4	17.3	110,604	84,479	26,125	25.0	28.7	17.7	387,121	274,592	112,529	23.8	28.3	17.2
2012	506,133	363,355	142,778	24.1	28.3	17.4	114,434	87,130	27,304	24.9	28.5	17.8	391,699	276,225	115,474	23.8	28.3	17.3
2013	498,863	358,409	140,454	23.5	27.9	16.8	113,091	85,259	27,832	24.0	27.3	17.4	385,772	273,150	112,622	23.4	28.1	16.7
2014	500,753	357,528	143,225	23.5	27.9	16.9	112,499	84,699	27,800	23.4	26.7	16.9	388,254	272,829	115,425	23.5	28.2	16.9
2015	545,575	387,871	157,704	25.8	30.7	18.6	126,849	93,899	32,950	26.2	29.6	19.7	418,726	293,972	124,754	25.7	31.0	18.3

주: 1) 휴학률=(휴학생수/재적 학생수) × 100(이하 동일)

2) 휴학생수는 전년도 3월 1일부터 차년도(조사년도) 2월 28일까지의 기간 자료임(이하 동일).

■ 표 II-2-7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휴학생수 및 휴학률(2015, 학년도 기준)

(단위: 명, %)

		전체						국·공립						사립					
		휴학생수			휴학률			휴학생수			휴학률			휴학생수			휴학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545,575	387,871	157,704	25.8	30.7	18.6	126,849	93,899	32,950	26.2	29.6	19.7	418,726	293,972	124,754	25.7	31.0	18.3
수도권	소계	210,039	134,494	75,545	26.6	30.6	21.6	18,201	13,394	4,807	25.6	28.7	19.7	191,838	121,100	70,738	26.7	30.9	21.7
	인문	31,781	15,591	16,190	26.5	31.8	22.9	1,639	955	684	24.6	29.0	20.3	30,142	14,636	15,506	26.6	32.0	23.0
	사회	70,637	43,518	27,119	30.2	34.2	25.4	5,102	3,523	1,579	31.7	34.7	26.6	65,535	39,995	25,540	30.0	34.1	25.3
	교육	4,847	2,696	2,151	18.8	26.4	13.9	581	395	186	20.9	25.4	15.2	4,266	2,301	1,965	18.6	26.6	13.7
	공학	54,526	46,392	8,134	26.5	28.4	19.2	6,358	5,534	824	25.0	27.1	16.4	48,168	40,858	7,310	26.7	28.5	19.6
	자연	23,331	13,622	9,709	26.5	30.0	22.7	2,533	1,707	826	23.6	26.7	19.2	20,798	11,915	8,883	26.9	30.6	23.1
	의약	2,725	1,545	1,180	11.3	17.9	7.6	59	32	27	4.8	5.5	4.2	2,666	1,513	1,153	11.6	18.8	7.7
	예·체능	22,192	11,130	11,062	24.3	31.8	19.7	1,929	1,248	681	23.5	28.8	17.5	20,263	9,882	10,381	24.4	32.2	19.8
비수도권	소계	335,536	253,377	82,159	25.3	30.7	16.5	108,648	80,505	28,143	26.3	29.7	19.7	226,888	172,872	54,016	24.9	31.1	15.2
	인문	38,595	23,136	15,459	26.6	32.7	20.9	11,553	6,360	5,193	28.9	34.3	24.2	27,042	16,776	10,266	25.8	32.1	19.5
	사회	103,179	74,590	28,589	27.9	33.2	19.8	24,374	16,394	7,980	30.7	34.6	24.9	78,805	58,196	20,609	27.2	32.9	18.3
	교육	9,334	6,301	3,033	15.4	24.5	8.7	3,672	2,519	1,153	16.4	22.9	10.1	5,662	3,782	1,880	14.9	25.7	8.0
	공학	98,863	90,038	8,825	27.7	29.7	16.6	41,312	36,781	4,531	26.3	28.1	17.4	57,551	53,257	4,294	28.8	30.8	15.8
	자연	42,753	29,858	12,895	25.6	30.7	18.5	22,196	15,197	6,999	26.4	30.1	20.8	20,557	14,661	5,896	24.8	31.4	16.3
	의약	11,152	8,145	3,007	11.9	22.1	5.3	1,113	702	411	9.7	16.5	5.6	10,039	7,443	2,596	12.2	22.9	5.2
	예·체능	31,660	21,309	10,351	24.0	31.7	15.9	4,428	2,552	1,876	23.0	31.6	16.8	27,232	18,757	8,475	24.1	31.8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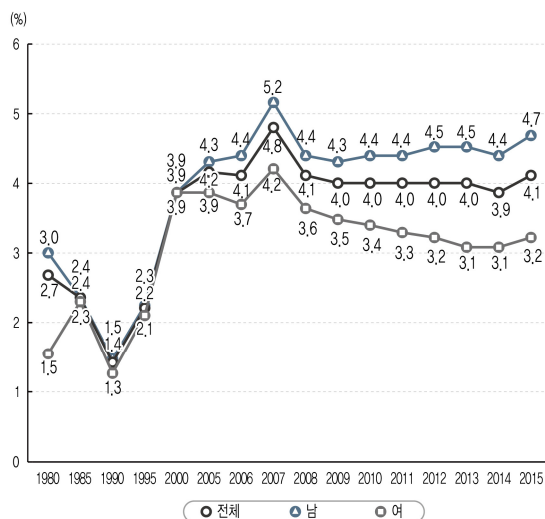
(2) 중도탈락

1980학년도 이후의 중도탈락률 변동을 살펴보면 [그림 II-2-9]와 같다. 1980학년도의 중도탈락률은 2.7%였으나, 1990학년도에는 1.4%로 절반 정도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07학년도에는 4.8%로 정점을 찍었다. 그 이후에는 특별한 증감 없이 매년 4.0% 정도의 중도탈락률을 유지하였다. 2015학년도 중도탈락률은 4.1%였으며, 성별로는 남학생 4.7%, 여학생 3.2%로 남학생의 중도탈락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8〉을 통해 설립별로 중도탈락률 변동을 살펴보면, 국공립대학은 1980학년도에 1.1%로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005학년도부터 3.0% 넘어섰으며, 2015학년도에는 3.3%로 나타났다. 한편 사립대학은 2000학년도 이후 4.0%를 넘어섰으며, 2015학년도 현재 중도탈락률은 4.3%로 나타나 사립대학의 중도탈락률이 국공립대학보다 약 1.0%p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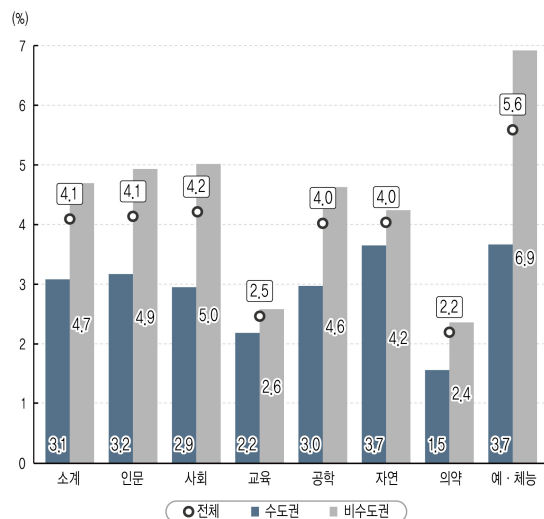
[그림 II-2-10]에서 계열별로 중도탈락률을 살펴보면, 예·체능계열이 5.6%로 중도탈락률이 가장 높았고, 사회계열 4.2%, 인문계열 4.1%, 공학 및 자연계열 4.0% 순으로 중도탈락률이 높았으며, 교육계열 2.5%과 의약계열 2.2%의 중도탈락률은 2%대로 다른 계열에 비해 중도탈락률이 낮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의 중도탈락자수는 24,321명으로 수도권 전체 대학생의 3.1%가 중도탈락했으며, 비수도권 대학은 62,177명으로 비수도권 전체 대학생의 4.7%가 중도에 탈락하여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의 중도탈락률이 약 1.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모든 계열에서 비수도권 대학의 중도탈락률이 수도권 대학보다 높았으며, 특히 예·체능계열은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간 중도탈락률 차이가 약 3.2%p로 가장 컸다(그림 II-2-10), 〈표 II-2-9〉 참조).



■ 그림 II-2-9 ■ 연도별 성별 중도탈락률(1980~2015, 학년도 기준)

주: 〈표 II-2-8〉 참조.



■ 그림 II-2-10 ■ 지역별 계열별 중도탈락률(2015, 학년도 기준)

주: 〈표 II-2-9〉 참조.

■ 표 II-2-8 ■ 연도별 설립별 성별 중도탈락자수 및 중도탈락률(1980~2015, 학년도 기준)

(단위: 명, %)

	전체						국·공립						사립					
	중도탈락자수			중도탈락률			중도탈락자수			중도탈락률			중도탈락자수			중도탈락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1980	10,816	9,415	1,401	2.7	3.0	1.5	1,967	1,841	126	1.1	1.1	0.6	8,849	7,574	1,275	4.1	5.1	1.8
1985	21,942	16,195	5,747	2.4	2.4	2.3	4,916	3,802	1,114	2.0	2.1	1.7	17,026	12,393	4,633	2.5	2.5	2.5
1990	14,765	11,029	3,736	1.4	1.5	1.3	2,772	2,107	665	1.1	1.1	1.0	11,993	8,922	3,071	1.5	1.6	1.4
1995	26,203	18,262	7,941	2.2	2.3	2.1	4,412	3,234	1,178	1.5	1.6	1.3	21,791	15,028	6,763	2.4	2.5	2.3
2000	64,410	41,348	23,062	3.9	3.9	3.9	10,909	7,193	3,716	2.9	2.9	3.0	53,501	34,155	19,346	4.1	4.2	4.1
2005	77,407	50,808	26,599	4.2	4.3	3.9	12,326	8,339	3,987	3.1	3.1	3.0	65,081	42,469	22,612	4.5	4.7	4.1
2006	78,083	52,325	25,758	4.1	4.4	3.7	12,647	8,795	3,852	3.1	3.2	2.9	65,436	43,530	21,906	4.4	4.7	3.9
2007	92,349	62,341	30,008	4.8	5.2	4.2	12,296	8,764	3,532	3.0	3.2	2.6	80,053	53,577	26,476	5.3	5.7	4.6
2008	80,355	53,902	26,453	4.1	4.4	3.6	13,669	9,877	3,792	3.3	3.6	2.8	66,686	44,025	22,661	4.4	4.7	3.8
2009	78,804	52,628	26,176	4.0	4.3	3.5	14,140	10,404	3,736	3.4	3.7	2.7	64,664	42,224	22,440	4.1	4.4	3.7
2010	81,641	55,151	26,490	4.0	4.4	3.4	14,510	10,744	3,766	3.4	3.8	2.7	67,131	44,407	22,724	4.2	4.6	3.6
2011	81,614	55,218	26,396	4.0	4.4	3.3	13,666	10,257	3,409	3.1	3.5	2.3	67,948	44,961	22,987	4.2	4.6	3.5
2012	84,114	57,527	26,587	4.0	4.5	3.2	14,429	10,879	3,550	3.1	3.6	2.3	69,685	46,648	23,037	4.2	4.8	3.4
2013	84,335	58,035	26,300	4.0	4.5	3.1	14,422	10,617	3,805	3.1	3.4	2.4	69,913	47,418	22,495	4.2	4.9	3.3
2014	82,875	56,889	25,986	3.9	4.4	3.1	15,041	11,083	3,958	3.1	3.5	2.4	67,834	45,806	22,028	4.1	4.7	3.2
2015	86,498	59,002	27,496	4.1	4.7	3.2	15,858	11,536	4,322	3.3	3.6	2.6	70,640	47,466	23,174	4.3	5.0	3.4

주: 1) 중도탈락률=(중도탈락자수/재적 학생수) × 100(이하 동일)

2) 중도탈락자수는 전년도 3월 1일부터 차년도(조사년도) 2월 28일까지의 기간 자료임(이하 동일).

■ 표 II-2-9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중도탈락자수 및 중도탈락률(2015, 학년도 기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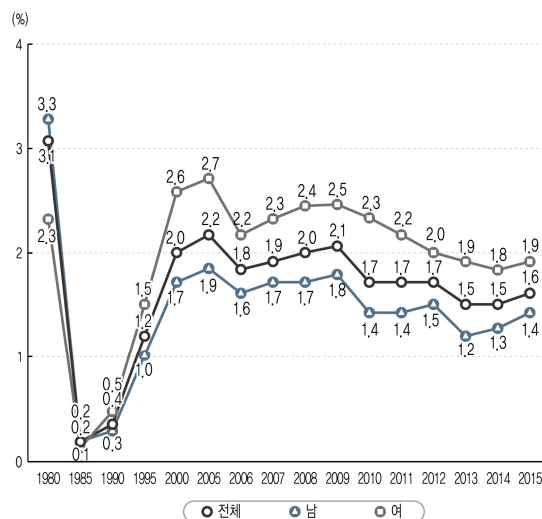
		전체						국·공립						사립					
		중도탈락자수			중도탈락률			중도탈락자수			중도탈락률			중도탈락자수			중도탈락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86,498	59,002	27,496	4.1	4.7	3.2	15,858	11,536	4,322	3.3	3.6	2.6	70,640	47,466	23,174	4.3	5.0	3.4
수도권	소계	24,321	14,413	9,908	3.1	3.3	2.8	1,746	1,255	491	2.5	2.7	2.0	22,575	13,158	9,417	3.1	3.4	2.9
	인문	3,799	1,824	1,975	3.2	3.7	2.8	138	81	57	2.1	2.5	1.7	3,661	1,743	1,918	3.2	3.8	2.8
	사회	6,908	4,184	2,724	2.9	3.3	2.6	390	281	109	2.4	2.8	1.8	6,518	3,903	2,615	3.0	3.3	2.6
	교육	562	229	333	2.2	2.2	2.1	39	18	21	1.4	1.2	1.7	523	211	312	2.3	2.4	2.2
	공학	6,116	4,840	1,276	3.0	3.0	3.0	646	529	117	2.5	2.6	2.3	5,470	4,311	1,159	3.0	3.0	3.1
	자연	3,217	1,602	1,615	3.7	3.5	3.8	321	200	121	3.0	3.1	2.8	2,896	1,402	1,494	3.7	3.6	3.9
	의약	374	149	225	1.5	1.7	1.4	13	11	2	1.1	1.9	0.3	361	138	223	1.6	1.7	1.5
	예·체능	3,345	1,585	1,760	3.7	4.5	3.1	199	135	64	2.4	3.1	1.6	3,146	1,450	1,696	3.8	4.7	3.2
비수도권	소계	62,177	44,589	17,588	4.7	5.4	3.5	14,112	10,281	3,831	3.4	3.8	2.7	48,065	34,308	13,757	5.3	6.2	3.9
	인문	7,144	4,191	2,953	4.9	5.9	4.0	1,450	799	651	3.6	4.3	3.0	5,694	3,392	2,302	5.4	6.5	4.4
	사회	18,518	13,482	5,036	5.0	6.0	3.5	2,503	1,726	777	3.1	3.6	2.4	16,015	11,756	4,259	5.5	6.6	3.8
	교육	1,563	798	765	2.6	3.1	2.2	421	224	197	1.9	2.0	1.7	1,142	574	568	3.0	3.9	2.4
	공학	16,512	14,678	1,834	4.6	4.8	3.4	5,710	5,010	700	3.6	3.8	2.7	10,802	9,668	1,134	5.4	5.6	4.2
	자연	7,085	4,626	2,459	4.2	4.8	3.5	3,026	2,032	994	3.6	4.0	3.0	4,059	2,594	1,465	4.9	5.6	4.1
	의약	2,219	1,076	1,143	2.4	2.9	2.0	167	66	101	1.4	1.6	1.4	2,052	1,010	1,042	2.5	3.1	2.1
	예·체능	9,136	5,738	3,398	6.9	8.5	5.2	835	424	411	4.3	5.3	3.7	8,301	5,314	2,987	7.4	9.0	5.6

(3) 편입

1980학년도 이후의 편입률 변동을 살펴보면 [그림 II-2-11]과 같다. 1980학년도에 3.1%였던 편입률은 1985학년도에 0.2%로 급감하였다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 2000학년도에 2.0%를 넘어섰으며, 이후 1~2% 대의 편입률을 유지하고 있다. 2%를 전후로 한 편입률의 안정적 변동은 모집단위별로 입학 정원의 범위에서 재적생의 결원에 따라 편입생의 정원이 결정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편입률이 더 높았는데, 남학생의 경우 2000학년도 이후 1.5% 전후의 편입률을 보인 반면, 여학생은 2% 전후의 편입률을 나타냈다. 2015학년도 편입률은 1.6%로 남학생 1.4%, 여학생 1.9%로 남녀간 약 0.5%p 정도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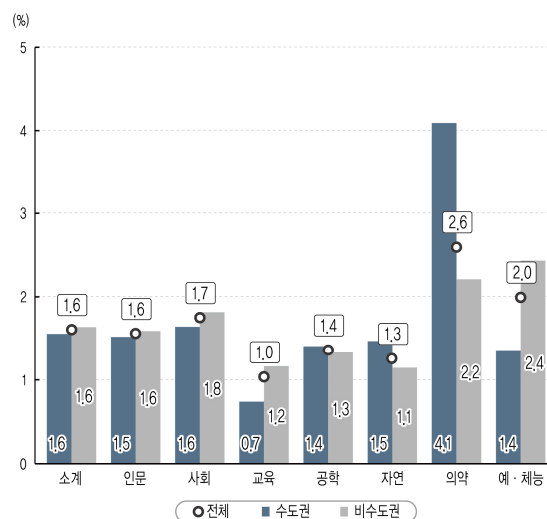
[그림 II-2-12]에서 2015학년도의 계열별 편입률을 살펴보면, 의약계열이 2.6%로 가장 높았으며, 예·체능계열 2.0%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사회계열 1.7%, 인문계열 1.6%, 공학계열 1.4%, 자연계열 1.3% 순으로 편입률이 높았으며, 교육계열 1.0%의 편입률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의 편입률이 각각 1.6%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계열별로 비교해 보면 의약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에서는 수도권 대학의 편입률이 비수도권 대학의 편입률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의약계열 편입률은 수도권 대학이 4.1%로 전체 수도권 대학의 평균 편입률(1.6%)을 크게 웃돌았다. 비수도권 대학 의약계열 편입률도 2.2%로 수도권 대학보다는 낮았지만 비수도권 대학의 평균 편입률(1.6%)보다는 약 0.6%p 높았다. 이처럼 의약계열의 편입률이 높은 이유는 의약계열 특성상 정원이 적고,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이 다른 계열에 비해 수요가 높은 데에서 기인한 결과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예·체능계열의 편입률은 비수도권 대학이 수도권 대학보다 높았는데, 특히 예·체능계열은 비수도권 대학 편입률이 2.4%로 수도권보다 약 1.0%p 높았다.



■ 그림 II-2-11 연도별 성별 편입률(1980~2015, 학년도 기준)

주: <표 II-2-10> 참조.



■ 그림 II-2-12 지역별 계열별 편입률(2015, 학년도 기준)

주: <표 II-2-11> 참조.

■ 표 II-2-10 ■ 연도별 설립별 성별 편입생수 및 편입률(1980~2015, 학년도 기준)

(단위: 명, %)

	전체						국·공립						사립					
	편입생수			편입률			편입생수			편입률			편입생수			편입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1980	12,391	10,284	2,107	3.1	3.3	2.3	746	404	342	0.4	0.2	1.7	11,645	9,880	1,765	5.3	6.7	2.5
1985	1,755	1,427	328	0.2	0.2	0.1	82	66	16	0.0	0.0	0.0	1,673	1,361	312	0.2	0.3	0.2
1990	3,686	2,282	1,404	0.4	0.3	0.5	179	100	79	0.1	0.1	0.1	3,507	2,182	1,325	0.4	0.4	0.6
1995	13,928	8,213	5,715	1.2	1.0	1.5	1,265	1,029	236	0.4	0.5	0.3	12,663	7,184	5,479	1.4	1.2	1.9
2000	33,326	17,922	15,404	2.0	1.7	2.6	2,757	1,711	1,046	0.7	0.7	0.8	30,569	16,211	14,358	2.4	2.0	3.0
2005	40,517	21,973	18,544	2.2	1.9	2.7	5,956	3,698	2,258	1.5	1.4	1.7	34,561	18,275	16,286	2.4	2.0	3.0
2006	34,451	19,471	14,980	1.8	1.6	2.2	5,995	4,069	1,926	1.5	1.5	1.4	28,456	15,402	13,054	1.9	1.7	2.3
2007	37,388	20,816	16,572	1.9	1.7	2.3	6,252	4,186	2,066	1.5	1.5	1.5	31,136	16,630	14,506	2.1	1.8	2.5
2008	38,387	20,584	17,803	2.0	1.7	2.4	6,162	3,755	2,407	1.5	1.4	1.8	32,225	16,829	15,396	2.1	1.8	2.6
2009	40,802	22,348	18,454	2.1	1.8	2.5	9,423	6,722	2,701	2.2	2.4	2.0	31,379	15,626	15,753	2.0	1.6	2.6
2010	35,495	17,321	18,174	1.7	1.4	2.3	6,034	3,586	2,448	1.4	1.3	1.7	29,461	13,735	15,726	1.8	1.4	2.5
2011	35,773	18,246	17,527	1.7	1.4	2.2	8,440	5,249	3,191	1.9	1.8	2.2	27,333	12,997	14,336	1.7	1.3	2.2
2012	36,252	19,534	16,718	1.7	1.5	2.0	8,295	5,818	2,477	1.8	1.9	1.6	27,957	13,716	14,241	1.7	1.4	2.1
2013	31,413	15,861	15,552	1.5	1.2	1.9	6,185	3,831	2,354	1.3	1.2	1.5	25,228	12,030	13,198	1.5	1.2	2.0
2014	31,996	16,442	15,554	1.5	1.3	1.8	6,373	3,938	2,435	1.3	1.2	1.5	25,623	12,504	13,119	1.6	1.3	1.9
2015	33,928	17,576	16,352	1.6	1.4	1.9	7,227	4,544	2,683	1.5	1.4	1.6	26,701	13,032	13,669	1.6	1.4	2.0

주: 1) 편입률=(편입생수/재적 학생수) × 100(이하 동일)

2) 편입생수는 전년도 3월 1일부터 차년도(조사년도) 2월 28일까지의 기간 자료임(이하 동일).

■ 표 II-2-11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편입생수 및 편입률(2015, 학년도 기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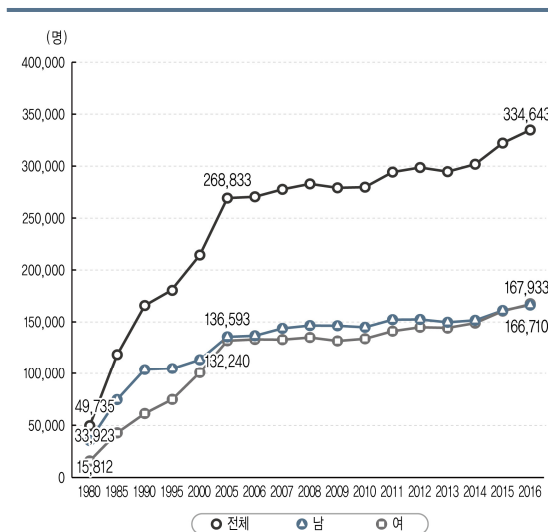
		전체						국·공립						사립					
		편입생수			편입률			편입생수			편입률			편입생수			편입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33,928	17,576	16,352	1.6	1.4	1.9	7,227	4,544	2,683	1.5	1.4	1.6	26,701	13,032	13,669	1.6	1.4	2.0
수도권	소계	12,267	6,186	6,081	1.6	1.4	1.7	1,157	708	449	1.6	1.5	1.8	11,110	5,478	5,632	1.5	1.4	1.7
	인문	1,819	661	1,158	1.5	1.3	1.6	74	23	51	1.1	0.7	1.5	1,745	638	1,107	1.5	1.4	1.6
	사회	3,841	1,915	1,926	1.6	1.5	1.8	191	97	94	1.2	1.0	1.6	3,650	1,818	1,832	1.7	1.6	1.8
	교육	190	42	148	0.7	0.4	1.0	13	6	7	0.5	0.4	0.6	177	36	141	0.8	0.4	1.0
	공학	2,896	2,241	655	1.4	1.4	1.5	568	451	117	2.2	2.2	2.3	2,328	1,790	538	1.3	1.3	1.4
	자연	1,294	537	757	1.5	1.2	1.8	149	63	86	1.4	1.0	2.0	1,145	474	671	1.5	1.2	1.7
	의약	988	313	675	4.1	3.6	4.3	43	25	18	3.5	4.3	2.8	945	288	657	4.1	3.6	4.4
	예·체능	1,239	477	762	1.4	1.4	1.4	119	43	76	1.4	1.0	2.0	1,120	434	686	1.3	1.4	1.3
비수도권	소계	21,661	11,390	10,271	1.6	1.4	2.1	6,070	3,836	2,234	1.5	1.4	1.6	15,591	7,554	8,037	1.7	1.4	2.3
	인문	2,301	832	1,469	1.6	1.2	2.0	689	280	409	1.7	1.5	1.9	1,612	552	1,060	1.5	1.1	2.0
	사회	6,703	3,415	3,288	1.8	1.5	2.3	1,333	736	597	1.7	1.6	1.9	5,370	2,679	2,691	1.9	1.5	2.4
	교육	704	179	525	1.2	0.7	1.5	109	31	78	0.5	0.3	0.7	595	148	447	1.6	1.0	1.9
	공학	4,751	3,945	806	1.3	1.3	1.5	2,428	2,053	375	1.5	1.6	1.4	2,323	1,892	431	1.2	1.1	1.6
	자연	1,914	901	1,013	1.1	0.9	1.5	948	477	471	1.1	0.9	1.4	966	424	542	1.2	0.9	1.5
	의약	2,077	663	1,414	2.2	1.8	2.5	173	85	88	1.5	2.0	1.2	1,904	578	1,326	2.3	1.8	2.7
	예·체능	3,211	1,455	1,756	2.4	2.2	2.7	390	174	216	2.0	2.2	1.9	2,821	1,281	1,540	2.5	2.2	2.9

4) 졸업⁴⁾

1980년 이후의 연도별 졸업자수 변동을 살펴보면 [그림 II-2-13]과 같다. 1980년 49,735명이었던 졸업자수는 대학의 양적 팽창과 함께 큰 폭으로 증가해 1985년 118,584명으로 10만명을 넘어섰고, 2000년에는 214,498명으로 20만명을 넘어섰으며, 2014년에는 301,606명으로 30만명을 넘어서 2016년 현재 334,643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학생들의 증가와 함께 여학생 졸업자의 비율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1980년 졸업자의 31.8%에 불과했던 여학생 비율은 1995년 41.4%로 40%대로 진입하였고, 2016년에는 50.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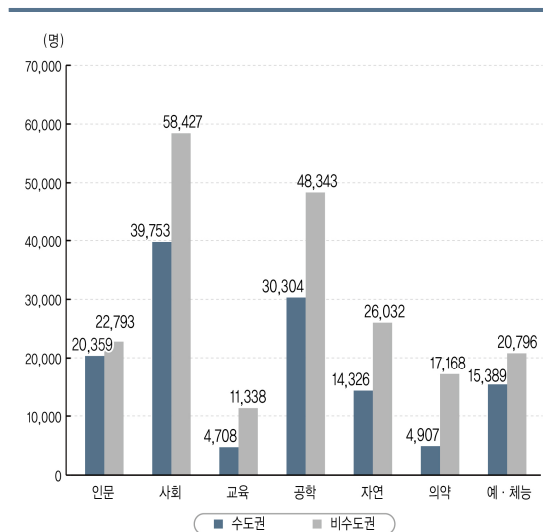
[그림 II-2-14]에서 지역별로 졸업자수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사회계열이 39,753명(30.6%)로 가장 많았고, 공학계열이 30,304명(23.4%)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인문계열 20,359명(15.7%), 예·체능계열 15,389명(11.9%), 자연계열 14,326명(11.0%), 의약계열 4,907명(3.8%), 교육계열 4,708명(3.6%) 순이었다. 비수도권 역시 사회계열 58,427명(28.5%), 공학계열 48,343명(23.6%), 자연계열 26,032명(12.7%), 인문계열 22,793명(11.1%), 예·체능계열 20,796명(10.1%), 의약계열 17,168명(8.4%), 교육계열 11,338명(5.5%)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2-13〉를 통해 지역별로 여학생 졸업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52.3%가 비수도권은 48.9%가 여학생 졸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별로는 국공립이 43.0%, 사립이 52.2%로 사립의 여학생 졸업자 비율이 약 9.2%p 높았다.



■ 그림 II-2-13 연도별 성별 졸업자수(1980~2016)

주: 〈표 II-2-12〉 참조.



■ 그림 II-2-14 지역별 계열별 졸업자수(2016)

주: 〈표 II-2-13〉 참조.

4) 대학의 졸업 관련 내용은 교육기본통계조사에 근거하되, 취업 관련 내용(진학률, 취업률)은 취업통계조사에 근거함.

■ 표 II-2-12 ■ 연도별 설립별 성별 졸업자수(1980~2016)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1980	49,735	33,923	15,812	12,936	10,118	2,818	36,799	23,805	12,994
1985	118,584	75,813	42,771	31,395	21,267	10,128	87,189	54,546	32,643
1990	165,916	104,627	61,289	43,086	28,393	14,693	122,830	76,234	46,596
1995	180,664	105,853	74,811	45,603	27,536	18,067	135,061	78,317	56,744
2000	214,498	113,573	100,925	50,868	28,361	22,507	163,630	85,212	78,418
2005	268,833	136,593	132,240	58,957	31,904	27,053	209,876	104,689	105,187
2006	270,546	137,827	132,719	58,155	31,886	26,269	212,391	105,941	106,450
2007	277,858	145,116	132,742	60,055	33,855	26,200	217,803	111,261	106,542
2008	282,670	147,606	135,064	60,832	34,090	26,742	221,838	113,516	108,322
2009	279,059	147,128	131,931	61,730	35,292	26,438	217,329	111,836	105,493
2010	279,603	145,630	133,973	61,019	35,239	25,780	218,584	110,391	108,193
2011	293,967	152,638	141,329	63,499	36,894	26,605	230,468	115,744	114,724
2012	298,727	153,730	144,997	64,027	37,569	26,458	234,700	116,161	118,539
2013	294,952	150,949	144,003	62,673	36,602	26,071	232,279	114,347	117,932
2014	301,606	152,481	149,125	65,392	37,344	28,048	236,214	115,137	121,077
2015	322,413	162,065	160,348	68,831	39,239	29,592	253,582	122,826	130,756
2016	334,643	166,710	167,933	72,366	41,267	31,099	262,277	125,443	136,834

주: 1) 2010년의 경우, 사범직으로 조사되기 시작한 한국과학기술원의 학부 졸업자 738명이 취업통계조사에 포함되었기에 취업통계조사의 전체 졸업자 수 총계(280,341명)와 다름.

2) 2012년의 경우, 폐교된 명신대학교 졸업자 156명이 취업통계조사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취업통계조사의 전체 졸업자 수 총계(298,883명)와 다름.

3) 2015년의 경우, 경희대학교 6명이 복수학위편입생으로 취업통계조사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취업통계조사의 전체 졸업자 수 총계(322,407명)와 다름.

4) 졸업자는 해당년도 2월 졸업자 및 전년도 8월 졸업자를 포함함(이하 동일).

■ 표 II-2-13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졸업자수(2016)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334,643	166,710	167,933	72,366	41,267	31,099	262,277	125,443	136,834
수도권	소계	129,746	61,909	67,837	9,635	5,755	3,880	120,111	56,154	63,957
	인문	20,359	6,446	13,913	892	351	541	19,467	6,095	13,372
	사회	39,753	19,073	20,680	2,383	1,425	958	37,370	17,648	19,722
	교육	4,708	1,550	3,158	436	194	242	4,272	1,356	2,916
	공학	30,304	22,902	7,402	3,099	2,373	726	27,205	20,529	6,676
	자연	14,326	6,129	8,197	1,370	697	673	12,956	5,432	7,524
	의약	4,907	1,267	3,640	237	90	147	4,670	1,177	3,493
	예·체능	15,389	4,542	10,847	1,218	625	593	14,171	3,917	10,254
비수도권	소계	204,897	104,801	100,096	62,731	35,512	27,219	142,166	69,289	72,877
	인문	22,793	8,173	14,620	5,974	2,001	3,973	16,819	6,172	10,647
	사회	58,427	29,293	29,134	12,627	6,523	6,104	45,800	22,770	23,030
	교육	11,338	3,954	7,384	4,101	1,772	2,329	7,237	2,182	5,055
	공학	48,343	38,686	9,657	21,811	17,181	4,630	26,532	21,505	5,027
	자연	26,032	12,176	13,856	12,896	6,502	6,394	13,136	5,674	7,462
	의약	17,168	4,643	12,525	2,240	563	1,677	14,928	4,080	10,848
	예·체능	20,796	7,876	12,920	3,082	970	2,112	17,714	6,906	10,8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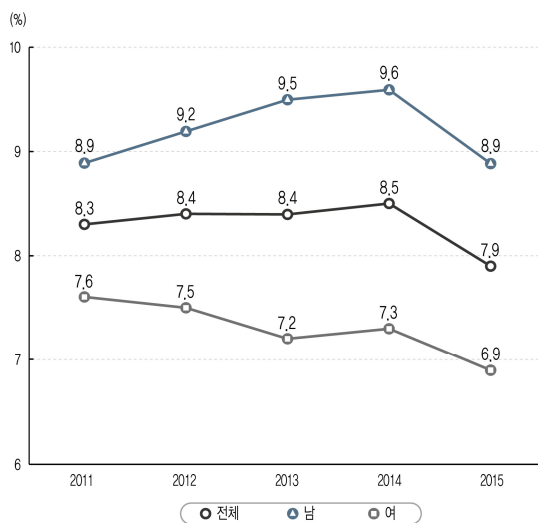
5) 진학률·취업률

(1) 진학률

대학의 진학률 및 취업률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및 국세DB와 연계해 조사된 취업통계 DB에서 산정되며, 4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되는 교육기본통계와는 달리 전년도 12월 31일을 조사 기준일로 한다. 이때 조사 대상이 되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는 전년도 2월 및 전전년도 8월 졸업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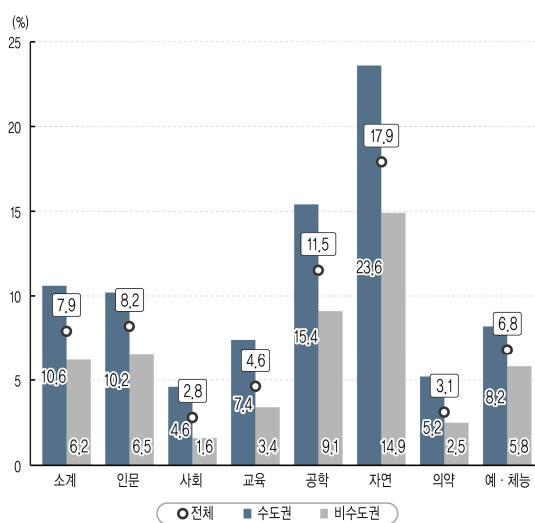
[그림 II-2-15]에서 연도별 진학률을 살펴보면, 대학 졸업자의 진학률은 2011년 8.3%에서 2014년 8.5%로 약 0.2%p 증가했다. 2015년 현재 대졸자 진학률은 전년 대비 약 0.6%p 하락한 7.9%이다. 이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학생은 2011년 8.9%에서 2014년 9.6%로 정점을 찍은 뒤 2015년 8.9%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2011년 7.6%에서 2015년 6.9%로 2011년보다 약 0.7%p 감소했다. 2015년 남녀 간 진학률 차이는 약 2.0%p로 남학생의 진학률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2-14〉 참조).

[그림 II-2-16]에서 지역별 진학률을 비교해 보면, 수도권 10.6%, 비수도권은 6.2%로 수도권의 진학률이 약 4.4%p 더 높았다. 계열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자연계열이 23.6%로 가장 진학률이 높았고, 공학계열 15.4%, 인문계열 10.2%, 예·체능계열 8.2%, 교육계열 7.4%, 의약계열 5.2%, 사회계열 4.6% 순이었 고, 비수도권 역시 자연계열이 14.9%로 가장 높았으며, 공학계열 9.1%, 인문계열 6.5%, 예·체능계열 5.8%, 교육계열 3.4%, 의약계열 2.5%, 사회계열 1.6% 순으로 계열별 진학률 순위는 같았으나, 지역별 격차는 많으면 약 8.7%p(자연계열), 적으면 약 2.4%p(예·체능계열)로 나타났으며 전 계열에서 수도권의 진학률이 비수도권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II-2-15 연도별 성별 진학률(2011~2015)

주: 〈표 II-2-14〉 참조.



■ 그림 II-2-16 지역별 계열별 진학률(2015)

주: 〈표 II-2-15〉 참조.

표 II-2-14 연도별 설립별 성별 진학률(2011~2015)

(단위: %)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11	8.3	8.9	7.6	10.8	11.5	9.9	7.6	8.1	7.1
2012	8.4	9.2	7.5	10.9	11.8	9.7	7.7	8.3	7.0
2013	8.4	9.5	7.2	11.5	12.6	9.9	7.5	8.5	6.6
2014	8.5	9.6	7.3	11.4	12.6	10.0	7.6	8.6	6.7
2015	7.9	8.9	6.9	10.6	11.8	9.0	7.2	7.9	6.4

주: 1) 진학률=(진학자수/당해년도 졸업자수) × 100

2) 해당년도 진학률은 2월 졸업자 및 전년도 8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다음해에 공표함(예: 2015년 진학률은 2015년 2월(전기) 졸업자 및 2014년 8월(후기) 졸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2016년에 공표함)

3) 조사기준일: 해당년도 12월 31일.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DB.

표 II-2-15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진학률(2015)

(단위: %)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전체	7.9	8.9	6.9	10.6	11.8	9.0	7.2	7.9	6.4
	인문	8.2	10.5	7.1	7.8	9.3	7.0	8.3	10.7	7.1
	사회	2.8	2.6	3.1	3.1	3.2	2.9	2.8	2.4	3.1
	교육	4.6	4.9	4.4	3.8	4.7	3.2	4.9	4.9	4.8
	공학	11.5	11.6	11.2	13.4	13.3	13.6	10.7	10.8	10.2
	자연	17.9	20.9	15.6	19.4	22.2	16.7	17.1	20.1	15.0
	의약	3.1	5.4	2.3	2.8	5.5	2.0	3.2	5.4	2.3
	예·체능	6.8	5.1	7.8	8.7	6.1	10.4	6.6	5.0	7.4
수도권	소계	10.6	12.2	9.1	17.0	18.5	14.7	10.1	11.6	8.8
	인문	10.2	13.1	8.9	17.6	19.7	16.3	9.9	12.7	8.5
	사회	4.6	4.2	4.9	9.7	9.7	9.7	4.3	3.8	4.6
	교육	7.4	7.7	7.3	14.4	17.6	11.4	6.8	6.3	7.0
	공학	15.4	16.1	12.9	19.7	20.3	17.3	15.0	15.7	12.6
	자연	23.6	29.3	19.4	34.2	42.1	25.1	22.5	27.5	19.0
	의약	5.2	8.1	4.1	14.8	10.3	17.3	4.6	7.9	3.5
	예·체능	8.2	5.9	9.2	6.3	4.4	8.2	8.3	6.1	9.3
비수도권	소계	6.2	6.9	5.4	9.7	10.8	8.2	4.7	5.0	4.4
	인문	6.5	8.4	5.4	6.3	7.6	5.7	6.5	8.7	5.3
	사회	1.6	1.5	1.8	1.9	1.9	1.8	1.6	1.4	1.8
	교육	3.4	3.8	3.2	2.9	3.4	2.5	3.7	4.1	3.5
	공학	9.1	8.9	9.8	12.6	12.5	13.1	6.3	6.1	6.9
	자연	14.9	16.8	13.3	17.9	19.9	15.9	12.1	13.4	11.1
	의약	2.5	4.6	1.7	1.5	4.6	0.7	2.7	4.6	1.9
	예·체능	5.8	4.7	6.6	9.7	7.0	10.9	5.2	4.3	5.7

주: 1) 진학률=(진학자수/당해년도 졸업자수) × 100

2) 2015년 진학률은 2015년 2월(전기) 졸업자 및 2014년 8월(후기) 졸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2016년에 공표한 자료임.

3) 조사기준일: 해당년도 12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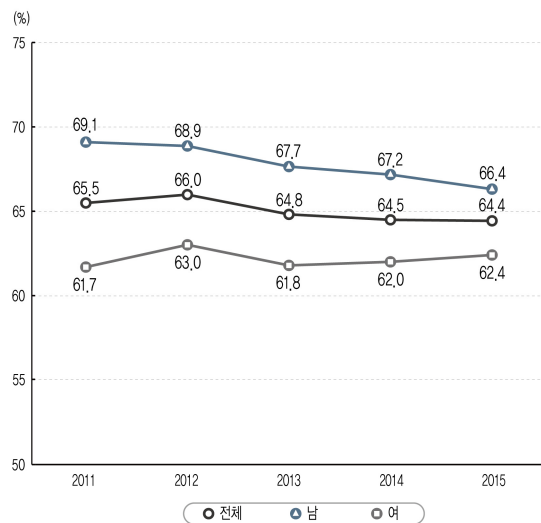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DB.

(2) 취업률

[그림 II-2-17]을 통해 연도별 취업률 변화를 살펴보면, 2011년 65.5%였던 전체 취업률은 2012년 66.0%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해 2015년 64.4%로 전년 대비 약 0.1%p 줄어들었다. 이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11년 69.1%였던 남학생 취업률은 2015년 66.4%로 2011년과 비교해 약 2.7%p 감소한 반면, 여학생 취업률은 2011년 61.7%에서 2015년 62.4%로 약 0.7%p 증가했다. 이로써 남녀간 취업률 격차는 2011년 약 7.4%p에서 2015년 약 4.0%p로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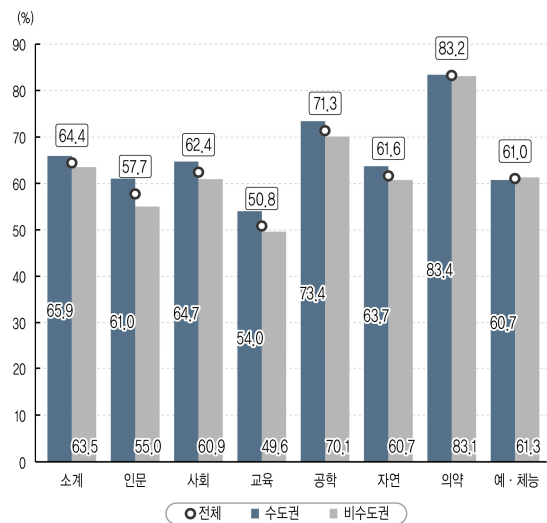
[그림 II-2-18]에서 지역별 취업률을 비교해 보면, 수도권 65.9%, 비수도권 63.5%로 수도권의 취업률이 약 2.4%p 더 높았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의약계열이 83.4%로 가장 높았고, 공학계열이 73.4%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사회계열 64.7%, 자연계열 63.7%, 인문계열 61.0%, 예·체능계열 60.7% 순으로 취업률이 60%를 넘었고, 교육계열이 54.0%로 가장 낮았다. 비수도권 역시 의약계열이 83.1%로 취업률이 가장 높았고, 공학계열 70.1%, 예·체능계열 61.3%, 사회계열 60.9%, 자연계열 60.7% 순으로 취업률이 60%를 넘었다. 인문계열은 55.0%, 교육계열은 49.6%로 다른 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았다. 지역별 격차는 인문계열이 약 6.0%p로 가장 취업률 차이가 많이 났으며, 예·체능계열은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약 0.6%p 더 높았다.

설립별 취업률을 <표 II-2-17>을 통해 살펴보면, 2015년 현재 국공립대학의 취업률은 61.0%, 사립대학 취업률은 65.3%로 평균적으로 사립대학의 취업률이 약 4.3%p 높았다. 이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국공립대학의 남학생 취업률은 65.0%, 여학생은 55.7%로 남녀 간 격차가 약 9.3%p 차이 난 반면, 사립대학은 남학생 66.8%, 여학생 63.9%로 약 2.9%p 차이가 나 국공립대학의 여학생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II-2-17 연도별 성별 취업률(2011~2015)

주: <표 II-2-16> 참조.



■ 그림 II-2-18 지역별 계열별 취업률(2015)

주: <표 II-2-17> 참조.

■ 표 II-2-16 연도별 설립별 성별 취업률(2011~2015)

(단위: %)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11	65.5	69.1	61.7	63.8	68.9	56.9	66.0	69.1	62.8
2012	66.0	68.9	63.0	62.8	67.8	55.8	66.9	69.3	64.6
2013	64.8	67.7	61.8	61.4	66.2	54.9	65.7	68.2	63.2
2014	64.5	67.2	62.0	61.8	66.1	56.1	65.3	67.5	63.3
2015	64.4	66.4	62.4	61.0	65.0	55.7	65.3	66.8	63.9

주: 1) 취업자 정의: 조사기준일 당시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 창(사)업자 및 프리랜서
 - 교내취업자(2015년 기준): 조사 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학교법인 및 관련 기관(산학협력단, 학교기업 등)에 1년 이상 계약한 자로서, 최저임금(2015년: 1,166,220원, 2016년: 1,260,270원) 이상의 월 급여를 받는 자.
 - 해외취업자: 조사 기준일 당시 해외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며, 91일 이상 고용 계약한 자.
 - 농림어업종사자: 조사 기준일 당시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
 -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조사 기준일 당시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개인작품 창작활동을 하는 자.
 - 1인 창(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2015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합계가 605만원 이상인 자.
 - 프리랜서: 2015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액이 3,498,660원 이상인 자.

2) 취업률을 구하는 방식은 연도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여 왔음.

연도	취업률	취업자	취업대상자
2011~2013	취업자 ×100 취업대상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영농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 창(사)업자 및 프리랜서	졸업자-(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제외인정자+외국인유학생)
2014~2015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 창(사)업자 및 프리랜서	

- 취업불가능자: 수형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를 포함함.
 - 제외인정자: 의료급여수급자,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학과 졸업자, 여자군인 중 입관 전 훈련생,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을 포함함.
 - 외국인유학생: 외국 국적을 가진 유학생(외국국적 재외동포 포함) 및 순수외국인을 포함함.

3) 조사기준일: 해당년도 12월 31일.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DB(이하 동일).

■ 표 II-2-17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취업률(2015)

(단위: %)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전체	64.4	66.4	62.4	61.0	65.0	55.7	65.3	66.8	63.9
	인문	57.7	59.4	57.0	51.9	56.2	49.9	58.9	60.0	58.4
	사회	62.4	62.9	61.9	57.9	60.1	55.1	63.2	63.4	63.0
	교육	50.8	48.9	51.7	39.0	42.4	36.5	55.7	52.8	57.0
	공학	71.3	71.9	68.9	70.3	71.3	65.7	71.8	72.2	70.1
	자연	61.6	63.2	60.5	58.4	61.7	55.3	63.4	64.1	62.9
	의약	83.2	82.9	83.2	83.5	85.6	83.0	83.1	82.6	83.3
	예·체능	61.0	65.8	58.5	57.4	66.4	52.2	61.5	65.8	59.3
수도권	소계	65.9	69.0	63.1	68.5	72.6	62.7	65.7	68.6	63.2
	인문	61.0	63.8	59.9	64.2	67.6	62.3	60.9	63.5	59.8
	사회	64.7	66.1	63.5	68.2	71.0	64.4	64.5	65.7	63.4
	교육	54.0	56.3	52.9	57.7	66.0	50.6	53.6	55.0	53.1
	공학	73.4	74.6	69.4	75.1	76.9	67.3	73.2	74.4	69.5
	자연	63.7	64.9	62.9	64.5	66.9	62.4	63.6	64.7	62.9
	의약	83.4	82.8	83.6	89.4	95.6	86.0	83.1	82.0	83.5
	예·체능	60.7	65.2	58.7	61.9	68.4	55.7	60.6	64.8	58.9
비수도권	소계	63.5	65.0	62.0	59.9	64.0	54.9	65.0	65.5	64.6
	인문	55.0	56.3	54.4	50.3	54.5	48.3	56.8	56.9	56.7
	사회	60.9	60.9	60.9	56.1	58.1	53.7	62.2	61.7	62.7
	교육	49.6	46.3	51.3	37.4	40.2	35.4	56.9	51.5	59.1
	공학	70.1	70.4	68.5	69.7	70.7	65.5	70.4	70.3	70.8
	자연	60.7	62.4	59.2	57.9	61.3	54.7	63.2	63.6	62.9
	의약	83.1	82.9	83.1	83.0	84.0	82.8	83.1	82.8	83.2
	예·체능	61.3	66.2	58.4	55.7	65.3	51.2	62.2	66.3	59.8

주: <표 II-2-16>의 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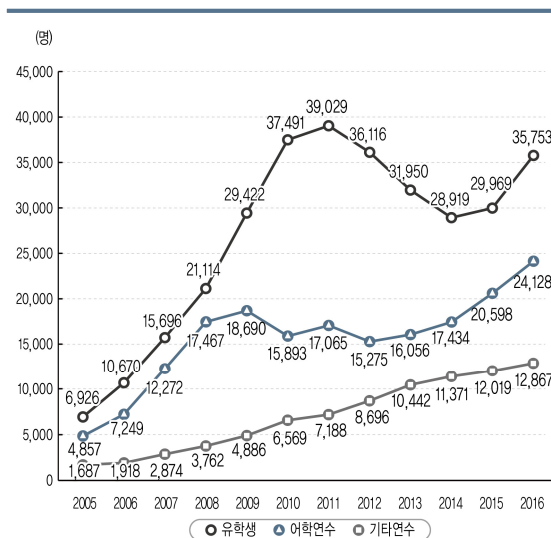
6)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 현황

[그림 II-2-19]에 의하면 국내 대학의 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2005년 6,926명에서 2011년 39,02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4년 28,919명까지 감소했다. 이후 조금씩 증가해 2016년 현재 35,753명으로 나타났다.

〈표 II-2-19〉를 통해 계열별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사회계열이 52.6%(18,8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문계열 15.2%(5,418명), 공학계열 13.6%(4,858명), 예·체능계열 10.4%(3,711명), 자연계열 6.7%(2,390명) 순이었다. 반면 의약계열 0.9%(328명)와 교육계열 0.6%(232명)은 전체 유학생의 1%도 채 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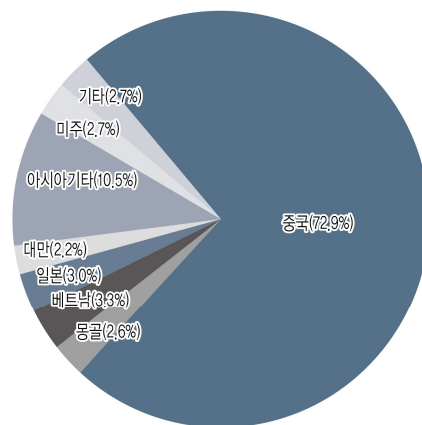
[그림 II-2-20]에서 출신국가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중국인 유학생이 72.9%(26,050명)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3.3%(1,176명), 일본 3.0%(1,080명), 미주(미국, 캐나다 등) 2.7%(981명), 몽골 2.6%(943명), 대만 2.2%(79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국가가 특정 국가에만 집중되어 있는 경우, 그 국가의 유학생 상황과 선호도 변화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다양한 국가의 유학생들을 고르게 유치하여 유학생 교육여건을 균형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내 외국인 연수생은 2005년에는 6,544명에 불과하였지만, 2016년에는 36,995명으로 약 5.7배 증가했다(〈표 II-2-22〉 참조). 외국인 연수생은 어학연수와 기타연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어학연수생은 2005년 4,857명에서 2009년 18,690명으로 약 3.8배 증가한 뒤 증감을 반복하다 2016년 현재 24,128명으로 전체 외국인 연수생 중 약 65.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기타연수생은 어학연수생과는 달리 큰 변동 없이 2005년 1,687명에서 2016년 12,867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2-19 참조). 한편 〈표 II-2-23〉을 통해 외국인 연수생을 출신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54.1%(20,048명), 베트남 8.2%(3,025명), 일본 5.5%(2,037명) 순으로 나타나 외국인 유학생 국가별 순위와 순위는 일치했으나, 차지하는 비율은 차이를 보였다.



■ 그림 II-2-19 ■ 연도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수(2005~2016)

주: 〈표 II-2-18, 22〉 참조.



■ 그림 II-2-20 ■ 출신국가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비율(2016)

주: 〈표 II-2-20〉 참조.

■ 표 II-2-18 ■ 연도별 설립별 성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2005~2016)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05	6,926	3,317	3,609	1,036	486	550	5,890	2,831	3,059
2006	10,670	5,279	5,391	1,420	731	689	9,250	4,548	4,702
2007	15,696	7,933	7,763	2,036	1,063	973	13,660	6,870	6,790
2008	21,114	10,503	10,611	3,022	1,569	1,453	18,092	8,934	9,158
2009	29,422	14,444	14,978	4,433	2,231	2,202	24,989	12,213	12,776
2010	37,491	18,093	19,398	6,299	3,196	3,103	31,192	14,897	16,295
2011	39,029	18,770	20,259	7,109	3,634	3,475	31,920	15,136	16,784
2012	36,116	17,132	18,984	6,963	3,512	3,451	29,153	13,620	15,533
2013	31,950	15,217	16,733	6,263	3,189	3,074	25,687	12,028	13,659
2014	28,919	13,572	15,347	5,624	2,805	2,819	23,295	10,767	12,528
2015	29,969	13,592	16,377	5,086	2,538	2,548	24,883	11,054	13,829
2016	35,753	15,561	20,192	5,545	2,714	2,831	30,208	12,847	17,361

주: 본 자료는 4년제 일반대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대학과정(산업대, 교육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포함)의 국내 외국인 유학생수와는 차이가 있음.

■ 표 II-2-19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2016)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35,753	15,561	20,192	5,545	2,714	2,831	30,208	12,847	17,361
수도권	소계	20,208	8,000	12,208	699	346	353	19,509	7,654	11,855
	인문	3,011	795	2,216	72	11	61	2,939	784	2,155
	사회	11,127	4,234	6,893	259	106	153	10,868	4,128	6,740
	교육	63	14	49	6	1	5	57	13	44
	공학	2,638	1,972	666	251	188	63	2,387	1,784	603
	자연	1,353	411	942	65	24	41	1,288	387	901
	의약	114	27	87	8	4	4	106	23	83
	예·체능	1,902	547	1,355	38	12	26	1,864	535	1,329
비수도권	소계	15,545	7,561	7,984	4,846	2,368	2,478	10,699	5,193	5,506
	인문	2,407	780	1,627	698	202	496	1,709	578	1,131
	사회	7,689	3,661	4,028	2,130	893	1,237	5,559	2,768	2,791
	교육	169	52	117	36	9	27	133	43	90
	공학	2,220	1,803	417	1,095	893	202	1,125	910	215
	자연	1,037	448	589	691	304	387	346	144	202
	의약	214	87	127	14	1	13	200	86	114
	예·체능	1,809	730	1,079	182	66	116	1,627	664	963

■ 표 II-2-20 ■ 지역별 출신국가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2016)

(단위: 명)

	전체	아시아						미주			기타
		중국	몽골	베트남	일본	대만	기타	미국	캐나다	기타	
전체	35,753	26,050	943	1,176	1,080	797	3,752	419	287	275	974
수도권	20,208	14,695	544	407	481	674	2,032	316	236	187	636
비수도권	15,545	11,355	399	769	599	123	1,720	103	51	88	338

주: 1) '기타'는 아시아와 미주 지역에 속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를 나타냄.
 2) 아시아의 '기타'는 중국, 몽골, 베트남, 일본, 대만을 제외한 나머지 아시아 지역 국가를 나타냄.
 3) 미주의 '기타'는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나머지 미주 지역 국가를 나타냄.

표 II-2-21 연도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현황(2007~2016)

(단위: 명)

	전체	본국귀국	국내취업	국내진학	미상
2007	1,462	890	99	473	-
2008	2,280	1,318	82	880	-
2009	3,563	2,128	134	1,301	-
2010	4,798	2,004	167	1,551	1,076
2011	6,383	3,269	294	1,589	1,231
2012	9,492	4,684	612	1,634	2,562
2013	10,238	3,957	454	1,572	4,255
2014	9,713	3,516	569	1,380	4,248
2015	7,634	2,189	449	1,089	3,907
2016	6,551	1,847	397	734	3,573

주: 2009년까지는 본국귀국, 국내취업, 국내진학 세 범주로만 구분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현황을 조사하였으나, 2010년부터 '미상' 범주를 추가함.

표 II-2-22 연도별 성별 국내 외국인 연수생수(2005~2016)

(단위: 명)

	전체			여학연수			기타연수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05	6,544	2,881	3,663	4,857	2,244	2,613	1,687	637	1,050
2006	9,167	3,895	5,272	7,249	3,228	4,021	1,918	667	1,251
2007	15,146	6,525	8,621	12,272	5,624	6,648	2,874	901	1,973
2008	21,229	9,331	11,898	17,467	8,117	9,350	3,762	1,214	2,548
2009	23,576	9,699	13,877	18,690	8,183	10,507	4,886	1,516	3,370
2010	22,462	8,550	13,912	15,893	6,691	9,202	6,569	1,859	4,710
2011	24,253	8,948	15,305	17,065	6,909	10,156	7,188	2,039	5,149
2012	23,971	8,893	15,078	15,275	6,306	8,969	8,696	2,587	6,109
2013	26,498	9,636	16,862	16,056	6,494	9,562	10,442	3,142	7,300
2014	28,805	9,951	18,854	17,434	6,712	10,722	11,371	3,239	8,132
2015	32,617	10,992	21,625	20,598	7,708	12,890	12,019	3,284	8,735
2016	36,995	12,455	24,540	24,128	8,984	15,144	12,867	3,471	9,396

주: 본 자료는 4년제 일반대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대학교정(산업대, 교육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포함)의 국내 외국인 연수생 수와는 차이가 있음.

표 II-2-23 연도별 출신국가별 국내 외국인 연수생수(2005~2016)

(단위: 명)

	전체	아시아						미주			기타
		중국	몽골	베트남	일본	대만	기타	미국	캐나다	기타	
2005	6,544	2,616	203	135	1,665	129	541	479	83	61	632
2006	9,167	4,074	251	179	2,435	153	581	694	86	48	666
2007	15,146	8,874	374	420	2,595	193	876	768	103	68	875
2008	21,229	13,837	683	260	2,383	259	1,354	1,010	127	122	1,194
2009	23,576	14,237	945	258	2,936	361	1,668	1,178	163	197	1,633
2010	22,462	12,438	978	238	2,723	487	1,841	1,298	184	202	2,073
2011	24,253	11,938	970	366	3,193	655	2,494	1,604	250	279	2,504
2012	23,971	11,986	986	486	2,773	594	2,652	1,500	194	302	2,498
2013	26,498	12,545	1,018	764	2,997	701	3,430	1,285	209	533	3,016
2014	28,805	14,747	670	835	2,434	805	3,723	1,252	201	613	3,525
2015	32,617	18,263	628	1,477	1,933	912	3,710	1,238	182	576	3,698
2016	36,995	20,048	1,210	3,025	2,037	899	3,832	1,216	190	561	3,977

- 주: 1) 외국인 연수생은 여학연수와 기타연수 학생의 수를 합산한 것임.
 2) 출신국가별 외국인 연수생에는 해당 국가의 재외동포가 포함됨.
 3) '기타'는 아시아와 미주 지역에 속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를 나타냄.
 4) 아시아의 '기타'는 중국, 몽골, 베트남, 일본, 대만을 제외한 나머지 아시아 지역 국가를 나타냄.
 5) 미주의 '기타'는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나머지 미주 지역 국가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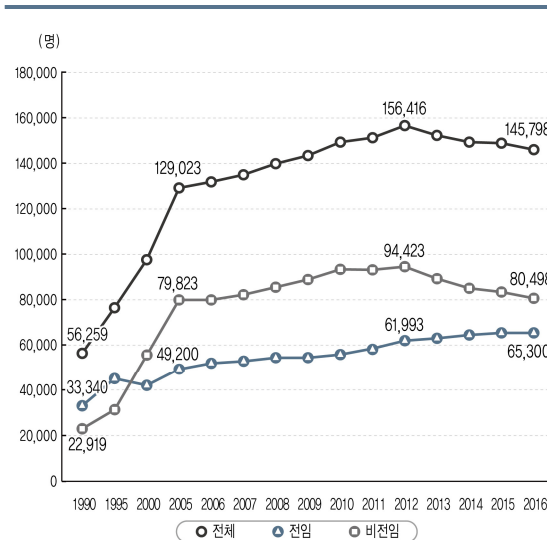
03 교원

1) 교원의 구성

대학의 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전임교원은 2012년 이전에는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가 포함되었으나, 2013년부터 ‘전임강사제’가 폐지되면서 전임강사를 제외한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포함된다. 한편 비전임교원에는 겸임교수, 초빙교수, 시간강사, 명예교수, 객원교수, 대우교수, 기타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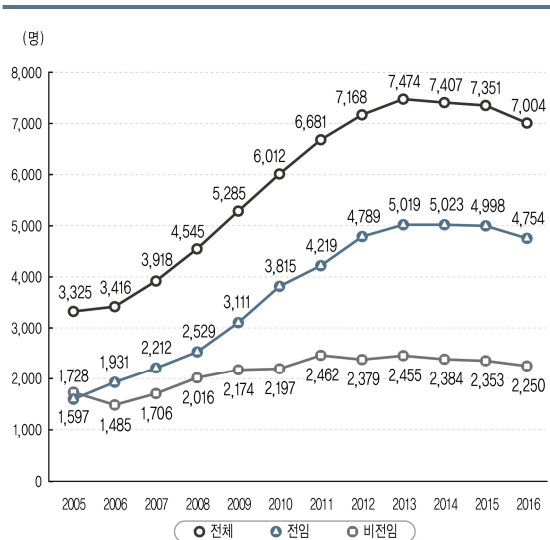
[그림 II-3-1]에서 교원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 56,259명에서 2005년 129,023명으로 약 2.3배 증가했던 전체 교원수는 이후 2012년 156,416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기 시작해 2016년 현재 145,798명으로 전년 대비 약 2.0% 감소했다. 전임 및 비전임교원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전임교원의 경우 큰 변동 없이 1990년 33,340명에서 2016년 65,300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반면 비전임교원은 1990년 22,919명에서 2005년 79,823명으로 약 3.5배 증가했다가 2012년 94,42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해 2016년 현재 80,498명으로 전년 대비 약 3.4% 감소했다.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는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이다. [그림 II-3-3]을 통해 연도별로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을 살펴보면, 1990년대에는 비전임교원이 전임교원의 약 0.7배로 전임교원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 비전임교원이 전임교원을 앞지르기 시작해 2010년에는 비전임교원이 전임교원의 약 1.7배에 이르는 규모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를 통해 고등교육의 양적 확대에 의한 교원수 증가가 주로 비전임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 전임교원 대비 비전



■ 그림 II-3-1 ■ 연도별 전임 및 비전임 교원수(1990~2016)

주: <표 II-3-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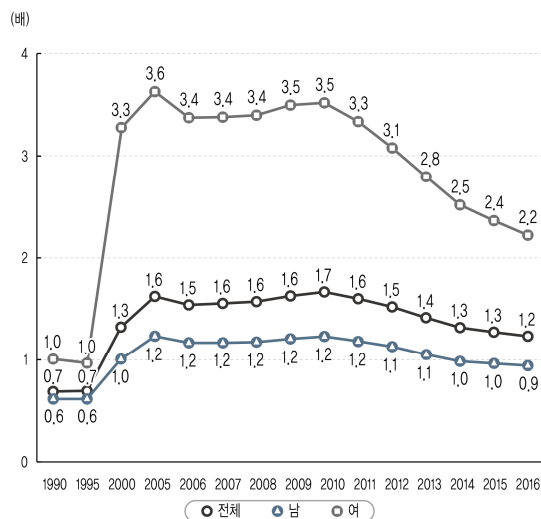
■ 그림 II-3-2 ■ 연도별 외국인 교원수(2005~2016)

주: <표 II-3-3> 참조.

임교원 추세를 성별로 구분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교원보다 여성교원의 비전임교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여성교원의 전임교원수와 비전임교원수가 거의 비슷했으나, 2000년대부터는 비전임 여교원이 급격히 증가해 2012년까지 전임 여교원의 3배 이상되는 규모를 유지해 왔고, 이후 점차 감소해 2016년에는 비전임 여교원이 전임 여교원보다 약 2.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교원의 경우 1990년대까지는 비전임교원이 전임교원의 약 0.6배로 전임교원의 비중이 더 높았으나, 이후 비전임 남교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해 남성교원의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은 0.9배~1.2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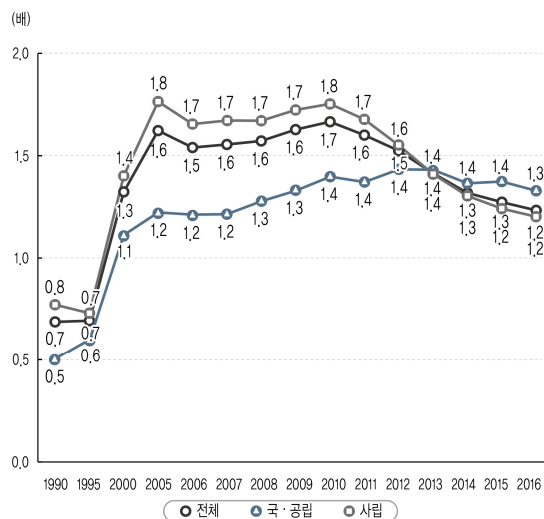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을 설립별로 살펴보면 [그림 II-3-4]와 같다. 국공립대학에 비해 사립대학의 비전임교원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국공립대학은 1990년 비전임교원이 전임교원의 약 0.5배 정도로 전임교원의 비중이 높았으나, 이후 비전임교원이 증가하기 시작해 2000년부터는 교원수가 비슷해졌고, 이후로도 꾸준히 증가해 2016년 현재 약 1.3배 정도 비전임교원이 전임교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립대학은 2013년 이전까지 국공립대학보다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 비중이 더 높았다. 2000년에는 비전임교원이 전임교원의 약 1.4배 규모였으나, 이후로도 꾸준히 증가해 2010년까지 약 1.7배~1.8배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 후로 비전임교원 비중이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3년에는 국공립대학과 같아졌으며, 2016년 현재 비전임교원이 전임교원보다 약 1.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외국인 교원수를 살펴보면 [그림 II-3-2]와 같다. 2005년 3,325명이었던 외국인 교원수는 이후 2013년까지 거의 매년 증가했으며, 2016년에는 2005년 대비 약 2.1배 증가한 7,004명으로 나타났다. 국내 교원과는 다르게 외국인 교원은 2005년을 제외하면 전임교원이 비전임교원 보다 많았다. 전임교원은 2005년 1,597명에서 2014년 5,023명으로 약 3.1배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해 2016년 4,754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전임교원은 큰 변동 없이 2008년부터는 약 2천명~ 2천 5백명 수준을 유지하였다. 2016년 현재 전체 외국인 교원 중 전임교원



■ 그림 II-3-3 ■ 연도별 성별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1990~2016)

주: <표 II-3-1> 참조.



■ 그림 II-3-4 ■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1990~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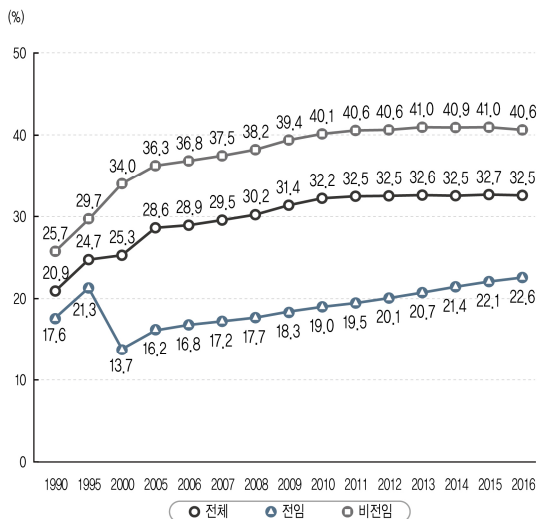
주: <표 II-3-1> 참조.

비율은 67.9%로 외국인 교원 10명 중 약 7명 정도가 전임교원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3-5]를 통해 연도별 여교원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여교원 비율은 1990년 20.9%에서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 2008년 30%를 넘어섰고, 2016년 현재 32.5%로 전체 교원 10명 중 3명 꼴로 여교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1990년 이후 전임 여교원 비율은 10~20%대를 보여 온 반면, 비전임 여교원 비율은 20~40%대를 보여 전임교원보다 비전임교원에서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현재 전임 여교원 비율은 22.6%, 비전임 여교원 비율은 40.6%로, 전임교원 중 10명 중 2명이, 비전임교원 중에서는 10명 중 4명 정도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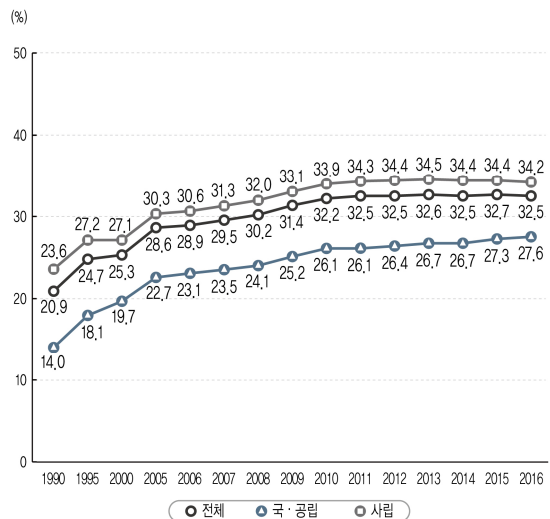
[그림 II-3-6]에서 설립별로 여교원 비율을 살펴보면, 국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의 여교원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국공립학교의 여교원 비율은 14.0%였으나 2005년 이후 20%대로 진입해 2016년 현재 27.6%로 나타났다. 반면 사립학교의 여교원 비율은 1990년 23.6%에서 2005년 30%대로 진입하였으며, 2016년 현재 전년보다 약 0.2%p 낮은 34.2%로 나타났다.

[표 II-3-2]에서 계열별 전임교원 비율을 살펴보면, 공학계열이 21.8%(14,231명)로 전임교원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의약계열 18.9%(12,335명), 사회계열 17.7%(11,586명), 인문계열 15.6%(10,206명), 자연계열 12.2%(7,956명), 예·체능계열 8.1%(5,299명) 순이었으며, 교육계열의 전임교원 5.4%(3,550명) 비중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 전임 여교원 비율을 살펴보면, 교육계열이 39.1%(1,387명)로 전임 여교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예·체능계열 34.7%(1,840명), 인문계열 31.2%(3,187명), 의약계열 30.9%(3,816명)에서 전임 여교원 비율이 30%를 넘었다. 한편 사회계열 19.8%(2,292명)과 자연계열 18.4%(1,460명)은 10%대로 전임 여교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공학계열 5.2%(738명)은 전체 계열 중 전임 여교원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II-3-5 ■ 연도별 전임 및 비전임 비율(1990~2016)

주: <표 II-3-1> 참조.



■ 그림 II-3-6 ■ 연도별 설립별 여교원 비율(1990~2016)

주: <표 II-3-1> 참조.

표 II-3-1 연도별 설립별 성별 교원수(1990~2016)

(단위: 명)

	전임교원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1990	33,340	27,473	5,867	10,373	9,234	1,139	22,967	18,239	4,728
1995	45,087	35,485	9,602	12,697	10,971	1,726	32,390	24,514	7,876
2000	41,943	36,185	5,758	11,359	10,393	966	30,584	25,792	4,792
2005	49,200	41,227	7,973	13,008	11,618	1,390	36,192	29,609	6,583
2006	51,859	43,151	8,708	13,385	11,919	1,466	38,474	31,232	7,242
2007	52,763	43,671	9,092	13,510	11,973	1,537	39,253	31,698	7,555
2008	54,331	44,728	9,603	13,703	12,119	1,584	40,628	32,609	8,019
2009	54,518	44,528	9,990	13,301	11,682	1,619	41,217	32,846	8,371
2010	55,972	45,335	10,637	13,746	12,014	1,732	42,226	33,321	8,905
2011	58,104	46,797	11,307	14,489	12,665	1,824	43,615	34,132	9,483
2012	61,993	49,528	12,465	15,341	13,373	1,968	46,652	36,155	10,497
2013	63,042	49,974	13,068	15,418	13,386	2,032	47,624	36,588	11,036
2014	64,378	50,583	13,795	15,579	13,468	2,111	48,799	37,115	11,684
2015	65,423	50,983	14,440	15,653	13,479	2,174	49,770	37,504	12,266
2016	65,300	50,567	14,733	15,638	13,368	2,270	49,662	37,199	12,463
	비전임교원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1990	22,919	17,018	5,901	5,194	4,154	1,040	17,725	12,864	4,861
1995	31,265	21,976	9,289	7,595	5,651	1,944	23,670	16,325	7,345
2000	55,493	36,624	18,869	12,626	8,856	3,770	42,867	27,768	15,099
2005	79,823	50,887	28,936	15,907	10,735	5,172	63,916	40,152	23,764
2006	79,848	50,458	29,390	16,174	10,816	5,358	63,674	39,642	24,032
2007	82,046	51,307	30,739	16,406	10,921	5,485	65,640	40,386	25,254
2008	85,410	52,768	32,642	17,515	11,562	5,953	67,895	41,206	26,689
2009	88,769	53,826	34,943	17,711	11,523	6,188	71,058	42,303	28,755
2010	93,249	55,813	37,436	19,218	12,333	6,885	74,031	43,480	30,551
2011	93,033	55,296	37,737	19,873	12,720	7,153	73,160	42,576	30,584
2012	94,423	56,052	38,371	21,993	14,105	7,888	72,430	41,947	30,483
2013	89,139	52,617	36,522	22,003	14,049	7,954	67,136	38,568	28,568
2014	84,886	50,153	34,733	21,275	13,556	7,719	63,611	36,597	27,014
2015	83,298	49,177	34,121	21,508	13,549	7,959	61,790	35,628	26,162
2016	80,498	47,776	32,722	20,780	13,009	7,771	59,718	34,767	24,951

주: 1) 2012년까지는 전임교원에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가 포함됨.

2) 2013년부터는 전임강사 폐지에 따라 전임교원에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포함됨.

3) 비전임교원에는 겸임교수, 초빙교수, 시간강사, 명예교수, 객원교수, 대우교수, 기타 등이 포함됨.

표 II-3-2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전임교원수(2016)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65,300	50,567	14,733	15,638	13,368	2,270	49,662	37,199	12,463
수도권	소계	25,694	19,754	5,940	3,174	2,678	496	22,520	17,076	5,444
	인문	4,780	3,218	1,562	364	266	98	4,416	2,952	1,464
	사회	4,664	3,729	935	404	338	66	4,260	3,391	869
	교육	1,002	563	439	156	115	41	846	448	398
	공학	5,503	5,151	352	853	817	36	4,650	4,334	316
	자연	3,022	2,408	614	579	494	85	2,443	1,914	529
	의약	4,441	3,257	1,184	534	436	98	3,907	2,821	1,086
	예·체능	2,239	1,392	847	283	211	72	1,956	1,181	775
	소속학과없음	43	36	7	1	1	-	42	35	7
비수도권	소계	39,606	30,813	8,793	12,464	10,690	1,774	27,142	20,123	7,019
	인문	5,426	3,801	1,625	1,267	1,003	264	4,159	2,798	1,361
	사회	6,922	5,565	1,357	1,627	1,385	242	5,295	4,180	1,115
	교육	2,548	1,600	948	1,221	949	272	1,327	651	676
	공학	8,728	8,342	386	4,122	3,999	123	4,606	4,343	263
	자연	4,934	4,088	846	2,860	2,500	360	2,074	1,588	486
	의약	7,894	5,262	2,632	798	474	324	7,096	4,788	2,308
	예·체능	3,060	2,067	993	547	359	188	2,513	1,708	805
	소속학과없음	94	88	6	22	21	1	72	67	5

주: 전임교원에는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포함됨.

표 II-3-3 연도별 설립별 외국인 교원수(2005~2016)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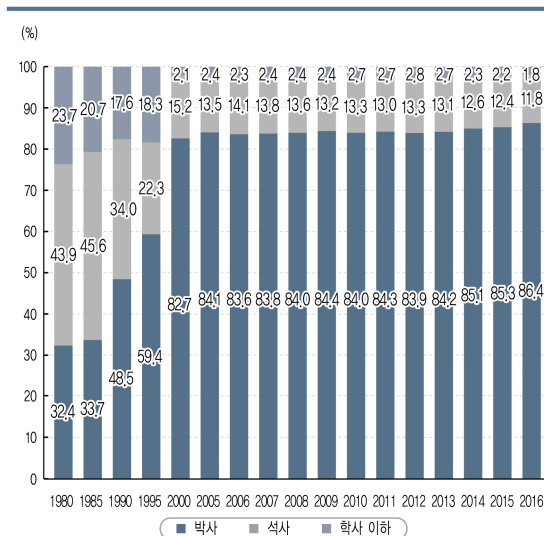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전임	비전임	소계	전임	비전임	소계	전임	비전임
2005	3,325	1,597	1,728	401	19	382	2,924	1,578	1,346
2006	3,416	1,931	1,485	335	20	315	3,081	1,911	1,170
2007	3,918	2,212	1,706	408	26	382	3,510	2,186	1,324
2008	4,545	2,529	2,016	501	30	471	4,044	2,499	1,545
2009	5,285	3,111	2,174	600	85	515	4,685	3,026	1,659
2010	6,012	3,815	2,197	765	164	601	5,247	3,651	1,596
2011	6,681	4,219	2,462	928	226	702	5,753	3,993	1,760
2012	7,168	4,789	2,379	1,027	237	790	6,141	4,552	1,589
2013	7,474	5,019	2,455	1,108	251	857	6,366	4,768	1,598
2014	7,407	5,023	2,384	1,094	262	832	6,313	4,761	1,552
2015	7,351	4,998	2,353	1,100	288	812	6,251	4,710	1,541
2016	7,004	4,754	2,250	1,055	303	752	5,949	4,451	1,498

2) 교원의 학위 소지 현황

전임교원의 학위 소지 현황은 박사학위, 석사학위, 학사학위 이하로 구분된다. 학사학위 이하에는 학사학위를 포함하여 국제전문학교 졸업 및 기타의 사유로 정식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교원, 곧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가 없는 교원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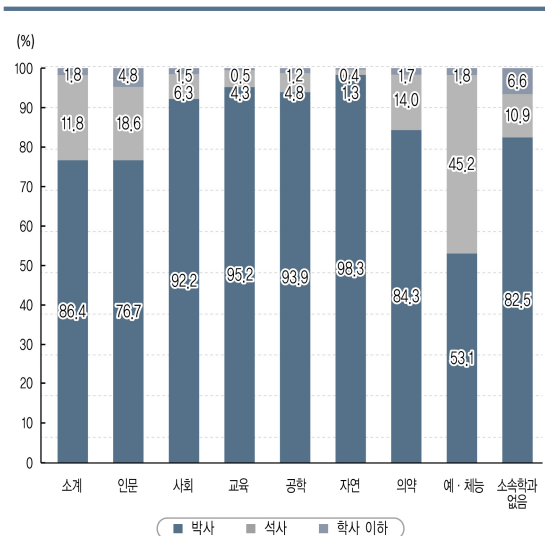
연도별로 전임교원의 학위 소지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II-3-7]과 같다. 먼저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교원 비율을 살펴보면, 1980년 32.4%에 불과했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교원 비율은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해 2000년대부터는 80% 이상의 전임교원이 박사학위를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86.4%로 전체 전임교원 10명 중 8명 이상이 박사학위를 소지하였다. 한편 석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교원은 1980년 43.9%로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교원보다 더 많았으나, 이후 박사학위 소지자의 증가로 점차 그 비중이 감소해 2000년대부터는 10~15%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2016년 현재 11.8% 정도의 전임교원이 석사학위를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사학위 및 기타학위 소지자는 1980년 23.7%였으나 석사학위 소지자와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감소해 2000년 이후부터는 2%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6년에는 전년 대비 약 0.4%p 감소한 1.8%로 100명 중 2명 이내의 교원이 학사학위 및 기타학위를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계열별 전임교원 학위소지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II-3-8]과 같다. 전임교원 중 석사학위 소지자 비중이 가장 많은 계열은 예·체능계열로 45.2%가 석사학위 소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인문계열로 18.6%의 전임교원이 석사학위 소지자였으며, 의약계열 14.0%, 사회계열 6.3%, 공학계열 4.8%, 교육계열 4.3%, 자연계열 1.3% 순으로 석사학위를 소지한 교원의 비율이 높았다. 학사학위 및 기타학위 소지자는 인문계열이 4.8%로 가장 높았으며, 예·체능계열(1.8%), 의약계열(1.7%), 사회계열(1.5%), 공학계열(1.2%)이 1%대의 비율을 보였고, 교육계열(0.5%), 자연계열(0.4%)이 1% 미만의 비율을 보였다.



■ 그림 II-3-7 ■ 연도별 전임교원 학위소지 현황(1980~2016)

주: <표 II-3-4> 참조, 학사 이하에 학사 및 기타 포함.



■ 그림 II-3-8 ■ 계열별 전임교원 학위소지 현황(2016)

주: <표 II-3-5> 참조, 학사 이하에 학사 및 기타 포함.

표 II-3-4 연도별 전임교원 학위 소지 현황(1980~2016)

(단위: 명)

	전체	박사			석사	학사	기타
		전체	국내	국외			
1980	14,458	4,683	3,012	1,671	6,353	3,193	229
1985	26,047	8,789	5,434	3,355	11,873	5,260	125
1990	33,340	16,155	10,238	5,917	11,328	5,808	49
1995	45,087	26,771	16,357	10,414	10,057	8,207	52
2000	41,943	34,666	21,293	13,373	6,394	863	20
2005	49,200	41,379	25,636	15,743	6,660	932	229
2006	51,859	43,362	26,840	16,522	7,298	1,103	96
2007	52,763	44,217	27,000	17,217	7,293	1,219	34
2008	54,331	45,631	27,817	17,814	7,372	1,299	29
2009	54,518	46,011	27,896	18,115	7,198	1,297	12
2010	55,972	47,004	28,569	18,435	7,458	1,470	40
2011	58,104	48,968	29,571	19,397	7,553	1,561	22
2012	61,993	52,040	31,815	20,225	8,240	1,672	41
2013	63,042	53,095	32,338	20,757	8,253	1,656	38
2014	64,378	54,756	33,479	21,277	8,123	1,479	20
2015	65,423	55,834	34,443	21,391	8,144	1,422	23
2016	65,300	56,405	34,920	21,485	7,703	1,171	21

주: '기타'에는 국제전문학교 졸업 및 기타의 사유로 정식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한 교원(즉,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가 없는 교원)이 포함됨.

표 II-3-5 지역별 계열별 전임교원 학위 소지 현황(2016)

(단위: 명)

		전체	박사			석사	학사	기타
			전체	국내	국외			
전체		65,300	56,405	34,920	21,485	7,703	1,171	21
수도권	소계	25,694	22,664	11,377	11,287	2,652	372	6
	인문	4,780	3,675	1,565	2,110	882	223	—
	사회	4,664	4,439	1,557	2,882	190	35	—
	교육	1,002	961	395	566	34	7	—
	공학	5,503	5,245	2,300	2,945	224	34	—
	자연	3,022	3,005	1,137	1,868	16	1	—
	의약	4,441	4,145	3,741	404	266	30	—
	예·체능	2,239	1,161	666	495	1,035	37	6
	소속학과없음	43	33	16	17	5	5	—
비수도권	소계	39,606	33,741	23,543	10,198	5,051	799	15
	인문	5,426	4,150	2,465	1,685	1,012	264	—
	사회	6,922	6,243	4,185	2,058	542	137	—
	교육	2,548	2,419	1,704	715	117	12	—
	공학	8,728	8,122	5,305	2,817	465	137	4
	자연	4,934	4,817	2,757	2,060	89	22	6
	의약	7,894	6,259	5,816	443	1,458	173	4
	예·체능	3,060	1,651	1,266	385	1,358	50	1
	소속학과없음	94	80	45	35	10	4	—

주: '기타'에는 국제전문학교 졸업 및 기타의 사유로 정식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한 교원(즉,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가 없는 교원)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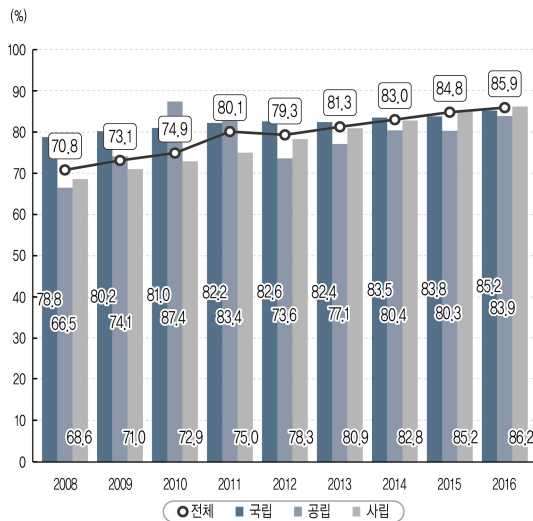
04 학습 환경 및 여건

1) 전임교원 현황

(1) 전임교원 확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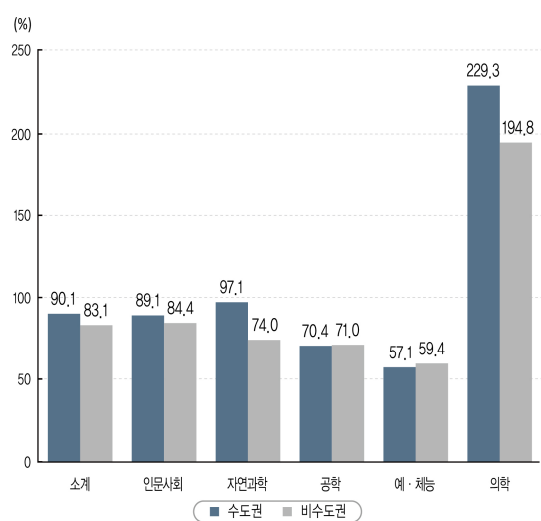
전임교원 확보율은 대학의 여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대학의 재정지원 사업의 선정지표 가운데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대학들은 전임교원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결과 2008년 70.8%에 머물렀던 전임교원 확보율은 2016년 85.9%로 높아져서 2008년 대비 약 15.1%p 증가했다. [그림 II-4-1]을 통해 2008년 이후의 전임교원 확보율을 설립별로 살펴보면, 국립대학은 2008년 전임교원 확보율이 78.8%로 가장 높았으나 2016년 85.2%로 약 6.4%p 증가하였으며, 2008년 전임교원 확보율이 66.5%로 가장 낮았던 공립 학교는 약 17.4%p 증가해 83.9%로 다른 설립 대학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사립대학은 2008년 68.6%에서 2016년 86.2%로 약 17.6%p 증가해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가장 높아졌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90.1%로 비수도권 대학 83.1%보다 약 7.0%p 높았다. 이를 계열별로 보면 의학계열이 수도권 229.3%, 비수도권이 194.8%로 모든 계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학계열을 제외한 다른 계열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수도권에서는 자연과학계열 97.1%, 인문사회계열 89.1%, 공학계열 70.4%, 예·체능계열 57.1% 순으로 전임교원 확보율이 높았고, 비수도권에서는 인문사회계열 84.4%, 자연과학계열 74.0%, 공학계열 71.0%, 예·체능계열 59.4% 순으로 전임교원 확보율이 높게 나타났다.



■ 그림 II-4-1 ■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확보율(2008~2016)

주: <표 II-4-1> 참조.



■ 그림 II-4-2 ■ 지역별 계열별 전임교원 확보율(2016)

주: 1. <표 II-4-2> 참조.

2. 전임교원 확보율은 5대 계열로 구분함.

표 II-4-1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확보율(2008~2016)

(단위: %)

	전체	국립	공립	사립
2008	70.8	78.8	66.5	68.6
2009	73.1	80.2	74.1	71.0
2010	74.9	81.0	87.4	72.9
2011	80.1	82.2	83.4	75.0
2012	79.3	82.6	73.6	78.3
2013	81.3	82.4	77.1	80.9
2014	83.0	83.5	80.4	82.8
2015	84.8	83.8	80.3	85.2
2016	85.9	85.2	83.9	86.2

주: 1) 2012년까지는 전임교원에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가 포함되며, 2013년부터는 전임강사 폐지에 따라 전임교원에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포함됨. 단, 소속학과가 없는 전임교원의 수는 제외됨.

2) 전임교원 확보율(편제정원 기준)=[전임교원수/교원법정정원(편제정원 기준)]×100

3) 교원법정정원: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1항의 별표5와 제2항에 근거하여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누어 산출(편제정원별)되며,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산출함.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1항의 별표5

대계열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약
교원 1인당 학생수	25	20	20	20	8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계열별 학생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생수를 말한다. 1) 대학원이 없는 대학: 대학의 학생 정원, 2) 대학원이 있는 대학: 학사과정의 학생정원에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전문대학원의 경우는 학생정원의 2배)를 합한 학생수, 3) 대학원 대학: 대학원 학생정원의 2배의 학생수

표 II-4-2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전임교원 확보율(2016)

(단위: %)

	전체	국립	공립	사립
전체	85.9	85.2	83.9	86.2
수도권	소계	90.1	103.1	83.9
	인문사회	89.1	124.7	90.2
	자연과학	97.1	110.0	94.2
	공학	70.4	73.4	74.6
	예·체능	57.1	77.8	86.1
	의약	229.3	158.8	-
비수도권	소계	83.1	82.0	-
	인문사회	84.4	84.2	-
	자연과학	74.0	79.6	-
	공학	71.0	74.2	-
	예·체능	59.4	64.4	-
	의약	194.8	119.3	-

주: 1) <표 I-4-1>의 주 1)~4) 참조

2) 전임교원 확보율의 경우,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약 등의 5대 계열 구분('대학설립·운영규정'의 <별표1>에 의함)을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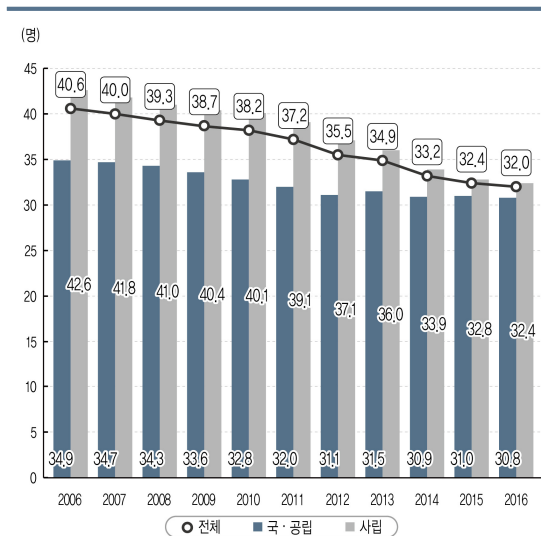
- 인문사회계열: 어학, 문학, 사회 및 신학 등
- 자연과학계열: 이학, 해양, 농학, 수산, 간호, 보건, 약학 및 한약학 등(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 수의예과 등은 자연과학계열에 포함됨)
- 공학계열: 공학 등
- 예·체능계열: 음악, 미술, 체육 및 무용 등
- 의학계열: 의학, 치의학, 한의학 및 수의학 등

3) 의학계열은 계열의 특성상 전임교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의학계열을 포함하여 전체 전임교원 확보율을 제시할 경우 다른 계열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왜곡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5대 계열 전체의 전임교원 확보율뿐만 아니라, 의학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의 전임교원 확보율을 소개로 제시하였음.

(2)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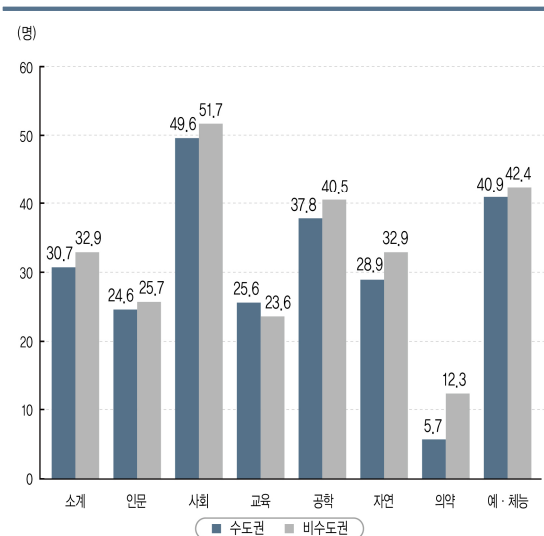
연도별로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II-4-3]과 같다. 2006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는 40.6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 현재 32.0명으로 약 8.6명 줄어 들었다. 설립별로 살펴보면, 국공립대학은 2006년 34.9명, 사립대학은 42.6명으로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국공립대학보다 약 7.7명 더 많았지만, 2016년 현재 국공립대학은 약 4.1명 감소한 30.8명, 사립대학은 약 10.2명 감소한 32.4명으로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의 설립별 격차가 약 1.6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공립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사립대학보다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이 지표에 대한 교육여건은 국공립대학이 좀 더 나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II-4-4]을 통해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은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30.7명, 비수도권 대학은 32.9명으로 수도권 대학이 비수도권 대학보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약 2.2명 적었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의학계열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5.7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인문계열(24.6명), 교육계열(25.6명), 자연계열(28.9명)에서 전임교원 1인당 평균 20명대의 학생을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학계열(37.8명), 예·체능계열(40.9명), 사회계열(49.6명) 순으로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적었다. 반면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교육계열을 제외한 모든 계열에서 수도권 대학보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많았다. 특히 의학계열은 모든 계열에서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12.3명으로 가장 적었지만, 수도권 대학 보다는 6.6명 더 많았다. 교육계열(23.6명), 인문계열(25.7명)에서는 전임교원 1인당 평균 20명대의 학생을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연계열(32.9명), 공학계열(40.5명), 예·체능계열(42.4명), 사회계열(51.7명) 순으로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적었다. 예·체능계열과 사회계열은 지역과 무관하게 전임교원 1인당 평균 40명 이상의 학생을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계열보다 전임교원이 가르쳐야 할 학생이 평균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II-4-3 ■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2006~2016)

주: <표 II-4-3> 참조.



■ 그림 II-4-4 ■ 지역별 계열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2016)

주: <표 II-4-4> 참조.

■ 표 II-4-3 ■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2006~2016)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2006	40.6	34.9	42.6
2007	40.0	34.7	41.8
2008	39.3	34.3	41.0
2009	38.7	33.6	40.4
2010	38.2	32.8	40.1
2011	37.2	32.0	39.1
2012	35.5	31.1	37.1
2013	34.9	31.5	36.0
2014	33.2	30.9	33.9
2015	32.4	31.0	32.8
2016	32.0	30.8	32.4

주: 1) 총장 및 소속학과가 없는 전임교원수는 제외됨.
 2)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재적 학생수/전임교원수

■ 표 II-4-4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2016)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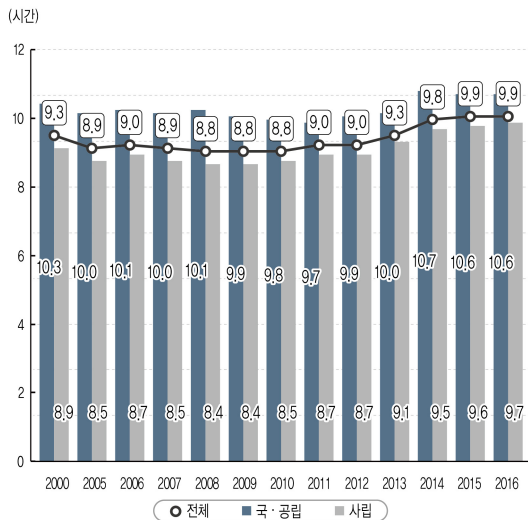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32.0	30.8	32.4
수도권	소계	30.7	23.1	31.7
	인문	24.6	18.5	25.1
	사회	49.6	39.9	50.6
	교육	25.6	17.9	27.0
	공학	37.8	31.6	39.0
	자연	28.9	19.2	31.2
	의약	5.7	2.4	6.1
	예·체능	40.9	30.0	42.4
비수도권	소계	32.9	32.8	33.0
	인문	25.7	31.1	24.1
	사회	51.7	47.6	53.0
	교육	23.6	18.3	28.5
	공학	40.5	37.6	43.0
	자연	32.9	28.9	38.5
	의약	12.3	15.2	12.0
	예·체능	42.4	34.7	44.0

주: 1) 총장 및 소속학과가 없는 전임교원수는 제외됨.
 2)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를 산출하기 위한 재적 학생수와 전임교원수에는 학부와 대학부설 대학원 현황이 포함됨.
 3)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재적 학생수/전임교원수

(3) 전임교원의 강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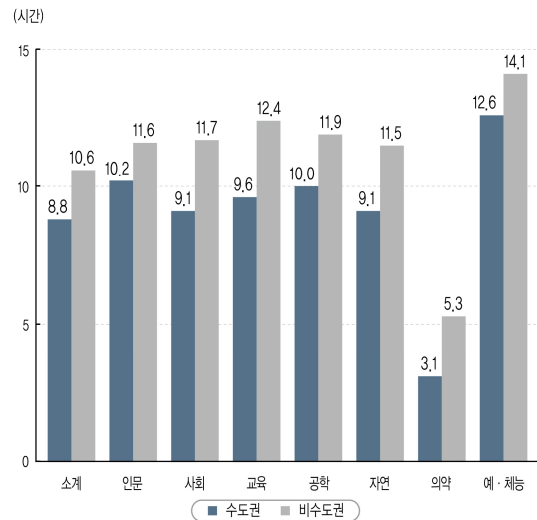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은 전체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의 합을 전임교원수로 나누어 산출한 값으로 교원의 근무여건을 파악하는 주요지표 중 하나이다. 전임교원 1인당 주당 수업시간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II-4-5]와 같다. 주당 평균 수업시간은 2000년 9.3시간으로 2013년까지 주당 8.8 ~ 9.3시간 사이를 오가며 큰 변동이 없다가 2014년 9.8시간으로 약 0.5시간 증가하였으며, 2016년에는 전년과 동일하게 주당 평균 9.9시간 강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별로 살펴보면, 국공립대학보다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주당 수업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학은 2000년에서 2008년까지 주당 평균 10시간 이상 강의하였다가 2009년에서 2012년까지 주당 평균 9시간대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3년부터 다시 주당 평균 10시간 이상 강의하기 시작해 2016년 현재 주당 평균 10.6시간 강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립대학은 2000년에서 2012년까지 주당 평균 9시간 이하로 강의하였다가 2013년부터 주당 평균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4-6]을 통해 지역별로 전임교원 1인당 주당 수업시간을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은 평균 8.8시간, 비수도권 대학은 평균 10.6시간 강의해 수도권 대학보다 비수도권 대학의 주당 평균 수업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은 의약계열이 3.1시간으로 가장 적었고, 사회 및 자연계열이 9.1시간, 교육계열이 9.6시간, 공학계열이 10.0시간, 인문계열이 10.2시간 강의하였으며, 예·체능계열은 12.6시간으로 전임교원 1인당 주당 수업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 대학은 의약계열 5.3시간으로 가장 적었으나 수도권 대학보다 2.2시간 더 많이 강의하였으며, 자연계열 11.5시간, 인문계열 11.6시간, 사회계열 11.7시간, 공학계열 11.9시간, 교육계열 12.4시간 강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체능계열은 14.1시간으로 수도권 대학과 마찬가지로 주당 수업시간이 가장 많았다.



■ 그림 II-4-5 ■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2000~2016)

주: <표 II-4-5> 참조.



■ 그림 II-4-6 ■ 지역별 계열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2016)

주: <표 II-4-6> 참조.

■ 표 II-4-5 ■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2000~2016)

(단위: 시간)

	전체	국·공립	사립
2000	9.3	10.3	8.9
2005	8.9	10.0	8.5
2006	9.0	10.1	8.7
2007	8.9	10.0	8.5
2008	8.8	10.1	8.4
2009	8.8	9.9	8.4
2010	8.8	9.8	8.5
2011	9.0	9.7	8.7
2012	9.0	9.9	8.7
2013	9.3	10.0	9.1
2014	9.8	10.7	9.5
2015	9.9	10.6	9.6
2016	9.9	10.6	9.7

주: 1)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전체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의 합/전체 전임교원수

2) 2012년까지는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 산출을 위한 전임교원수에 대학교 대학부설 대학원의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가 포함됨.

3) 2013년부터는 전임강사 폐지에 따라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 산출을 위한 전임교원수에 대학교 대학부설 대학원의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포함됨.

■ 표 II-4-6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2016)

(단위: 시간)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9.9	10.6	9.7
수도권	소계	8.8	8.5	8.8
	인문	10.2	7.5	10.5
	사회	9.1	8.5	9.2
	교육	9.6	8.2	9.9
	공학	10.0	11.2	9.8
	자연	9.1	8.6	9.2
	의약	3.1	3.5	3.0
	예·체능	12.6	11.5	12.7
	소속학과없음	1.3	-	1.4
비수도권	소계	10.6	11.2	10.4
	인문	11.6	9.9	12.1
	사회	11.7	11.1	12.0
	교육	12.4	12.1	12.6
	공학	11.9	11.6	12.3
	자연	11.5	11.3	11.7
	의약	5.3	7.9	5.0
	예·체능	14.1	14.4	14.1
	소속학과없음	1.0	3.4	0.3

주: 1)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전체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의 합/전체 전임교원수

2) 2012년까지는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 산출을 위한 전임교원수에 대학교 대학부설 대학원의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가 포함됨.

3) 2013년부터는 전임강사 폐지에 따라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 산출을 위한 전임교원수에 대학교 대학부설 대학원의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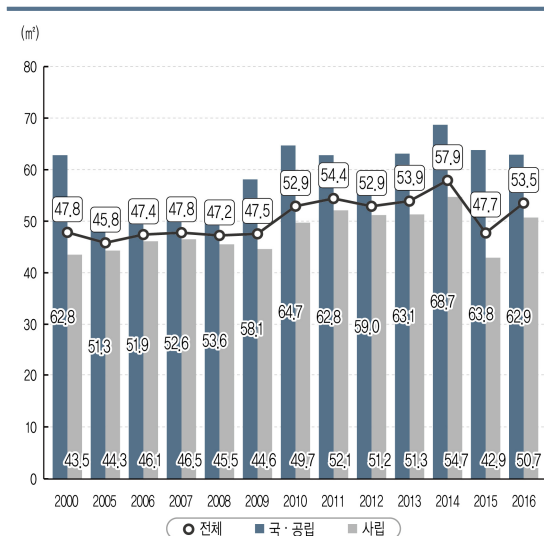
2) 시설 현황

대학 시설 현황을 학생 1인당 교지면적, 교사면적, 도서관 현황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지면적은 대지와 체육장 면적을 합한 값으로 이를 재적 학생수로 나누어 학생 1인당 교지면적을 산출하였다. 또한 교사면적은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특수시설, 기숙시설, 계열별 부속시설, 기타시설 등을 합한 수치로 이를 재적 학생수로 나누어 학생 1인당 교사면적을 산출하였다.

[그림 II-4-7]을 통해 연도별로 학생 1인당 교지면적의 변동을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학생 1인당 45~47㎡ 정도의 교지면적을 나타냈다. 2010년 이후부터는 2015년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평균 52㎡ 이상의 교지면적을 보여, 이전보다 비교적 넓은 교지면적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별로 살펴보면 사립대학보다 국공립대학의 교지면적이 넓어, 사립대학에 비해 국공립대학의 학생이 상대적으로 넓게 교지면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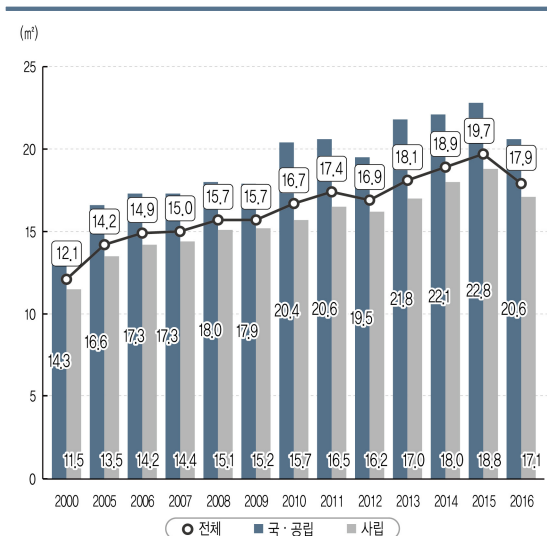
[그림 II-4-8]에서 연도별로 학생 1인당 교사면적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 12.1㎡에서 2016년 17.9㎡로 증가해 2000년 대비 약 1.5배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별로 살펴보면 학생 1인당 교사면적 역시 교지면적처럼 사립대학보다 국공립대학이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에 비해 약 2~5㎡ 정도 더 넓어, 국공립대학의 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넓은 교사면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8]을 통해 학생 1인당 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학생 1인당 도서관 예산은 102,878원으로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 수도권 대학이 비수도권 대학보다 학생 1인당 도서관 예산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좌석당 학생수는 2016년 평균 5.8명으로 국공립대학(5.7명)이 사립대학(5.9명)보다, 수도권 대학(5.1명)이 비수도권 대학(6.4명)보다 평균적으로 더 여유 있게 도서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 1인당 도서관 장서수는 64.6권으로 국공립대학(79.9권)이 사립대학(60.0권)보다, 수도권대학(77.1권)이 비수도권대학(57.0권)보다 학생 1인당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는 장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II-4-7 ■ 연도별 설립별 학생 1인당 교지면적(2000~2016)

주: <표 II-4-7> 참조.



■ 그림 II-4-8 ■ 연도별 설립별 학생 1인당 교사면적(2000~2016)

주: <표 II-4-7> 참조.

표 II-4-7 연도별 설립별 학생 1인당 교지면적 및 교사면적(2000~2016)

(단위: m²)

	학생 1인당 교지면적			학생 1인당 교사면적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2000	47.8	62.8	43.5	12.1	14.3	11.5
2005	45.8	51.3	44.3	14.2	16.6	13.5
2006	47.4	51.9	46.1	14.9	17.3	14.2
2007	47.8	52.6	46.5	15.0	17.3	14.4
2008	47.2	53.6	45.5	15.7	18.0	15.1
2009	47.5	58.1	44.6	15.7	17.9	15.2
2010	52.9	64.7	49.7	16.7	20.4	15.7
2011	54.4	62.8	52.1	17.4	20.6	16.5
2012	52.9	59.0	51.2	16.9	19.5	16.2
2013	53.9	63.1	51.3	18.1	21.8	17.0
2014	57.9	68.7	54.7	18.9	22.1	18.0
2015	47.7	63.8	42.9	19.7	22.8	18.8
2016	53.5	62.9	50.7	17.9	20.6	17.1

- 주: 1) 교지면적: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값으로, 차용면적은 제외하고 학교소유면적만을 나타냄.
 2) 교사면적: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특수시설, 기숙시설, 계열별 부속시설, 기타시설 등을 합한 수치임.
 3) 학생 1인당 교지면적=전체 교지면적/재적 학생수
 4) 학생 1인당 교사면적=전체 교사면적/재적 학생수

출처: 한국사학진흥재단

표 II-4-8 지역별 설립별 학생 1인당 도서관 현황(2016)

(단위: 원, 명, 권)

	학생 1인당 도서관 예산			도서관 좌석당 학생수			학생 1인당 도서관 장서수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102,878.0	129,401.6	94,929.0	5.8	5.7	5.9	64.6	79.9	60.0
수도권	139,911.0	237,556.1	129,860.1	5.1	4.1	5.2	77.1	157.1	68.9
비수도권	80,469.1	109,928.3	67,006.8	6.4	6.1	6.5	57.0	66.0	52.8

- 주: 1) 학생 1인당 도서관 예산=전체 도서관 예산/재적 학생수
 2) 도서관 좌석당 학생수=재적 학생수/좌석수
 3) 학생 1인당 도서관 장서수=장서수/재적 학생수
 4) 폐교의 재적 학생수는 제외함.

출처: 한국사학진흥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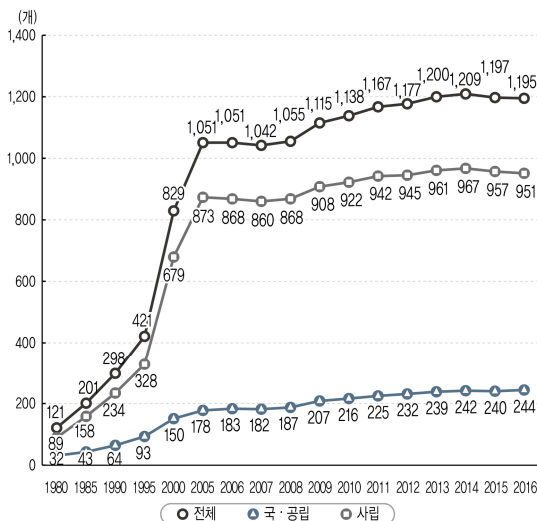
Ⅲ. 대학원

1. 학교
2. 학생
3. 교원

01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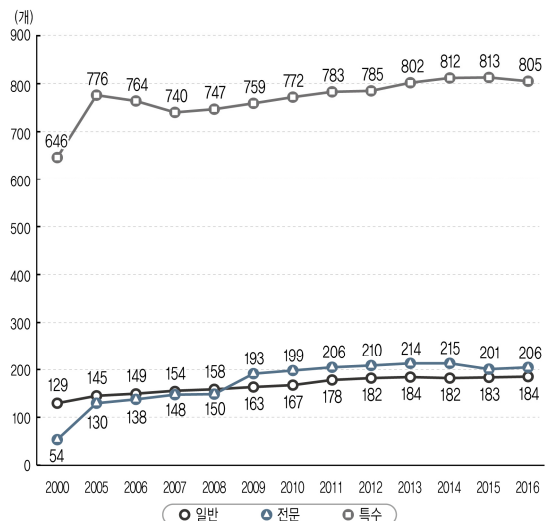
우리나라 대학원(일반대학원)은 1953년 문교부 훈령 제8호 ‘대학원규정’이 제정 시행된 이후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함께 최상위 고등교육기관으로 성장해왔다.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에 걸쳐 외형적 교육체제를 갖춘 대학원은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에 이르러 양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이후 1990년대 말부터 산업구조가 고도화 되면서 고급인력과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크게 늘어났고, 이에 따른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대량 시설인가로 인해 대학원수는 더욱 팽창하였다. 실제로 1980년 이후 대학원수의 변화를 [그림 Ⅲ-1-1]을 통해 살펴보면, 1980년 121개에 불과하던 전체 대학원수가 2005년 1,051개로 약 8.7배 증가하였다. 전체 대학원수는 2014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소폭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6년 현재에는 1,195개로 나타났다. 설립별로 살펴보면, 2016년 사립 대학원수는 951개, 국·공립 대학원수는 244개로 사립이 국·공립보다 약 3.9배 많았다.

대학원수의 변화를 유형별⁵⁾로 살펴보면 [그림 Ⅲ-1-2]와 같다. 일반대학원의 경우는 2000년부터 소폭이지만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2016년 현재 805개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원은 2000년 54개에서 2005년 130개로 까지 약 2.4배 증가하였고,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5년 소폭 감소하였다. 2016년에는 전년 대비 5개 증가한 206개로 나타났다. 전체 대학원 중 67.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특수대학원의 경우 전년 대비 8개 감소한 805개로 나타났다.



■ 그림 Ⅲ-1-1 연도별 설립별 대학원수(1980~2016)

주: <표 Ⅲ-1-1> 참조.



■ 그림 Ⅲ-1-2 연도별 유형별 대학원수(2000~2016)

주: <표 Ⅲ-1-2> 참조.

5) 제 2조 (대학원의 종류 등) ① 대학원은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대학원 :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2. 전문대학원 : 전문직업분야 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3. 특수대학원 : 직업인 또는 일반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표 Ⅲ-1-1 연도별 설립별 유형별 대학원수(1980~2016)

(단위: 개)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대학부설 대학원	대학원 대학	소계	대학부설 대학원	대학원 대학	소계	대학부설 대학원	대학원 대학
1980	121	121	—	32	32	—	89	89	—
1985	201	201	—	43	43	—	158	158	—
1990	298	298	—	64	64	—	234	234	—
1995	421	421	—	93	93	—	328	328	—
2000	829	812	17	150	150	—	679	662	17
2005	1,051	1,017	34	178	178	—	873	839	34
2006	1,051	1,015	36	183	183	—	868	832	36
2007	1,042	1,006	36	182	182	—	860	824	36
2008	1,055	1,018	37	187	186	1	868	832	36
2009	1,115	1,077	38	207	206	1	908	871	37
2010	1,138	1,098	40	216	215	1	922	883	39
2011	1,167	1,126	41	225	224	1	942	902	40
2012	1,177	1,134	43	232	231	1	945	903	42
2013	1,200	1,157	43	239	238	1	961	919	42
2014	1,209	1,165	44	242	240	2	967	925	42
2015	1,197	1,150	47	240	238	2	957	912	45
2016	1,195	1,149	46	244	242	2	951	907	44

주: 대학원대학은 1998년부터 집계되기 시작함.

표 Ⅲ-1-2 연도별 유형별 대학원수(2000~2016)

(단위: 개)

	전체				대학부설대학원				대학원대학			
	전체	일반	전문	특수	소계	일반	전문	특수	소계	일반	전문	특수
2000	829	129	54	646	812	129	44	639	17	—	10	7
2005	1,051	145	130	776	1,017	145	98	774	34	—	32	2
2006	1,051	149	138	764	1,015	149	106	760	36	—	32	4
2007	1,042	154	148	740	1,006	154	117	735	36	—	31	5
2008	1,055	158	150	747	1,018	157	119	742	37	1	31	5
2009	1,115	163	193	759	1,077	162	161	754	38	1	32	5
2010	1,138	167	199	772	1,098	166	165	767	40	1	34	5
2011	1,167	178	206	783	1,126	177	171	778	41	1	35	5
2012	1,177	182	210	785	1,134	181	173	780	43	1	37	5
2013	1,200	184	214	802	1,157	183	177	797	43	1	37	5
2014	1,209	182	215	812	1,165	181	178	806	44	1	37	6
2015	1,197	183	201	813	1,150	182	163	805	47	1	38	8
2016	1,195	184	206	805	1,149	183	168	798	46	1	38	7

주: 1) '일반'은 일반대학원, '전문'은 전문대학원, '특수'는 특수대학원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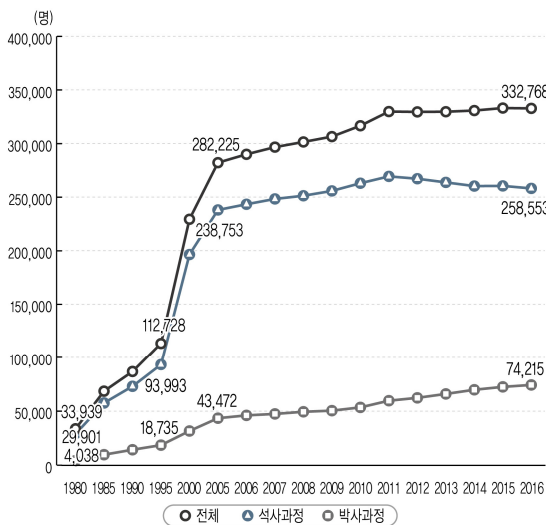
2)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2항'에 의거하여 '대학(일반대학)'은 일반/전문/특수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고,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은 전문/특수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대학'은 특수대학원을, '대학원대학'은 전문 또는 특수대학원 중 1개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음. 단, 특별법법인으로 설립된 한국학대학원의 경우 대학원대학이면서도 일반대학원으로 집계함.

02 학생

1) 학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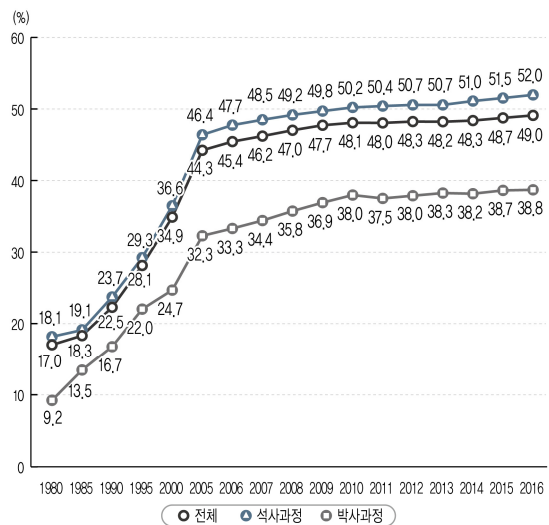
1980년부터 대학원 학생수의 변화를 과정별로 살펴본 [그림 III-2-1]에 따르면, 대학원 학생수는 1980년 33,939명에서 2016년 332,768명으로 약 9.8배 증가하였다. 전체 학생수는 대학원수의 증가 추세와 유사한 형태로 변화했다. 특히 1995년에서 2005년 사이 전체 대학원 학생수의 급격한 증가는 1995년 대학원 설립기준의 완화와 함께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고등교육의 대중화 및 보편화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과정별로 살펴보면, 석사과정 학생수는 198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다가 2011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으며, 2016년 현재 258,553명으로 나타났다. 박사과정의 경우 1980년 4,038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74,215명으로 약 18.4배 증가하였다.

[그림 III-2-2]는 대학원 과정별로 여학생 비율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전체 대학원 여학생 비율은 1980년부터 2005년까지 17.0%에서 44.3%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후부터는 점진적으로 증가해 2016년 49.0%로 1980년 대비 약 32.0%p 증가했다. 과정별로 살펴보면, 석사과정의 경우 1980년 전체 29,901명 중 여학생이 5,416명(18.1%)에 불과했지만, 이후 여학생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 2016년에는 전체 석사과정 대학원 학생 중 여학생이 5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 이하 동일) 중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9.2%에서 2005년 32.3%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후 2010년 38.0%까지 소폭이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0년 이래로 박사과정 여학생 비율은 38.0% 내외 수준을 유지하며 2016년에는 38.8%로 나타났다.



■ 그림 III-2-1 ■ 연도별 과정별 학생수(1980~2016)

주: <표 III-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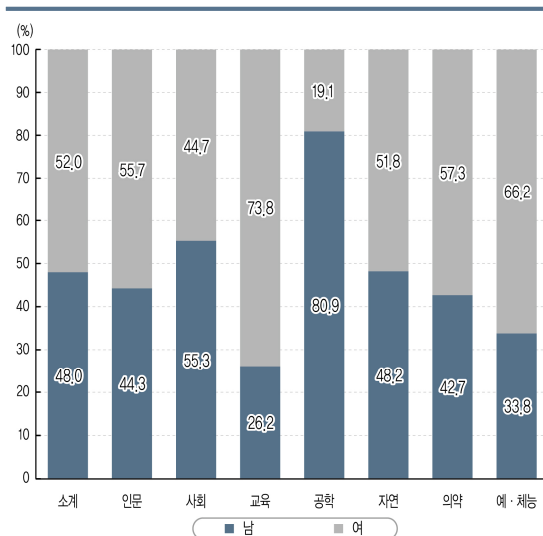
■ 그림 III-2-2 ■ 연도별 과정별 여학생 비율(1980~2016)

주: <표 III-2-1> 참조.

2016년 석사과정 학생수를 계열별로 살펴보면, 사회계열이 71,49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교육계열(50,403명), 인문계열(39,327명), 공학계열(34,790명), 의약계열(26,482명), 예·체능계열(19,443명) 순으로 많았으며, 자연계열이 16,612명으로 가장 적었다(〈표 III-2-2〉 참조). 한편 석사과정 학생들의 성비를 계열별로 살펴보면 [그림 III-2-3]과 같다. 교육계열의 경우 여학생이 전체 73.8%에 달하여 모든 계열 중에서 여학생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학계열은 여학생 비율이 19.1%에 그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체능계열(66.2%), 의약계열(57.3%), 인문계열(55.7%), 자연계열(51.8%), 사회계열(44.7%) 순으로 여학생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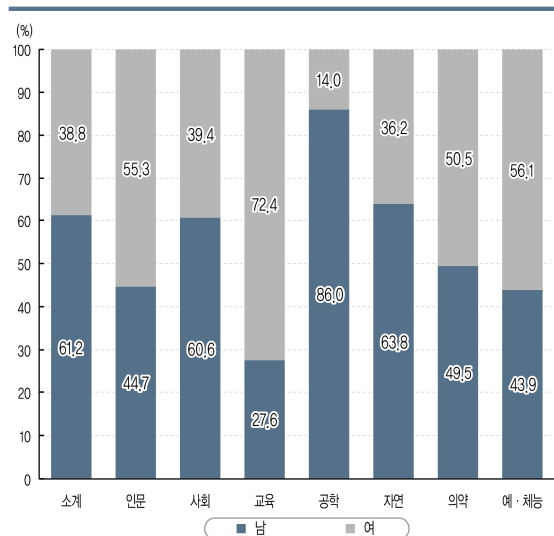
2016년 박사과정 학생수를 계열별로 살펴보면, 공학계열이 19,575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계열(14,093명), 자연계열(12,492명), 의약계열(9,608명), 인문계열(9,044명), 교육계열(5,177명) 순이었으며, 예·체능계열(4,226명)이 가장 적었다(〈표 III-2-2〉 참조). [그림 III-2-4]는 박사과정 학생들의 계열별 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각 계열별로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석사과정과 동일하게 교육계열에서 72.4%로 가장 높았으며, 공학계열에서 14.0%로 가장 낮았다. 예·체능계열(56.1%)과 인문계열(55.3%), 의약계열(50.5%)에서는 상대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 차이가 크지 않았던 반면, 사회계열(39.4%)과 자연계열(36.2%)에서는 남학생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사과정과 비교해 모든 계열에서 박사과정의 여학생 비율이 더 낮았으며, 특히 자연계열(15.6%p)과 예·체능계열(10.1%p)에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여학생 비율 차이가 가장 많이 났다.

한편 〈표 III-2-3〉을 통해 대학원 유형별 학생수를 살펴보면, 일반대학원이 154,882명으로 전체 대학원의 46.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특수대학원 131,853명(39.6%), 전문대학원 46,033명(13.8%) 순으로 나타났다.



■ 그림 III-2-3 ■ 계열별 성별 학생비율(석사과정, 2016)

주: 〈표 III-2-2〉 참조.



■ 그림 III-2-4 ■ 계열별 성별 학생비율(박사과정, 2016)

주: 박사과정에 석/박사통합과정이 포함됨. 〈표 III-2-2〉 참조.

표 Ⅲ-2-1 연도별 과정별 성별 학생수(1980~2016)

(단위: 명)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1980	33,939	28,153	5,786	29,901	24,485	5,416	4,038	3,668	370
1985	68,178	55,726	12,452	57,698	46,666	11,032	10,480	9,060	1,420
1990	86,911	67,351	19,560	72,417	55,284	17,133	14,494	12,067	2,427
1995	112,728	81,053	31,675	93,993	66,449	27,544	18,735	14,604	4,131
2000	229,437	149,365	80,072	197,436	125,259	72,177	32,001	24,106	7,895
2005	282,225	157,295	124,930	238,753	127,868	110,885	43,472	29,427	14,045
2006	290,029	158,371	131,658	243,833	127,550	116,283	46,196	30,821	15,375
2007	296,576	159,458	137,118	249,016	128,250	120,766	47,560	31,208	16,352
2008	301,412	159,733	141,679	252,010	128,017	123,993	49,402	31,716	17,686
2009	306,471	160,388	146,083	256,085	128,608	127,477	50,386	31,780	18,606
2010	316,633	164,266	152,367	263,100	131,060	132,040	53,533	33,206	20,327
2011	329,933	171,410	158,523	270,234	134,091	136,143	59,699	37,319	22,380
2012	329,544	170,512	159,032	267,232	131,869	135,363	62,312	38,643	23,669
2013	329,822	170,870	158,952	263,884	130,184	133,700	65,938	40,686	25,252
2014	330,872	170,978	159,894	260,897	127,733	133,164	69,975	43,245	26,730
2015	333,478	171,104	162,374	260,920	126,607	134,313	72,558	44,497	28,061
2016	332,768	169,589	163,179	258,553	124,160	134,393	74,215	45,429	28,786

주: 석/박사통합과정의 학생수는 박사과정에 포함됨.

표 Ⅲ-2-2 지역별 계열별 과정별 성별 학생수(2016)

(단위: 명)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332,768	169,589	163,179	258,553	124,160	134,393	56,322	32,296	24,026	17,893	13,133	4,760
수도권	소계	186,371	91,900	94,471	145,460	67,545	77,915	28,975	15,552	13,423	11,936	8,803	3,133
	인문	32,036	14,734	17,302	25,890	11,881	14,009	5,493	2,496	2,997	653	357	296
	사회	54,210	29,749	24,461	45,366	24,584	20,782	8,248	4,794	3,454	596	371	225
	교육	25,264	5,604	19,660	23,116	5,047	18,069	2,061	533	1,528	87	24	63
	공학	26,974	22,066	4,908	17,367	13,804	3,563	4,467	3,730	737	5,140	4,532	608
	자연	13,876	7,106	6,770	7,890	3,347	4,543	2,562	1,348	1,214	3,424	2,411	1,013
	의약	17,388	6,980	10,408	12,041	4,367	7,674	3,449	1,563	1,886	1,898	1,050	848
	예·체능	16,623	5,661	10,962	13,790	4,515	9,275	2,695	1,088	1,607	138	58	80
비수도권	소계	146,397	77,689	68,708	113,093	56,615	56,478	27,347	16,744	10,603	5,957	4,330	1,627
	인문	16,335	6,712	9,623	13,437	5,525	7,912	2,682	1,083	1,599	216	104	112
	사회	31,379	18,318	13,061	26,130	14,938	11,192	5,103	3,283	1,820	146	97	49
	교육	30,316	9,008	21,308	27,287	8,137	19,150	2,975	849	2,126	54	22	32
	공학	27,391	22,926	4,465	17,423	14,352	3,071	7,529	6,524	1,005	2,439	2,050	389
	자연	15,228	8,878	6,350	8,722	4,663	4,059	3,906	2,458	1,448	2,600	1,757	843
	의약	18,702	9,076	9,626	14,441	6,937	7,504	3,814	1,864	1,950	447	275	172
	예·체능	7,046	2,771	4,275	5,653	2,063	3,590	1,338	683	655	55	25	30

표 Ⅲ-2-3 유형별 과정별 성별 학생수(2016)

(단위: 명)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332,768	169,589	163,179	258,553	124,160	134,393	56,322	32,296	24,026	17,893	13,133	4,760
대학 부설 대학원	소계	322,991	164,546	158,445	251,553	120,666	130,887	54,287	31,210	23,077	17,151	12,670	4,481
	일반대학원	154,598	85,352	69,246	87,824	44,482	43,342	50,116	28,550	21,566	16,658	12,320	4,338
	전문대학원	37,465	20,317	17,148	32,801	17,307	15,494	4,171	2,660	1,511	493	350	143
	특수대학원	130,928	58,877	72,051	130,928	58,877	72,051	-	-	-	-	-	-
대학원 대학	소계	9,777	5,043	4,734	7,000	3,494	3,506	2,035	1,086	949	742	463	279
	일반대학원	284	94	190	146	37	109	138	57	81	-	-	-
	전문대학원	8,568	4,511	4,057	5,929	3,019	2,910	1,897	1,029	868	742	463	279
	특수대학원	925	438	487	925	438	487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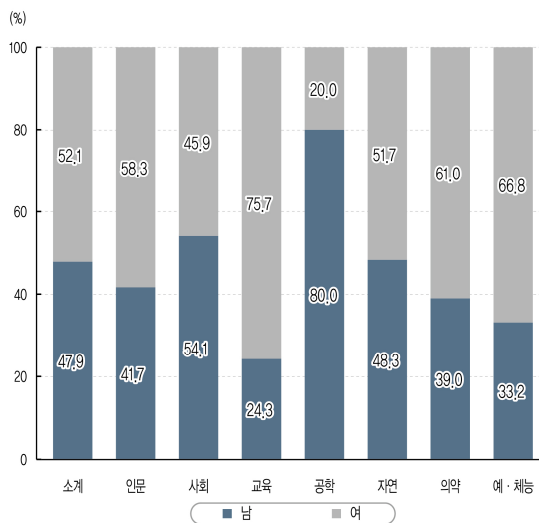
2) 입학

2016년 대학원 입학생 총 126,972명 중 석사과정 입학생은 100,227명으로 전체 입학생의 78.9%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26,745명은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 이하 동일) 입학생이었다. 입학생수를 계열별로 살펴보면, 석사과정의 경우 사회계열이 전체의 28.4%로 가장 입학생수가 많았고, 이어서 교육계열(16.9%), 공학계열(15.7%), 인문계열(14.6%), 의약계열(9.2%), 자연계열(7.7%), 예·체능계열(7.5%) 순으로 입학생수가 많았다. 한편 박사과정에서는 공학계열 입학생이 전체 입학생 중 25.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사회계열(20.1%), 자연계열(16.2%), 의약계열(13.6%), 인문계열(11.5%), 교육계열(7.5%) 순이었으며, 예·체능계열이 5.9%를 차지하여 가장 적었다(〈표 III-2-4〉 참조).

계열별로 석사과정 입학생의 성비를 살펴보면 [그림 III-2-5]와 같다. 전체 석사과정 학생의 계열별 성비와 비교하여 수준만 상이할 뿐 동일한 형태를 보였다. 교육계열에서 여학생의 비율이 75.7%로 가장 높았던 데 비해 공학계열의 여학생 비율은 20.0%로 가장 낮았다. 예·체능계열(66.8%), 의약계열(61.0%), 인문계열(58.3%), 자연계열(51.7%), 사회계열(45.9%) 순으로 여학생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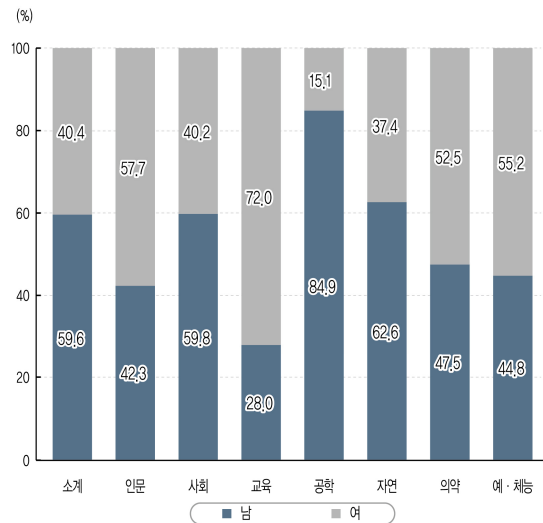
박사과정의 계열별 입학생 성비는 [그림 III-2-6]과 같다. 박사과정 역시 입학생 성비를 계열별로 살펴봤을 때 박사과정 전체 계열별 성비와 동일한 형태를 보였다. 교육계열에서 여학생 비율은 72.0%에 달하여 가장 높은 여학생 비중을 보인 반면 공학계열에서는 전체 입학생 중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15.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인문계열(57.7%), 예·체능계열(55.2%), 의약계열(52.5%), 사회계열(47.5%), 자연계열(44.8%) 순으로 여학생 비율이 높았다.

〈표 III-2-6〉를 통해 대학원 입학생의 연령을 살펴보면,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모두 2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석사과정 중 20대의 비중은 55.8%, 30대는 16.0%, 40대는 7.4%, 50대는 15.3%, 60대 이상은 5.5%였으며, 박사과정은 20대의 비중이 41.0%, 30대는 22.1%, 40대는 9.6%, 50대는 18.9%, 60대 이상이 8.4%였다.



■ 그림 III-2-5 ■ 계열별 성별 입학생 비율(석사과정, 2016)

주: 〈표 III-2-4〉 참조.



■ 그림 III-2-6 ■ 계열별 성별 입학생 비율(박사과정, 2016)

주: 박사과정에 석/박사통합과정이 포함됨, 〈표 III-2-4〉 참조.

표 Ⅲ-2-4 지역별 계열별 과정별 성별 입학생수(2016)

(단위: 명)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126,972	63,942	63,030	100,227	48,003	52,224	21,302	12,021	9,281	5,443	3,918	1,525
수도권	소계	71,901	35,016	36,885	57,067	26,383	30,684	11,071	5,906	5,165	3,763	2,727	1,036
	인문	11,675	5,031	6,644	9,643	4,141	5,502	1,847	795	1,052	185	95	90
	사회	21,716	11,713	10,003	18,348	9,764	8,584	3,214	1,848	1,366	154	101	53
	교육	9,080	1,905	7,175	8,250	1,696	6,554	810	203	607	20	6	14
	공학	11,238	9,045	2,193	7,819	6,171	1,648	1,786	1,475	311	1,633	1,399	234
	자연	5,840	2,928	2,912	3,621	1,552	2,069	1,058	574	484	1,161	802	359
	의약	6,110	2,276	3,834	4,161	1,357	2,804	1,370	611	759	579	308	271
	예·체능	6,242	2,118	4,124	5,225	1,702	3,523	986	400	586	31	16	15
비수도권	소계	55,071	28,926	26,145	43,160	21,620	21,540	10,231	6,115	4,116	1,680	1,191	489
	인문	6,068	2,383	3,685	5,018	1,968	3,050	998	390	608	52	25	27
	사회	12,087	6,886	5,201	10,077	5,618	4,459	1,958	1,240	718	52	28	24
	교육	9,887	2,772	7,115	8,709	2,419	6,290	1,165	346	819	13	7	6
	공학	11,210	9,240	1,970	7,909	6,412	1,497	2,610	2,257	353	691	571	120
	자연	6,172	3,497	2,675	4,057	2,158	1,899	1,413	883	530	702	456	246
	의약	6,770	3,056	3,714	5,079	2,246	2,833	1,535	712	823	156	98	58
	예·체능	2,877	1,092	1,785	2,311	799	1,512	552	287	265	14	6	8

표 Ⅲ-2-5 유형별 과정별 성별 입학생수(2016)

(단위: 명)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126,972	63,942	63,030	100,227	48,003	52,224	21,302	12,021	9,281	5,443	3,918	1,525
대학 부설 대학원	소계	122,957	61,934	61,023	97,149	46,485	50,664	20,577	11,651	8,926	5,231	3,798	1,433
	일반대학원	64,314	34,597	29,717	40,133	20,173	19,960	19,095	10,728	8,367	5,086	3,696	1,390
	전문대학원	13,320	7,187	6,133	11,693	6,162	5,531	1,482	923	559	145	102	43
	특수대학원	45,323	20,150	25,173	45,323	20,150	25,173	-	-	-	-	-	-
대학원 대학	소계	4,015	2,008	2,007	3,078	1,518	1,560	725	370	355	212	120	92
	일반대학원	116	37	79	70	17	53	46	20	26	-	-	-
	전문대학원	3,539	1,796	1,743	2,648	1,326	1,322	679	350	329	212	120	92
	특수대학원	360	175	185	360	175	185	-	-	-	-	-	-

표 Ⅲ-2-6 연도별 과정별 연령별 입학생수(2006~2016)

(단위: 명)

	석사과정								박사과정							
	전체	24세 이하	25~29세	30~34세	35~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체	24세 이하	25~29세	30~34세	35~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06	93,907	20,000	34,487	14,135	10,254	15,031	-	-	17,005	759	4,558	4,236	2,986	4,466	-	-
2007	95,977	20,395	35,858	13,950	10,668	15,106	-	-	17,979	840	5,078	4,196	3,114	4,751	-	-
2008	95,184	20,149	36,079	13,703	10,422	14,831	-	-	18,188	938	5,134	4,191	3,128	4,797	-	-
2009	101,159	21,656	40,010	14,158	10,374	11,727	2,926	308	18,929	1,037	5,452	4,082	3,201	3,760	1,298	99
2010	105,731	23,016	39,842	15,302	10,936	12,710	3,553	372	21,227	1,332	5,994	4,516	3,439	4,202	1,581	163
2011	105,353	24,033	37,590	15,695	10,775	13,172	3,733	355	21,519	1,689	6,082	4,451	3,316	4,193	1,630	158
2012	102,788	24,046	34,915	15,436	10,128	13,573	4,222	468	23,328	2,345	6,443	4,832	3,327	4,405	1,816	160
2013	101,940	23,857	33,476	15,791	9,860	14,021	4,467	468	24,920	3,008	6,950	4,815	3,401	4,659	1,909	178
2014	101,833	25,219	32,008	15,206	9,640	14,478	4,768	514	25,924	3,357	7,138	5,004	3,443	4,779	1,997	206
2015	103,047	26,342	31,803	14,478	9,599	14,966	5,256	603	26,154	3,441	7,424	4,753	3,332	4,801	2,132	271
2016	100,227	26,166	29,755	11,394	4,659	7,411	15,350	5,492	26,745	3,623	7,334	4,213	1,689	2,575	5,052	2,259

주: 1) 2008년의 경우, 호남대학교교육대학원 연령별 입학자가 전형별 입학자보다 1명 많게 조사되어 석·박사 입학자 수의 총계가 전형별 입학자 수 총계(113,371명)와 다름.

2) 2006~2008년의 40~49세 범주에는 '40세 이상'의 값을 제시함. 당시에는 50세 이상의 범주를 별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지 않고, 해당 대상을 40세 이상에 포함시켜 함께 집계함.

3) 석/박사통합과정의 학생수는 박사과정에 포함됨.

표 Ⅲ-2-7 계열별 과정별 연령별 입학생수(2016)

(단위: 명)

	석사과정								박사과정							
	전체	24세 이하	25~29세	30~34세	35~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체	24세 이하	25~29세	30~34세	35~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체	100,227	26,166	29,755	11,394	4,659	7,411	15,350	5,492	26,745	3,623	7,334	4,213	1,689	2,575	5,052	2,259
인문	14,661	3,110	3,948	1,767	682	1,100	2,795	1,259	3,082	54	600	543	190	324	875	496
사회	28,425	4,784	7,162	3,741	1,684	2,665	6,041	2,348	5,378	88	856	847	351	620	1,648	968
교육	16,959	3,695	4,983	2,231	841	1,534	2,881	794	2,008	24	342	390	165	304	575	208
공학	15,728	5,819	5,416	1,197	580	833	1,465	418	6,720	1,745	2,468	677	278	430	822	300
자연	7,678	3,823	2,387	463	147	236	411	211	4,334	1,388	1,619	490	152	212	350	123
의약	9,240	2,313	3,631	1,267	433	585	839	172	3,640	273	1,040	924	413	461	435	94
예·체능	7,536	2,622	2,228	728	292	458	918	290	1,583	51	409	342	140	224	347	70

주: 석/박사통합과정의 학생수는 박사과정에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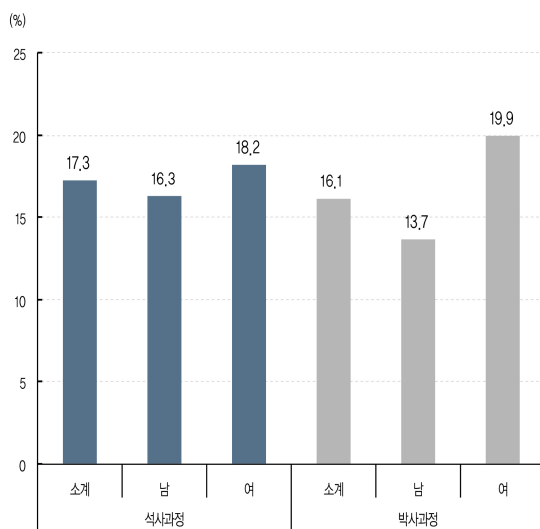
3) 학생 변동 상황⁶⁾

(1) 휴학

대학원의 휴학생수는 2006학년도에 전체 41,745명에서 2011학년도 46,336명으로 2009학년도를 제외하고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후 매년 증감을 반복하다 2015학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약 1.2배 상승한 56,754명으로 나타났다. 과정별로 살펴보면, 석사과정의 경우 전체 대학원의 휴학생수와 유사한 추세를 보였으며 2015학년도에는 전년 대비 약 1.2배 상승하여 45,062명으로 나타났다. 2015학년도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 이하 동일) 휴학생의 경우 역시 전년 대비 약 1.2배 상승하여 11,692명으로 나타났다(〈표 III-2-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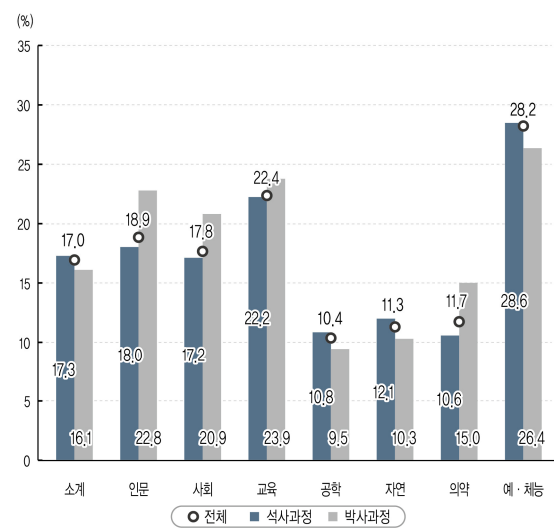
[그림 III-2-7]은 2015학년도 대학원 과정별 성별 휴학률을 나타낸 것이다. 석사과정 학생의 전체 휴학률은 17.3%이며, 남학생의 경우는 16.3%, 여학생은 18.2%로 여학생의 휴학률이 약 1.9%p 더 높았다. 박사과정 전체 휴학률은 16.1%로 석사과정보다 약 1.2%p 낮았으며, 그 중 남학생의 휴학률은 13.7%, 여학생은 19.9%로 나타났다. 석사과정과 마찬가지로 박사과정에서도 여학생의 휴학률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약 6.2%p로 석사과정보다 컸다.

2015학년도의 대학원생 계열별 휴학률을 살펴보면 [그림 III-2-8]과 같다. 전체 휴학률의 경우 예·체능계열의 휴학률이 28.2%로 가장 높았고, 교육계열이 22.4%, 인문계열이 18.9%로 뒤를 이어 높았던 반면 공학계열은 10.4%로 휴학률이 가장 낮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사회계열과 교육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에서는 여학생의 휴학률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9〉 참조).



■ 그림 III-2-7 ■ 과정별 성별 휴학률(2015, 학년도 기준)

주: 박사과정에 석/박사통합과정이 포함됨, 〈표 III-2-10〉 참조.



■ 그림 III-2-8 ■ 계열별 과정별 휴학률(2015, 학년도 기준)

주: 박사과정에 석/박사통합과정이 포함됨, 〈표 III-2-10〉 참조.

6) 대학원의 학생 변동 상황(휴학, 중도탈락)과 관련된 자료들의 기준일은 조사년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3월 1일부터 차년도(조사년도) 2월 28일임.

■ 표 Ⅲ-2-8 ■ 연도별 과정별 성별 휴학생수(2006~2015, 학년도 기준)

(단위: 명)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06	41,745	22,242	19,503	35,132	18,147	16,985	6,445	3,982	2,463	168	113	55
2007	42,108	22,137	19,971	34,906	17,772	17,134	7,000	4,246	2,754	202	119	83
2008	43,981	22,626	21,355	36,439	18,296	18,143	7,257	4,141	3,116	285	189	96
2009	42,297	21,309	20,988	34,787	17,067	17,720	7,151	4,009	3,142	359	233	126
2010	45,071	22,088	22,983	36,898	17,624	19,274	7,658	4,129	3,529	515	335	180
2011	46,336	22,557	23,779	37,656	17,765	19,891	8,090	4,412	3,678	590	380	210
2012	44,747	23,513	21,234	36,303	18,599	17,704	7,753	4,451	3,302	691	463	228
2013	45,761	22,249	23,512	36,786	17,382	19,404	8,117	4,329	3,788	858	538	320
2014	45,624	21,842	23,782	36,087	16,760	19,327	8,574	4,472	4,102	963	610	353
2015	56,754	26,694	30,060	45,062	20,598	24,464	10,295	5,141	5,154	1,397	955	442

주: 휴학생수는 전년도 3월 1일부터 차년도(조사년도) 2월 28일까지의 기간 자료임(이하 동일).

■ 표 Ⅲ-2-9 ■ 지역별 계열별 과정별 성별 휴학생수(2015, 학년도 기준)

(단위: 명)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56,754	26,694	30,060	45,062	20,598	24,464	10,295	5,141	5,154	1,397	955	442
수도권	소계	34,240	15,690	18,550	27,149	12,085	15,064	5,951	2,822	3,129	1,140	783	357
	인문	5,939	2,618	3,321	4,592	2,012	2,580	1,202	521	681	145	85	60
	사회	10,762	6,001	4,761	8,808	4,894	3,914	1,809	1,021	788	145	86	59
	교육	5,521	1,410	4,111	5,005	1,287	3,718	498	118	380	18	5	13
	공학	2,955	2,359	596	2,041	1,605	436	610	482	128	304	272	32
	자연	1,660	766	894	987	420	567	411	174	237	262	172	90
	의약	2,341	828	1,513	1,493	459	1,034	614	223	391	234	146	88
	예·체능	5,062	1,708	3,354	4,223	1,408	2,815	807	283	524	32	17	15
비수도권	소계	22,514	11,004	11,510	17,913	8,513	9,400	4,344	2,319	2,025	257	172	85
	인문	3,014	1,216	1,798	2,379	988	1,391	595	203	392	40	25	15
	사회	4,662	2,952	1,710	3,695	2,304	1,391	942	629	313	25	19	6
	교육	7,061	2,267	4,794	6,374	2,103	4,271	678	162	516	9	2	7
	공학	2,608	2,145	463	1,732	1,436	296	791	639	152	85	70	15
	자연	1,653	899	754	1,075	596	479	509	260	249	69	43	26
	의약	1,954	919	1,035	1,353	608	745	578	299	279	23	12	11
	예·체능	1,562	606	956	1,305	478	827	251	127	124	6	1	5

표 Ⅲ-2-10 지역별 계열별 과정별 성별 휴학률(2015, 학년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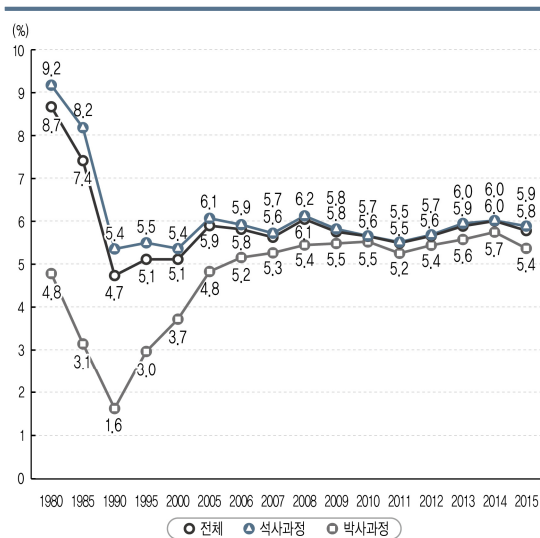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전체	17.0	15.6	18.5	17.3	16.3	18.2	18.4	15.9	21.8	8.5	7.9	9.9
	인문	18.9	18.1	19.5	18.0	17.4	18.5	22.5	20.7	23.9	26.3	28.9	23.3
	사회	17.8	18.1	17.3	17.2	17.7	16.6	20.7	20.2	21.6	23.8	23.8	23.9
	교육	22.4	24.4	21.6	22.2	24.9	21.3	24.0	20.5	25.4	18.6	13.2	21.7
	공학	10.4	10.1	11.7	10.8	10.7	11.3	11.9	11.1	16.8	5.5	5.6	5.2
	자연	11.3	10.4	12.4	12.1	12.3	11.9	13.9	11.1	17.9	6.0	5.7	6.6
	의약	11.7	10.6	12.6	10.6	9.1	11.6	16.0	14.6	17.2	11.7	13.1	9.9
	예·체능	28.2	27.3	28.7	28.6	28.3	28.7	26.6	23.6	29.0	21.7	25.7	19.0
수도권	소계	18.4	16.9	19.8	18.5	17.6	19.4	20.6	17.9	23.8	10.2	9.6	11.8
	인문	18.9	18.0	19.6	18.0	17.0	18.8	22.4	21.4	23.3	26.0	27.2	24.4
	사회	19.7	19.7	19.7	19.1	19.3	18.9	22.2	21.2	23.8	24.9	24.5	25.4
	교육	21.8	24.7	21.0	21.6	25.1	20.6	24.6	21.4	25.7	19.4	14.3	22.4
	공학	11.1	10.8	12.5	11.8	11.7	12.5	13.4	12.5	17.7	6.3	6.4	5.6
	자연	11.7	10.7	12.8	11.9	11.9	12.0	15.4	12.2	19.1	8.2	7.8	9.1
	의약	13.2	11.5	14.4	12.0	9.9	13.3	17.7	14.1	20.7	12.9	15.0	10.4
	예·체능	30.6	30.3	30.7	30.7	31.2	30.5	30.1	26.3	32.6	25.2	35.4	19.0
비수도권	소계	15.3	14.0	16.8	15.6	14.7	16.6	16.0	13.9	19.4	4.8	4.4	6.0
	인문	18.8	18.4	19.2	18.0	18.1	18.0	22.6	19.1	25.0	27.6	36.2	19.7
	사회	14.6	15.7	13.0	13.9	15.0	12.3	18.3	18.7	17.6	19.2	21.1	15.0
	교육	22.8	24.3	22.2	22.7	24.7	21.8	23.7	19.8	25.2	17.3	11.1	20.6
	공학	9.6	9.4	10.9	9.8	9.8	9.9	10.9	10.2	16.2	3.8	3.7	4.6
	자연	10.9	10.2	11.9	12.2	12.5	11.7	12.8	10.4	16.9	2.9	2.7	3.4
	의약	10.3	9.9	10.7	9.3	8.7	9.9	14.4	15.0	13.9	6.0	5.2	7.3
	예·체능	22.6	21.4	23.4	23.4	22.3	24.0	19.5	19.1	19.8	12.5	4.5	19.2

주: 휴학률=(휴학생수/재적 학생수) × 100

(2) 중도탈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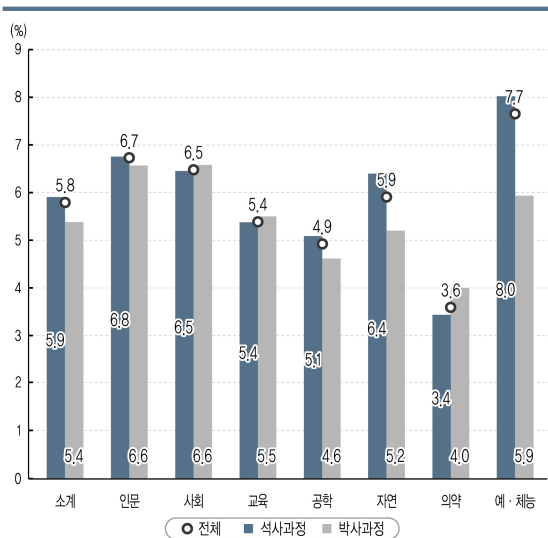
대학원 과정별 중도탈락률의 변화를 1980학년도부터 살펴보면 [그림 III-2-9]와 같다. 전체 대학원의 중도탈락률을 추이는 1980학년도에 8.7%에서 1985학년도에 7.4%로 낮아졌고, 1990학년도에는 4.7%로 하락했다. 이후 5% 내외 수준을 유지하며 2015학년도에는 5.8%로 나타났다. 석사과정의 중도탈락률을 살펴보면, 1980학년도에는 9.2%로 거의 10명 중 한 명 꼴로 석사과정을 그만두었으나, 1990년대로 접어들며 5%대로 낮아졌다. 이후 석사과정의 중도탈락률은 대체로 5~6%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5학년도에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5.9%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2015학년도의 석사과정 남학생의 중도탈락률은 6.3%, 여학생은 5.6%로 남학생의 중도탈락률이 더 높았다. 한편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 이하 동일)의 중도탈락률 변화는 석사과정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0학년도에 4.8%로 석사과정에 비해 절반수준이었던 박사과정의 중도탈락률은 1990학년도에 1.6%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6학년도부터 5%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5학년도의 박사과정 중도탈락률은 5.4%이며, 이는 석사과정에 비해 약 0.5%p 낮은 수준이다. 성별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5.4%의 중도탈락률을 보이며 남녀 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13〉 참조).

[그림 III-2-10]은 대학원 과정별로 전공 계열별 중도탈락률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석사과정의 경우 예·체능 계열의 중도탈락률이 8.0%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인문계열(6.8%), 사회계열(6.5%), 자연계열(6.4%)의 중도탈락률도 6%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의학계열의 중도탈락률은 3.4%로 가장 낮았다. 박사과정의 중도탈락률은 사회계열과 인문계열이 모두 6.6%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계열들은 6% 미만의 중도탈락률을 보였다. 의학계열(4.0%)은 석사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박사과정에서도 중도탈락률이 가장 낮은 계열로 나타났다.



■ 그림 III-2-9 ■ 연도별 과정별 중도탈락률(1980~2015, 학년도 기준)

주: 박사과정에 석/박사통합과정이 포함됨. 〈표 III-2-11〉 참조.



■ 그림 III-2-10 ■ 계열별 과정별 중도탈락률(2015, 학년도 기준)

주: 박사과정에 석/박사통합과정이 포함됨. 〈표 III-2-13〉 참조.

표 Ⅲ-2-11 연도별 과정별 성별 중도탈락자수(1980~2015, 학년도 기준)

(단위: 명)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1980	2,943	2,535	408	2,750	2,355	395	193	180	13	-	-	-
1985	5,055	4,064	991	4,725	3,790	935	330	274	56	-	-	-
1990	4,115	3,091	1,024	3,884	2,928	956	231	163	68	-	-	-
1995	5,743	4,193	1,550	5,188	3,767	1,421	555	426	129	-	-	-
2000	11,789	7,762	4,027	10,599	6,846	3,753	1,190	916	274	-	-	-
2005	16,627	9,650	6,977	14,529	8,171	6,358	2,098	1,479	619	-	-	-
2006	16,850	9,685	7,165	14,468	8,021	6,447	2,277	1,588	689	105	76	29
2007	16,722	9,562	7,160	14,215	7,887	6,328	2,367	1,599	768	140	76	64
2008	18,240	10,467	7,773	15,548	8,725	6,823	2,530	1,657	873	162	85	77
2009	17,663	9,674	7,989	14,902	7,944	6,958	2,553	1,600	953	208	130	78
2010	17,831	9,749	8,082	14,883	7,896	6,987	2,691	1,679	1,012	257	174	83
2011	18,105	9,682	8,423	14,976	7,726	7,250	2,803	1,755	1,048	326	201	125
2012	18,585	9,913	8,672	15,190	7,822	7,368	2,963	1,827	1,136	432	264	168
2013	19,460	10,343	9,117	15,779	8,101	7,678	3,148	1,908	1,240	533	334	199
2014	19,794	10,757	9,037	15,778	8,253	7,525	3,369	2,059	1,310	647	445	202
2015	19,315	10,343	8,972	15,410	7,952	7,458	3,272	1,965	1,307	633	426	207

주: 중도탈락자수는 전년도 3월 1일부터 차년도(조사년도) 2월 28일까지의 기간 자료임(이하 동일).

표 Ⅲ-2-12 지역별 계열별 과정별 성별 중도탈락자수(2015, 학년도 기준)

(단위: 명)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19,315	10,343	8,972	15,410	7,952	7,458	3,272	1,965	1,307	633	426	207
수도권	소계	10,964	5,686	5,278	8,720	4,360	4,360	1,786	1,020	766	458	306	152
	인문	2,245	1,089	1,156	1,845	883	962	363	192	171	37	14	23
	사회	3,541	2,117	1,424	2,977	1,766	1,211	528	324	204	36	27	9
	교육	1,292	373	919	1,163	334	829	127	38	89	2	1	1
	공학	1,200	956	244	787	612	175	277	230	47	136	114	22
	자연	802	375	427	468	193	275	188	96	92	146	86	60
	의약	695	302	393	450	175	275	150	67	83	95	60	35
	예·체능	1,189	474	715	1,030	397	633	153	73	80	6	4	2
비수도권	소계	8,351	4,657	3,694	6,690	3,592	3,098	1,486	945	541	175	120	55
	인문	945	402	543	774	318	456	162	79	83	9	5	4
	사회	2,071	1,328	743	1,715	1,083	632	348	240	108	8	5	3
	교육	1,739	635	1,104	1,591	574	1,017	144	60	84	4	1	3
	공학	1,443	1,202	241	985	820	165	390	322	68	68	60	8
	자연	926	527	399	627	347	280	233	141	92	66	39	27
	의약	619	278	341	477	215	262	124	53	71	18	10	8
	예·체능	608	285	323	521	235	286	85	50	35	2	-	2

표 Ⅲ-2-13 지역별 계열별 과정별 성별 중도탈락률(2015, 학년도 기준)

(단위: %)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전체	5.8	6.0	5.5	5.9	6.3	5.6	5.8	6.1	5.5	3.8	3.5	4.6
	인문	6.7	7.0	6.5	6.8	6.9	6.6	6.6	7.7	5.7	6.5	5.0	8.4
	사회	6.5	7.0	5.8	6.5	7.0	5.8	6.6	6.9	6.1	6.2	7.3	4.4
	교육	5.4	6.7	4.9	5.4	6.7	4.9	5.5	7.2	4.9	4.1	3.8	4.3
	공학	4.9	4.8	5.4	5.1	5.1	5.3	5.7	5.4	6.9	2.9	2.8	3.3
	자연	5.9	5.6	6.2	6.4	6.5	6.3	6.3	6.0	6.8	3.8	3.3	4.9
	의약	3.6	3.5	3.6	3.4	3.3	3.5	3.7	3.4	4.0	5.1	5.8	4.3
	예·체능	7.7	9.0	6.9	8.0	9.5	7.2	6.0	7.1	5.2	4.6	5.7	3.8
수도권	소계	5.9	6.1	5.6	6.0	6.3	5.6	6.2	6.5	5.8	4.1	3.7	5.0
	인문	7.1	7.5	6.8	7.2	7.5	7.0	6.8	7.9	5.9	6.6	4.5	9.3
	사회	6.5	6.9	5.9	6.5	7.0	5.9	6.5	6.7	6.2	6.2	7.7	3.9
	교육	5.1	6.5	4.7	5.0	6.5	4.6	6.3	6.9	6.0	2.2	2.9	1.7
	공학	4.5	4.4	5.1	4.6	4.5	5.0	6.1	6.0	6.5	2.8	2.7	3.8
	자연	5.7	5.2	6.1	5.7	5.5	5.8	7.0	6.7	7.4	4.6	3.9	6.0
	의약	3.9	4.2	3.7	3.6	3.8	3.5	4.3	4.2	4.4	5.2	6.2	4.1
	예·체능	7.2	8.4	6.5	7.5	8.8	6.9	5.7	6.8	5.0	4.7	8.3	2.5
비수도권	소계	5.7	5.9	5.4	5.8	6.2	5.5	5.5	5.7	5.2	3.3	3.1	3.9
	인문	5.9	6.1	5.8	5.9	5.8	5.9	6.2	7.4	5.3	6.2	7.2	5.3
	사회	6.5	7.1	5.7	6.4	7.1	5.6	6.8	7.1	6.1	6.2	5.6	7.5
	교육	5.6	6.8	5.1	5.7	6.8	5.2	5.0	7.3	4.1	7.7	5.6	8.8
	공학	5.3	5.3	5.7	5.6	5.6	5.5	5.4	5.1	7.2	3.1	3.2	2.4
	자연	6.1	6.0	6.3	7.1	7.3	6.9	5.9	5.7	6.3	2.8	2.5	3.5
	의약	3.3	3.0	3.5	3.3	3.1	3.5	3.1	2.7	3.5	4.7	4.3	5.3
	예·체능	8.8	10.1	7.9	9.3	11.0	8.3	6.6	7.5	5.6	4.2	-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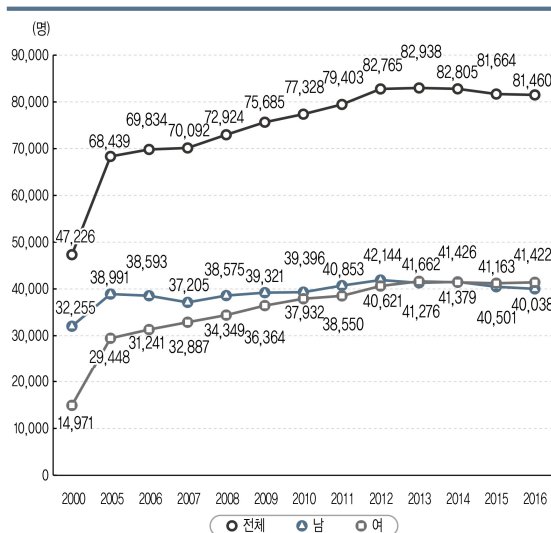
주: 중도탈락률=(중도탈락자수/재적 학생수) × 100

4) 졸업/취업⁷⁾

(1)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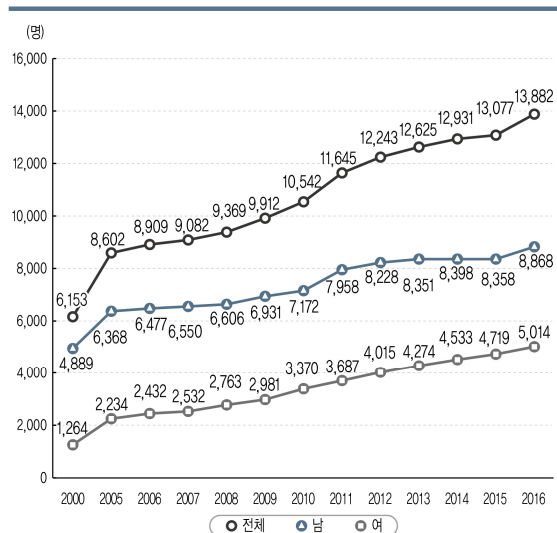
전체 대학원의 학위취득자수⁸⁾의 변화를 살펴보면, 1980년 5,552명에서 2016년 95,342명으로 약 17배 이상 증가하였고, 성별로는 남자 학위취득자가 1980년 4,561명에서 2016년 48,906명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여자 학위취득자의 경우는 1980년 991명에 불과하던 것이 2016년 46,436명으로 나타나 약 47배정도 증가하였다. 1980년 전체 학위취득자에서 여자의 비율은 17.8%였지만, 2016년에는 48.7%를 차지해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던 여자 학위취득자수가 남자와 대등해진 것을 알 수 있다(〈표 III-2-14〉 참조).

2000년 이후의 학위취득자수 변화를 과정별로 살펴보면, 먼저 석사학위 경우 [그림 III-2-11]과 같다. 2000년 47,226명이던 전체 석사학위 취득자수는 2016년 81,460명으로 약 1.7배 늘어났다. 2000년에는 전체 석사학위 취득자 중 31.7%에 불과했던 여자 학위취득자 비율이 2016년에는 50.8%를 차지하여 남자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사학위(석/박사통합과정 포함, 이하 동일)의 학위취득자수 변화는 [그림 III-2-12]와 같으며, 2000년(6,153명) 이후 박사학위 취득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6년에는 13,882명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2000년 전체 박사학위 취득자 중 20.5%를 차지하던 여자 학위취득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36.1%에 달하였다. 전체 박사학위 취득자 중 여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남자가 여자에 비해 약 1.8배정도 많았다.



■ 그림 III-2-11 ■ 연도별 성별 석사학위 취득자수(2000~2016)

주: 〈표 III-2-14〉 참조.



■ 그림 III-2-12 ■ 연도별 성별 박사학위 취득자수(2000~2016)

주: 박사과정에 석/박사통합과정이 포함됨, 〈표 III-2-14〉 참조.

7) 대학원의 졸업 관련 내용은 교육기본통계조사에 근거하되, 취업 관련 내용은 취업통계조사에 근거함.

8) 학위취득자수는 전년도 8월 졸업자 및 당해년도 2월 학위취득자를 대상으로 함.

표 Ⅲ-2-14 연도별 과정별 성별 학위취득자수(1980~2016)

(단위: 명)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1980	5,552	4,561	991	-	-	-	-	-	-	-	-	-
1985	18,037	14,808	3,229	-	-	-	-	-	-	-	-	-
1990	22,269	17,233	5,036	-	-	-	-	-	-	-	-	-
1995	31,505	23,033	8,472	-	-	-	-	-	-	-	-	-
2000	53,379	37,144	16,235	47,226	32,255	14,971	6,153	4,889	1,264	-	-	-
2005	77,041	45,359	31,682	68,439	38,991	29,448	8,602	6,368	2,234	-	-	-
2006	78,743	45,070	33,673	69,834	38,593	31,241	8,909	6,477	2,432	-	-	-
2007	79,174	43,755	35,419	70,092	37,205	32,887	8,995	6,476	2,519	87	74	13
2008	82,293	45,181	37,112	72,924	38,575	34,349	9,344	6,593	2,751	25	13	12
2009	85,597	46,252	39,345	75,685	39,321	36,364	9,713	6,785	2,928	199	146	53
2010	87,870	46,568	41,302	77,328	39,396	37,932	10,252	6,967	3,285	290	205	85
2011	91,048	48,811	42,237	79,403	40,853	38,550	11,040	7,496	3,544	605	462	143
2012	95,008	50,372	44,636	82,765	42,144	40,621	11,436	7,635	3,801	807	593	214
2013	95,563	49,627	45,936	82,938	41,276	41,662	11,751	7,712	4,039	874	639	235
2014	95,736	49,777	45,959	82,805	41,379	41,426	11,526	7,343	4,183	1,405	1,055	350
2015	94,741	48,859	45,882	81,664	40,501	41,163	11,525	7,199	4,326	1,552	1,159	393
2016	95,342	48,906	46,436	81,460	40,038	41,422	12,023	7,497	4,526	1,859	1,371	488

주: 대학원 학위취득자는 전년도 8월, 해당년도 2월 학위취득자를 대상으로 함.

표 Ⅲ-2-15 지역별 계열별 과정별 성별 학위취득자수(2016)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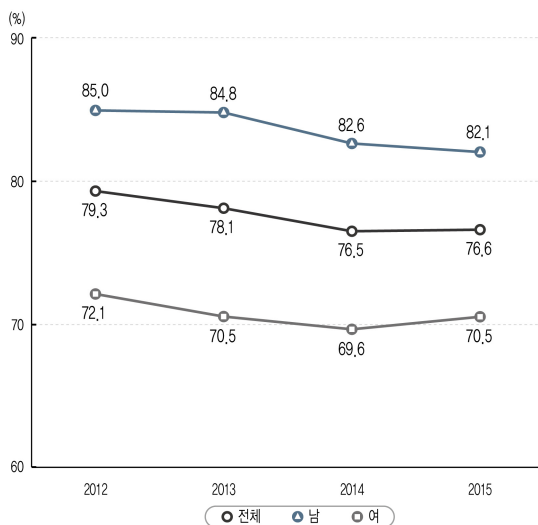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95,342	48,906	46,436	81,460	40,038	41,422	12,023	7,497	4,526	1,859	1,371	488
수도권	소계	54,417	26,935	27,482	46,617	22,124	24,493	6,487	3,858	2,629	1,313	953	360
	인문	8,227	3,675	4,552	7,345	3,256	4,089	853	404	449	29	15	14
	사회	16,708	9,331	7,377	15,004	8,274	6,730	1,632	1,010	622	72	47	25
	교육	6,929	1,384	5,545	6,553	1,285	5,268	363	96	267	13	3	10
	공학	8,616	6,997	1,619	6,814	5,393	1,421	1,276	1,138	138	526	466	60
	자연	4,562	2,205	2,357	3,296	1,400	1,896	831	499	332	435	306	129
	의약	5,049	1,972	3,077	3,842	1,376	2,466	977	481	496	230	115	115
	예·체능	4,326	1,371	2,955	3,763	1,140	2,623	555	230	325	8	1	7
비수도권	소계	40,925	21,971	18,954	34,843	17,914	16,929	5,536	3,639	1,897	546	418	128
	인문	4,074	1,651	2,423	3,712	1,495	2,217	356	155	201	6	1	5
	사회	9,366	5,302	4,064	8,366	4,624	3,742	979	668	311	21	10	11
	교육	7,631	2,130	5,501	7,180	1,994	5,186	450	136	314	1	-	1
	공학	8,492	7,128	1,364	6,713	5,532	1,181	1,521	1,366	155	258	230	28
	자연	4,384	2,512	1,872	3,253	1,761	1,492	900	590	310	231	161	70
	의약	5,298	2,542	2,756	4,212	1,963	2,249	1,058	564	494	28	15	13
	예·체능	1,680	706	974	1,407	545	862	272	160	112	1	1	-

(2) 취업⁹⁾

대학원 취업률 역시 전문대 및 대학 취업률과 같은 기준으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및 국세DB와 연계해 조사된 취업통계DB에서 산정되며, 4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되는 교육기본통계와는 달리 전년도 12월 31일을 조사 기준으로 한다. 조사 대상이 되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는 전년도 2월 및 전전년도 8월 졸업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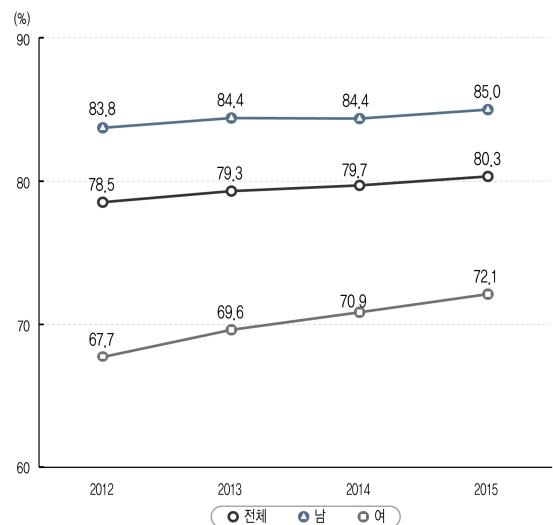
[그림 Ⅲ-2-13]에서 2012년 이후의 석사 취업률 변화를 살펴보면, 2012년 79.3%에서 2015년 76.6%로 약 2.7%p 감소했다.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자 석사 취업률은 2012년 85.0%에서 매년 감소하여 2015년에는 약 2.9%p 하락한 82.1%로 나타났고, 여자 석사 취업률은 2012년 72.1%에서 2015년 70.5%로 약 1.6%p 감소했다. 한편 석사 취업률의 남녀 격차는 2013년 약 14.3%p에서 2015년 약 11.6%p로 감소했지만, 남자 석사 취업률이 여자에 비해 매년 약 10%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림 Ⅲ-2-14]를 통해 박사 취업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78.5%에서 2015년 80.3%로 약 1.8%p 증가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박사 취업률은 2012년 83.8%에서 조금씩 증가하여 2015년 85.0%로 약 1.2%p 증가했고, 여자 박사 취업률은 2012년 67.7%에서 매년 증가해 2015년에는 72.1%로 약 4.4%p 증가했다. 여자 박사 취업률의 증가로 박사 취업률의 남녀 격차는 2012년 약 16.1%p에서 2015년 약 12.9%p로 감소했다. 2012년에는 박사 취업률은 석사 취업률보다 낮았으나, 매년 취업률 경신함으로써 2015년 현재 박사 취업률이 석사 취업률보다 약 3.7%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남녀 취업률 격차 역시 박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Ⅲ-2-13 연도별 성별 석사 취업률(2012~2015)

주: <표 Ⅲ-2-1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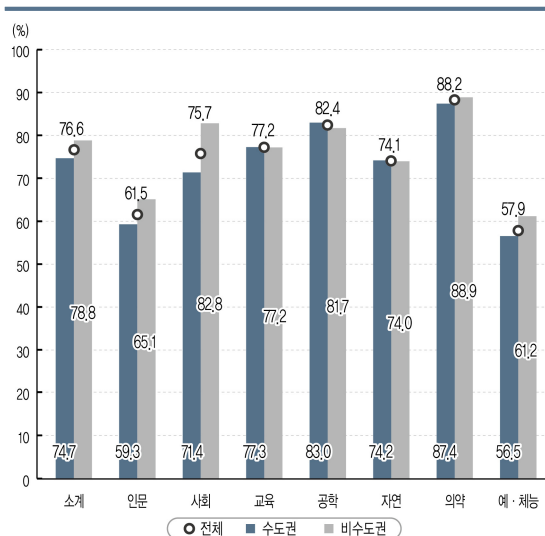
■ 그림 Ⅲ-2-14 연도별 성별 박사 취업률(2012~2015)

주: <표 Ⅲ-2-16> 참조.

9) 대학원 졸업자는 모두 일반대학원 졸업자로 범위를 한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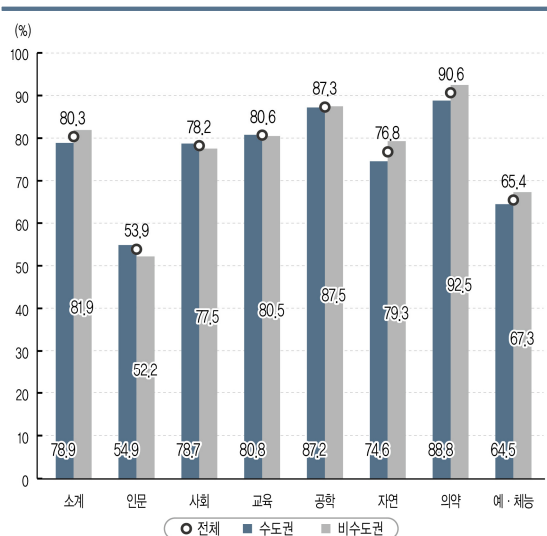
[그림 III-2-15]에서 지역별 석사 취업률을 비교해 보면, 수도권 74.7%, 비수도권 78.8%로 비수도권의 석사 취업률이 약 4.1%p 높았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의약계열(87.4%)과 공학계열(83.0%)의 취업률이 80%를 넘었고, 교육계열(77.3%), 자연계열(74.2%), 사회계열(71.4%)은 70%를 넘었지만, 인문계열(59.3%)과 예·체능계열(56.5%)은 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은 의약계열(88.9%)과 사회계열(82.8%), 공학계열(81.7%)의 취업률이 80%를 넘었으며, 교육계열(77.2%)과 자연계열(74.0%)은 70%를, 인문계열(65.1%)과 예·체능계열(61.2%)은 60%를 넘어 사회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의 지역별 취업률 순위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의약계열의 취업률이 가장 높았고, 예·체능이 가장 낮았으며, 사회계열의 지역별 취업률 격차가 11.4%p로 가장 많이 났다.

한편 [그림 III-2-16]을 통해 지역별 박사 취업률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78.9%, 비수도권은 81.9%로 석사와 마찬가지로 비수도권의 취업률이 더 높았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의약계열(88.8%), 공학계열(87.2%), 교육계열(80.5%)이 80% 이상의 취업률을 보였고, 사회계열(78.7%), 자연계열(74.6%), 예·체능계열(64.5%)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문계열이 54.9%로 취업률이 가장 낮았다. 반면 비수도권은 의약계열의 경우 92.5%의 취업률을 보였고, 공학계열(87.5%), 교육계열(80.6%)이 취업률 80%를 넘었고, 자연계열(79.3%), 사회계열(76.8%), 예·체능계열(67.3%) 순이었으며,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인문계열의 취업률이 52.2%로 가장 낮았다. 예·체능계열의 취업률이 가장 낮았던 석사 취업률과 달리 박사 취업률은 인문계열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의약계열은 학위(석사/박사)나 지역(수도권/비수도권)과 무관하게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 그림 III-2-15 ■ 지역별 계열별 석사 취업률(2015)

주: <표 III-2-17> 참조.



■ 그림 III-2-16 ■ 지역별 계열별 박사 취업률(2015)

주: <표 III-2-17> 참조.

표 Ⅲ-2-16 연도별 과정별 성별 취업률(일반대학원, 2011~2015)

(단위: %)

	전체			석사			박사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11	79.2	86.1	68.7	-	-	-	-	-	-
2012	79.1	84.6	71.1	79.3	85.0	72.1	78.5	83.8	67.7
2013	78.5	84.7	70.3	78.1	84.8	70.5	79.3	84.4	69.6
2014	77.5	83.3	69.9	76.5	82.6	69.6	79.7	84.4	70.9
2015	77.8	83.1	70.9	76.6	82.1	70.5	80.3	85.0	72.1

주: 1) 취업자 정의: 조사기준일 당시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업활동종사자, 1인 창(사)업자 및 프리랜서
 - 교내취업자(2015년 기준): 조사 기준일 당시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학교법인 및 관련 기관(산학협력단, 학교기업 등)에 1년 이상 계약한 자로서, 최저임금(2015년: 1,166,220원, 2016년: 1,260,270원) 이상의 월 급여를 받는 자.
 - 해외취업자: 조사 기준일 당시에 해외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며, 91일 이상 고용 계약한 자.
 - 농림어업종사자: 조사 기준일 당시에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
 - 개인창업활동종사자: 조사 기준일 당시에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개인작품 창작활동을 하는 자.
 - 1인 창(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2015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합계가 605만원 이상인 자.
 - 프리랜서: 2015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액이 3,498,660원 이상인 자.
 2) 취업률을 구하는 방식은 연도에 따라 조금씩 변하여 왔음.

연도	취업률	취업자	취업대상자
2011~2013	×100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영농업종사자, 개인창업활동종사자, 1인 창(사)업자 및 프리랜서
2014~2015		취업대상자	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제외인정자+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업활동종사자, 1인 창(사)업자 및 프리랜서

- 취업불가능자: 수형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를 포함함.
 - 제외인정자: 의료급여수급자,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학과 졸업자, 여자군인 중 임관 전 훈련생,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을 포함함.
 - 외국인유학생: 외국 국적을 가진 유학생(외국국적 재외동포 포함) 및 순수외국인을 포함함.

3) 조사기준일: 해당년도 12월 31일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DB(이하 동일).

표 Ⅲ-2-17 지역별 계열별 과정별 성별 취업률(일반대학원, 2015)

(단위: %)

		전체			석사			박사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전체	77.8	83.1	70.9	76.6	82.1	70.5	80.3	85.0	72.1
	인문	59.5	64.4	57.5	61.5	64.5	60.5	53.9	64.2	47.8
	사회	76.7	82.5	69.4	75.7	82.2	69.8	78.2	82.9	68.3
	교육	78.4	82.1	77.2	77.2	79.5	76.6	80.6	85.5	78.6
	공학	83.7	85.1	77.0	82.4	83.7	76.7	87.3	88.5	78.4
	자연	74.9	78.2	71.4	74.1	77.2	71.3	76.8	79.9	71.7
	의약	89.1	92.8	85.6	88.2	92.2	84.7	90.6	93.8	87.2
	예·체능	59.8	73.0	53.6	57.9	71.3	53.1	65.4	75.9	55.9
수도권	소계	76.0	82.0	69.5	74.7	81.1	68.9	78.9	83.6	71.4
	인문	58.1	61.8	56.8	59.3	61.6	58.6	54.9	62.1	50.2
	사회	74.1	79.9	68.3	71.4	76.5	67.9	78.7	83.7	69.5
	교육	78.6	80.8	77.9	77.3	80.8	76.4	80.8	80.9	80.8
	공학	84.1	85.6	77.5	83.0	84.6	77.1	87.2	88.1	79.4
	자연	74.3	77.1	71.9	74.2	76.8	72.4	74.6	77.5	70.3
	의약	87.9	91.7	84.8	87.4	91.1	84.6	88.8	92.4	85.2
	예·체능	58.5	69.5	54.3	56.5	68.1	53.2	64.5	71.9	59.0
비수도권	소계	79.8	84.2	72.9	78.8	83.0	72.8	81.9	86.5	73.0
	인문	61.8	68.1	58.9	65.1	67.8	63.9	52.2	68.7	44.2
	사회	80.6	85.7	71.8	82.8	88.9	74.3	77.5	81.9	66.1
	교육	78.3	83.0	76.5	77.2	78.7	76.7	80.5	88.7	76.2
	공학	83.2	84.6	76.4	81.7	82.9	76.1	87.5	88.9	77.6
	자연	75.5	79.1	70.7	74.0	77.5	69.9	79.3	82.3	73.4
	의약	90.1	93.7	86.3	88.9	92.9	84.8	92.5	95.1	89.4
	예·체능	62.8	78.3	51.8	61.2	76.1	52.9	67.3	82.1	4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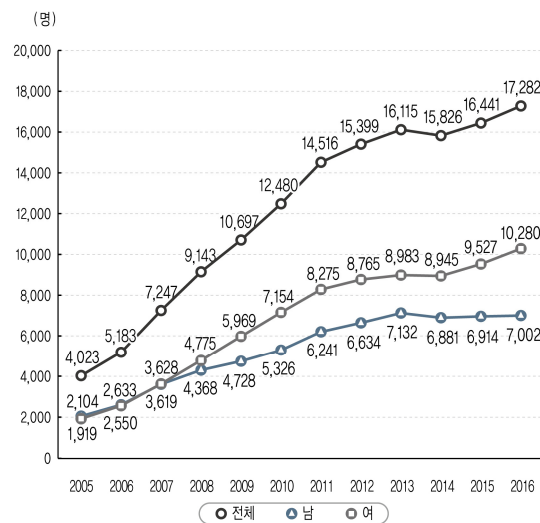
주: <표 Ⅲ-2-16>의 주 참조.

5)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 현황

국내 대학원 전체 학위과정의 외국인 유학생수는 2005년 이래로 꾸준히 늘어나 2016년 현재 24,160명으로 2005년 5,742명에 비하여 약 4.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사과정 국내 외국인 유학생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III-2-17]과 같다. 석사과정 외국인 유학생수는 2014년을 제외하고 대체로 증가하여 2016년에 17,28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 이하 동일)을 아우른 대학원 전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의 71.5% 수준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2007년까지 상대적으로 더 많았던 남자 유학생을 2008년부터 여자 유학생이 앞지르기 시작하여 2016년에는 남학생 7,002명, 여학생 10,280명으로 여학생이 약 1.5배 정도 많았다. [그림 III-2-18]을 통해 박사과정 국내 외국인 유학생수를 살펴보면, 2005년 이래로 전체 유학생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6,878명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석사과정과는 다르게 남자 유학생이 여자 유학생에 비해 전 기간 더 많았으며, 2016년에는 남학생 4,042명, 여학생 2,836명으로 남학생이 약 1.4배 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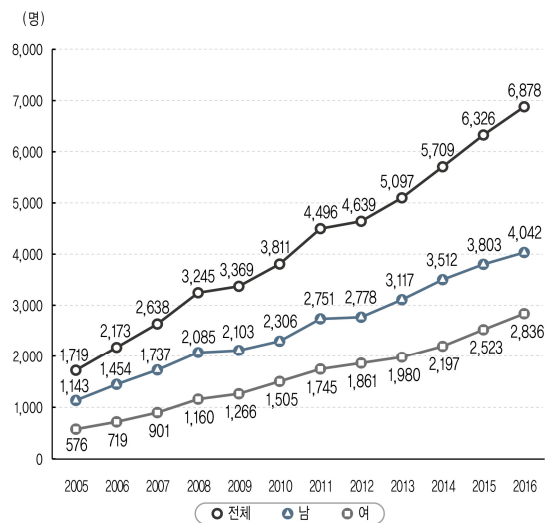
2016년의 외국인 유학생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13,293명, 비수도권 10,867명으로 수도권의 유학생수가 비수도권보다 약 1.2배 더 많았다. 한편 수도권의 경우는 여자 유학생이 8,005명으로 남자 유학생 5,288명보다 약 1.5배 더 많았던 데에 반해 비수도권은 남자 유학생이 5,756명으로 여자 유학생 5,111명보다 약 1.1배 정도 더 많았다(〈표 III-2-19〉 참조). 대학원 과정별로 살펴보면, 먼저 석사과정의 계열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수는 [그림 III-2-19]와 같다. 수도권의 경우 사회계열의 유학생수가 4,432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인문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순이었다. 비수도권에서도 사회계열의 유학생이 3,33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학계열, 인문계열, 자연계열 순이었다. [그림 III-2-20]은 박사과정의 외국인 유학생수를 계열별로 나타낸 것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공학계열에서 유학생수가 가장 많았고, 교육계열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21]을 통해 국내 대학원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연수생 현황을 살펴보면, 석사 및 박사과정의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연수생 모두 아시아 국가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82.6%, 87.7%, 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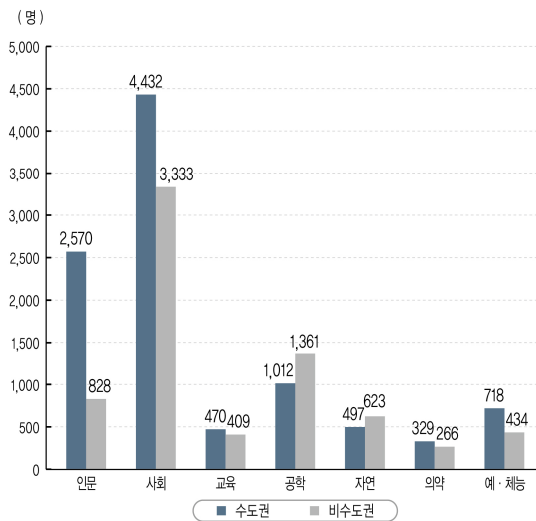
■ 그림 III-2-17 연도별 성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수(석사과정, 2005~2016)

주: 〈표 III-2-1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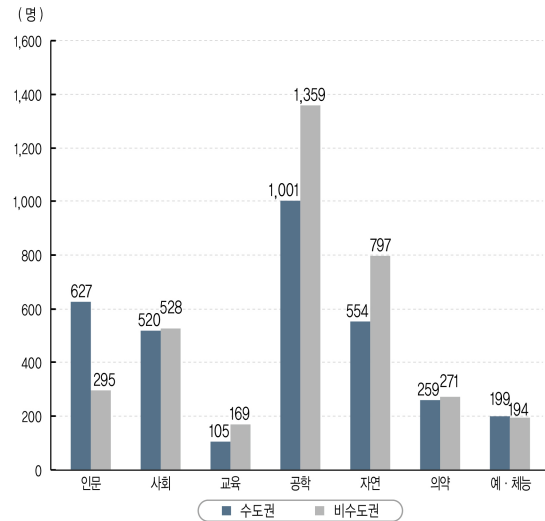
■ 그림 III-2-18 연도별 성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수(박사과정, 2005~2016)

주: 박사과정에 석/박사통합과정이 포함됨. 〈표 III-2-18〉 참조.



■ 그림 III-2-19 ■ 지역별 계열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수(석사과정, 2016)

주: <표 III-2-1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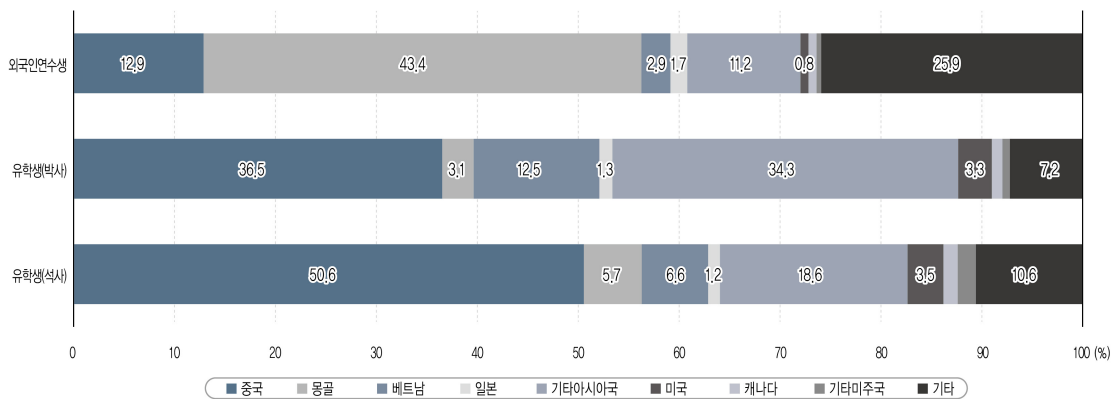


■ 그림 III-2-20 ■ 지역별 계열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수(박사과정, 2016)

주: <표 III-2-19> 참조.

로 가장 높았다. 아시아 국가 내에서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중국 출신이, 외국인 연수생은 몽골 출신 학생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국내 대학원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출신을 성별로 살펴보면, 아시아 국가에서는 남학생 8,793명, 여학생 11,518명으로 여학생 비중이 더 높았던 데에 반해 미주지역에서는 남학생 796명, 여학생 726명으로 남학생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20> 참조).

연도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추이를 보면, 2007년 1,598명에서 2016년 현재는 7,480명으로 약 4.7배 증가하였다. 2016년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중 본국으로 귀국한 학생들은 2,696명(36.0%), 국내에 취업한 학생은 932명(12.5%), 국내에 진학한 학생은 417명(5.6%)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3,435명은 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표 III-2-21> 참조).



■ 그림 III-2-21 ■ 출신국가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연수생 현황(2016)

주: <표 III-2-20, 23> 참조.

표 III-2-18 연도별 과정별 성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2005~2016)

(단위: 명)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05	5,742	3,247	2,495	4,023	2,104	1,919	1,719	1,143	576	-	-	-
2006	7,356	4,087	3,269	5,183	2,633	2,550	2,173	1,454	719	-	-	-
2007	9,885	5,365	4,520	7,247	3,628	3,619	2,638	1,737	901	-	-	-
2008	12,388	6,453	5,935	9,143	4,368	4,775	3,245	2,085	1,160	-	-	-
2009	14,066	6,831	7,235	10,697	4,728	5,969	2,919	1,816	1,103	450	287	163
2010	16,291	7,632	8,659	12,480	5,326	7,154	3,221	1,934	1,287	590	372	218
2011	19,012	8,992	10,020	14,516	6,241	8,275	3,767	2,274	1,493	729	477	252
2012	20,038	9,412	10,626	15,399	6,634	8,765	3,776	2,215	1,561	863	563	300
2013	21,212	10,249	10,963	16,115	7,132	8,983	4,089	2,445	1,644	1,008	672	336
2014	21,535	10,393	11,142	15,826	6,881	8,945	4,486	2,678	1,808	1,223	834	389
2015	22,767	10,717	12,050	16,441	6,914	9,527	5,039	2,930	2,109	1,287	873	414
2016	24,160	11,044	13,116	17,282	7,002	10,280	5,430	3,101	2,329	1,448	941	507

표 III-2-19 지역별 계열별 과정별 성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2016)

(단위: 명)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24,160	11,044	13,116	17,282	7,002	10,280	5,430	3,101	2,329	1,448	941	507
수도권	소계	13,293	5,288	8,005	10,028	3,506	6,522	2,415	1,244	1,171	850	538	312
	인문	3,197	985	2,212	2,570	764	1,806	596	208	388	31	13	18
	사회	4,952	1,692	3,260	4,432	1,468	2,964	473	207	266	47	17	30
	교육	575	124	451	470	102	368	97	20	77	8	2	6
	공학	2,013	1,485	528	1,012	704	308	580	447	133	421	334	87
	자연	1,051	467	584	497	155	342	331	187	144	223	125	98
	의약	588	255	333	329	131	198	156	80	76	103	44	59
	예·체능	917	280	637	718	182	536	182	95	87	17	3	14
비수도권	소계	10,867	5,756	5,111	7,254	3,496	3,758	3,015	1,857	1,158	598	403	195
	인문	1,123	380	743	828	284	544	268	85	183	27	11	16
	사회	3,861	1,742	2,119	3,333	1,497	1,836	503	233	270	25	12	13
	교육	578	180	398	409	113	296	166	65	101	3	2	1
	공학	2,720	2,094	626	1,361	995	366	1,055	857	198	304	242	62
	자연	1,420	813	607	623	306	317	621	402	219	176	105	71
	의약	537	279	258	266	132	134	212	116	96	59	31	28
	예·체능	628	268	360	434	169	265	190	99	91	4	-	4

표 III-2-20 출신국가별 과정별 성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2016)

(단위: 명)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24,160	11,044	13,116	17,282	7,002	10,280	5,430	3,101	2,329	1,448	941	507
아시아	소계	20,311	8,793	11,518	14,282	5,320	8,962	4,730	2,627	2,103	1,299	846	453
	중국	11,250	3,879	7,371	8,738	2,782	5,956	2,120	895	1,225	392	202	190
	몽골	1,202	310	892	989	258	731	179	41	138	34	11	23
	베트남	1,997	1,097	900	1,139	521	618	520	351	169	338	225	113
	일본	289	87	202	201	54	147	75	29	46	13	4	9
	기타	5,573	3,420	2,153	3,215	1,705	1,510	1,836	1,311	525	522	404	118
미주	소계	1,522	796	726	1,169	588	581	258	155	103	95	53	42
	미국	843	465	378	613	333	280	174	98	76	56	34	22
	캐나다	319	164	155	247	119	128	54	34	20	18	11	7
	기타	360	167	193	309	136	173	30	23	7	21	8	13
기타		2,327	1,455	872	1,831	1,094	737	442	319	123	54	42	12

주: 출신국가별 외국인 학위과정생에는 해당 국가의 재외동포가 포함됨.

표 Ⅲ-2-21 연도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현황(2007~2016)

(단위: 명)

	전체	본국귀국	국내취업	국내진학	미상
2007	1,598	1,097	225	276	-
2008	1,959	1,288	290	381	-
2009	2,252	1,655	290	307	-
2010	3,533	1,720	503	395	915
2011	4,913	2,307	684	473	1,449
2012	6,197	2,865	543	471	2,318
2013	7,618	2,943	640	455	3,580
2014	8,258	3,101	673	516	3,968
2015	7,170	2,403	498	412	3,857
2016	7,480	2,696	932	417	3,435

주: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는 대학원과정은 구분되지 않음.

표 Ⅲ-2-22 연도별 성별 국내 외국인 연수생수(2012~2016)

(단위: 명)

	전체			어학연수			기타연수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12	557	325	232	50	31	19	507	294	213
2013	1,099	576	523	397	182	215	702	394	308
2014	971	490	481	192	85	107	779	405	374
2015	1,290	645	645	447	204	243	843	441	402
2016	1,755	758	997	994	411	583	761	347	414

주: 대학원에서의 국내 외국인 연수생 현황은 2012년부터 조사되기 시작함.

표 Ⅲ-2-23 연도별 출신국가별 국내 외국인 연수생수(2012~2016)

(단위: 명)

	전체	아시아					미주			기타
		중국	몽골	베트남	일본	기타	미국	캐나다	기타	
2012	557	157	13	31	11	130	14	1	11	189
2013	1,099	266	188	19	89	193	20	16	2	306
2014	971	252	65	10	72	181	21	8	10	352
2015	1,290	225	205	62	57	277	30	9	14	411
2016	1,755	226	761	51	29	197	14	14	8	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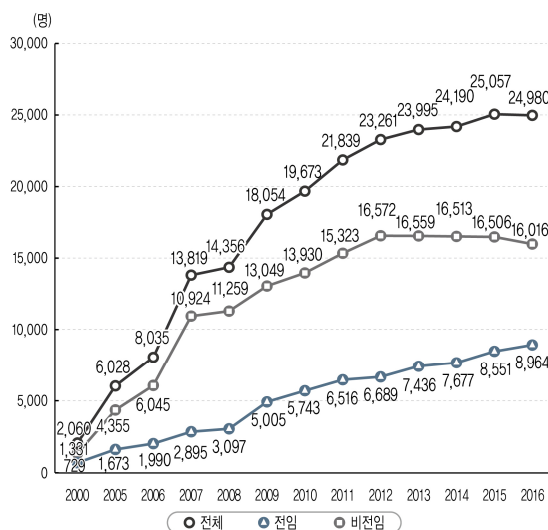
- 주: 1) 외국인 연수생은 어학연수와 기타연수 학생수를 합산한 것임.
 2) 출신국가별 외국인 연수생에는 해당 국가의 재외동포가 포함됨.
 3) '기타'는 아시아와 미주 지역에 속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를 나타냄.
 4) 아시아의 '기타'는 중국, 몽골, 베트남,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아시아 지역 국가를 나타냄.
 5) 미주의 '기타'는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나머지 미주 지역 국가를 나타냄.
 6) 대학원에서의 국내 외국인 연수생 현황은 2012년부터 조사되기 시작함.

03 교원

1) 교원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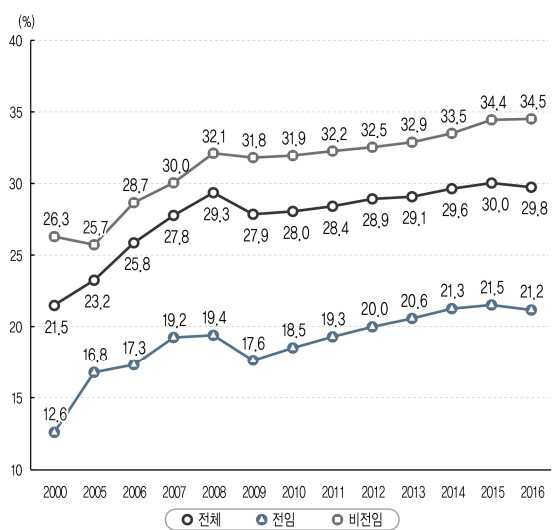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대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교원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III-3-1]과 같다. 2000년 2,060명이었던 전체 교원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5년 25,057명으로 1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2016년에는 전년 대비 77명 감소한 24,980명으로 나타났다. 그 중 전임교원은 2000년 729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8,964명으로 12배 이상 증가하였고, 비전임교원의 경우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점차 증가하다가 이후 201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6년에는 전년 대비 490명이 감소한 16,016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교원에서 전임교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5.4%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6년 35.9%로 나타났다.

[그림 III-3-2]는 대학원의 전임 및 비전임교원에서 여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2000년부터 나타낸 것이며, 대학원의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 모두 남교원이 여교원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2000년 21.5%이던 전체 교원 중 여교원의 비율은 2008년 29.3%까지 상승하였으나, 2009년에 27.9%로 전년 대비 약 1.4%p 감소하였다. 이후 비교적 완만하게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2016년 29.8%로 2015년에 비해 약 0.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중 여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의 경우 2000년부터 2015년까지 2009년을 제외한 나머지 해에서는 모두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2016년에는 21.2%로 전년 대비 약 0.3%p 감소하였다. 비전임교원 중 여교원의 비율은 2000년 26.3%에서 2005년 25.7%로 약 0.6%p 감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34.5%로 나타났다.



■ 그림 III-3-1 ■ 연도별 전임 및 비전임 교원수(2000~2016)

주: <표 III-3-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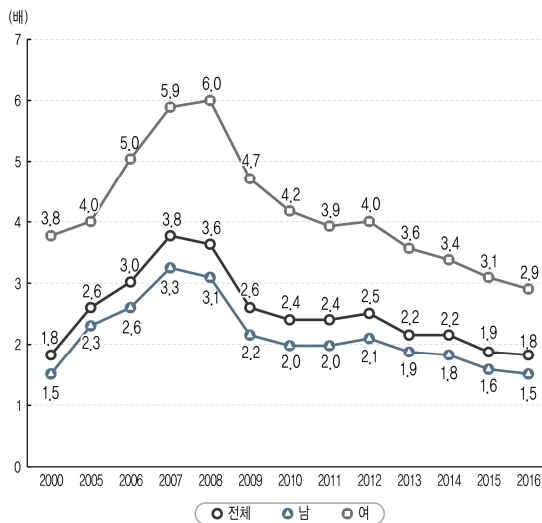
■ 그림 III-3-2 ■ 연도별 전임 및 비전임 여교원 비율(2000~2016)

주: <표 III-3-1> 참조.

설립별로 교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전임교원의 경우 국·공립 교원 3,138명 중 남교원이 2,631명, 여교원이 507명이었고, 사립교원은 남교원 4,429명, 여교원 1,397명으로 총 5,826명이었다. 국·공립 대학원의 경우 여교원의 비율이 16.2%였고, 사립 대학원의 여교원 비율은 24.0%로 나타나 사립 대학원의 여교원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임교원의 경우 국·공립교원은 2,938명으로 그 중 남교원이 2,188명, 여교원이 750명이었고, 사립교원 13,078명 중에서는 남교원이 8,300명, 여교원이 4,778명이었다. 전임교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전임교원에서도 사립 대학원에서의 여교원 비율(36.5%)이 국·공립 대학원(25.5%)보다 더 높았다 (〈표 III-3-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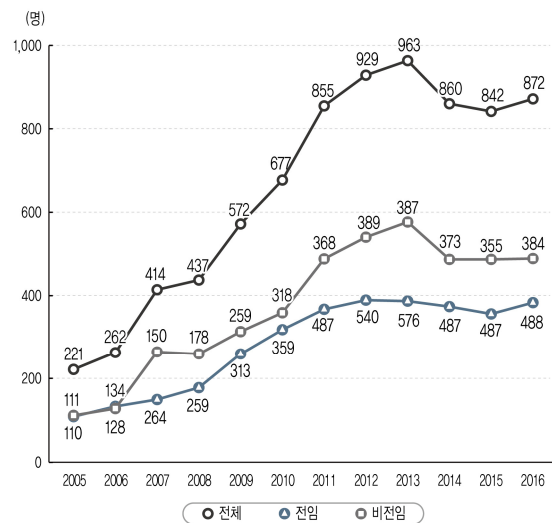
연도별 성별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 비를 살펴보면 [그림 III-3-3]과 같다. 먼저 남교원의 경우 2000년 비전임교원이 전임교원보다 약 1.5배 정도 더 많았으나, 2007년 그 비가 약 3.3배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다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6년 비전임 교원수는 전임교원보다 약 1.5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교원의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은 2000년 약 3.8배에서 2008년 약 6.0배로 최고점을 기록하며, 여자 비전임교원이 여자 전임교원에 비해 약 6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약 2.9배로 나타났다. 한편 2000년 이후 모든 기간에서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 수치는 약 1.0배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남자교원에 비해 여자교원의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의 수치가 약 2배 정도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I-3-4]는 연도별 외국인 교원수를 나타내고 있다. 2016년 전체 외국인 교원은 872명으로 나타나 2005년 221명에 비해 약 4배 증가하였다. 2005년 110명으로 전체 외국인 교원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하던 전임 외국인 교원수는 2016년 384명으로 약 3.5배 증가하였으며, 전체 교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0%로 감소하였다. 비전임 외국인 교원의 경우 2005년 111명에서 2016년 488명으로 약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III-3-3 ■ 연도별 성별 전임교원대비 비전임교원(2000~2016)

주: 〈표 III-3-1〉 참조.



■ 그림 III-3-4 ■ 연도별 전임 및 비전임 외국인 교원수(2000~2016)

주: 〈표 III-3-1〉 참조.

표 Ⅲ-3-1 연도별 설립별 성별 교원수(2000~2016)

(단위: 명)

	전임교원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00	729	637	92	59	55	4	670	582	88
2005	1,673	1,392	281	296	259	37	1,377	1,133	244
2006	1,990	1,646	344	461	411	50	1,529	1,235	294
2007	2,895	2,338	557	553	488	65	2,342	1,850	492
2008	3,097	2,496	601	706	617	89	2,391	1,879	512
2009	5,005	4,124	881	1,702	1,494	208	3,303	2,630	673
2010	5,743	4,678	1,065	1,976	1,713	263	3,767	2,965	802
2011	6,516	5,258	1,258	2,389	2,053	336	4,127	3,205	922
2012	6,689	5,350	1,339	2,512	2,159	353	4,177	3,191	986
2013	7,436	5,905	1,531	2,613	2,227	386	4,823	3,678	1,145
2014	7,677	6,042	1,635	2,801	2,368	433	4,876	3,674	1,202
2015	8,551	6,711	1,840	2,892	2,427	465	5,659	4,284	1,375
2016	8,964	7,060	1,904	3,138	2,631	507	5,826	4,429	1,397

	비전임교원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00	1,331	981	350	61	51	10	1,270	930	340
2005	4,355	3,235	1,120	223	188	35	4,132	3,047	1,085
2006	6,045	4,312	1,733	371	332	39	5,674	3,980	1,694
2007	10,924	7,643	3,281	804	621	183	10,120	7,022	3,098
2008	11,259	7,648	3,611	949	737	212	10,310	6,911	3,399
2009	13,049	8,900	4,149	1,476	1,146	330	11,573	7,754	3,819
2010	13,930	9,481	4,449	1,717	1,360	357	12,213	8,121	4,092
2011	15,323	10,383	4,940	2,103	1,628	475	13,220	8,755	4,465
2012	16,572	11,183	5,389	2,265	1,746	519	14,307	9,437	4,870
2013	16,559	11,112	5,447	2,423	1,850	573	14,136	9,262	4,874
2014	16,513	10,982	5,531	2,480	1,838	642	14,033	9,144	4,889
2015	16,506	10,821	5,685	2,742	2,009	733	13,764	8,812	4,952
2016	16,016	10,488	5,528	2,938	2,188	750	13,078	8,300	4,778

- 주: 1) 2012년까지는 전임교원에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가 포함됨(이하 동일).
 2) 2013년부터는 전임강사 폐지에 따라 전임교원에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포함됨(이하 동일).
 3) 비전임교원에는 겸임교수, 초빙교수, 시간강사, 명예교수, 객원교수, 대우교수, 기타 등이 포함됨(이하 동일).
 4) 2012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전임교원 10명을 비전임교원으로 수정함(전임 6,699명에서 6,689명으로, 비전임 16,562명에서 16,572명으로 변경됨)

표 Ⅲ-3-2 연도별 설립별 외국인 교원수(2005~2016)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전임	비전임	소계	전임	비전임	소계	전임	비전임
2005	221	110	111	13	1	12	208	109	99
2006	262	134	128	5	1	4	257	133	124
2007	414	150	264	18	-	18	396	150	246
2008	437	178	259	19	3	16	418	175	243
2009	572	259	313	41	10	31	531	249	282
2010	677	318	359	77	22	55	600	296	304
2011	855	368	487	154	52	102	701	316	385
2012	929	389	540	152	55	97	777	334	443
2013	963	387	576	171	55	116	792	332	460
2014	860	373	487	165	65	100	695	308	387
2015	842	355	487	145	47	98	697	308	389
2016	872	384	488	180	70	110	692	314	378

표 Ⅲ-3-3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교원수(2016)

(단위: 명)

		전임교원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8,964	7,060	1,904	3,138	2,631	507	5,826	4,429	1,397
수도권	소계	4,871	3,628	1,243	685	575	110	4,186	3,053	1,133
	인문	689	513	176	52	42	10	637	471	166
	사회	1,192	992	200	210	187	23	982	805	177
	교육	307	137	170	8	6	2	299	131	168
	공학	314	287	27	90	82	8	224	205	19
	자연	471	378	93	110	87	23	361	291	70
	의약	1,670	1,167	503	198	160	38	1,472	1,007	465
	예·체능	210	138	72	15	10	5	195	128	67
	소속학과없음	18	16	2	2	1	1	16	15	1
비수도권	소계	4,093	3,432	661	2,453	2,056	397	1,640	1,376	264
	인문	138	108	30	40	29	11	98	79	19
	사회	515	439	76	316	271	45	199	168	31
	교육	154	106	48	26	21	5	128	85	43
	공학	906	848	58	370	342	28	536	506	30
	자연	558	476	82	139	126	13	419	350	69
	의약	1,772	1,426	346	1,555	1,263	292	217	163	54
	예·체능	46	25	21	6	3	3	40	22	18
	소속학과없음	4	4	-	1	1	-	3	3	-
		비전임교원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16,016	10,488	5,528	2,938	2,188	750	13,078	8,300	4,778
수도권	소계	10,596	6,582	4,014	1,048	745	303	9,548	5,837	3,711
	인문	1,753	922	831	71	33	38	1,682	889	793
	사회	3,290	2,480	810	193	163	30	3,097	2,317	780
	교육	1,322	512	810	191	93	98	1,131	419	712
	공학	831	734	97	133	121	12	698	613	85
	자연	789	547	242	105	73	32	684	474	210
	의약	953	520	433	270	205	65	683	315	368
	예·체능	1,482	727	755	69	43	26	1,413	684	729
	소속학과없음	176	140	36	16	14	2	160	126	34
비수도권	소계	5,420	3,906	1,514	1,890	1,443	447	3,530	2,463	1,067
	인문	587	325	262	124	76	48	463	249	214
	사회	994	779	215	405	345	60	589	434	155
	교육	541	246	295	278	138	140	263	108	155
	공학	1,127	1,043	84	353	323	30	774	720	54
	자연	737	583	154	122	86	36	615	497	118
	의약	1,009	708	301	530	427	103	479	281	198
	예·체능	356	179	177	39	18	21	317	161	156
	소속학과없음	69	43	26	39	30	9	30	13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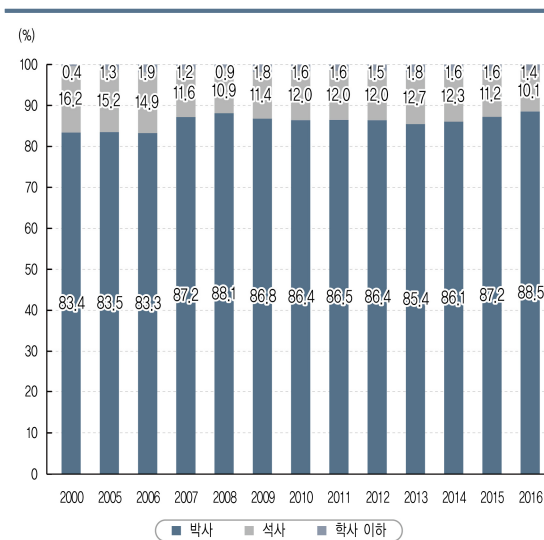
2) 교원의 학위 소지 현황

[그림 III-3-5]과 <표 III-3-4>을 통해 대학원 전임교원의 학위소지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0년 전체 전임교원 중 학사이하 학위 소지 교원은 3명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123명으로 약 41배 증가하였고, 석사학위 소지 교원의 경우 2000년 118명에서 2016년 901명으로 약 7.6배 증가하였다. 박사학위 소지 교원은 2000년 608명에서 2016년 7,937명으로 약 13.1배 증가하여 2016년 학사 이하 학위 소지 교원과 박사학위 소지 교원의 비중은 2000년에 비하여 늘어난 반면, 석사학위 소지 교원의 비중은 줄었다.

한편 지역별로 학위 소지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원 모두 전체 교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8.2%와 88.9%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뒤이어 석사학위 소지자가 각각 10.1%, 10.0%였고, 학사 이하 학위 소지자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표 III-3-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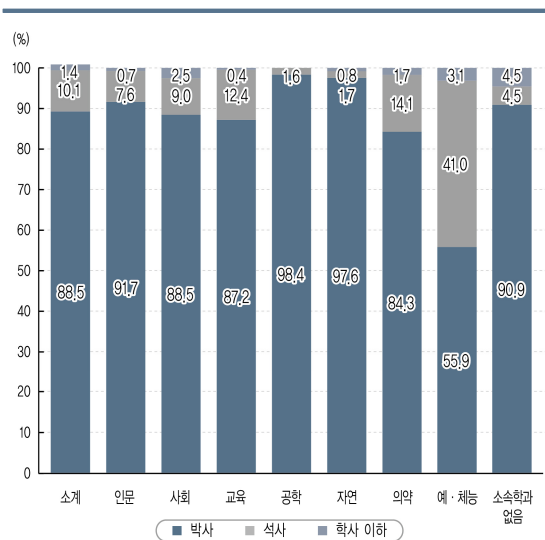
계열별 전임교원 학위소지 현황을 [그림 III-3-6]을 통해 살펴보면, 공학계열(98.4%), 자연계열(97.6%), 인문계열(91.7%) 순으로 박사학위 소지자의 비중이 90%를 넘었다. 한편 예·체능계열의 경우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전체 교원 중 55.9%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계열 중 그 비중이 가장 낮았다.

신규임용 된 전임교원의 박사학위 소지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6년에는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가 전체 신규임용 된 전임교원 149명 중 60.4%(90명)를 차지하였다. 2009년까지 하락하던 국내 박사학위 소지 비중은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6년에는 전체 신규임용 교원 563명 중 68.6%(386명)가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6년 국외 박사학위 소지자의 비중은 31.4%로 2006년 39.6%에 비해 약 8.2%p 감소하였다(<표 III-3-6> 참조).



■ 그림 III-3-5 ■ 연도별 전임교원 학위소지 현황(2000~2016)

주: <표 III-3-4> 참조.



■ 그림 III-3-6 ■ 계열별 전임교원 학위소지 현황(2016)

주: <표 III-3-5> 참조.

표 Ⅲ-3-4 연도별 전임교원 학위 소지 현황(2000~2016)

(단위: 명)

	전체	박사	석사	학사	기타
2000	729	608	118	3	-
2005	1,673	1,397	255	21	-
2006	1,990	1,657	296	30	7
2007	2,895	2,524	337	33	1
2008	3,097	2,729	339	27	2
2009	5,005	4,345	571	89	-
2010	5,743	4,964	689	90	-
2011	6,516	5,636	779	94	7
2012	6,689	5,782	804	99	4
2013	7,436	6,353	947	128	8
2014	7,677	6,607	947	122	1
2015	8,551	7,459	955	135	2
2016	8,964	7,937	901	123	3

주: '기타'에는 국제전문학교 졸업 및 기타의 사유로 정식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한 교원(즉,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가 없는 교원)이 포함됨.

표 Ⅲ-3-5 지역별 계열별 전임교원 학위 소지 현황(2016)

(단위: 명)

		전체	박사	석사	학사	기타
전체		8,964	7,937	901	123	3
수도권	소계	4,871	4,298	493	78	2
	인문	689	635	50	3	1
	사회	1,192	1,087	83	22	-
	교육	307	274	31	2	-
	공학	314	300	14	-	-
	자연	471	447	16	8	-
	의약	1,670	1,429	205	36	-
	예·체능	210	109	93	7	1
	소속학과없음	18	17	1	-	-
비수도권	소계	4,093	3,639	408	45	1
	인문	138	123	13	1	1
	사회	515	423	71	21	-
	교육	154	128	26	-	-
	공학	906	900	6	-	-
	자연	558	557	1	-	-
	의약	1,772	1,471	279	22	-
	예·체능	46	34	12	-	-
	소속학과없음	4	3	-	1	-

주: '기타'에는 국제전문학교 졸업 및 기타의 사유로 정식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한 교원(즉,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가 없는 교원)이 포함됨.

■ 표 III-3-6 ■ 연도별 성별 신규임용 전임교원 박사학위 소지 현황(2006~2016)

(단위: 명)

	전체			국내			국외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06	149	111	38	90	62	28	59	49	10
2007	245	192	53	134	102	32	111	90	21
2008	248	196	52	130	97	33	118	99	19
2009	319	241	78	160	121	39	159	120	39
2010	341	218	123	188	108	80	153	110	43
2011	480	331	149	267	177	90	213	154	59
2012	272	187	85	160	104	56	112	83	29
2013	325	240	85	199	137	62	126	103	23
2014	403	285	118	262	181	81	141	104	37
2015	1,087	856	231	785	617	168	302	239	63
2016	563	424	139	386	280	106	177	144	33

■ 표 III-3-7 ■ 지역별 계열별 성별 신규임용 전임교원 박사학위 소지 현황(2016)

(단위: 명)

		전체			국내			국외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563	424	139	386	280	106	177	144	33
수도권	소계	264	173	91	156	91	65	108	82	26
	인문	58	35	23	30	13	17	28	22	6
	사회	73	58	15	34	25	9	39	33	6
	교육	22	7	15	13	2	11	9	5	4
	공학	29	25	4	18	16	2	11	9	2
	자연	13	13	-	8	8	-	5	5	-
	의약	54	29	25	45	25	20	9	4	5
	예·체능	11	3	8	7	2	5	4	1	3
	소속학과없음	4	3	1	1	-	1	3	3	-
비수도권	소계	299	251	48	230	189	41	69	62	7
	인문	7	6	1	2	1	1	5	5	-
	사회	15	14	1	8	8	-	7	6	1
	교육	6	2	4	4	1	3	2	1	1
	공학	115	106	9	85	80	5	30	26	4
	자연	69	63	6	47	42	5	22	21	1
	의약	85	59	26	83	57	26	2	2	-
	예·체능	1	-	1	1	-	1	-	-	-
	소속학과없음	1	1	-	-	-	-	1	1	-

관련조사 및 자료 / 참고문헌

관련조사 및 자료
참고문헌

01 관련조사 및 자료

■ 교육기본통계(kess.kedi.re.kr)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전체 교육기관에 대한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함
- 교육통계서비스 시스템 운영을 통해 다양한 통계간행물, 유초중등통계, 대학통계, 취업통계, 평생통계 및 국제통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2015년 상반기 고등교육통계조사부터 학생 및 교원의 원자료(개별DB)를 수합하는 ‘고도화조사’가 운영됨에 따라 2016년부터는 집계장표에서 원자료 중심으로 조사 방식이 변경되었으며, 교육기본통계 고등교육 관련 항목은 아래와 같음

■ 고도화 조사

		내 용
학생		① 학생기본정보 ② 입학정보 ③ 재적정보 ④ 학적변동정보 ⑤ 교류정보 ⑥ 졸업정보 ⑦ 자격정보 ⑧ 외국인 유학생정보 ⑨ 현장실습
교직원		① 교원기본정보 ② 학위정보 ③ 임용정보 ④ 경력정보 ⑤ 본직정보 ⑥ 동태정보 ⑦ 강의정보 ⑧ 연수 및 교육훈련
입력장표	학교	① 학교개황
	학생	① 지원자 현황 ② 학생 편제정원 ③ 교원자격증 발급 현황 ④ 계열별 입학정원 ⑤ 명예박사 학위수여 상황
	교직원	① 재직교원수 ② 직원현황 ③ 교직원 연수 및 교육훈련 현황 ④ 교원현황(학제별 추가 입력 사항 : 전문대학,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대학원대학)
	강좌	① 주당개설과목 및 수강인원현황 ② 강좌 개설 및 수강현황(교직강좌, 전공강좌, 사이버강좌) ③ 시간제 등록과정(전문대)

■ 취업통계조사(kess.kedi.re.kr)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 2004년부터 매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를 대상으로 취업통계조사 실시.
- 2006년부터 일반대학원 졸업자에 대해서도 취업통계조사 실시.
- 2004~2009년까지 대학자체조사로 취업통계를 산출하였고, 2010년부터는 건강보험DB와 연계하여 취업자 조사.
- 2012년부터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를 통한 연 2회 취업통계 조사 실시.
 - 1차 조사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조사(조사기준일 : 6월 1일)
 - 2차 조사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조사기준일 : 12월 31일)
- 2015년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로 일원화됨.
- 조사내용의 개요는 아래와 같음

내 용	
학생 인적 정보	- 학교가 학사정보DB로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써, 연계조사와 신뢰도 검증을 위해 필요함 - 학교코드, 본/분교, 단과대학코드, 단과대학명, 학부명, 학과코드, 학과명, 학과소분류명, 주야간구분, 개인식별키, 학번, 성명*, 성별, 집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외국인유학생여부, 예비역여부, 입학당시 취업여부
취업 정보	① 취업자 : 건강보험직장가입자**(건강보험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 ② 진학자 : 국내전문대학/국내대학/국내대학원, 국외전문대학/국외대학/국외대학원** ③ 입대자** ④ 취업불가능자 : 수형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⑤ 외국인유학생 : 외국 국적을 가진 유학생(외국국적 및 재외동포 포함) 및 순수외국인 ⑥ 제외인정자 : 의료급여수급자**, 여자군인 중 임관 전 훈련생,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학과 졸업자,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 ⑦ 기타 : 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진학, 입대, 취업불가능, 제외인정, 미상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⑧ 미상 : 졸업 후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자

주 1. 학생 인적 정보 중 * 표시항목은 취업통계조사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 조사결과 제출 시 자동 삭제됨.

2. 취업 정보 중 ** 표시항목은 공공 DB(건강보험공단, 산업인력공단, 병무청, 국세청, 법무부)와의 연계조사를 나타내고, 나머지는 학교조사로 이루어짐.

02 참고문헌

교육부(1998). 교육 50년사.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한강희 외(2010). 한국전문대학교육 30년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년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계획 및 지침서(대학).

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년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계획 및 지침서(대학원).

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년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계획 및 지침서(전문대학).

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조사 계획 및 지침서.

만든 사람들

교육부

이기봉(기획조정실장)

한 훈(정책기획관)

최보영(교육통계담당관)

이호형, 최형아(교육통계담당관실)

배성근(대학정책실장)

승용배(대학지원관)

최승복(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

엄중흠, 이정자(취업창업교육지원과)

한국교육개발원

김창환(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장)

박성호(교육통계연구센터소장)

조미영, 한호진, 전소열, 문희원, 유재선, 최권능(이상 연구분석서비스팀)

김본영, 김상호, 최나연, 김연천, 손영호(이상 고등교육통계팀)

이기준, 손지혜, 엽승현, 구경아, 장수정, 서수민(이상 취업통계팀)

2016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 고등교육·취업통계편

통계자료 SM 2016-08-02

발행처 : 한국교육개발원

발행인 : 김재춘

발행일 : 2016년 12월

주 소 : (137-791) 서울 서초구 바우뚝로 1길 35(우면동)

인 쇄 : 세일포커스 02-2275-6894

ISSN : 2287-8521

수록된 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교육통계담당관

Tel : 044) 203-6321

Fax : 044) 203-6629

<http://www.moe.go.kr>

대학지원실

취업창업교육지원과

Tel : 044) 203-6880

Fax : 044) 203-6217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

교육통계연구센터

Tel : 02) 3460-0380

Fax : 02) 3460-0120

<http://kess.vedi.re.kr>

